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博士學位論文

長興地域 歌辭文學의 文化地理學的 研究

A study on the cultural geography about gasa(歌辭)
of Janghung(長興) region

朴樹珍

漢陽大學校 大學院

2010年 8月

博 士 學 位 論 文

長興地域 歌辭文學의 文化地理學的 研究

指導教授 李 都 欽

이 論文을 文學博士 學位論文으로 提出합니다.

2010年 8月

漢陽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朴 樹 珍

이 論文을 朴樹珍의 博士學位論文으로 認准함

2010年 8月

審査委員長 이 형 대 (印)

審査委員 김 석 회 (印)

審査委員 박 노 준 (印)

審査委員 정 민 (印)

審査委員 이 도 흙 (印)

漢陽大學校 大學院

목 차

□ 국문요지

I. 서 론	1
1. 문제 제기 및 연구사 검토	1
1.1 문제 제기	1
1.2 연구사 검토	4
2. 연구 대상과 논의의 방향	9
2.1 長興地域 歌辭文學에 대한 정의	9
2.2 연구 대상 및 작자층	11
2.3 논의의 방향	19
3. 文化地理學的 研究方法	21
3.1 문화지리학의 개념	21
3.2 문화지리학적 연구방법	23
II. 地域文學의 개념과 長興地域의 특성	27
1. 地域文學의 개념	27
2. 鄉村으로서 長興의 특성	31
3. 長興地域 文學의 특성	36
III. 長興地域 歌辭文學의 地域文學的 특성	39
1. 自然, 遊覽에 대한 風趣	40
1.1 長興의 風光을 제시한 경우	41
1.2 長興 이외의 風光을 제시한 경우	54
2. 儒敎 倫理에 대한 提示	60

2.1 집단 윤리의식의 강화	61
2.2 警戒, 啓蒙으로서의 유교윤리	70
3. 不正한 官吏에 대한 批判	76
3.1 自然災害와 暴政의 양각화	77
3.2 不條理한 官吏의 諷刺	83
4. 安貧樂道的인 삶 추구	91
IV. 작품에 드러난 文化地理學的 表象	99
1. 中心과 周邊의 位階化	100
1.1 중심의식의 강화	101
1.2 소외된 주변부	108
2. 慾望의 現實化	113
2.1 現實과 幻想의 괴리	113
2.2 종속된 공간의 현실비판의식	121
3. 誇示의 空間化	129
3.1 愛郷의 긍지와 자부심	129
3.2 사회 기능의 강화	135
V. 장흥지역 가사문학의 文化地理學的 의의	144
VI. 결 론	155

참고문헌

ABSTRACT

□ 국문 요지

본고는 장흥지역의 가사문학에 나타난 주제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지리적인 표상과 담론 등을 파악하고자 함이다. 여기서는 단순히 작품에 드러난 공간만이 아니라 주체와 가사텍스트, 공간이라는 세 층위를 통해서 ‘文學’이 ‘文化’로서 해석이 가능한지를 언급하고자 하였다.

長興은 지리적으로 서울과 멀리 떨어진 정남쪽에 위치한다. 長興文學은 다양한 주제로 지금까지 많은 작품들이 창작되고 있다. 물론 어떤 작품 하나만으로 공간에 대해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長興地域 歌辭文學에 드러난 長興만의 공간은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鄉村土族의 경험을 통한 自然을 체험하는 風趣의 공간이다. 작품의 주체인 향촌사족들은 벼슬에 나아가지 못하였으나 지역의 자랑이라 할 수 있는 天冠山을 통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두 번째로는 倫理를 지향하는 敎訓的 공간이다. 가문 구성원들의 결속을 위한 스스로의 규범과 질서를 만들어 門中活動을 활성화 하였다. 세 번째로는 現實批判의 공간이다. 향촌사족은 中央과는 거리상 멀리 떨어져 사는 지형적인 단점을 장점으로 부각시켜 ‘밖에서 안을 바라보는 제 3의 입장’에서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직설적으로 표현하여 부당한 관리를 벌하기도 하였다. 즉, 그들은 역사와 기록을 통해 화려한 그때를 소망하며 고장의 발전을 염원하였다.

또한 長興地域 歌辭文學 속에 드러난 주제를 바탕으로 하여 문화지리적인 표상을 나타내고자 했다. 長興이 가지고 있는 공간사적 명제들을 뽑아 주제들과 연결하여 그 특징을 살폈다. 첫째는 ‘中心과 周邊의 位階化’이다. 이는 중심과 주변의 관계를 정립하고 있는 ‘長興’이라는 공간에서 보이는 중심의식의 강화 의식과 더불어 소외된 주변부 의식을 논하였다. 하나의 같은 공간임에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달라진 사회현상을 이해하고자 했던 것이었다. 둘째는 ‘慾望의 現實化’이다. 이 부분은 ‘現實과 幻想 사이의 괴리 현상’과 ‘종속된 공간의 현실비판 의식’으로 논하였다. 하나의 같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山水自然과 神仙世界와의 관계를 설정한 것이었고, 향촌사회에 대한 비판의식을 통해서 저항과 반발의 양상들을 논한 것이었다. 셋째는 ‘誇示

의 空間化'이다. 향촌사족들이 가지고 있는 愛鄉의 肯志와 自負心을 드러냈으며, 사회 기능을 강화하고자 경험을 반영한 가문 중심의 생활상을 살폈다.

장흥지역 가사문학의 주제적 특징과 문화지리학적 표상은 단순히 문학작품을 해석하기보다는 주제, 대상, 행위와의 관계들을 바탕으로 하여 어떤 표상체계를 드러내는지 논하였다. 즉, 가사 텍스트를 가지고 '長興'이라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문화적 현상이 어떠한지를 언급했던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長興'이라는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지역의 공간적 인식에서 문학텍스트를 기본 자료로 하여 주제, 대상, 행위들과 공간이 어떠한 상호작용을 드러내는지 문화지리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고 본다.

'長興'이라는 하나의 공간에서 발생한 작품들은 기능에 따라 작품의 주제와 권력, 행위, 목적, 표상체계와 창작시기로 나누었다. 이러한 분류는 한 공간에서 발생한 주제, 권력, 행위의 관계를 다양화한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주제, 권력, 행위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이게 된다. 그러므로 주제는 권력에 따라 행위가 변화하기도 하고, 행위에 따라 권력이 형성되기도 한다. 이들 가운데서 어떤 것이 우선이고, 나중이고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이러한 관계들이 서로 다른 목적과 표상체계를 만든다는 것이다.

'文學'은 '文化'를 드러내는 방법 중의 하나이므로, '文化'를 잘 알기 위해서는 '文學'을 깊이 연구해야만 한다. 따라서 필자는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문학 장르인 가사문학을 선택하여 '文化'를 드러낼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문화지리적인 측면을 강조하고자 했다. '長興'은 文化가 담긴 하나의 작은 공간이다. 하나의 작은 시골마을임에도 주제, 행위, 공간 사이가 서로 밀접한 관계를 이루어 표상체계와 주제로써 그 의미를 이끌어내는데 큰 의미를 들만하다.

주제어: 장흥가사, 지역문학, 문화지리학, 공간, 향촌사족, 표상체계

I. 서 론

1. 문제제기 및 연구사 검토

본고는 장흥지역 가사를 중심으로 지역문학이 갖는 보편성과 특수성 사이의 관계를 살펴 지역공간에서의 문화지리적인 특성을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가사문학 연구는 자료를 소개하거나 주석을 두어서 해석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장르 특성을 파악하여 주제별로 구분하여 연구되기도 하였다. 이를 토대로 한 개별 작품론이나 작자층 혹은 향유층에 대한 연구들은 그 사회적 상황들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을 전개하였다. 가사를 현장과 연관시켜 해석한 논문은 많았지만, 지역의 특성과 가사 내용을 평면적으로 연결하는 것에 그쳤다. 이에 필자는 文化와 地理學을 접목시키는 文化地理學的 연구방법을 통해 지역의 공간과 문화, 주제, 표상체계를 아우르면서 입체적, 역동적인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1.1 문제제기

본 연구는 지역성을 강조한 지역문학을 텍스트로 삼아 이를 바탕으로 그 지역만이 가진 문화지리적인 특색을 파악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中央’과 대립되는 개념인 ‘外部’로써의 ‘長興’이라는 한 지역문화의 모습을 살펴볼 것이다. 더불어 湖南의 특정한 하나의 지역으로서 ‘長興’을 선정하여 그곳에서 발생하고 창작된 가사 텍스트에서 ‘長興’의 표상과 담론 등을 지리적, 문화적인 맥락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 모든 것들을 바탕으로 하여 ‘長興’이라는 향촌공간에 작가와 작품이 참여하는 방식과 그 의미에 대해서도 논하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중앙문학과는 다른 소외된 지역문학의 보편성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長興’이라는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는 것이다. 또한, 필자는 이 연구를 통해서 지역문학이라

는 문학사 주변부까지 관심을 확대하는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필자가 장흥지역의 가사작품을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장흥지역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아우르는 가사작품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지역문학의 보편적인 특징은 다른 여느 지방에서처럼 두루 적용되는 중앙과 다른 이분법적인 차별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 작품들은 현실비판의 모습을 보이며, 중앙 집권층에 대한 어리석음과 비판을 한꺼번에 논하였다. 또한, 이 지역은 같은 성씨끼리 모여 사는 전형적인 동족집단을 이룬다. 그러므로 이 지역에서는 가사라는 특수한 장르를 통해서 동족집단의 윤리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작품들을 통해서 長興이라는 지역에서 왜, 어떻게 이러한 가사작품이 형성, 발달하였고, 그 지역의 문학이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느꼈다.

우선, 湖南에서 왜 이렇게 많은 詩歌文學이 발달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호남에서 시가문학이 발달한 이유는 여러 지리적 조건과도 관련이 있다. 湖南은 기후가 온화하고 토질이 비옥하여 생산물이 풍부한 지리적 환경과 빼어난 자연 환경의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어서 예술과 문학이 발달한 고장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湖南은 마한, 백제, 후백제의 근거리로 충청도 지역까지 포괄한 백제문화권에 속했다. 678년에 걸쳐 한강 이남의 남한산성, 공주, 부여로 남하를 거듭해 온 백제는 영산강과 서남해안 일대의 마한세력을 편입하여 독자적인 문화를 정착시켰다. 호남문학은 그것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¹⁾ 호남문학은 서사문학보다는 서정문학이 성행하였다. 즉, 산문 양식보다는 운문 양식이 主流를 이룬 호남은 서사적 진행이 요구되는 이야기조차 노래의 양식인 관소리로 부르기도 하였다. 이 지역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다양한 시가 장르를 개발하거나 기존 시가 장르의 규범을 새롭게 재창조하여 이 지역의 문학풍토와 관련된 문인들의 글쓰기 방식을 완성하였다. 운문에 국한되지 않고 散文의 경우에도 유사한 현상들이 나타나지만, 이는 호남문학의 특성과 관련한 것이다.²⁾

1) 이해준, 「호남지역의 역사와 문화」, 『호남사회의 이해』 (풀빛, 1996)에는 호남문화가 백제보다는 만한의 전통을 이은 문화라는 설도 있었다. 그러나 그 문화는 고고학적으로 추측될 뿐이다. 진정구, 「호남지역 문학작품에 나타난 글쓰기의 특징」, 『현대문학이론연구』 26호(현대문학이론학회, 2005), 263면.

이러한 호남지역 가운데서도 ‘長興’은 지리적으로 전라남도 남해안의 중심부로 서울의 정남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정남진’이라고 불린다. 지형적으로는 東西가 짧고 南北이 긴 형상을 하였으며, 山水가 풍요로운 고장으로도 알려졌다. 또한, 이 고장은 三面이 육지이고 一面이 바다라는 특징을 가진다.³⁾ 이러한 長興의 지형적인 특징은 농업과 어업을 함께 할 수 있는, 자원이 매우 풍부한 곳이다. 또한, 이곳은 名山이 아주 많은 곳으로 風光이 수려하여 ‘山水’를 즐기기에 매우 잘 어울리는 곳이기도 하다. 장흥 탐진강 주변에는 경치가 매우 뛰어나 많은 亭子들이 위치하고 있다.⁴⁾ 이 지역은 다른 마을과는 다르게 ‘傍村’이라 불리는 同族集姓村이 존재한다. 이러한 형성된 동족마을의 대부분은 신분과 지역에 따라 班村과 中人村, 民村 또는 驛村, 店村 등으로 구분된다.⁵⁾ 필자는 이렇게 형성된 동족집성촌이 어떻게 ‘長興’이라는 지역에 형성되었으며, 그것과 관련하여 어떤 門中文化가 발전, 계승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그 때 창작된 가사작품이 그 집단에 어떤 방법으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지리적, 사회적, 문화적 이해 또한 필요하리라고 생각한다.

‘長興’은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지형적, 지리적 특징으로 인해 서정적인 詩歌文學이 형성된 곳이다. 물론, 지형적, 지리적인 특징 이외에도 그 곳에 사는 사람들은 이러한 시가작품들을 형성하고 발전하게 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서 山水를 遊覽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紀行과 관련된 작품들로의 발전을 이루었다. 그런 반면, 장흥지역은 지리적으로 중앙과는 거리가 먼 고장이다. 그러므로 장흥지역의 사람들은 문화적인 측면에서 많은 소외감을 느끼며 살아왔다. 또한 장흥은

-
- 2) 전정규, 「호남지역 문학작품에 나타난 글쓰기의 특징」, 『현대문학이론연구』 26호(현대문학이론학회, 2005), 263~264면,
 - 3) 장흥군, 「1장 자연환경」, 『장흥군지』, 41면.
 - 4) 양기수, 『문림고을 장흥』(장흥문화원, 1999), 15면. 향촌에서의 문화 활동은 벼슬살이의 일과 후, 밤에 이루어지는 서울의 놀이 문화와는 그 성격이 달랐을 것이다. 낮에 주로 이루어진 향촌 사립의 문화생활의 장소로는 堂과 亭을 세워 이루어졌으며, 그곳에서의 문화 활동은 교육과 강학, 자기 수양, 시가활동, 연회 등이 있다. 이희한, 「향촌사회의 문화공간과 가사향유」(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10면.
 - 5) 정진영, 「조선 후기 同姓村落의 형성과 사회적 기능」, 『조선시대 향촌사회』(한길사, 1998), 306면.

사회적으로 동족마을이 형성, 발달한 고장이다. 따라서 그 지역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만의 교훈과 도덕을 목적으로 한 작품들이 창작, 발달하게 된 것도 당연하다.

長興에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유명한 작가들이 많다. 소설가로는 송기숙, 이청준, 한승원 등이 있다. 송기숙의 <녹두장군>, 한승원의 <아제아제바라아제>, <포구>, <불의 딸>, 이청준의 <눈길>, <선학동 나그네>등 많은 작품들이 장흥지역을 배경으로 하였다. 시인으로는 이대흠, 김제현, 김영남, 위선환 등이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장흥지역은 예전부터 현대에까지 문학적인 정서를 가진 고장으로 많은 작가들이 배출된 곳이고, 그 고장을 배경으로 한 작품들이 탄생하기도 하였다.

1.2 연구사 검토

장흥지역 가사문학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는 적지 않다. 하지만 장흥지역 가사문학과 장흥지역을 문화지리학적으로 연관시켜 해석한 연구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된 연구사를 검토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할 수 있다.

필자가 본 지금까지의 장흥지역 가사에 대한 연구는 거의 대부분이 자료의 소개와 주석을 덧붙인 작업 및 작가나 작품의 書誌的 사항을 다룬 논의들은 많이 있었다. 그러다가 다른 작품과 비교하고 고찰한 논문들이 그 뒤를 따르게 되었다. 이러한 논의들은 또한, 학계나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작품들을 위주로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작품인 경우에는 연구가 거의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었다. 본 연구는 지역문학과 지역문화와의 연관성을 찾아서 그 지역에서 왜 그와 같은 작품들이 발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원인을 찾아보고자 함이다. 이는 장르를 불문하고 다양한 작품들을 통해서 장흥지역 가사문학과 장흥지역을 문화지리학적으로 연관시켜 해석해 볼 것이다. 문화지리학적 연구는 없지만 장흥지역을 토대로 한 작품들에 대한 개별적인 논의를 중심으로 연구사를 검토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岐峰 白光弘의 <關西別曲>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기행가사로 알려진 백광홍의 <關西別曲>은 이주홍⁶⁾이 처음 연구하였다. 그러나 그는 <關西別曲>의 작자와 더불어 <關西別曲>을 <箕成別曲>과 <香山別曲>의 두 편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이상보⁷⁾에 의해 다시 바로 잡게 되었다. 岐峰 白光弘의 <關西別曲>은 ‘최초의 기행가사’라는 명예에도 불과하고,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 연구는 김동욱을 비롯하여 정익섭, 고경식 등이 그 뒤를 이어 연구하였을 뿐이다.⁸⁾ 그 이후 <關西別曲>은 다른 기행작품들인 <關東別曲> 혹은 <關東續別曲>과 함께 작품의 형태를 비교하는 연구도 있었으며, <關西別曲>과 <關東別曲>의 형태나 내용, 전승양상 등을 비교하는 작품들이 성행하기 시작하였다.⁹⁾ 그러면서도 <關西別曲>은 최초의 기행가사라는 점에 초점을 두어 텍스트에 드러난 공간을 세분하여 논의한 연구도 이루어졌다.¹⁰⁾

두 번째는 盧明善의 <天風歌>이다. 岐峰 白光弘의 <關西別曲>은 최초의 기행가사라는 표제로 인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반면, 淸沙 盧明善의 <天風歌>는 유명한 작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작품의 특징 또한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天風歌>는 ‘長興의 天冠山’을 배경으로 그곳의 遊覽을 적은 글이다. 이 작품은 처음 이종출¹¹⁾이 학계에 소

-
- 6) 이주홍, 「<關西別曲>- 실전을 전해 오는 고전가사의 내용여하」, 『국어국문학』 13(국어국문학회, 1955).
- 7) 이상보, 「<關西別曲> 연구」, 『국어국문학』 26집 (국어국문학회, 1963).
- 8) 김동욱, 「<關西別曲> 고이」, 『국어국문학』 30집 (국어국문학회, 1965).
정익섭, 「호남지방의 가사고」, 『전남대 논문집』 9집 (전남대학교, 1963).
고경식, 「<關西別曲>과 <출관사>」, 『국어국문학』 36집 (국어국문학회, 1967).
- 9) 이병기, 「<關西別曲>, <關東別曲>, <關東續別曲>의 형태적 고찰」, 『국어문학』 17집 (전북대, 1975).
전일환, 「송강사가와 그 이전 가사의 비교 연구」 (전북대 석사학위논문, 1979).
박덕구, 「<關西別曲>과 <關東別曲>의 비교연구」 (영남대 석사학위논문, 1994).
김영훈, 「관서별곡과 관동별곡의 비교연구」 (목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박 미, 「<關西別曲>과 <關東別曲>의 비교연구」 (조선대 석사학위논문, 2003).
- 10) 김성기, 「백광홍의 <關西別曲>과 기행가사」, 『고시가연구』 14집 (한국고시가학회, 2004).
줄 고, 「<關西別曲>에 나타난 공간인식」, 『동방학』 16집 (한서대 동양고전연구소, 2009).
- 11) 이종출, 「미발표가사, <天風歌> 해제」, 『한국언어문학』 4집 (한국언어학회, 1966).

개하였다. 그는 작품을 발굴하여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으며, 논문에 작품 전문을 소개하고 서지사항을 언급할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그 이후에 유정선¹²⁾은 작품의 창작시기를 17~18세기 초로 보았고, 조선 후기 기행가사의 변모라는 측면에 중점을 두어 작품에 드러난 자연의 묘사를 고찰하였다. 이는 18세기의 기행가사들과 비교하여 다른 양상들을 강조한 논문이다. 또한, 장흥지역 기행가사인 <金塘別曲>과 더불어 비교한 논문도 있었다. 이지영¹³⁾의 논문에서는 두 작품의 유람행위와 그 의미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세 번째로는 守愚翁 魏世稷의 <金塘別曲>이다. 이 작품의 연구 역시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 작품은 배를 타고 ‘金塘島’에 가서 그곳의 풍경을 유람하고, ‘만화도’를 거쳐 돌아오는 길을 생각하며 지은 기행가사다. 이 작품 또한 <天風歌>와 마찬가지로, 이종출¹⁴⁾이 학계에 처음 소개하였다. 이종출은 처음 <金塘別曲>을 소개할 때에는 歌帖에 적혀 있는 대로 三足堂을 작가로 보고 三足堂 魏世寶가 이 작품을 지은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이후에 삼족당의 문집 기록을 확인하여 그의 삼종형이 되는 ‘魏世稷’이 작가임을 밝혔다. 이후 김석희는 조선후기 호남지방 향촌사족층 문학의 사회적 성격을 밝히는 작업에서 <金塘別曲>과 <天風歌>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¹⁵⁾ 그 이후에 박일용¹⁶⁾은 <金塘別曲>에 드러난 선유체험 양상과 의미를 송강정철의 <關東別曲>과 대비하여 좀더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네 번째로는 存齋 魏伯珪의 <自悔歌>이다. 魏伯珪의 <自悔歌>는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스스로 후회하는 노래이다. 이 작품은 孝를 중시하면서 집안 사람들의 화목을 도모하고 결속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위의 <金塘別曲>과 마찬가지로 이종출¹⁷⁾이 처음 학계에 소개하였다. 김석희¹⁸⁾는 魏伯珪의 여러

12) 유정선, 「<天風歌> 연구」, 『이화어문논총』 15집 (이화여대 국어국문학과, 1997).

13) 이지영, 「기행가사 <金塘別曲>과 <天風歌>의 대비적 연구」, 『한국언어문학』 39집 (한국언어문학회, 1997).

14) 이종출, 「위세보의 <金塘別曲>고」, 『국어국문학』 34, 35합병호 (국어국문학회, 1967).

15) 김석희, 「《위문가첩》을 통해 본 조선후기 호남지방 향촌사족층 문학의 사회적 성격」, 『존재 위백규 문학 연구』 (이회문화사, 1995).

16) 박일용, 「<金塘別曲>에 그려진 선유체험 양상과 그 의미」, 『한국기행문학 작품연구』 (국학자료원, 1996).

17) 이종출, 「위백규의 가사 <自悔歌>에 대하여」, 『사대논문집』 4집 (조선대, 1973).

작품들 중에서 주로 사실적인 경향의 작품들을 “생활시”라 명명하여 집중적으로 고찰하였는데, <自悔歌>는 향촌사족층의 노년 현실을 반영한 寫懷性 생활시로 논의하였다. 최상은¹⁹⁾은 魏伯珪가 지은 작품들을 토대로 漢詩, 時調, 歌辭 등의 작품들을 가지고 여기에 드러난 정서와 현실인식 지향을 살폈다.

다섯 번째로는 <勸學歌>이다. 지금까지 <勸學歌>의 작자는 미상으로 전해지지만, 일부 학자들은 이 작품이 魏伯珪의 작품이라고 논하기도 한다. 그 이유는 이 작품이 《魏門歌帖》의 맨 끝에 실려 낙장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에 대해 정확하게 밝혀 놓은 논의가 없으니 작품은 ‘鄕村土族’이라는 작자미상인 채로 남겨두는 게 좋을 듯하다. 이 작품은 다른 여러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이종출²⁰⁾이 학계에 가장 먼저 소개하였으며, 이 외에도 <闕里歌>, <耕讀歌>, <獨樂歌>, <湛樂歌>를 포함하여 5편의 작품을 실어 작품의 형식과 내용적인 면을 드러냈다.

다음은 止止齋 李商啓의 연구이다. 작품으로는 <草堂曲>과 <人日歌>이 있다. 이 작품들 역시 이종출²¹⁾이 처음 학계에 소개하였다. 그는 <草堂曲>과 <人日歌>의 全文을 논문에 실었으며,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후에 발표한 그의 논문에서는 止止齋 李商啓의 도덕적 관념에서 지은 <人日歌>와 隱逸的 혹은 風流的 관점에서 지은 서경적인 <草堂曲>를 언급하였다. <人日歌>는 향촌사회를 배경으로 하여 그들이 지켜야 할 규칙을 만들어 전파하고자 하여 창작된 작품인데 반해, <草堂曲>은 벼슬에 뜻을 이룰 수 없는 鄕村土族의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낸 작품이다.

다음 작품은 현실비관가사로 알려진 <合江亭船遊歌>이다. 이 작품은 <合江亭歌>라고도 부른다. 이 역시 이종출²²⁾이 학계에 먼저 소개하였다. 그는

18) 김석희, 앞의 책, 1995.

19) 최상은, 「18세기 시가의 정서와 현실인식 지향」, 『반교어문연구』 24집 (반교어문학회, 2008).

20) 이종출, 「<勸學歌>, <闕里歌>, <耕讀歌>, <獨樂歌>, <湛樂歌>」, 『어문학논총』 7집 (조선대 국어국문학연구회, 1966).

21) 이종출, 「止止齋 李商啓의 歌辭考」, 『국어국문학』 33집 (국어국문학회, 1966).

이종출, 「<草堂曲>과 <人日歌>」, 『맥』 8집 (조선대 이부대학 학생회, 1968).

이종출, 『한국고시가연구』 (태학사, 1989).

22) 이종출, 「<合江亭船遊歌>고」, 『어문학논집』 7집 (조선대 국어국문학회, 1966).

19세기 말엽에 호남지방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윤성근²³⁾은 이본의 대비, 저작연대, 작자, 사회·지리적인 측면에서 문학사적 위치를 발견하고자 했다. <合江亭船遊歌>는 서민 작가의 의식이 녹아나 있으며, 서민의 현실이 세세하게 그려져 있어, <기음노래>와 함께 서민문학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거론되기도 하였다. 또 <合江亭船遊歌>는 많은 이본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여러 이본들을 대조하고 분석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이중전의 <長恨歌> 연구로는 구성상의 특이한 점을 언급한 논문이 있다. 보통 모든 가사는 일관된 주제를 나타내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 작품은 앞부분과 뒷부분의 성격이 판이하게 다른 점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전반부는 작자의 기구한 생애를 도덕 사상에 근거하여 읊은 것이고, 후반부는 自然探勝을 소재로 하여 金剛山을 遊覽하고자 하는 작자의 소망을 읊은 것이다. 그러므로 한 작품 안에 두 개의 주제 내용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전통적인 가사와는 다른 차이점을 보여준다.²⁴⁾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존의 연구들은 가사작품에만 초점을 맞추어 작품의 주제적, 구조적인 측면을 분석하였고, 이를 토대로 하여 다른 작품과의 비교 양상에 관한 논문들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즉, 이러한 논문들은 작품에 대한 배경 설명 없이 작품을 작품으로만 분석한 경우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논문들에서는 작품을 통한 문화적인 요소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에 필자는 장흥지역 가사문학의 주제적인 특성과 관련하여 작품에서 살펴볼 수 있는 이외의 배경적인 요소들을 찾아볼 것이다. 즉, 지역의 지리·지형적, 문화적인 요소들에 대해 논하여 작품을 ‘文學’에서 ‘文化’로서의 영역으로 넓히고자 한다.

23) 윤성근, 「<合江亭歌> 연구」, 『어문학』 18집 (한국어문학회, 1968).

24) 정익섭, 「愚谷의 <長恨歌>고」, 『한국언어문학』 24집 (한국언어문학회, 1986), 194면.

2. 연구 대상과 논의의 방향

이 논문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장흥지역 가사문학은 장흥지역의 출신 작가와 소재를 두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지게 마련이다. ‘長興’의 공간성을 염두에 둘 때 지역문학의 문제와 연결됨을 알 수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장흥지역 가사문학에 대한 개념을 정의해 보고, 연구대상과 작자층, 논의의 방향에 대해서도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2.1 長興地域 歌辭文學에 대한 정의

필자는 장흥지역의 가사문학을 소재로 선정하였기에 정의를 구체적으로 논할 필요성을 느꼈다. 장흥지역 가사문학의 개념을 설정하기 위해서 ‘主體’, ‘對象’, ‘表現方式’의 세 가지 요소들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主體’이다. 이는 사물의 작용이나 어떤 행동의 주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주체’는 행위를 하는 인물이어야 한다. 여기서는 ‘長興’을 주된 공간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태어나고 거주한 사람을 말한다. 태어나기만 하고 거주하지 못한 사람이 쓴 작품이라면 장흥지역 가사문학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長興地域을 직접 체험해 보지 않고, 지역적 특색을 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두 번째 ‘對象’이다. 대상은 어떤 일의 상대 또는 목표나 목적이 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長興’의 풍물, 지리, 사회문화,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포함한다. 세 번째 ‘表現方式’이다. 이것은 작가의 생각과 느낌, 이미지를 글로 표출하여 3·4 혹은 4·4조의 형식으로, 4음보 율격의 장편연속체인 텍스트로 형상화한 것이다. 위의 내용들을 모두 종합하여 장흥지역의 가사문학을 정의할 수 있다. 즉, 장흥지역의 가사작품은 ‘長興의 지역적 특색을 아는 사람이 長興의 풍물, 지리, 사회문화 등 문화에 관한 것들을 주제로 하여 자신의 생각과 느낌, 이미지 등을 가지고 4음보 율격이며, 3·4조 혹은 4·4조의 양식으로 장편연속체로 형상화한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언급한 主體, 對象, 表現方式의 모든 조건을 만족시킬 때야 비로소 장

흥지역 가사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主體나 對象 가운데서 어느 하나만이라도 포함할 경우에는 넓은 의미로서의 장흥지역 가사문학의 범주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 즉, 主體가 長興에서 태어난 사람이 다른 지역에서 가사작품을 창작했다면, 이는 넓은 의미에서의 장흥지역 가사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長興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주체가 대상을 언급한 내용과 長興의 특성을 드러낸 가사작품이라면 넓은 의미로서 장흥지역 가사문학이라 말할 수 있을 듯하다. 그렇다면 <關西別曲>과 《魏門家帖》²⁵⁾에 실린 작품들은 장흥지역 가사문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關西別曲>은 장흥지역이 아닌 관서지방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다. 지역적인 특성에서는 어긋나지만, 이 작품은 장흥 출신 작가인 白光弘이 지었다고 전하기 때문에 장흥지역 가사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

《魏門家帖》은 長興魏氏 집안에서 내려오는 가첩이다. 그렇다면 《魏門家帖》에 실려 있는 작가는 모두 長興魏氏이거나 그들과 관련된 내용이어야 한다. 그러나 작가가 밝혀지지 않은 작품과 장흥지역에서 출생한 작가가 아닌 경우가 있다. <만고가>와 <合江亭船遊歌>, <勸學歌>가 그러하다. <만고가>의 경우는 박이화가 지은 것으로 영암 출신 작가다. 그러나 <만고가>가 《魏門家帖》에 실려 있는 이유는 아마도 《魏門家帖》의 기록자가 검열적 교정자로서, 혹은 흥미위주의 개작자로서 간여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²⁶⁾ 그러나 <만고가>가 장흥지역 가사문학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대상은 장흥지역을 나타내고 있지 않으면서 다른 지역의 작가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했듯이 장흥지역 사람이 교정자 혹은 개작자로 간여했을지라도 원래 작품의 작가가 정확하게 표기되어 있는 한, 장흥지역 가사문학이라고 볼 수는 없을 듯하다.

<合江亭船遊歌>의 경우를 살펴보면, 공간적 배경은 ‘合江亭’이다. 이는 실제 ‘순창’과 ‘인제’에 있는 누정이고, 장흥과의 연관성을 따져보면 전라도에

25) 《魏門家帖》은 이종출이 《三足堂家帖》이라고 불린 이후에 근래에까지 통용되었다. 그러나 그 후에 장흥지방의 위씨일문에 전해져 오고 있는 가첩이라는 뜻으로 위문가첩이라고 지칭한 것이다. 김석희, 앞의 책, 1995, 311면.

26) 김석희, 앞의 책, 1995, 316면.

속한 순창이 더 가까운 듯하다. 또한, 작품 속에 언급한 ‘정민시’는 실제적 인물로 전라감사를 맡은 인물이었기 때문에 작품의 주요 공간은 순창인 것이다. 이렇듯 《魏門家帖》은 장흥을 비롯하여 영암, 순창에 이르기까지 지역적 배경이 서로 다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고가>를 제외한 작품이 장흥지역 가사문학이라고 말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장흥지역 사람들이 쓰고, 그 지역의 특성을 드러낸 작품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關西別曲>의 경우는 작품의 대상이 ‘關西地方’이지만 창작자인 백광홍이 장흥사람이므로 넓은 의미로서 장흥지역 가사문학의 범주에 넣어야 한다. 또한, <승江亭船遊歌> 역시 작품의 대상은 순창의 ‘옥과현’이지만 창작자는 작자미상인 장흥사족이라고 했기 때문에 넓은 의미로는 장흥지역 가사문학의 범주에 넣어야 하는 것이 옳다.

2.2 연구대상 및 작자층

본고의 연구대상은 長興地域 歌辭文學이다. 전남의 가사문학을 봤을 때, 장흥지역 가사문학은 담양 다음으로 많은 작품들이 존재한다. 필자는 장흥지역이 단순히 소유한 작품이 많다고 연구대상으로 삼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많은 작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토대로 한 개괄적인 연구들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필자는 長興地域 歌辭文學의 지역문학적인 특징을 파악하여 문화지리학적 면에서 어떠한 표상들을 이루고 있는지 언급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하나의 공간으로서의 ‘長興’을 설정하였으며, 장흥지역의 가사문학에서 넓은 의미로써의 의미를 연구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본고의 연구대상의 작품 이름과 작자층, 창작연대, 유형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번호	작자명	작품명	창작연대	유형	수록집	비고
1	白光弘(1522~1556)	關西別曲	1555년	紀行	岐峰集	
2	魏世稷(1655~1721)	金塘別曲	1707년 이전	紀行	魏門家帖	
3	盧明善(1707~1789)	天風歌	18세기 초	紀行	魏門家帖	

4	鄉村士族(長興冠山)	壬癸嘆	1733년경	現實批判	筆寫本	임형택 소장
5	魏伯珪(1727~1798)	自悔歌	1787년	敎訓	魏門家帖	
6	鄉村士族	合江亭船遊歌	1792년	現實批判	魏門家帖	
7	李商啓(1758~1822)	人日歌	1808년경	敎訓	止止齋遺稿	魏門家帖
8	李商啓(1758~1822)	草堂曲	1808년경	江湖	止止齋遺稿	魏門家帖
9	鄉村士族	勸學歌	19세기 초	敎訓	魏門家帖	
10	李中銓(1825~1893)	長恨歌	19세기 초	敎訓	愚谷集	

필자가 연구대상으로 삼은 가사 작품들의 창작시기는 16~19세기이다. 물론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가사 작품들이 창작되고, 계승되어 오고 있다. 장흥지역의 가사작품은 모두 21편에 속한다.²⁷⁾ 창작시기가 알려지지 않은 작품을 제외하고 필자는 연구대상을 16~19세기의 작품들로 제한하였다. 그 이유는 가사 작품이 16세기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歌辭의 면모를 드러냈으며 즉, 최초의 기행가사라 알려진 岐峯 白光弘의 <關西別曲>이 16세기에 창작되었고, 가사작품이 문집에 나타난 시기가 19세기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가사문학의 전성기라 할 수 있는 17~19세기의 작품은 8편에 이른다. 장흥 지역에서 창작된 혹은 장흥지역의 가사문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작품들은 18~19세기에 가장 번성하였으면서도 쇠퇴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가사의 창작 자체가 19세기에 이르러서는 많이 창작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까지도 창작되는 작품들도 있지만 이 작품들은 장흥지역의 특성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필자는 연구대상을 16~19세기 초반으로 작품을 제한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으로 삼은 10편의 작품 가운데서 작자층이 밝혀진 경우는 7편에 이른다. 白光弘, 魏世稷, 盧明善, 魏伯珪, 李商啓, 李中銓이 이에 속한다. 시대순으로 그들의 생애 및 교우관계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인물로 岐峯 白光弘을 꼽을 수 있다. 岐峯 白光弘은 1522년(중종

27) 장흥군에서는 2004년에 이르러 『長興의 歌辭文學』이라는 책을 간행하였다. 이 책에는 <關西別曲>을 비롯하여 29편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물론 이 부분에는 겹치는 작품도 여러 편 전한다. 김석중·백수인, 『長興의 歌辭文學』(장흥군, 2004).

17)에 長興 岐山里에서 三玉堂 世仁과 광산김씨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의 본관은 水原이다. 字는 大裕이며, 號는 岐峰이다. 젊은 시절의 기록은 자세하게 전하지 않다. 선생은 長興에 귀양 내려와 13년간 머물렀던 靈川 申潛에게 학문을 배웠다. 또한 申潛이 태인군수로 있을 때, 申潛을 따라 그곳에 가서 一齋 李恒을 만나 본격적인 학문의 길로 들어섰다. 이 때 김인후나 양응정 등과의 교유도 함께 이루어졌다. 그는 石川 林億齡, 河西 金麟厚, 栗谷 李珥, 高峰 奇大升, 松江 鄭澈, 淸蓮 李後白, 白湖 林悌와 같은 당대의 이름난 군현들과 인연을 맺고 시를 주창하기도 하였다. 선생은 28세(1549년) 때 부명으로 과거에 응시하여 사마양시에 급제하였고, 3년 뒤인 1552년에 대과에 급제하여 홍문관정자에 제수되었다. 湖堂 시절에 왕명으로 영호남 문사들이 한자리에서 詩藝를 겨루었는데, 「冬至賦」 한편으로 그 도저한 학문과 문예를 인정받아 장원에 뽑혀 시명을 드날렸다. 상으로 《選試》 10책이 지금까지 문중에 전한다. 왕의 총애가 두터워 1555년 평안도평사가 되었으나 이듬해 가을 병이 들었고, 고향으로 돌아오던 길에 부안 처가에서 세상을 떴다고 전한다. 그의 문집은 간행까지 참으로 험난한 우여곡절을 겪었다. 임병양관을 겪으면서 집안에 남아 있던 遺稿는 대부분 유실되었고, 겨우 남은 것은 열에 한 둘 뿐이었다. 선생이 돌아가신 후 300년이 지난 1846년에 후손이 洪直弼의 서문과 묘갈명을 받아 遺稿를 上下 2권으로 묶어 문집의 모양을 갖추었다. 1860년 古阜에서 문중 사람이 간직해 온 선생의 친필인 <詩山雜詠>과 관서 땅에 부임할 당시 체현들이 써준 친필본이 수습되면서 이에 <關西別曲>을 더하여 1899년에 《岐峰集》을 간행하였다. 여기에는 賦長篇 9수, 五言絶句 10수, 五言律詩 21수, 七言絶句 58수와 七言律詩 16수, 七言倍律 1수, 七言古詩 11수, <詩山雜詠>으로 각 체 46수와 가사작품인 <關西別曲> 1수가 실렸다. 부록으로 체현들의 수창시와 만사 등이 있고, 현재는 岐峰의 시는 각체를 망라하여 175수가 전한다.²⁸⁾ 지금 남겨진 《岐峰集》은 2005년에 이르러서야 장흥지역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어 《岐峰集》이 완역되기도 하였다.²⁹⁾

28) 정 민, 「岐峰 白光弘의 人間과 文學世界」, 『한국학논집』 38집(한양대 한국학연구소, 2004), 84~85면.

두 번째 인물은 淸沙 盧明善이다. 『光山盧氏族譜』에 그의 후손이 쓴 行狀 <淸沙公家狀>이 실려 있어 소략하나마 그의 생애를 살펴볼 수 있었다. 그는 光山 사람으로 全南 長興에서 태어났다. 그의 호는 淸沙 또는 玉川으로, 그의 집안은 대대로 중앙정계로 진출하였던 사대부 집안이었다. 그러나 그의 고조에 이르러 지방 관리에 머무르면서 한미해진 것으로 나타난다. 이후 부친 相忠도 말단 지방관에 머무르면서 점차 가세가 약화된다. 이후 淸沙는 문장으로 이름을 날렸으나 일찍 과거공부를 폐하고, 修身하고 학문을 힘썼으며 後進을 教授함으로 업을 삼았다. 당시 그의 향리로 유배를 왔던 노봉 민정중의 문하에서 잠시 수학했다고 한다. 성품은 본시 지극히 효성스러웠으며, 外艱喪을 당했을 때는 슬퍼하고 야위기를 예법에 넘게 하였으며 廬에서 삼년을 거했다고 전한다. 만년에는 金莊山에 들어가 은거하였으며, 평생 출사하지 않았다고 한다. 盧明善 역시 관직에도 진출하지 못한 것은 그의 집안이 몰락해서였다.³⁰⁾ 이 때문에 그에 관한 문집이나 年譜는 전하는 것이 없으며, 그의 행적 역시 이에 대한 기록이 전부라고 한다.³¹⁾

세 번째 인물은 魏世稷이다. 그의 본관은 長興이며 字는 虞卿, 號는 守愚翁이다. 그는 1655년에 冠山邑 傍村에서 태어났으며, 태어난 곳에서 처사로 살다가 1721년에 졸하였다. 그는 전형적인 향촌사족으로 숙종 때 長興에서 적거 생활을 했던 老峰 閔鼎重과 특별한 교분을 가짐으로써, 장흥의 향촌사족 위씨일문과 당대의 벌열이었던 三房派 여흥민씨 사이의 연결고리가 되기도 한 인물이다. 그는 또한 魏伯珪의 조부인 三足堂 魏世寶의 삼종형으로 알려진 인물이기도 하다. <金塘別曲>이 처음 소개되었을 때는 ‘三足堂 魏世寶’의 작품으로 알려졌었다.³²⁾ 그러나 이종출에 의해 ‘魏世寶’가 아닌 ‘魏世稷’의 작품으로 밝혀졌다.³³⁾ 魏世稷에 대한 기록은 따로 전해지지 않으며,

29) 백광홍, 정 민 역, 『岐峰集』 (역락, 2005).

30) 노형식, 『光山盧氏參議公派譜』 卷之一, (羅州郡, 光山盧氏參議公派譜所), 108~109면.

31) 유정선, 「<天風歌> 연구」, 『18, 19세기 기행가사연구』 (역락, 2007), 283~284면.

32) 이종출, 「위세보의 <金塘別曲>고」, 『국어국문학』 34, 35집 (국어국문학회, 1967) 435~436면.

33) 위세보의 문집 《石屏集》 속에 “三從兄作 金塘別曲”이라는 기록에 의해 그의 삼종형인 위세직(1655~1721)에 의해 지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종출, 「<金塘別曲> 해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제 4권, 205면에서 인용하였으며, 김석희, 앞의 책, 1995, 310면에서 재인용하였다.

문집으로도 전해지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金塘別曲>만이 三足堂의 작품으로 가첩에 실린 대로 전해지고 있을 뿐이다.³⁴⁾

네 번째 인물은 存齋 魏伯珪다. 그는 英祖 3年인 1727년 5월 15일에 전라도 長興에서 태어났다. 字는 子華이며, 號는 存齋 또는 桂巷居士라 하였다. 어린 시절 그는 학문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다. 그는 스스로 經書를 공부하고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바르게 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英祖 27年인 25세 때는 尹鳳九를 스승으로 정하였다. 따라서 위백규의 학문에서 그 깊이가 깊어졌으며, 주로 성리학에 매진하며 과거를 위하여 본격적으로 정진하게 되었다. 이 기간 중에 初試와 覆試 등의 시험에 합격하였으며, 향촌의 향민 교육에도 힘썼다. 32세 때는 《寔瀛誌》를 기술하는 등 성리학 이외의 학문에 대해서도 꾸준한 관심을 보였으며, 민생 현실을 다루는 시를 짓는 등, 현실에 대한 의식도 잘 드러냈다.³⁵⁾ 스승인 尹鳳九가 별세한 후에는 부정과 부패로 물든 과거를 스스로 포기하고, 이내 傍村에 내려가 직접 밭을 갈며 글을 읽기도 하였다.³⁶⁾ 당시 耕作을 하면서 생활시를 지었으며, 향촌을 부흥시키기 위한 향촌 교육에도 힘썼다고 전해진다. 詩에는 鄉村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었으며, 궁핍한 백성들의 현실을 묘사하여 이를 도외시하는 爲政者들을 비판하기도 했다. 또한, 家門子弟들의 모임인 家中四時會를 결성하여 성리학적 가정의 모습을 만들고자 했다. 40대 이후에 이르러서 魏伯珪는 여러 작품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을 솔직하게 드러냈다. 그는 노년에 들어 다양한 저술활동을 펼쳤고, 鄉村의 질서를 바로 잡는데 힘쓰기도 했다. 그는 1796년 70세의 나이에 불구하고 옥과현감에 제수되어 牧民의 경륜을 실행하였다. 그러나 경제의 뜻을 펴기에 노약하다고 여겨 <만언규사>를 제작하고 사직을 원했다. 그러나 正祖는 허락하지 않았다.³⁷⁾ 그는 더 이상 老病으로 부임하지 못했고, 72세 되는 1798년 11월 25일에 세상을 떠났다. 그는 많은 저서들을 남겼다. 《寔瀛誌》를 바탕으로 하여 《去病書》, 《政鉉新譜》, 《四書筭義》, 《格物說》 등의 많은 글들이 있

34) 김석희, 앞의 책, 1995, 312면.

35) 위홍환, 「위백규의 시문학연구」(조선대 박사학위논문, 2005), 20~21면.

36) 《存齋全書》上, 卷之十八, <年譜>, 552면.

37) 《存齋全書》上, 卷之十八, <年譜>, 557면.

고, 18세기 향촌사족의 한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낸 <年年行>, <農家九章>, <自悔歌> 등의 국문시기도 존재한다. 또한 문집으로는 《存齋集》이 있고, 이를 모두 모아 놓은 《存齋全書》도 있다. 그는 여러 작품을 써서 향촌사족들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그는 호남실학을 대표하는 인물이며, 지금까지도 장흥 방촌의 장흥위씨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손꼽히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작품 가운데 작가가 밝혀지지 않은 작품들인 <合江亭船遊歌>나 <勸學歌>는 모두 魏伯珪의 작품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³⁸⁾ <壬癸嘆>을 제외하고는 다른 두 작품은 위씨문중에 전하는 《魏門家帖》에 실린 작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작가가 밝혀지지 않은 작품들은 18세기에 지어진 향촌사족이라고 하였고, 이를 다시 魏伯珪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 <勸學歌>는 작품의 창작연대가 밝혀져 있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백규의 유교적 덕목과 사상으로 보아 <勸學歌>도 위백규의 작품으로 보고 있다.

여섯 번째 인물은 止止齋 李商啓이다. 李商啓는 벼슬에 나아가지 못했고, 草野에 묻혀 살았던 선비이다. 李商啓에 대한 기록 많이 남아 있지 않지만 그의 문집이 남아 있다. 李商啓의 字는 君沃, 호는 止止齋 또는 觀松이라 하였다. 본관은 仁川으로 남강 이승(1556~1628)의 7대손으로 전해진다. 그는 1758년에 출생하여 1822년까지 생존했다. 그 가운데 16세 때에는 모친과 사별하고, 49세 되는 때에는 부친과 사별하였다. 그는 목촌(용산)에서 태어났고, 청년기에는 과거에 뜻을 두고 과업에 전념하였다. 그러나 家勢의 빈곤하였고, 年老한 兩親의 奉養을 위해 家業에 종사하였다. 만년에는 아양골 계곡에 초당을 짓고, 거문고와 독서를 업으로 삼아 여생을 보냈다고 한다.³⁹⁾ 또한, 이상계는 스스로 이약을 만들어 향민을 교화하는 데에 힘썼고, 동몽 교육에도 남달리 애썼다고 전한다. <人日歌>로 널리 후세에 칭송되었다. 노사기정진은 ‘李商啓의 <人日歌>는 사람들마다 읽어 익히고 옮겨 적을 만하다’고 하였다. 그의 다른 작품인 <草堂曲>은 속된 세상을 벗어나 자연을 벗삼아 安貧樂道하는 작자의 심정을 읊은 글로 그의 노년 시절에 지어진 작품이라고 알려졌다. 이 작품은 자신의 처지에 수긍하며 벼슬에 나아가고 싶으나

38) 이상보, 『18세기 가사전집』 (민속원, 1991).

39) 《止止齋遺稿》, 行狀 편.

쉽게 나아가지 못했던 향촌사족들의 심정을 절실히 표현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그의 문집으로는 《止止齋遺稿》 2권 1책이 있다. 거기에는 漢詩 80여수가 있으며, 2편의 歌辭가 전한다. 2편의 가사는 자연을 즐기는 기쁨을 노래한 <草堂曲>과 鄉村의 교화를 위해 인륜도덕을 설명한 <人日歌>이다.

일곱 번째 인물은 愚谷 李中銓이다. 字는 和執, 號는 愚谷이다. 1825년 5월에 全羅南道 長興郡 夫山面 金子里 觀閒 부락에서 나서 1893년 7월에 6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떴다. 그의 가계를 살펴보면 曾祖는 幽菴處士 李光鼎, 祖는 李昌坤, 父는 李在東이다. 奇字萬이 편찬한 遺事와 愚谷의 族系 李守根이 쓴 전에는 愚谷의 가계에 대해 적어 놓았다. 愚谷의 生涯는 연보가 없어서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그의 遺事, 墓誌銘, 傳, <長恨歌> 등에 나타난 것으로 보면 1~11세까지는 나라가 태평하고 풍년이 든 때여서 好衣好食하며 호강하였고, 12세에 이르러서는 母親喪을 당하여 祖母와 繼母 安氏 밑에서 양육을 받았다. 이때부터 晝齋에 들어 공부를 하였고 <史略>, <通鑑>, <中庸>, <大學> 등을 읽었다고 전한다. 22세 때는 嚴親喪을 당하고 3년간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며 상을 지냈다. 그 후에 家勢가 기울어져 빈한한 살림을 하여 농사에도 종사하였다. 37세 때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이어 아내를 잃으니 憂患이 겹쳐 불행한 나날을 보냈다. 그렇게 또 3년상을 마친 후 40세에 아들 洙命을 장가들여 며느리를 얻었다. 그 후에 愚谷이라 自號를 사용하고 閑人생활에 들어갔다. 愚谷은 독서와 시를 짓는 것을 즐기며 童蒙訓學에 힘쓰면서 山水自然을 探勝하여 悠悠自適하며 일생을 보낸 듯하다. 그의 遺稿로는 <愚谷集>이라는 한 권의 책이 있다. <長恨歌>는 내용상 특색이 있는 작품이다. 대체적으로 가사작품은 일관된 주제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상례인데, 이 가사는 전반부는 작자의 기구한 생애를 그린 도덕적인 작품인데 반해, 후반부는 자연승경을 희구한 작자의 소망으로 읊은 것이다. 한 작자의 생애가 가사라는 문학형식을 통해 노래되었다는 것과 律調의 흐름이 유창하여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흥취를 자아내게 하는 것이 이 가사의 묘미이기도 하다.⁴⁰⁾

40) 정익섭, 앞의 논문, 1986, 194면, 196~197면.

위에서 언급한 장흥지역의 작가들인 白光弘, 盧明善, 魏世稷, 魏伯珪, 李商啓, 李中銓은 모두 長興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다. 白光弘이 활동한 조선 전기에 湖南詩壇은 호남지방의 사림계 인사들이 대부분 출신 성분과 학문적 지향이 공통점을 띠고 있었다.⁴¹⁾ 그러나 조선 후기에는 향촌사족들이 문학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가사문학의 주요한 작가층이라 하는 향촌사족들의 이념이나 세계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창작한 문학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리라고 본다. 그 문학에는 작가의 윤리의식이나 교훈 등을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조선 초기의 白光弘은 관직에 나아갔으며, 평안도평사에까지 이르렀던 인물이다. 그를 제외한 대부분의 작가들은 모두 향촌에 머물러 살았던 사족들이었다. 벼슬을 맡아 진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향촌사족들은 그들의 사회적, 경제적 기반을 鄕村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 일반적으로 향촌사족들은 정치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몰락한 층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는 주로 그 근거를 작자들의 行狀 기록에서 찾고 있는데 그것만으로 경제적 상황을 단정하기에는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상황에 대한 표현이 청빈을 존경하는 당대의 전통 속에서 하나의 수사적, 관용적 차원에서 쓰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⁴²⁾ 향촌사족의 영세한 경제적 측면을 강조하여 고찰한 경우가 있으며, 다른 하나는 지리적, 문화적, 사상적 특성에서 고찰한 경우가 있다. 이들의 특징은 대부분 관직에 진출한 경험이 없었으며, 그들은 일생을 향촌에서 보낸 인물이 대다수였다. 지역적으로 호남출신의 작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아마도 지리적, 정치적 이유 때문인 듯하다.

41) 이해준, 「조선중기의 호남사림과 임억령」, 『석천 임억령의 문학과 사상』 (광주광역시편, 1995), 36~38면.

42) 최현재, 「박인로 시가의 현실적 기반과 문학적 지향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04), 21~22면.

2.3 논의의 방향

본고의 논의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II장에서는 기존에 있던 지역문학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지역문학이라고 언급한 장흥만의 특징을 드러내고자 한다. 또한, 장흥이 다른 향촌지역과 어떤 차이를 드러내는지 알아보고, 장흥지역 문학의 특성에 대해서도 논할 것이다.

III장에서는 장흥지역 가사문학의 지역문학적인 특징을 언급하겠다. 지역문학은 그 지역의 특성을 언급해야 한다. 그러므로 주제에 대해 작품을 짓게 된 이유들에 대해서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다시 4개의 특성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로는 自然, 遊覽의 風趣이다. 아름다운 경치를 지닌 장흥의 지형적 특성을 드러내고자 한다. 이 부분은 두 개의 공간으로 나누었다. 長興의 風光을 제시한 경우와 장흥 이외의 形狀을 제시한 경우가 그러하다. 장흥지역의 경우는 천관산을 중심으로 長興의 自然을 아름답게 표현할 것이고, 만화도와 금당도의 풍경의 신비로움을 논할 것이다. 다른 공간으로 장흥지역이 아닌 경우로 관서지방과 금강산을 언급하고자 한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關西別曲>의 공간은 관서지방이다. 작가 白光弘이 임금의 命을 받고 평안도로 가는 길에 관서지방을 유람하면서 쓴 글로, 관서지방의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을 논한 작품이다. <長恨歌>의 공간은 금강산이다. 작가 이충전은 아름답고도 신비한 금강산을 가고자 하는 염원을 담아 쓴 작품이다. 두 작품 모두 長興의 공간을 나타내고 있지 않지만, <關西別曲>, <長恨歌>의 형상화 과정과 작가의 내면의식이 장흥지역을 유람한 다른 작품들과 서로 같음을 논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儒教倫理의 提示이다. 유교는 조선시대의 기본사상이다. 長興의 동족마을인 '傍村'을 중심으로 하여 그 집단 사이에서 일어나는 윤리의식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유교 윤리에서 지역적으로 어떤 특징들을 부각시켰는지 알아보고, 그 규범들을 바탕으로 향촌구성원들의 단결을 고취시키는 목적을 드러낼 것이다. 이러한 집단적 생활에 두고 작품을 통해 윤리의식을 강화한 부분과 警戒, 啓蒙의 유교윤리로 나누어 설명하겠다. 세 번째로는 不正한 관리에 대한 비판과 관련

된 부분이다. 서울과 멀리 떨어져 있는 지리적 특성을 토대로 중앙관리들에 대한 비판을 드러내고자 한다. 즉, 중앙관리로서 不條理한 모습을 풍자하고 있으며, 壬癸年에 있었던 크나큰 자연재해를 통해 부조리한 관리들의 暴政의 모습에 대해서도 설명할 것이다. 네 번째로는 安貧樂道の 삶의 모습에 관한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향촌사족은 관직과는 거리가 먼 安貧樂道の 삶을 영위하지만, 이 작품을 통해서 長興地域 향촌사족이 지닌 安貧樂道の인 모습을 살피고자 한다.

IV장에서는 가사문학 속에 드러난 文化地理學的 表象에 대해 검토하겠다. 이는 위에서 살핀 지역문학으로서의 장흥지역 가사문학을 공간적인 부분을 부각시킨 경우라 할 수 있다. 그 첫 번째로는 中心과 周邊의 위계화 부분이다. 장흥은 고려시대 왕비가 태어난 고장이라는 의식으로 항상 중심부 의식을 지녔었다. 그러다가 장흥지역 사람들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 주변으로 밀려 소외된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한 공간에서 일어난 현상으로써 장흥에서 보이는 향촌사족을 중심으로 한, 중심 의식이 강화된 측면과 더불어 소외된 주변부 의식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두 번째로는 慾望의 現實化 현상이다. 이 부분에서는 하나의 주제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를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즉, 長興은 天冠山이라는 지역의 특징을 담은 하나의 공간임에도 現實과 幻想의 괴리 현상이 발생하게 된 이유를 논하면서 자연과 신선세계와의 관계를 살피고자 한다. 또한, 종속된 공간의 현실비판 의식을 통해 저항과 반발의 양상을 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誇示의 공간화이다. 작품에서 드러난 향촌사족들이 갖는 애향의 긍지와 자부심을 장흥지역에 위치한 天冠山과 그 주변지역을 통해서 찾아보고, 얼마나 아름다운 고장인지 언급하여 고향의 자연 풍경을 어떻게 나타냈는지 살펴볼 것이다. 또한, 鄉村의 기능이 강화된 부분으로 長興 魏氏家門을 중심으로 어떠한 생활상을 드러냈는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V장에서는 장흥지역 가사문학의 문화지리학적 의의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위에서 언급한 장흥지역 가사문학의 지역문학적 특성과 더불어 문화지리적인 표상을 통해서 주제, 대상, 행위 등의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따라서 이에 드러나는 장흥지역 가사문학의 의의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3. 文化地理學的 研究方法

인간이 사는 지구는 하나의 공간이다. 이러한 공간은 텅 비어 있는 자리나 빈 곳이 아닌 상징과 의미로 가득한 곳이다. 또한, 단순히 대상이나 실체가 존재하고 배열되어 있는 공간이 아니라 인간 주체가 여러 실천을 행하면서 체계모니와 권력 투쟁을 벌이는 역동적인 공간이자 주체의 욕망과 지향성에 따라 점유하고 변화시키는 세계이다. 더불어 공간은 다른 공간과 관계 속에서 자본, 권력, 상징의 차이에 의해 다른 위상을 갖는 관계의 다발을 형성한다. 이러한 공간은 지리학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지리학은 바로 인간의 삶에서 일어나는 공간을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이다.⁴³⁾

3.1 文化地理學的의 개념

地理學은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 공간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즉, 인간이 살아가는 공간을 나타내는 인문, 자연현상의 분포와 상호관계 등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地理學은 넓은 의미로 자연지리학과 문화지리학으로 나눌 수 있다. 문화지리학은 ‘文化’와 ‘地理學’을 접목한 학문이다. 이는 文化에 관한 아이디어를 지리학적인 문제에 적용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⁴⁴⁾ 다른 의미로서 文化地理學은 문화적으로 결정된 인간 활동 그리고 특히 문화 집단이 경관의 개발, 승관의 형태, 경관성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다루는 지리학의 한 분야라고 말한다.⁴⁵⁾ 기존의 文化地理學은 단순히 지리적인 부분을 드러

43) 이도흠, 「서울의 사회문화적 공간과 그 재현 양상 연구」, 『기호학연구』 25집(한국기호학회, 2009), 52~63면. 이 학위 논문은 이도흠의 이 논문과 「마당: 열림과 닫힘의 세미오시스」, 『기호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집』, 2010년 4월(『기호학연구』 27집에 재수록)에서 제시한 공간과 주체, 권력, 표상, 의미와의 관계에 대해 문화기호학적 관점에서 기술한 것을 이론과 방법론으로 삼아 장흥지역의 가사 작품과 장흥지역에 적용하여 그에 나타난 주체, 권력, 표상 관계를 분석한 것이다.

44) Wagnern P.L. and M. W. Mikesell, "The Themes of Cultural Geography: in P.L.Wagner and M.W.Mikesell(eds.) Readings in Cultural Geography(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2), 1면. 강학순, 앞의 논문, 1990, 190면에서 재인용하였다.

45) Mark D. Billinge, 1981, op. cit., footnote(5), 63면.

내며, 문화적 특수정보보다는 지형적 특색만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요즘의 文化地理學은 ‘文化’가 발생한 공간의 다양성에 초점을 두고, 문화집단 사이의 공간적 다양성과 함께 사회의 공간적 기능에 대한 다양성을 연구한다.⁴⁶⁾ 인간활동은 크게 보아 정치적 활동, 경제적 활동, 사회적 활동, 그리고 문화적 활동으로 나누는데, 정치적 활동을 공간- 지리적으로 다루는 것이 정치지리학이라면, 경제지리학은 경제적 활동이고, 사회지리학은 사회적 활동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문화지리학은 공간- 지리적으로 다루는 문화적 활동을 뜻한다.⁴⁷⁾ 즉, 공간 문화는 문화적 요소와 지리적 요소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을 가리킨다.

文化地理學은 人文地理學과 같은 범주에 포함하기도 한다. 人文地理學은 처음에는 歷史地理學으로 바뀌었고, 그 후에는 文化地理學으로 바뀌었다. 그러다가 다시 人文地理學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歷史地理學과 文化地理學은 지리학 안에서도 오랜 과거부터의 시간을 다루어 줄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로 간주된다. 인간이 지닌 문화는 인간이 거주하고 있는 장소의 자연환경이나 인문, 사회 환경의 영향을 받아 하나로 집적되어 축약된 형태로 표출되어지는 개개인의 생활양식을 지칭한다. 다시 말하면, 文化는 인간이 태어난 후 직, 간접적인 경험이나 학습에 의해 획득하는 행동, 이념, 생계방법, 기술, 가치체계, 사회조직을 총칭한다. 따라서 인간이 지닌 문화는 그 인간이 살고 있는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민족성, 사용하는 언어, 종교, 사회현상, 경제활동 등의 영향을 직, 간접적으로 받아 형성된다. 문화지리학은 바로 인간이 지닌 이러한 문화가 유형 또는 무형으로 공간상에 어떻게 표출되어지며, 이러한 특정한 문화를 지닌 집단 또는 개개인 사이의 공간적 다양성과 기능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더구나 지리학이 지닌 이중적 구조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학문 분야이기도 하다.⁴⁸⁾ 하지만 文化地理學은 ‘文化’를 강조하는 점에서 人文地理學과는 약간 다르다.

46) L. Rowntree, 1974, The Human Mosaic(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4면.

47) 임덕순, 『文化地理學』(법문사, 1996), 19면.

48) 이혜은, 「문화지리적 관점에서 본 도시」, 『문화지리와 도시공간의 표상』(2010년 5월 28일 동국대 문화학술원, 한국문화연구소 학술발표요지집), 1면.

3.2 文化地理學的 研究方法

본 연구에서는 文化地理學的 方法論을 선택하고자 한다. 공간은 주체의 행위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다양한 주체들이 끊임없이 의미작용을 일으키는 동시에, 주체들이 가진 세계관과 空間觀, 時間觀, 志向性과 놓인 맥락에 따라서 그 의미와 기억이 정박하는 터이다. 空間은 공시적으로, 통시적으로 다른 의미들을 지니게 되며 그 의미들로 하여금 새로운 공간의 의미들을 형성하게 된다.⁴⁹⁾ 여러 지리서에서 드러나는 공간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존재한다. 하지만 나라가 변화하고, 사회가 바뀔에 따라서 地名과 더불어 그 역할도 바뀌게 되었던 것이다.

‘空間’은 靜態的인 것이 아니라 인간 주체에 의해 끊임없이 변동하는 力動的인 場이다. 이에 長興의 文化地理學이라고 하는 것은 長興에서 태어나고 거주한 鄉村土族層이라는 주체가, 長興이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長興地域의 產物과 山川에 대해 어떤 실천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실천행위의 하나로써 어떤 의미와 상징을 만들어내는데, 가사 텍스트란 이러한 실천행위가 한국어라는 언어를 매개로 구현된 문화적 상징의 의미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장흥지역에서 발생한 가사 텍스트를 바탕으로 하여 ‘長興’이라는 공간이 지니는 특성을 토대로 주체, 대상, 행위 등을 가지고 작품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분석하고 종합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주체와 대상과의 관계를 살펴보자. 이는 주체 앞에 드러난 대상으로서의 공간을 의미한다. 즉, 自然은 인간인 주체에 대상으로 존재하는 공간이다. 이러한 自然은 지역에 따라 풍경들이 매우 다양하다. 처음 自然에 의해 생성된 ‘空間’은 自然景觀을 토대로 하여 아름다움을 드러낸다. 한가한 생활을 즐기는 인물이라는 주체에 의해 혹은 그곳에 살고 있는 인물들에 의해 그곳의 自然景觀을 부각시킬 수 있는 곳으로 ‘自然’을 꼽을 수 있다. 이미 형성된 自然은 自然 그대로 받아들여 주체 앞에 드러난 대상으로서의 공

49) 이도흠, 앞의 논문, 2009, 52~53면.

간을 언급한 것이다. 이는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아름다운 자연을 스스로 찾아다니면서 ‘遊覽’의 행위를 통해서 공간을 만들어냈다. 대부분 山水가 함께 존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이는 自然·遊覽의 場으로 표현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주체와 행위와의 관계이다. 주체는 공간에서 행위를 하고 각 주체들의 행위는 권력을 형성한다. 공간에서 권력을 형성하는 요인은 계급과 신분, 성, 나이, 지식, 자본이다. 여섯 범주에서 상층에 있는 자들은 하층에 있는 자들에 대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유지되기를 바라지만, 하층에 있는 자들은 이에 복종하는 가운데 이상의 공간을 가슴에 품고 이를 공간에 구현하고자 끊임없이 저항하면서 기억 투쟁과 인정 투쟁, 권력과 헤게모니 투쟁을 벌인다.⁵⁰⁾ 계급사회의 경우 공간상의 권력은 더욱 노골적으로 나타난다. 그 가운데서도 조선시대에는 신분과 성별이 권력을 이루는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가장 높은 권력을 가진 주체는 신분상으로는 양반이어야 하고, 성별로는 남성이어야 한다. 거기에 또한 자본과 나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와 반대로 가장 낮은 권력은 신분상으로는 천민이고, 성별로는 여성이어야 한다. 거기에 자본이 없으며, 나이도 어려야 한다. 이러한 권력은 공간을 소유하기도 한다. 그런 과정에서 권력이 낮은 사람들은 권력에 반발하여 불만을 표출시키기도 한다. 조롱이나 풍자의 경우는 권력이나 계급이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높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이다. 그러나 ‘長興’이라는 공간에서는 가장 낮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쓴 글이 아닌 즉, 천민이면서 여성이 쓴 글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둘 때, 그 고장을 이루는 향촌사족들의 사회상을 드러낸 곳이기도 하다. 즉, 높은 계층에 있는 중앙세력에게 중앙과 멀리 떨어져 있는 鄉村士族들이 따끔하게 일침을 고하는 장소로 형상화되었다. 이러한 ‘長興’은 중앙과 멀리 떨어져 있는 특성을 살려 지배세력이 권력을 행사하는 공간으로 지배와 소유의 공간으로 그려진다. 즉, 이는 주체들에 의해 현실을 비판하는 공간으로서 역할을 담당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주체와 또 다른 주체와의 관계이다. 주체가 또 다른 주체를

50) 이도흠, 앞의 논문, 2009, 55면. 이 글에서는 ‘마당’을 공간으로 대체하였다.

주관하기도 한다. 하나의 공간은 주체가 권력이나 대상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주체들이 생성한 공간을 형성하고 그 공간을 맡아서 책임을 나누는 의미에서 공간을 주관하였다고 표현한 것이다. 주체가 권력을 만들어서 그 권력을 행사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주체들이 공간에서의 책임을 맡아 분배한 공간임을 의미한다. ‘長興’이라는 하나의 작은 공간에서 지켜야 할 규범들과 윤리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삶을 사는데 필요한 요소들로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를 이루는 것이 바로 이 공간이 의미하는 바이다. 그 윤리나 규범들은 그 나라가 형성하고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공간이 나라에 종속된 개념이기 때문이며, 주체에 의해 만들어진 규범과 윤리는 다시 나라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범과 윤리는 주체가 살아가는 사회 혹은 나라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약속인 것이다. 그러므로 주체들은 그 약속들이 만들어짐에 따라 지켜져야만 한다. 하지만, 만약 그 주체들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하대를 당하거나 처벌을 받기도 하며, 심지어는 그 사회 혹은 나라에서 쫓겨날지도 모를 것이다.

모든 ‘空間’은 주체와 대상, 행위, 또 다른 주체에 따라 끊임없이 변한다. 공간은 주체의 행위에 따라 본질을 형성하며 다양한 위상을 갖는다. 똑같은 마당이라도 그 마당에서 놀이를 하면 공동체가 연대를 맺는 장이요, 마을굿이나 밀양백중놀이 등을 할 때 신내림한 신대나 농신대를 쫓으면 신과 인간이 만나는 제의의 성소요, 신랑과 신부가 초례(醮禮)를 치르면 혼인의 터가 된다. 동헌 마당도 평소엔 공사를 처리하는 곳으로 엄격한 신분질서를 유지하고 상층이 하층을 지배하는 공간이지만, 탈춤이나 판소리를 공연하는 순간 하층이 상층을 풍자하고 비판하는 장, 더 나아가 상층이 하층의 풍자와 비판을 허용하여 사회통합을 이루고 지배를 강화하는 장이 된다.⁵¹⁾

장흥지역이라는 공간도 마찬가지다. 마을의 경치 좋은 곳에 누정을 지어 놓고 아름다움을 觀望하고자 한다면 그곳은 風流의 공간이 될 것이고,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그들이 모여 지켜야 할 윤리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면 그곳은 排除와 規律의 공간이 될 것이다. 또한, 엄격한 신분사회인 조선에서 상층 관료들의 不正腐敗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자 한다면 그곳은 現

51) 이도흠, 앞의 논문, 2010년, 108면.

實批判의 공간으로 자리할 것이다. 이처럼 하나의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주체에 따라, 대상에 따라, 행위에 따라서 그 의미는 다양하게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인간은 몸의 메커니즘과 참조체계, 혹은 자신의 이해관계나 타인과 관계에 따라 기억의 과편을 재구성하여 공간을 추상화하며 삶을 행한다. 공간의 기억이 존재의 집을 짓고, 공간의 흔적이 주체를 형성한다. 현재는 무수한 과거가 겹쳐진 원뿔의 정점에서 미래로 흘러가는 것이며, 공간이 시시때때로 변하듯, 나의 삶도, 나라는 주체도 기억의 과편과 흔적에 따라, 공간 안에서 타인과 기억을 소통하는 데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건일 뿐이다.⁵²⁾ 주체는 대상이나 행위에 따라 다른 의미들의 공간들을 형성하고, 그 공간들은 다시 구조를 형성한다. 이렇듯 하나의 작은 공간일 뿐이지만 주체와 대상, 행위에 따라서 그 의미들은 다양하게 변화한다.⁵³⁾ 뿐만 아니라 공간은 혼자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그렇기에 함께 소통해야 하고, 함께 누려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그 공간은 혼자만의 공간이 되어버린다. 즉,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러한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또한, 문학에 드러난 空間은 地理的, 社會的, 文化的인 공간을 모두 포함해야만 한다. 기본적으로 지리적 공간이 있어야 하고, 지리적 공간이 생성된 이후에 사회적 현상을 통해서 그 공간은 변화하며, 그 과정에서 사회적 공간이 형성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학 속에서 재현되는 공간 표상은 사회적 공간으로서 의미를 드러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리적 공간과 문학적 공간 표상 사이의 관계를 밝혀야 한다.

주체, 대상, 텍스트가 장흥지역의 가사문학을 설정하는 요소였다면, 주체, 권력, 표상체계는 장흥지역의 문화를 설정하는 요소이다. 이러한 주체는 장흥지역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대상에 특정 행위를 통해서 권력을 형성하며 세계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자신의 생각과 감성을 표상하여 텍스트를 만들고 이 텍스트와 행위는 다시 공간에 의미를 부여한다. 그러므로 필자는 장흥지역의 가사문학 텍스트를 중심으로 주체, 권력, 표상체계 별로 분석하여 ‘長興’에서 일어나는 문화적 현상을 종합하고자 한다.

52) 이도흠, 앞의 논문, 2010년, 99면.

53) 이도흠, 앞의 논문, 2009년, 53면.

II. 地域文學의 개념과 長興地域의 특성

文學에서 지역성 연구는 필요하다. 그 이유는 중앙 즉, 서울은 ‘수도’라는 특징으로 인해 많은 동경을 받아왔고, 서울과 그 近畿지역, 中央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으나 지역, 지방은 학문 연구에서조차 소외되어 본격적인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역문학 가운데서도 가사작품을 다룬 연구는 많지 않다. 요즘에 들어서 지역성에 대한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서울이나 近畿에 대한 논문이 많다. 따라서 필자는 지역, 공간에 대한 다양한 가사작품들을 다루어 지역문학 면모를 드러내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지역문학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1. 地域文學의 개념

‘地域’은 사전적 의미로 일정하게 구획된 어느 범위의 토지 혹은 전체 사회를 어떤 특징으로 나눈 일정한 공간 영역을 말한다. ‘地域’은 ‘地方’, ‘鄉土’라는 말과 함께 모두 서울이 아닌 곳을 지칭하기도 한다. ‘鄉土’는 조상 대대로 살아오고 있다는 전통의 의미로 내 고향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태어나 자란 고향을 정의적으로 표현한 친근감 있는 말이기도 하다. 그런 반면 ‘地方’은 中央과 맞서는 말로, 권력적인 위계를 은연중에 함축하고 있어 중앙에 대한 지방의 종속을 떠올리게 한다. 반면 ‘지역’은 중앙을 굳이 전제하지 않고서도 쓸 수 있는 중립적인 용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지방은 중앙을 상대로 한 수직적 공간개념이고, 지역은 상대가 없는 수평적 공간개념인 것이다. 그러므로 地方은 결코 국가를 넘어설 수 없지만, 地域은 국가라는 경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⁵⁴⁾ 따라서 우리가 흔히 언급하는

54) 고석규, 「지방이란 무엇인가」, 『지방사연구입문』 (역사문화학회, 민속원), 14~15면.

지역에서 생산된 문학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地方보다는 地域이라는 의미로 단어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지역문학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지역에서 창작되고 계승된 문학, 즉 지역의 문학을 말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지역은 어떤 개념으로 사용하며, 지역문학은 어떤 문학인지 생각해 보자. 우선, 지역문학에 대해 논한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살펴보자. 그리고 난 후에는 지역이라는 개념에 대해 정리해 볼 것이다.

안동준⁵⁵⁾은 지역문학을 폭넓은 개념으로 보았다. 넓은 의미로 그 지역의 문학이라고 하였고, 좁은 의미로는 그 지역 출신 작가의 문학작품 또는 오랫동안 그 지역에 거주한 작가의 문학작품을 대상으로 한다고 말했다. 양영길⁵⁶⁾, 김대현⁵⁷⁾, 김현정⁵⁸⁾, 김창원⁵⁹⁾ 등의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서울의 문학과 이중적인 구조로 놓고, 중앙문학과는 상대적인 의미로 보았다. 즉, 중앙

55) 안동준, 「지역문학의 뜻매김과 갈래체계」, 『배달말교육』 27호에서는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보는 사람의 각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 1) 지역의 정체성과 특수성을 드러내는 문학, 2) 지역적 정신과 지역적 삶의 원리가 적용된 문학, 3) 그 지역의 삶의 모습, 그 지역 사람들이 살아왔던 역사와 그 속에 숨쉬고 있는 정신을 그 바탕에 깔고 있는 문학, 4) 지역의 문제를 제재로 하는 문학, 5) 지역의 주체적 시각을 바탕으로 쓰여진 문학, 6) 지역의 구체적인 자리에 서서 생활세계의 성찰, 변화를 이끌어 내는 실천문학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56) 양영길, 「지역문학사 서술 방법론」, 『영주어문』 3집(영주어문학회, 2001), 190면. 지역문학은 기존의 문학과 달리 보편성보다는 삶의 터전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을 문제로 삼았다. 그 지역 공동체 삶의 총체성 위에서 지역의 정서와 문제의식이 숨을 쉬고 있으며, 그 지역의 표층을 흐르는 역사와 복류하는 역사를 엿볼 수 있는 작품이 지역문학의 주류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이다.

57) 김대현, 「지역문학연구에 대한 몇 가지 문제」, 『동방한문학』 21(동방한학회, 2001), 지방을 서울에 대해 상대적으로 쓰는 말이어서 지방문학이란 수도문학이 아닌 변방의 문학이라는 인식이 깃들여 있는 말이다. 즉, 지방이라는 표현이 서울과의 이분법적인 상대적 용어로 사용하여 변방의 문학이라는 인식이 깃들여 있다고 논하였다.

58) 김현정, 「지역문학에 대한 소고- 소수자 문학과 관련하여」, 『경계와 소통, 지역문학의 현장』(국학자료원, 2007), 지역문학이 변두리문학이라는 시각이 아직도 지배적이라고 말하며, 소외된 무리들, 주류에 끼지 못한 주변에 머무는 무리들로 보는 시각이 아직도 많다고 언급하였다. 지역문학은 기본적으로 소수성의 문학이라고 하여, 주류에서 소외된 비주류라는 입장에서, 권력을 지향하는 어떤 것에 반한다는 의미에서 그러하다.

59) 김창원, 「지역문학 연구의 방법과 방향- 조선후기 근기 지역 국문시가를 예로 하여」, 『우리어문연구』 29집(우리어문학회, 2007) 조선후기 近畿지역 국문시가를 예로 들어 지역문학적 시각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 언급하였다. 지역문학의 관점에서 중앙 중심의 획일주의를 극복하는 대안 중의 하나라고 보고, 지역성의 개념을 다시 설정하였고, 그 인식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과 차별되는 의미로써 소외된 느낌을 주는 문학을 지역문학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박중렬⁶⁰⁾의 경우는 ‘지역= 지방= 향토’의 개념으로 설정하였다. 하지만, 필자는 지역과 지방의 차이를 나누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서울은 ‘地域’에는 포함되지만, ‘地方’에는 포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서는 지역이라는 개념을 설정한 후 다시 논할 것이다. 여러 연구자들 가운데서도 위에서 논한 지역과 서울을 이분법적 관계에 놓고 그 범위를 서로 대등하게 보려고 했던 논의들이 많았다. 그렇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이라는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자.

地理學에서 ‘地域’은 공간을 일정하게 끊어 읽는 단위⁶¹⁾를 말한다. 공간을 끊는 단위는 다시 말해 ‘여기’와 ‘저기’가 다름을 뜻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기’와 ‘저기’는 일반적으로 인지되는 거리상의 차이를 나타낸다. 내가 기준이 되었을 때, 나와 가까운 곳을 ‘여기’라 하고, 나와 먼 곳을 ‘저기’라 한다. 이러한 ‘여기’와 ‘저기’의 차이는 공간의 분별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여기’와 ‘저기’의 다름은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한 답으로 ‘여기’와 ‘저기’의 다른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그러다가 언제부터인가 ‘왜 다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체계적인 정리를 넘어 다름의 인과 관계를 밝히는 과정이다. 그 과정에서 등장한 중요 개념이 바로 ‘地域’이라 한다. 즉, ‘地域’이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여기’와 ‘저기’가 다르다는 시각에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⁶²⁾

어떻게 ‘여기’와 ‘저기’가 다른지가 아니라 왜 다른지에 대해 생각하고, 그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면 간단하다. 실제로 보이는 ‘여기’와 ‘저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다름의 기준 자체가 어느 한 가지라고 말하기는 어려우나 비슷한 구석이 있더라도 ‘여기’와 ‘저기’는 엄연히 다른 것이다. 또한, 이는 말하는 주체가 거리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말하는 주체가 가까이 있는 곳을 언급하면 ‘여기’를, 이와는 반대로 먼 곳을

60) 박중렬, 「지방문학의 개념 범주와 연구방향」, 『고시가연구』 17집(고시가학회, 2006)은 지방자치제의 시행으로 지방문화의 관심이 높아진 것에 대해 논하며, 지역이라는 개념보다는 지방에 초점을 맞췄다. ‘지방문학= 지역문학= 향토문학’이라는 개념으로서의 지방문학을 논하며, 이에 지방문학의 개념을 범주화하여 방향에 대해 제시하였다.

61) 이기봉, 『지리학교실』 (논형, 2003), 105면.

62) 이기봉, 앞의 책, 2003, 106면.

언급하면 ‘저리’를 의미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지리학에서 말하려는 ‘지역’은 단순한 거리를 포함하는 의미인 ‘여기’와 ‘저기’라는 개념보다는 ‘지역’은 지리적, 생태적 생활조건을 반영한 독립적인 개념어⁶³⁾라는 뜻을 나타낸다. 그러나 여러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는 ‘여기’와 ‘저기’의 주체가 ‘서울’이라는 것이다. ‘서울’과 ‘서울이 아닌 곳’으로 구분하는 이분법적 구조로 지역을 구분한다. 즉, ‘서울’은 ‘여기’이고, ‘서울이 아닌 그 이외 지역’은 모두 ‘저기’로 구분한다. 이런 이분법적 구조는 ‘중앙’과 ‘지역’의 대립적인 구조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분법적 구조는 서울이라는 특정한 공간에서 사는 사람들이 특별한 우리와는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서울’과 경계되는 어떤 공간이라는 의미에서 ‘지역’이라는 대립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地域’은 일정한 경계를 갖는다. 명확하게 일정한 경계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떤 근거에 의한 경계가 있다는 것이야말로 지역의 의미를 설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가 아닌가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계의 구분은 어떻게 나뉘지는 것인가? ‘地域’이라는 것은 하나의 공간단위로 구분 이지역이 등질적인 성격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 못한다면 ‘지역’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地域’의 설정기준이나 속성 등은 다양하다⁶⁴⁾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地域文學’은 어떠한가? 위에서 언급한 ‘地域’이라는 개념들을 종합해 볼 때, ‘지역문학’은 서울이라는 곳을 제외한 다른 공간에서 발생된 문학인 것이다. 즉, 이는 지방의 개념으로 지역과는 차별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그 기준 또한 서울과 다른 지역이라는 대립관계에 놓인 이분법적인 개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필자는 독립된 어느 지역 문학이라는 개념을 드러내고자 한다. 즉, 어떤 일정한 공간에서 만들어진 문학인 것이다. 어떤 특수성을 가진 공간이라는 점을 배제하고, 공간을 보편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지역이라는 개념 자체에는 ‘地域’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

63) 박중렬, 「지방문학의 개념 범주와 연구방향」, 『고시가연구』 17집(고시가학회, 2006), 191면.

64) 이기봉, 앞의 책, 2003.

게 되는 것이다. 필자는 보편성과 특수성을 함께 놓고 지역을 바라본다면 이분법적인 공간이 아닌 하나의 문화형성 공간으로 새롭게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2. 鄕村으로서 長興의 특성

본 연구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鄕村’은 中央과 대립되는 개념으로써의 ‘村落’을 이야기한다. ‘鄕村’은 서울의 정치에서 물러나 살고 있거나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의 현실적인 공간⁶⁵⁾을 말한다. ‘鄕村’은 구체적으로 ‘鄕’이란 향약, 향교, 향안, 향사당 등의 쓰임에서와 같이 행정구역상 군현의 단위를 말하며, ‘村’이란 촌락, 마을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鄕村’은 지방군현 단위로서의 범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군현 단위로서의 ‘鄕村’은 선조 군현제의 정비와 더불어 한말에 이르기까지 거의 변동 없이 유지되어왔다. 이를 단위로 한 지배세력 역시 鄕村의 여러 조직을 통해 중흥으로 연결되고, 중첩적인 혼인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러한 향촌사회는 하나하나가 그 자체로서 일정한 개별성과 독자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각 향촌마다 재지사족의 존재형태나 위상은 동일하지 않았다.⁶⁶⁾ 鄕村社會에서의 ‘亭’이나 ‘堂’은 학문적, 문화적 활동의 장소로 유교적인 교육과 문화 및 향촌사회에서 정치, 사회, 문화적 모임과 논의가 이루어진 곳으로 서울에서의 亭, 堂과는 그 기능이 다르다.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堂과 亭을 사림들의 문화공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⁶⁷⁾ 향촌의 일부분을 나타내는 문화공간들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공간의 확대로 이어졌으며, 이는 다시 文化地理學, 社會地理學, 歷史地理學 등의 지리학과 연관된 일부 연구들을 수용하여 발전하기도 하였다.

65) 최재남, 『사림의 향촌생활과 시가향유』(국학자료원, 1997), 10면

66) 정진영, 앞의 책, 1998, 24면.

67) 박준규, 「한국의 누정고」, 『호남문화연구』 17호(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 1987).

‘村落’이란 일반적으로 洞, 里, 村 등으로 불린다. 기본적으로는 自然的으로 이루어진 村落을 기반하고 있지만, 국가의 지방지배 또는 재지사족의 촌락 지배를 위한 단위로 일정하게 편제된 里, 洞을 말한다. 따라서 ‘村落’은 일정한 지역적인 편제만이 아니라 편제된 지역의 인간과 토지, 그리고 山川 등의 공간적 구조를 아울러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서 ‘村落’은 시기별로 나누어 전기와 후기에 따라 일정한 차이를 가진다.⁶⁸⁾ 전통적인 촌락들은 ‘자연조건= 생산조건= 체제변화= 의식변화’라는 내외적인 상황의 전개와 연결되면서 변화하였다.⁶⁹⁾ ‘鄕村’은 서울 즉, 中央과 이항대립적인 공간으로 그려졌다. 鄕村은 다시 ‘地方’, ‘地域’이라는 말로 사용하였다. ‘地方’은 사전적 의미로는 특정 방면의 땅이나 혹은 서울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그렇다고 해서 서울과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져 대칭되는 의미로만 쓰이는 것은 아니다.⁷⁰⁾ 조선시대에 이르러 중앙집권체제로 왕권이 강화되다보니 대부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부분에서 모든 것들이 서울을 중심으로 발달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중앙에서 관직을 맡고 있는 사대부 역시 서울 혹은 서울과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고 살면서 中央에서 행해지는 모든 혜택들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거리상으로 서울과 멀리 떨어진 지방의 경우에는 다양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였다. 이에 지방에 사는 사족들은 中央의 지배세력들과는 달리 그들만의 조그마한 새로운 사회를 형성하기도 하였다. 鄕村士族들은 대부분이 같은 성씨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었고, 이것을 토대로 한 마을이 바로 동족마을이 된 것이다.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규범과 질서이다. 그들 역시 그들만의 사회에서 통용할 수 있는 규범과 질서를 만들어 소외된 생활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좁은 의미로서의 ‘鄕村’은 행정관아와 각종 시설이 있고, 鄕吏와 官屬들이 상주하는 읍치 또는 읍내가

68) 정진영, 앞의 책, 1998, 24~25면.

69) 촌락은 구체적으로 지리적 환경 및 경제적 조건을 공유한 경우, 생활문화 공간으로서 이 동네, 행정편제상의 里, 洞, 村의 중층구조, 혈연과 신분적인 구성체로서의 성격들이 복잡하게 연결된 것이었다. 이해준, 「조선후기 촌락구조변화의 배경」, 『한국문화』 14(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1993)

70) 地方은 정치, 인위적인 경계로 지역은 자연적인 특성으로 구획된 영역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서 지방은 행정구역 등에 의해 구분된 영역으로 서울과 대립적인 개념은 아니다. 권내현, 「조선후기 지방사의 모색과 과제」, 『조선후기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창작과 비평사, 2000), 300면.

아닌 여기에서 멀리 벗어나 있는 任內지역, 즉 읍치 외곽인 속현과 鄉, 所, 部曲 등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들 지역을 ‘外村’이라고도 하였다.⁷¹⁾

동족마을의 발생 및 발달은 한국 농촌 특유의 사회조직, 가족제도, 경제구조 등에서 현저하게 영향을 받아왔다.⁷²⁾ ‘동족마을’이라는 용어는 1920~30년대 일본인들에 의해 처음 만들어졌다. 특히 善生永助의 『朝鮮の聚落』은 조선 동족마을의 대표적인 조사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동족마을’이란 同族同本の 同姓集團이 하나 또는 한 개의 地緣을 바탕으로 일정한 지역에 공존하는 형태라 할 수 있다고 하였다.⁷³⁾ 동족마을은 구성의 다수를 차지하는 하나 혹은 두 개의 동성동본 성씨집단이 특정마을에 대대로 거주하면서 마을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동족마을의 형성 시기는 삼국 또는 고려시대까지 소급되기도 하고, 일제시기의 조사에서는 500년 전부터 형성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⁷⁴⁾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동족마을의 형성은 17세기 이후에 들어와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현재의 공통된 견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동성집성촌의 입지조건은 농민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서 평야에 위치한 聚落보다는 山麓에 위치한 村落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하였고, 조선에서 촌락 발생의 특수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특히 동족부락과 같은 오랜 역사를 가진 것에는 風水思想의 영향을 받아서 背山臨流에 위치한 것이 많다.”⁷⁵⁾라고 하였다. 이렇게 발전된 동족마을의 형성은 문중활동이 보편화되는 시기와 연관시켜 볼 수 있다. 이는 17세기 중엽 이후에 나타나는 가부장적인 친족관념의 폭넓은 정착과 진전의 결과로 시차를 두고 이해되어야 한다.⁷⁶⁾

조선시대의 지방사 연구는 성씨집단의 성장과 소멸, 다양한 갈래 곧 사족과 이족, 향족과 사족, 토성과 이거사족 등을 분명히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들의 존재와 정치, 사회적 활동이 해당 지역사의 중요한

71) 정진영, 앞의 책, 1998, 24면.

72) 강인호, 한필원, 『住居의 文化的 의미』 (세진사, 1999), 114면.

73) 박용숙, 『조선후기 향촌사회사 연구』 (혜안, 2006), 174면.

74) 오영교, 「조선후기 동족마을의 구조와 운영: 강원 영서 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담론 201』 6 (2) (한국사회역사학회, 2003), 41면.

75) 善生永助, 『朝鮮の聚落』 後編 (조선총독부, 1972), 46면.

76) 이해준, 『조선시기 촌락사회사』 (민족문화사, 1996), 293면.

내용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지방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⁷⁷⁾ 필자는 이러한 여러 동족마을 가운데 각 도별로 드러난 동족마을을 선택하여 중앙집권에서 소외된 향촌지역의 특성들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이에 각 도별로 드러난 특성을 바탕으로 하여 다른 지역의 동족마을과 장흥지역의 동족마을을 비교, 대조하여 장흥지역만이 갖는 특성들을 드러내 보고자 한다. 서울에서 가장 근접한 경기도 중에서도 경기북부지역을 바탕으로 하여 그 이외에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에 이르기까지 각 지역마다 형성된 동족마을을 토대로 하여 장흥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모든 동족마을의 경우는 어느 하나의 특정한 성씨만이 그 마을을 점유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⁷⁸⁾ 경기북부,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의 여러 동족마을의 특징을 통해서 장흥 방촌마을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경기북부지역은 지리적으로 서울과 인접해 있다는 특이성 때문에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큰 발달을 가져왔다. 하지만 지역의 쇠퇴 또한 그만큼 빨리 왔다. 경기북부지역 가문의 入郷 유래는 婚姻, 賜田, 隱居 혹은 卜居의 경우로 나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다른 향촌에 비해 향촌적인 기반은 발달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북부지역 동족마을의 대부분은 17세기에 이르러 안정된 생활을 영위해 간다. 그러나 이 지역은 중앙도 아니면서 그렇다고 지방도 아닌 애매모호한 형태의 지역에 속한다. 그와는 반대로 장흥지역은 ‘지벽’이라 하여 외진 지역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또한, 장흥위씨의 입향 유래는 婚姻을 통한 경우라고 말할 수 있다. 장흥위씨의 동족마을은 인천이씨와의 혼인을 통해서 기반을 형성하여 더 발전하고 성장하게 되었다. 동족마을은 입지조건으로 背山臨水라는 지리적 조건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교통이 편리한 곳에 동족마을이 위치해 있다.⁷⁹⁾ 그러나 이러한 특징은 경기북부지역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 장흥지역 역시 이러한 마을의 입지조건에서도 드러나 있다.

77) 정진영, 「성씨와 촌락」, 『지방사입문』 (민속원, 2008), 143면.

78) 김명자, 『조선후기 안동하회의 풍산류씨 문중연구』 (경북대 박사논문, 2009), 15~16면.

79) 정만조, 『조선시대 경기북부지역 집성촌과 사족』 (국민대학교 출판부, 2004), 50면.

경상도 지역의 하회마을은 민속마을로 풍산류씨의 대표적인 동족마을이다. 풍산류씨는 풍산현의 토호세력으로 여러 성씨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⁸⁰⁾ 하회마을의 풍산류씨가 향촌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퇴계학맥을 계속 유지해 나가고자 하는 구성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동족마을의 형성은 향촌질서의 유지와 더불어 유교윤리의 보급, 예학의 발달이 큰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향촌조직들은 공동체를 유대로 하였으며, 그들만의 주도 세력을 키워나갔다. 장흥위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여러 방법으로 유교윤리를 보급하였고, 예학의 발달을 일으켰다. 또한, 장흥 일대의 서생들이 모여서 시회를 개최하였다. 傍村의 장천재를 비롯하여 많은 서원 및 서당에서 시회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더 발전하여 장흥지역에서 유력한 성씨들의 모임 장소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충청도 지역의 외암마을은 안동이씨의 동족마을이다. 외암마을은 지형적으로 거주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지하수가 풍부하여 취수가 편리하며, 양지로서 일조량 역시 높다. 북쪽은 높은 산이 있고, 서북계절풍을 막아 방풍 효과가 높다.⁸¹⁾ 장흥지역 역시 풍수적인 영향으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풍수적으로 배의 형상이라고 하고 이러한 형상은 사람과 재화가 번창한다는 설이 있다. 傍村은 주산을 神山이라 불리는 ‘天冠山’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傍村은 상징적인 천관산을 끼고 일정지역을 중심으로 발전을 거듭해온 마을이다.⁸²⁾

강원도 영서지역의 동족마을은 16세기 혈연과 더불어 지연 공동체를 이루어 향촌에서 우위를 인정받기 위한 집단 의식을 가지고 입향 선조의 선양사업을 추진하여 향촌 안에서 사회적 우의를 유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에 걸쳐 해당 지역에서 동족마을을 건립하였다. 그러나 장흥위씨의 경우는 魏德厚(1556~1605)의 遺戒나 遺訓으로 동족마을의 종족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장흥위씨의 입향시기는 1510년대지만 실제 문중활동

80) 이수건, 「17,18세기 안동지방 유림의 정치사회적 기능」, 『대구사학』 30집(대구사학회, 1995), 48~49면.

81) 김남춘 외, 「외암리 민속마을의 취락경관과 외부공간구조에 관한 연구」, 『단국대 논문집』 30집(단국대학교 1996), 658면.

82) 이해준 외, 『전통문화마을 장흥 방촌』(장흥군방촌마을지편찬위원회, 1994), 45~46면.

은 18세기 중엽이후에 본격화되었고, 촌락 안에서는 1734년 정도로 볼 수 있다.⁸³⁾ 대략 동족마을의 형성은 17세기 중엽 이후로 나타나지만, 장흥의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 조금 늦게 동족마을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경기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전라도에 이르기까지 각각 다른 동족마을의 특성들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동족마을들은 모두 17세기에 전파된 유교 윤리는 주자가례의 보급과 예학의 발달, 종법적인 가족제도의 수용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⁸⁴⁾ 또한, 윤리적 변화는 조선 전기에 이루어졌던 재산상속의 균등한 분배가 적강자 중심의 제도로 바뀌었고, 이에 가족질서가 새롭게 확립되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회현상은 禮學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발전되었고, 그러다 보니 가족제도의 변화도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즉, 同族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가족에 포함되다보니 그에 따른 禮學은 가족제도로써의 변모를 나타냈던 것이다. 이러한 가부장적인 친족체제의 변화로 인한 부수적인 변동들로 인해 상속제도가 바뀌고, 문중의식이 관심을 보이게 되었다. 그러면서 주자가례는 한 가문의 법규와 규례로 나타나게 되는 사회적 현상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中央과 멀리 떨어져 있는 鄉村 또한 예외가 아닐 것이다. 장흥지역 역시 이와 깊은 관련을 맺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장흥의 傍村은 동족적 기반과 전통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강한 곳일 뿐 아니라, 흔히 결여되기 쉬운 다양하고 많은 양의 문회조직 및 향촌조직들을 간직하고 있다.⁸⁵⁾

3. 長興地域 文學의 특성

長興은 지리적, 지형적인 영향으로 인해 풍부한 자원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장흥은 토질이 비옥하여 생산물이 풍부하였고, 이러한 환경

83) 이해준, 『조선시기 촌락사회사』 (민족문화사, 1996), 293면.

84) 이수진, 「양동의 역사적 고찰」, 『양좌동연구』 (영남대 인문과학연구소, 1990).

85) 이해준, 앞의 책, 1996, 302면.

적 영향은 그들의 정서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장흥사람들은 낙천적이고 명랑한 성향을 띄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그들의 문학은 서정적이면서도 정감적인 문학이 많이 발달하였다. 그 예로 紀行歌辭를 들 수 있다. 장흥사람들은 아름다운 自然을 遊覽하면서 그들의 정서를 녹아낸 詩歌文學을 발달시켰고, 최초의 기행가사가 장흥지역 출신 작가에 의해 창작되어 <天風歌>, <金塘別曲>에 이르기까지 기행가사를 계승하였다.

또한, 長興은 다른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동족마을을 이루고 있었다. 동족마을의 형성 조건 역시 위의 경우와 같다. 長興의 동족마을을 ‘傍村’이라 불렀다. ‘傍村’은 長興 魏氏의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함께 살아가는 ‘同族’마을이다. 이러한 향촌지역을 적극 개발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지방의 유력 계층으로 황무지를 개간할 수 있는 입안을 쉽게 확보하고 있었고, 동시에 개간에 필요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⁸⁶⁾이라고 전한다. 이러한 촌락이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단위로 기능하고 존재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이후였다고 한다. 18세기 이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났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자연 촌락의 성장과 향촌사회의 변화는 이제 촌락을 하나의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단위로 고정시켜 나가고 있었다.⁸⁷⁾ 鄉村은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자급자족으로 경제력을 키워나가야만 했다.

魏氏는 《世宗實錄地理志》에서 長興都護府의 古屬縣 遂寧의 제 1성으로 기록되어 있고, 《輿地圖書》의 長興府 姓氏條에서 長興魏氏로 처음 기록되었다.⁸⁸⁾ 장흥위씨의 입향시기는 1510년대 즈음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이들의 실제 문중활동은 18세기 중엽 이후에야 본격화되고, 촌락 내에서 주도권을 갖는 시기는 빨라야 1734년 이상으로는 소급할 수 없음이 자료로 확인된다.⁸⁹⁾ 이 마을은 씨족사회의 위계질서를 위해 <계암가훈>을 비롯하여 다양한 책들과 규범들을 만들어 동족적인 기반을 강화하였다. 이렇게 ‘동족마을’은 향촌공간에서 많이 강화되고 발달하게 되었다. 이러한 향촌사회는 동족 집단의 폐쇄성과 더불어 문화중심 의식을 드러내기도 한다.

86) 정진영, 앞의 책, 2008, 147면.

87) 정진영, 앞의 책, 2008, 149면.

88) 위씨는 장흥위씨와 수녕위씨로 나뉘는데 현재는 모두 장흥위씨로 쓰인다고 전한다.

89) 이해준, 「조선후기 장흥 방촌의 촌락문서」, 『변태섭 박사 화갑기념사학논총』, 1985.

‘長興’은 동족적 기반의 확대를 통해서 본격적인 동족마을의 문화가 발달하기도 하였다. 傍村의 魏氏門中에서는 魏伯珪라는 인물을 통해서 마을조직이 주도되기도 하였다. 그는 傍村에서 대부분의 생애를 보냈으며, 향촌 발전을 위해 힘을 쏟았다. 또한, 그는 여러 측면에서 향촌생활을 살피 향촌사족이 지켜야 할 규례와 법규를 만들어 지키도록 하였다. 그는 중앙집권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가지고 강도 높은 비판의식을 논하기도 하였다. 그는 많은 문학작품들은 남겼지만, 특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가사작품을 통해서 발산하였다. 즉, 그는 동족마을의 유교적 의식을 확충시키고, 현실비판의 인식을 남기기도 하였다. 물론 長興이라는 공간이 한 인물을 통해서 마을이 많은 발전을 이룬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향촌을 위해 힘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위씨집성촌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작고 소박한 長興이라는 地方에서 시가문학이 많이 발달하였다. 처음에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것으로 하여 시가문학이 발달하였으나 이 작품들은 자연의 아름다움만 논한 것은 아니다. 長興은 地方이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鄉村士族이다 보니 벼슬에 나아가자 하는 꿈과 희망은 체념해야만 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겸비했다 하더라도 신분적인 제약 때문에 이를 수 없는 꿈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山水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것으로 이를 대신하기도 했다. 또한, 長興은 中央과는 멀리 떨어진 곳이다. ‘鄉村’은 中央의 세력이 미칠 수 없었던 곳이고, 그들만의 동족집단을 형성하여 基盤을 확립하고자 했다. 이런 이유로 향촌사족들은 항상 중앙에 대한 불만과 소외감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불만과 소외감은 중앙세력에 대한 비판의식으로 성장하였고, 현실비판이라는 장르를 통해서 중앙세력을 풍자하고 비판하는 자신들만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또한, 향촌사족들은 동족마을로 인해 하나의 작은 사회를 마련하였으며, 이 사회는 국가의 기본 사상이었던 유교적 윤리를 덕목으로 삼아 규범과 질서를 확립하기도 했다. 이렇게 하나의 작은 마을인 長興이 조선시대의 문학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쳤는지 작품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자.

Ⅲ. 長興地域 歌辭文學의 지역문학적 특징

風景은 인간이 항상 거기에서 살고 있는 세계, 다시 말해 인생을 여행하고 있는 세계이다. 자연과학적인 자연대상으로서의 감각적 소재로부터 그것들의 집합이 시각적 통일 속에 風景美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의 대상들이 그 감각적 소재로서의 존재방식을 넘어설 때, 하나의 정신적인 존재로서 風景美가 성립된다. 이러한 風景美는 항상 인간과의 상호관계를 갖는 자연 속에 표상되는 것으로, 일상생활의 장을 넘어서는 곳에서 비로소 성립된다. 우리는 흔히 風景이라고 하면 自然의 光景처럼 아름다운 것만을 떠올리지만, 대개 風景은 인간의 문화나 역사가 뒤섞여 여러 가지 의미로 덧붙여지기도 한다. 이렇듯 風景은 自然의 風景뿐만 아니라 文化의 風景을 포함하고 있듯이, 風景의 美도 자연 풍경의 美뿐만 아니라 문화 풍경의 美를 포함한다.⁹⁰⁾ 文化地理學의 핵심 용어는 ‘景觀’ 즉, ‘文化景觀’이다. ‘景觀’은 사전적 의미로 경치 또는 특색 있는 풍경 형태를 가진 일정한 지역을 말하며, 風景의 지리학적 특성을 나타낸다. ‘景觀’의 속성은 문화를 이루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즉, 지역문학은 지역적 특성을 잘 드러내야 하는 것처럼 景觀의 의미에 특정한 文化地域에서의 지리적 내용을 함축해야 한다. 이는 文化地域을 구분하고 분류하는 기준이 된다.

필자는 장흥의 지역적 특성을 가사작품을 통해서 논하고자 한다. 지역적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작품에 드러난 지역문학적 특징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필자는 장흥지역 가사문학의 지역문학적 특징을 4가지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로는 自然, 遊覽에 대한 風趣이다. 三面이 육지고 一面이 바다인 지형적 특징을 바탕으로 아름다운 자연을 유람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감정들을 표현한 작품으로 기행가사의 특징들을 논할 것이다. 물론, 장흥지역을 토대로 그 풍광을 그린 경우도 있지만, 다른 지역의 아름다움을 제시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를 두 부류로 나누어서 설명하고자 한다. 두 번째

90) 민주식, 「風景의 美學- 풍경미의 구조와 원리」, 『미학』 31집(한국미학회, 2001), 11면.

로는 儒敎 倫理意識의 鼓吹이다. 장흥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同姓同村을 유지하면서 살아왔다. 장흥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同姓同村은 존재한다. 하지만, 이를 토대로 하여 장흥 방촌만이 갖는 특성을 찾아보고 작품에 드러난 집단 윤리의식과 계몽, 경계의 윤리의식으로 나누어 장흥지역의 특징을 논하고자 한다. 세 번째로는 不正한 官吏에 대한 비판의식이다. ‘長興’은 중앙과 멀리 떨어진 향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과 거리가 멀면 멀수록 혜택들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자연재해로 벌어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무능력하고 부조리한 관리들의 잘못을 끄집어 고발하는 형식의 작품이 있는 반면, 부조리한 관리들의 풍자의 모습을 적은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현상에서 오는 사회적 문제의식을 작품 속에서 어떻게 녹였는지 살펴볼 것이다. 네 번째로는 安貧樂道의 삶의 추구이다. 鄉村土族들에게 있어서 安貧樂道라는 주제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제 중의 하나이다. 鄉村에 기반을 둔 작가들의 생활상의 문제를 작품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1. 自然, 遊覽에 대한 風趣

조선시대 사림과 문인들은 산수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사림과 문인의 학문은 성리학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그 기본적인 배경이 산수 즉, 자연이었기 때문이었다. 性의 대상이 人間이라면, 理의 대상은 自然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性理學은 人間과 自然의 관계를 새롭게 발전시켜, 山水에서 은거하는 것을 가치 실현과 자아 성찰, 혹은 몸소 실천하는 수양의 생활로 인식하기도 하였다.⁹¹⁾

紀行歌辭는 어느 특정한 공간을 두루 다니면서 다른 여러 공간을 구체적으로 시간의 순서에 맞게 나열한 것이다. 이는 일정한 지점을 중심으로 이야기한다. 하지만 紀行歌辭의 특수성을 살리자면 地點에 대한 변화의 폭이 넓어야 한다. 기행가사는 동적인 느낌을 갖고, 이야기하는 공간의 움직임 자체가 매우 순차적이며, 다채롭다.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의 이동으로 시간

91) 손오규, 『산수미학탐구』 (부산대출판부, 1998), 7~27면.

의 변화를 드러내고, 그 이동경로는 山水의 대상을 옮겨 변화를 갖게 하는 것이 紀行歌辭의 특징인 것이다. 장흥지역 가사작품의 주체는 모두 장흥사람이다. 물론, 다른 지방에 있을지라도 長興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어야 한다. 여기서 대상은 주체인 인간 앞에서 목적이나 목표가 되는 자연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주체와 대상과의 관계는 공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자연경관을 부각시켜 지역성을 가장 잘 드러내야 한다.

長興地域 歌辭文學에서 紀行을 위주로 自然, 遊覽에 대한 風趣를 논한 작품들을 알아보자. 장흥지역 가사문학 가운데 자연 유람을 소재로 한 작품은 <關西別曲>, <金塘別曲>, <天風歌>, <長恨歌>가 있다. 장흥지역의 가사작품 가운데서 <關西別曲>, <金塘別曲>, <天風歌>는 옛 문인들의 다양한 모습에 대한 山水 인식을 나타낸 기행가사다. 그러나 <長恨歌>의 경우는 ‘敎訓’과 ‘遊覽’이라는 2가지 주제의 독특한 구조를 지닌 작품이다. 地名에 대한 역사적 비정, 지명의 개명과 작명, 山水와 山水美에 대한 품평, 山水의 아름다움에 대한 讚嘆, 山水에 자신의 처지를 비의하는 등 수많은 인식들이 혼재하였다. 心性修養과 浩然之氣를 함양하는 공간 내지는 은거의 공간으로 인식하기도 하였다.⁹²⁾ 위에서 언급한 네 작품의 공간은 모두 다르다. 각각의 공간들은 서로 연관성이 없다. 하지만, 장흥지역 향촌사족들이 가진 그들만의 자연에 대한 인식과 형상화 과정들은 <關西別曲>, <天風歌>, <金塘別曲>, <長恨歌>에 이르기까지 모두 같다. 그렇다면 작품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서 그 특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1.1 長興의 風光을 제시한 경우

長興의 대표적인 山으로 ‘天冠山’을 꼽는다. 이 산의 남쪽에는 다도해가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져 있고, 북쪽에는 ‘月出山’과 ‘無等山’이 버티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天冠山’은 수려한 絶境과 함께 신령스런 산으로 널리 알려졌다. 또한 ‘天冠山’은 호남의 5대 名山 중의 하나로도 칭송되었다.⁹³⁾ ‘天冠山’

92) 김남기, 앞의 논문, 2007, 31면.

93) 장흥군, 앞의 책, 1994.

과 관련된 기록은 여러 문집에서 발견할 수 있다. <天冠山記>를 비롯하여 모두 13편의 작품이 있다.⁹⁴⁾ 이렇게 볼 때, 장흥지역 사람들에게 ‘天冠山’은 예전에도 대단했고, 지금도 여전히 대단한 山임에는 분명하다. 웅장하고도 아름다운 ‘天冠山’은 長興地域의 중앙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러므로 장흥지역 사람들은 ‘天冠山’에 드러난 愛郷心과 自負心이 대단히 높다. <天風歌>는 아름다운 자연과 장흥인의 의식을 바탕으로 장흥의 특성을 잘 묘사하였다. 이는 유람의 과정 속에서 느끼던 흥취와 해방감이 현실의 중압감 속에서 무산되는 결말을 보인다. 長興은 三面이 바다이기에 많은 섬들로 이루어졌다. 그 가운데 유명한 섬이 바로 ‘금당도’와 ‘만화도’다. <金塘別曲>은 魏世稷이 ‘금당도’와 ‘만화도’를 유람하여 쓴 작품이다. ‘금당도’와 ‘만화도’는 조선시대에는 장흥도호부에 소속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완도군에 편입된 지역이다. 따라서 <金塘別曲>은 장흥지역의 風光을 제시한 작품 부류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 작품은 山水, 自然에의 심미적 도취 속에 유람의 흥취가 고조되면서 매듭지어졌다.⁹⁵⁾ 그렇다면, 장흥지역에 존재하는 天冠山과 더불어 금당도, 만화도의 모습을 가사작품에서 어떻게 재현하였는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 주체와 대상의 관계를 알아보자. <天風歌>의 경우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진 작품이다.⁹⁶⁾ 그 내용을 살펴보자.

천관(天冠)은 고찰(古刹)이라 사蹟(史蹟)이 괴이(奇異)하다/ 덩썩봉(峯)
나린 활기 가다가 도로 도로/ 용비(龍飛) 봉무(鳳舞)하야 불국(佛國)을
땡근 후에/ 통영화상(通靈和尚) 어느 썩에 잇 터홀 아라보고/ 쇠막디 썩
진 잣최 어제란닷 그제란 닷

‘天冠寺’의 창건을 언급한 부분이다. ‘天冠寺’는 天冠山을 상징하는 곳이기

94) 졸고, 「조선시대 천관산의 공간인식 양상」, 『온지논총』 20집(온지학회, 2008)에 자세히 소개하였다.

95) 김석희, 앞의 책, 2005, 312~315면.

96) 이하의 논의는 안혜진(「18세기 향촌사족 가사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2005)을 바탕으로 유정선(「<天風歌> 연구」, 『18, 19세기 기행가사 연구』, 역락, 2007)과 이지영(「기행가사 <金塘別曲>과 <天風歌>의 대비적 연구」, 『한국언어문학』 39집, 한국언어문학회, 1997)을 많이 참조하였고, 그대로 이끌어 쓴 대목도 있다.

때문에 가장 먼저 소개한 듯하다. ‘천관사’는 ‘딴뽕’ 북쪽의 중턱에 있는 절이다. 이 부분이 천관산을 상징하는 곳이다. 기이하고 영험한 절터의 기운은 天冠寺를 더욱 위엄 있게 만든다. ‘天冠’이라는 地名과 더불어 ‘天冠寺’의 유래를 적고 있다. ‘天冠寺’의 천관은 불교용어이며, 그곳은 기이하며 유적이 많다. 《支提誌》에는 ‘딴뽕’이라는 地名이 존재하지 않으나 이곳은 아마도 천관산 꼭대기인 지금의 ‘연대봉’을 말하는 듯하다. 작품에서 ‘딴뽕’은 용이 날고 봉황이 춤추는 듯한 활발한 기운이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그 기상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연결되며, 이는 기이함과 영험함이 존재하는 곳이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필자는 가장 높은 곳인 연대봉이라고 짐작한다. 또한 ‘天冠’이 불교에서 나온 용어인 만큼 불교가 크게 번성한 山이기 때문에 다른 이름 가운데서도 天冠山이라는 山名과 함께 天冠山에 있는 사찰 역시 ‘天冠寺’로 이름을 붙였음을 알 수 있다. 시적 화자는 山의 가장 영험한 기운이 느껴지는 곳에 天冠寺를 창건하였다고 전한다. ‘통영화상’은 절을 창건한 스님이다. 그는 일찍부터 천관산의 가장 좋은 터에 자리를 잡아 極樂世界를 염원하는 사찰을 짓고자 했다. ‘쇠막대’는 절터를 확정짓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쇠막대는 땅을 택할 때나 居處를 선정하거나 확정할 때 사용한다. 따라서 이는 절을 창건한 자취가 어제인 듯 그제인 듯 얼마 되지 않은 듯하지만, 이는 기이한 흔적이 지금까지 이르고 있음을 암시하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부분을 보자.

비회(徘徊) 빙목(聘目)하야 더장봉(大壯峰)을 바라보니/ 연(連)흔는가 자개는가 엄논 닷 잇는 닷/ 빅보(百步) 구절(九折)을 촌촌(寸寸)이 올라가니/ 구만리(九萬里) 장천(長天)이 막써 쫓티 다허 잇다/ 문삼(捫參) 역정(歷井)하야 자희(紫霞)의 비겘시니/ 옥황(玉皇)의 말삼이 지척(咫尺)의셔 들니난다

이 부분은 천관산의 높고도 위엄 있는 모습을 드러냈다. 시적 화자의 시선이 ‘구정암’에서 ‘대장봉⁹⁷⁾’으로 옮겨간다. 시적 화자의 시선 이동은 공간

97) 위백규, 위민환 역, 《支提誌》(장흥문화원, 1992), 63면; 바로 당번동 정상이니 천주봉 서남쪽에 있다. 그 곁에 책바위가 네모나게 깎아져 서로 겹쳐 있어서 만권의 책이 쌓아진

의 이동을 나타내며, 이러한 공간의 이동은 기행가사의 전형적인 특징 중의 하나다. ‘이어짐과 끊어짐’, ‘없는 것과 있는 것’이라는 대구와 대조의 형식으로 대장봉의 모습을 기이하고 장엄하게 형상화하였다. 다음 구절의 ‘百步九折’과 ‘捫參歷井’은 李白의 <蜀道難>을 인용하였다. ‘百步九折’은 백 걸음에 아홉 번을 꺾었다는 뜻으로 험하고도 험한 산중의 모습을 나타냈다. 다음 구절의 ‘捫參歷井’에서 ‘參井’은 ‘參星’과 ‘井星’으로 별이름이다. 參星을 만지고 井星을 지났다는 뜻으로 별을 만질 수 있을만한 높이의 장엄한 산을 드러냈다. 시적 화자는 촌촌이 산을 올라가는 행동을 통해서 사람이 쉽게 범접할 수 없을만한 높은 산임을 강조하였고, ‘九萬里’라는 숫자에서는 아득히 멀리 있는 것으로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없게 하였다. 또한, 자줏빛 안개는 신성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마지막 구절은 옥황의 말씀이 지척에서 들린다고 하여 높고도 위엄 있는 ‘天冠山’의 모습을 드러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고로봉(古老峯) 천주봉(天柱峯) 동편봉(東便峯) 모든 봉(峯)이/ 전후(前後) 좌우(左右)의 닳도와 버려시니/ 나난 닳 뛰난 닳 턱도(態度)도 흐고 만다/ 청풍(淸風)이 건 듯 부러 호흥(豪興)을 도도오니/ 송등(松藤)의 바람긋터 비바회 올라괘라/ 돛터난 소리 되고 덩터난 돌이 된다/ 팔만경(八萬景) 이러흔 줄 닐라셔 자세(仔細)알가

천관산의 여러 봉우리가 우뚝하게 솟아 있는 모습을 형상화하였다. 이름이 있는 바위들을 나열하고 아름다운 경치를 묘사하였다. 앞뒤 좌우로 배치한 봉우리들은 서로를 뺄내는 양 서로 다투어 버렸다고 하였다. 세 봉우리를 제외하고도 여기서 거론하지 않은 많은 봉우리가 존재하는데 그 모습이 마치 ‘나는 듯 뛰는 듯하다’고 표현하였다. 이 구문은 호남시단에 큰 영향을 끼쳤던 송강 정철의 <關東別曲>의 금강산 봉우리들에 대한 묘사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높은 봉우리는 맑은 바람과 함께 신비로운 기상을 더해준다. 이 대목은 작가가 신선으로서의 취향을 드높이는 부분이라 할 수

것 같다. 봉명의 뜻은 산명 아래 나타나 있다.

있다. 시적 화자의 시선은 바람과 함께 소나무, 등나무의 가지 끝에 살포스치고 지나가고, 이를 따라 ‘배바회’를 올라간다. 여기서 가리키는 ‘배바회’는 ‘바틀바위’⁹⁸⁾이다. ‘돛대’는 돌로 된 돛대인 ‘석범’을 말하며, 그 옆에는 돌로 된 돛대가 있고, 돛대 옆에는 돌로 된 당번이, 당번 아래에는 돌로 된 배가 있다. 돌 돛대의 서남에는 석대장이 있고, 그 북쪽에는 석문주가 있고, 또 그 북쪽에는 석보현이 있다. 바틀바위 위에서 바라본 자연은 참으로 아름답다. 그 풍경을 ‘팔만경’이라고 하였다. 팔만경의 풍경이 훌륭하고 아름다운 경치를 자세히 아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고 도리어 반문한다. 스스로를 신선이라고 표현한 시적 화자는 아름다운 천관산의 풍경에 흠뻑 취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묘사하였다. 이는 자연의 경치와 풍류를 즐길 줄 아는 시적 화자의 자부심을 드러낸 부분이기도 하다.

석면(石面)을 구버보고 만경(萬景)을 기억(記憶)할 제/ 부령대(靈火臺) 저문 정자(亭子) 취미간(翠微間)의 찌러지다/ 암화(岩火)도 작작(灼灼)하고 송계(松桂)도 씩씩하다

시적 화자가 높고도 험준한 산을 오르는 이유는 아름다운 경치를 보기 위해서이다. ‘만경’은 넓고도 넓은 경치를 말한다. 그리고 돌로 이루어진 벽은 산의 험준함을 드러냈다. 시적 화자는 그곳에 올라 먼 경치를 바라보고 자연의 신비로움을 느끼며, 아름다운 광경을 바라본다. 이 부분은 아름다운 풍경을 기억하고자 하는 시적 화자의 염원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부령대’는 ‘불영대’의 잘못된 표현인 듯하다. 날이 저문 ‘불영대’의 정자는 산 빛이 너무도 푸르러 그 사이에 떨어진 것 같다. ‘암화’는 어둡다는 뜻으로 저녁에 어두움이 짙게 드리워진 장면을 묘사하였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도 ‘송계’는 씩씩하다고 하여 신성성을 부각하고자 하였다. 자신이 있는 그곳이 신선세계임을 드러내고자 했다.

98) 위백규, 위민환 역, 앞의 책, 1992, 127면; 九龍峯 東下, 아육왕담의 西쪽에 있다. 양편에 巨岩이 二字形으로 形成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깊이 들어간 굴이 있어 흡사 배틀 같아 보이므로 이 이름을 부쳤다.

만심대(萬心臺) 지니갈 제 안초당(安草堂) 바라보니/ 운학(雲鶴)의 지닌 물이 백일(白日)의 너성(雷聲)이다/ 연익(緣崖) 반목(攀木)하야 제일봉(第一峯) 올라가니/ 벗 업슨 청학(靑鶴)이 쉬여 넘자 허난 닷/ 달연난 쇠줄은 기벽(開關)을 지다라고/ 물에 쓴 만봉(萬峯)은 후천지(後天地)에 나리 로다/ 선산(仙山)도 불행(不幸)하다 봉수(峰燧)나 또 엇지요/ 봉두(峰頭)에 혼자 서서 사망(四方)을 주남(周覽)하니/ 천양(天壤)이 다 물리요 운봉(雲峰)만 못치로다/ 터(臺) 우의 나든 봉(鳳)은 신공(神功)만 허비(虛費)하고/ 공부자(孔夫子) 소천(小天下)는 천만고(千萬古)의 과연(果然)하다

천관산의 웅장함을 언급하였다. 시적 화자는 만심대를 지나 안초당을 바라본다. 만심대는 ‘안심대’를 잘못 적은 듯하다.⁹⁹⁾ 안초당의 산골짜기에서 흐르는 물은 대낮의 천둥소리와 같다고 하여 신성한 곳임을 짐작하게 한다. 나무를 붙잡고서야 겨우 제일봉에 올라간다. 선산의 정상에 혼자 서서 사망을 바라보니 하늘과 땅이 모두 물이고, 봉우리만 땅으로 보인다. 구름이 가득한 ‘제일봉’의 신성함을 말해준다. ‘안심대’ 위에 날던 봉황은 신비스러운 기운으로 신선의 공만 허비한 듯하다고 하며, 봉황이 없어도 충분히 신비롭고도 신성한 공간임을 나타냈다. ‘공자’가 태산에 올라가 천하가 좁다고 말했을 때를 인용하여 시적 화자 역시 ‘浩然之氣’의 모습을 드러냈다.

옥당(玉堂) 금벽(金壁)은 일역(人力)으로 허러니와/ 조화(造化)는 무삼 일 노 편벽(偏僻)도이 삼겨 노코/ 암만(岩巒)의 밤이 들고 동곡(洞谷)도 고요홀 제/ 창명(滄溟)의 도든 달이 만학(萬壑)의 다 비취니/ 경굴(瓊窟)을 허친 소리 학(鶴)의 꿈 절로 쟤다/ 백운(白雲) 탄 우객(羽客)이 벽봉(碧峰)으로 지니갈 제/ 철적(鐵笛) 흔 소리의 희산(海山)이 요동(搖動)한다

‘동일암’의 화려한 풍경을 묘사하였다. 동일암은 ‘玉堂金壁’이라 하여 화려하고 멋진 궁전에 비유하였다. ‘동일암’은 인공적인 화려하고 멋진 궁전보다

99) 위백규, 위민환 역, 앞의 책, 1992, 91면에서는 ‘안심대’라는 지명만 존재한다. 또한, 위의 책(장흥문화원, 1992), 97면; 안심대, 정심대, 안초당은 모두 불영대 뒷골에 있다. 여러 암자들은 숙종 甲申年(1704) 이후에 허물어졌으나 안심대, 정심대 등 數菴은 제외되었다.

는 조화옹이 만든 자연의 風光이 훨씬 아름답고 세련되었음을 드러냈다. 시간적 배경은 밤으로 산과 바위는 고요하기만 하다. 또한, 밤의 풍경을 싸늘히 어두운 곳 어딘가에서 돋은 달은 높이 떠서 깊은 골짜기마다 찾아든다고 표현하였다. 달빛에 잠들어 있는 학은 일어나서 산봉우리로 날아간다. 이렇듯 밤이 되어 모두 고요한데 ‘瓊窟’ 즉, 화려한 굴에는 학이 깨어 산봉우리를 날아가는 신비한 모습을 그렸다. 학을 ‘흰 구름을 탄 손님’으로 묘사하였고, 이는 仙界를 표현한 매개물로 드러냈다.

초경(初更)의 잠 못들어 오경(五更) 되도록 안자시니/ 창망(滄茫)한 운무간(雲霧間)의 화륜(火輪)이 소사나니/ 부상(扶桑)의 편난 비시 양곡(陽谷)도 못비칠 제/ 제 끓는 불근 비시 만학(萬壑)의 능논(凌亂)한다/ 계명봉(鷄鳴峯) 백옥계(白玉鷄)난 나래도 즈쵸 친다/ 목어(木魚) 한 소래의 자연(紫烟)이 다 거드니/ 삼천계(三千界)이 명낭(明朗)하니 안저(眼底)도 썩썩하다/ 군산(群山)은 어둑어둑 신선(神仙)갓치 버려 잇고/ 벽희(碧海)에 편난 비난 불사약(不死藥) 캐러 온다

‘동일암’에서 본 日出의 광경이다. 시적 화자는 집에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새벽 3시~5시에 이르러서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앉아만 있다. 다음 날 아침은 창망하고 구름이 많은 사이에 화륜(火輪) 즉 ‘해’가 솟았다고 하여 동트는 장면을 묘사하였다. 해가 돋는 동쪽 마을에 뜬 해는 동쪽에 빛을 비추지 못하고 제 끓는 붉은 빛이 만학에는 익숙지 않다. 해 솟는 동쪽 바다를 시작으로 그곳을 떠난 빛은 해 뜨는 동쪽바다를 비치지 못하였다. 붉은 햇빛이 겹겹의 골짜기에 어지러이 흩어져 비치었다. 해가 솟는 모습을 ‘계명봉 백옥계난 나래도 즈쵸 친다’고 표현하였다. 여기서 말한 계명봉은 아마도 계봉¹⁰⁰인 듯하다. ‘계명봉’과 ‘백옥계’는 산 이름과 닭을 연관시키고 있다. 닭이 울어 아침을 알리는 것을 교묘하게 연결시켰다. 아침에 본 여러 산들의 모습은 신선이 서 있는 것 같고, 다시 산은 구름 속에서 배와 같은 모습으로 연상되어 그 배가 불사약을 캐러 오는 것으로 묘사된다. 日出 후의 모

100) 위백규, 위민환 역, 앞의 책, 1992, 127면: <보유편>의 <계봉>에는 玉溪 蓮花 兩洞 사이의 연이은 봉으로서 바위가 모여 봉우리들이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습들은 신선처럼 버려있는 여러 산들과 불사약을 캐러오는 배의 모습으로 신비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고읍(古邑) 방촌(傍村)은 무릉도원(武陵桃源) 아니런가/ 금선대(琴仙臺)
청원대(淸遠臺)는 운무간(雲霧間)의 싸 있다/ 문수암(文殊庵) 도라드러
거북봉(龜峯) 도라보니/ 계수전(溪水前) 천연(千年) 거북 등 쪼인지 오리
거다/ 산화(山花)는 작작(灼灼)하고 사경(四境)을 비저닌다/ 팔십구(八十九)
암자(庵子)을 못본디 반이 늙다/ 흥진(興盡) 비너(悲來)하니 회포(懷
抱)도 하고 만타/ 천연(千年) 만고(萬古)의 밋 빗춘 의구(依舊)하다

‘반야암’에서 내려온 시냇물은 산 밖의 고을 ‘傍村’으로 흘러 들어간다. 여기는 실제 지명인 ‘傍村’을 사용하여 지역성을 드러냈다. 즉, 傍村은 살기 좋은 곳이라 하여 무릉도원이라 묘사하였다. ‘반야암’에서 흘러 들어간 桃花는 작가가 살고 있는 마을을 ‘무릉도원’으로 만들었다. 또한, 무릉도원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예로, ‘금선대’와 ‘청원대’를 들어 구름과 안개가 짙게 쌓여 있는 모습을 형상화하였다. 본문에서 작가는 문수암 근처에 거북봉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支提誌》에는 ‘거북봉’이 존재하지 않는다. 거북봉과 비슷한 뜻으로 거북암자라는 ‘구암’¹⁰¹⁾이 있는데, 이는 아마도 거북바위를 말한 듯하다. 작가는 문수암을 돌아들어서 ‘거북봉’을 바라보았다. 문수암에서 본 ‘거북봉’을 설명하였다. 시냇물 앞에 있는 천년된 바위라고 하여 그 역사를 논하였고, 거북의 등이 갈라진 것처럼 보였다는 것으로 그 형상을 나타냈다. 또한, 그 주위의 아름다운 풍경을 묘사하였다. 산에 피는 꽃은 밝고, 사방산의 풍경은 꽃들로 이루어졌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닌 자연 스스로 이루어낸 아름다운 풍경에 사람들이 암자를 만들어 더 멋지고 아름다운 강산을 즐기자 한 것이다. 예전에 있었던 89개의 암자들은 천관산이 불교의 근원임을 알게 해준다. 시적 화자는 멋지고 아름다운 天冠山을 3일 동안에

101) 위백규, 위민환 역, 앞의 책, 1992, 122면; 龜巖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古記에 鯤魚가 化(鯤魚가 변화하여 鵬이 된다는 뜻)하여 三足 鼈(자라)로 변했다고 들었는데, 어느 때 이곳으로 옮겨왔던가. 마신 바람 六鰲의 壽(六龜壽)에 사양하지 않으니 높이 솟은 그 등 북어와 흡사하네.”

모두 유람하지 못함을 안타까워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천관산을 보지 못한 것만 해도 반이 넘는다고 하면서도 天冠山의 세세한 부분까지 언급하고자 한다. 이는 시적 화자의 안타까움을 언급한 부분이며, 그에 대한 아쉬움을 ‘홍함(鴻)이 다한 뒤에 반드시 슬픔이 찾아온다’고 표현하였다. 이것은 다시 속세로 돌아가야 하는 아쉬움을 토로한 것이다. 또한 시적 화자는 마음에 품은 뜻이 많고도 많은데 그 뜻을 아직 다 이루지 못한 아쉬움을 보인다. 이러한 까닭으로 시적 화자는 오랫동안 서 있는 산의 빛깔이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을 것이라 추측하며 시적 화자의 마음을 드러냈다.

태산(泰山) 정상(頂上)의 옥경(玉京)이 지척(咫尺)이라/ 화려(華麗)한 문장(文章)은 과객(過客)의 진적(陳蹟)이요/ 절승(絶勝)한 산수(山水)난 후인(後人)의 호사(豪奢)로다/ 소박(素朴)한 이 너 몸이 글자도 못혀며는/ 요수(樂水) 요산(樂山)한달 인지(仁智)을 어이 알니/ 빈발(鬢髮)이 호백(皓白)하고 기역(氣力)이 쇠진(衰盡)하니/ 공맹(孔孟) 안증(顏曾)은 꿈의도 못보니/ 서방(西方) 미인(美人)은 소식(消息)이 언제 오고/ 석실(石室) 운산(雲山)의 옥담(玉潭)이 천이로다

‘천관산’은 신선세계이고, 그 정상은 옥황상제가 사는 옥경과 가깝다고 하여 천관산의 높고도 위엄있는 모습을 ‘泰山’이라고 표현하였다. 이 천관산에 오르면 그 멋진 풍경을 보고 시를 짓지 않는 경우가 없으니, 그만큼 천관산을 다녀간 사람들이 많다고 하여 천관산에 대한 문장 또한 많다고 하였다. 시적 화자는 화려한 문장은 멋지고 아름다운 광경을 본 나그네들의 늘어놓은 자취들이고, 이 빼어난 좋은 경치를 지닌 山水는 다음 세대의 호화로운 사치라고 말했다. 벼슬하지 못한 자신을 스스로 ‘소박하다’고 말하며, 《論語》의 <옹야편>에서 한 구절인 ‘知者樂水, 仁者樂山’을 인용하여 자연을 벗삼는 향촌사족의 모습을 강조하였다. 樂山樂水를 할지라도 글을 못한다면 人智의 뜻을 알지 못할 것이라며 반문한다. 시적 화자는 평생 유교적 소양을 간직하고 살았지만, 鄉村에서 머리카락이 희고 氣力이 다하여 쇠한 모습을 드러냈으며, 나이가 들어서도 출세의 길을 포기하기 어려웠던 심정을 토로하였다. 다음은 유교적인 사상을 잘 드러냈다. 공맹과 안증 즉, 유학의 4

대 성인이라 할 수 있는 공자, 맹자, 안희, 증자의 4명의 인물을 말하고, 그들을 꿈에 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 많은 아쉬움을 토로하였다. 시적 화자는 여러 부분에서 뛰어난 사람의 소식을 기다리지만 언제 어떻게 올지 기약이 없다. 이는 시적 화자가 벼슬에 나아가고자 하는 염원을 드러낸 구절이다. 더불어 시적 화자의 유교적 신념을 강하게 드러낸 부분이다. 시적 화자는 유교적인 교양을 발휘할 기회조차 잡지 못한 안타까움과 出仕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꿈에도 볼 수 없음을 드러냈다. 여기에 이르러 시상은 갑자기 급전하여 興이 다하여 현실적 고뇌가 자리한다. 일견 낭만적으로 보일 수 있는 ‘石室雲山’이 도리어 현실적인 소외와 윤패를 상징하는 말이 되어버렸다. 저무는 인생, 영영 멀어져 버린 벼슬길, 그것을 안타깝게 확인하며 하산길 귀로에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초려(草廬)의 도라드니 다시곰 바래보니 만 이십(萬二十) 이 청산(靑山)
이 역문안 니련는다 청산(靑山)을 못니저서 다시 쏘 보갓더니 포의(布衣)
로 미양(每樣) 오니 산수(山水)도 붓글업다 괴유 십일월 삼구일 용흥다

‘草廬’와 ‘布衣’는 시적 화자의 처지를 잘 드러낸 단어이다. ‘草廬’는 초가집을 말하며, 이는 화려하게 살지 못하는 자신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다. 시적 화자는 집에 돌아와서는 다시 天冠山에 오르기를 갈망한다. ‘布衣’는 벼슬이 없는 선비로 시적 화자를 나타낸다. 시적 화자는 風流를 알고 즐길 줄 알지만, 벼슬에 나가지 못한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며 글을 쓴다. 시적 화자는 천관산을 다시 찾기를 바라지만, ‘布衣로 每樣오니 山水에 부끄럽다’고 하여 벼슬에 나가지 못하는 자신 혹은 향촌사족들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다.

다음은 <金塘別曲>의 내용을 살펴보자. <金塘別曲>은 <天風歌>와 같은 공간을 드러낸 작품은 아니다. 하지만, 그 주체인 시적 화자가 바라본 대상은 ‘自然’이다. <天風歌>와 마찬가지로 <金塘別曲> 역시 자연을 자연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신선세계로 표현하고 있다. 즉, 시적 화자는 본인 스스로를 신선이라 하였고, 본인이 있는 ‘금당도’와 ‘만화도’ 역시 신선세계로 묘

사하고 있는 구절이 많다. 작품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자.

강산풍월(江山風月)이 한가(閑暇)흔지 여러 해여/ 분분세사(紛紛世事) 나
오슬여(나도슬여) 풍월주인(風月主人) 되라 호야/ 명구선경(名區仙境) 반
세(半世)를 늙어 잇다

‘江山風月’은 ‘自然’이다. 이런 ‘自然’은 여러 해 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한가함을 준다. 이는 아마도 시적 화자가 한가하기 때문에 自然 또한 한가하다고 표현한 것이다. 시적 화자는 또한 어지러운 속세에서 벗어나 자연과 함께 하는 ‘풍월주인’이 되고자 하였다. 이 아름다운 자연은 이름난 仙境으로 대체시켰다. 이 지역은 ‘名區’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직접 山水가 아름다워 널리 이름난 지역임을 나타낸 것이다. 또한, 작가는 半世라고 하여, 작가가 살아온 반 세상동안 이곳에서 자연과 함께 살고 있음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전산(前山) 아춤 비애 봄빛이 빼어나니/ 산화(山化) 피은 곳이 흥미(興
味)도 하고만타/ 학우(鶴友)의 신선(神仙)들을 이 재예 만나보아/ 황금단
(黃金丹) 여지내여 삼동계(參同契) 못자 호야

仙境의 모습을 그렸다. 시적 화자는 비객 후 봄빛이 한층 완연해진 앞산을 보고 금당도로의 여행길을 재촉한다. 이 구절은 풍월주인이 된 시적 화자의 흥미를 더해준다. 시적 화자는 신선 친구인 鶴을 맞이하는 반가움을 크게 드러냈다. 이는 유람(旅行)의 동기를 밝히고 있는 부분이다. 여기 나타내고 있는 ‘황금단’은 신선이 먹는 알약¹⁰²⁾이라고 풀이하였다. 시적 화자는 신선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삼동계를 묻기 위해 떠난다고 하여 출발의 동기를 밝히고 있다. 즉 이 부분에서는 시적 화자의 내면의식을 알아볼 수 있다. 시적 화자는 다음으로 갈 곳을 신선세계로 받아들이고는 그곳을 가는 것이 바로 신선들을 만나는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이는 현실을 초월하고

102) 임기중, <金塘別曲>, 『한국가사문학주해연구』 권 4 (아세아문화사, 2005), 176면.

싶은 화자의 강한 욕망에서 비롯되었다.

평사(平沙)의 닳을 주고 치하(彩霞)을 헛쳐 보니/ 밋 알에 물 우희 그 스
이 천척(千尺)이라/ 기상(氣象)이 만천(滿天)이라 파능(巴陵)이 이갓든가/
대굴은 그 일흠이 이제보니 과연(果然)흐다/ 연하(烟霞)와 흠피 느려 석
노(石路)로 올라가니/ 경화노초(瓊花瑤草)는 곳곳의 김피 잇고/ 옥दन금경
(玉殿金莖)은 골골이 널러 잇다

‘금당도’에 도착하는 부분이다. 시적 화자는 제일봉 정상에 오르는 길을 묘사하였다. 그 길에는 풀과 꽃들로 가득하다. 산과 바다 사이의 거리는 천척이나 되며, 그 기상은 하늘에 가득하다고 하여 아름답고도 신비한 느낌을 연출하였다. 산으로 점점 올라갈수록 안개와 노을이 함께 내려 있으며, 아래로 돌길을 바라보니 깎아지른 절벽의 모습은 마치 신선세계에 있는 듯하다. ‘경화노초(瓊花瑤草)’는 옥 모티브로, 신성함과 고결함을 나타내는 색채의 이미지로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광경을 의미한다. 이는 인간의 상상력을 다하는 것이기도 하다. 여기에 나오는 ‘풀’은 신선의 풀이다. ‘옥दन금경(玉殿金莖)’ 또한 단어 속에 옥 모티브를 포함한다. 따라서 이는 모두 신선세계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반산(半山)의 흘러쉬여 제일봉(第一峰) 올라가이/ 일진선풍(一陣仙風)이
양액(兩腋)의 빅기 부러/ 표표상매(飄飄雙袂)에 심신(心身)이 청냉(淸冷)흐
니/ 봉구 소식(蓬丘消息)을 거의 안니 드을소나

제일봉에 오르는 모습으로 시적 화자는 오르고 쉬기를 반복한다. 산 정상
을 제일봉이라고 하였다. 제일봉에 올라간 시적 화자는 마음이 깨끗하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시원한 바람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그 곳에서 시적 화자
는 신선이 된다. 그 형상은 한바탕 신성한 풍채는 양쪽 겨드랑이에 비스듬
히 붙어온다. ‘금당도’가 바로 신선세계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부는 바람은
仙風임에 틀림없다. ‘봉구’는 ‘봉래산’을 말한다. 봉래산의 소식을 거의 매일
듣고 산다며 시적 화자는 ‘제일봉이 곧 봉래산’이라 생각하고 ‘제일봉’에 오

른 느낌을 신성함을 표현하였다.

애장(牙橋)을 다시 씹며 만화도(萬花島)로 느려간이/ 산음설야(山陰雪夜)
의 즈유(子猶)의 호흥(豪興)이라/ 석강추월(石江秋月)의 백야(白也)의 시정
(詩情)이라/ 지낸 경(景)도 도견이와 밤 경(景)이 더욱 도타/ 사변(沙邊)의
자던 구로(鷗鷺) 도성(潮聲)의 절로 찌여/ 삼강연월(三江烟月)의 흙과 놀
자 우는 썬/ 슈저(水底)의 노던 상애(湘娥) 요슬(瑤瑟)을 썬아틀 제/ 남풍
오현(南風五絃)의 성음(聖音)을 전호는 듯/ 괴예승류(扣捩乘流)호야 흥(興)
겨워 머물러 제

‘만화도’에 가는 과정을 그렸다. ‘山陰雪’는 『世說新語』 103)를 인용한 것이
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왕희지의 ‘興’이다. 왕희지의 근본적인 목적은 친
구를 만나러 가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과정 중에 ‘興’이 다하였으면 ‘興’만
즐기면 된다는 것이다. 그만큼 시적 화자는 왕희지의 豪興과 李太白의 詩情
을 연상하고자 한다. 지난 광경도 좋지만, 밤 풍경이 더욱 좋다고 한다. 달
밤에 모래 주변에서 잠을 자던 갈매기와 백로들은 파도소리에 깨지만 시적
화자에게 있어서 그 파도소리는 음악소리처럼 들리니 시적화자가 대하는 자
연의 모습을 엿볼 수 있을 듯하다.

<天風歌>는 長興의 대표적인 名山으로 알려진 ‘天冠山’을 노래한 가사작
품이다. 長興의 마을 중심에 위치한 ‘天冠山’은 장흥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안식처이기도 하다. 하지만, <天風歌>에 드러난 ‘天冠山’은 신성성을 돋보이
게 하는 환상적인 공간을 연출하였다. 장흥 사람들이 자주 찾는 지역 공간
으로서의 天冠山은 지역 주민들에게는 큰 안식처라는 인식이 작용하였다.
또한, <天風歌>에서의 ‘天冠山’은 속세와는 다른 모습으로 작품 곳곳에서 신
선세계를 비유하고 상징하는 단어들이 많이 사용하여 신선세계를 그리고 있

103) 진나라 왕희지가 산음에 살고 있었는데 밤에 폭설이 내리자 친구인 대규가 생각나서 밤
새 배를 저어 섬에 있는 그 집 문앞까지 가서는 보지 않고 그냥 돌아왔다. 사람들이 그
까닭을 묻자, 왕희지는 “내가 흥이 나서 갔다가 흥이 다해 돌아왔는데, 하필 대규를 만나
볼 필요가 있겠는가”라 하였다. 후대에는 친구를 방문한다는 뜻으로 쓰였다. 《世說新語
任誕》 한국고전번역원(<http://www.itkc.or.kr>)에서 발췌하였다.

다. 그러나 이 작품의 작자는 모든 향촌사족을 대변하여 벼슬에 나아가지 못한 안타까움을 작품에서 잘 드러냈다. <金塘別曲>도 마찬가지다. ‘금당도’와 ‘만화도’를 유람하면서 주체인 장흥의 향촌사족들은 대상인 자연을 통해서 신선과 함께 노니는 환상적인 공간으로 형상화하였다. 그 점에서 <天風歌>와 수평선상에 놓인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장흥이라는 공간에서 장흥의 향촌사족이라는 주체가 대상으로 바라본 자연이 체념의 공간이면서도 희망의 공간으로써의 모습을 드러냈음을 볼 수 있었다.

1.2 長興 이외의 風光을 제시한 경우

장흥지역 가사문학이라고 하면서도 다른 지역을 소재로 한 작품이 있다. 장흥에서 태어난 白光弘이 關西地方을 두루 유람하면서 지은 가사작품이 바로 <關西別曲>이다. <長恨歌> 또한 그러하다. <長恨歌>의 작가는 李中으로 그 역시 장흥에서 출생한 인물이다. 장흥지역 가사문학의 정의 부분에서도 언급했듯이 장흥지역 가사문학은 큰 의미에서 주체가 장흥에서 태어나고, 혹은 자라서 그곳에서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岐峰 白光弘도 그런 인물인 것이다. <關西別曲>은 岐峯 白光弘이 明宗 10年(1555)에 西道の 백성들을 돌보라는 임금의 命을 받고 平安道 觀察使로 서울을 떠났다. 이에 邊方의 적이나 재해를 막을 준비를 하고는 그 험하고 쉬운 것을 두루 살펴 노래와 풍속을 채집하여 <關西別曲>을 지었다¹⁰⁴고 전한다. <關西別曲>의 경우는 송강 정철의 <關東別曲>의 큰 영향을 준 작품으로 알려졌다. <長恨歌>는 특이한 구조를 가졌다. 교훈을 목적으로 한 작품이지만, 작품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교훈과 유람을 한꺼번에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작품 하나하나를 살펴 작품의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자. 첫 번째로 <關西別曲>을 살펴보자.

感松亭 도라드러 大同江 褊리보니/ 十里波光과 萬重烟柳는 上下의 어뢰

104) <關西別曲>의 저작동기에 대해서는 줄고, 「<關西別曲>에 나타난 공간인식」, 『동방학』 16집(한서대 동양고전연구소, 2009)에서 자세히 언급하였다.

엿다/ 春風이 헌스ᄃᆡ야 舟船을 빗기보니/ 綠衣紅裳 빗기안자 纖纖玉手로
 綠綺琴니이며/ 皓齒 丹脣으로 采蓮曲 부르니/ 太乙眞人이 蓮葉舟 타고 玉
 河水로 느리는듯/ 설미라 王事靡監 혼들 風景에 어이ᄃᆡ리/ 練光亭 도라드
 러 浮碧樓에 올라가니/ 綾羅島芳草와 錦繡山烟花난 봄비슬 자랑ᄃᆡ다

<關西別曲>의 여정 부분이다. 실제 공간인 ‘감송정’, ‘대동강’, ‘연광정’, ‘부벽루’, ‘능라도’, ‘금수산’, ‘풍월루’, ‘칠성문’ 등의 여러 지명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실제 地名의 풍경을 묘사하여 작품의 사실성을 더더욱 강조하였다. 작품에 드러난 시적 화자는 ‘감송정’에서 그곳의 경치나 풍경을 드러내지 않고, ‘대동강’을 바라보며 이때 느끼는 감정들을 나열하였다. 이는 앞 장면과의 연결성을 보이려 의도적으로 地名을 사용하여 공간이동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다른 기행가사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즉, 강 물결이 널리 퍼져 있는 모습과 안개 사이의 버드나무는 겹겹이 쌓인 모습이라 하여 아름다운 대동강을 묘사하였다. 또한, 봄바람이 부는 물가에 아리따운 젊은 여인들의 모습과 듣기 좋은 음악이 함께 어우러져 있음으로 시간적 배경과 더불어 시각, 청각적 이미지를 잘 나타냈다. 그 둘의 결합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한층 더 높여주었다. 또한 이 부분에서는 나라 일과 아름다운 풍경 사이의 고민 양상이 안타까움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시적 화자는 이 부분 역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부벽루’에 올라서 멀리 보이는 ‘능라도’와 ‘금수산’의 모습을 감상하며 봄빛을 연상케 하였다. 시적 화자는 아름다운 山水를 구경하면서 自然이 가장 조화로운 계절인 봄날의 시간적 배경과 더불어 自然의 風趣를 한껏 고취시키고 있다.

樓臺도 만ᄃᆡ고 山水도 하건마는/ 百祥樓에 올라안즈 晴川江 바라보니/
 三叉 形勢난 壯奚도 가이없다/ ᄃᆡ물며 決勝亭 니려와 鐵甕城 도라드니/
 連雲 粉堞은 百里에 버려잇고/ 天設 重崗은 四面에 빗겡도다/ 四方巨陣
 과 一國雄觀이 八道이 爲頭로다/ 梨園의 꽃피고 杜鵑花 못다진제/ 營中
 이 無事커늘 山水를 보라ᄃᆡ야/ 藥山東臺에 술을 실고 올라가니/ 眼底 雲
 天이 一覽에 無際로다/ 白頭山 너린물이 香爐峯 감도라/ 千里를 빗기ᄃᆡ
 너 臺압츠로 지니가니/ 盤回屈曲ᄃᆡ야 老龍이 쏘리치고 海門으로드난듯/

形勝도 7이업다 風景인달 안니보라

이 구절에 드러난 공간 역시 실제 지명과 누정의 이름을 사용하였다. ‘백상루’, ‘청천강’, ‘결승정’, ‘철옹성’ 등은 누대도 많고 山水의 풍경도 아름다운 곳이라 하였다. 시적 화자가 처음 도착한 곳은 ‘백상루’다. 시적 화자의 시선은 ‘백상루’에서 ‘청천강’으로 옮겨간다. 그 풍경은 세 갈래로 갈라진 산과 널리 퍼진 강물이며, 그 形勢의 웅장함을 묘사하였다. ‘감송정’의 풍경은 좋고 멋진 壯觀이 펼쳐져 있음을 의미한다. 시적 화자는 임금의 命을 잠시 접어둔 채 흔들리는 모습이 역력하다. ‘철옹성’의 모습은 다음 구절에서 소개할 ‘藥山 東臺’의 모습을 더욱 아름다운 공간으로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이 구절은 關西地方의 아름다운 光景의 한 부분으로 여러 누대들을 언급하였다. 시적 화자는 누대도 많고 山水도 많다고 하여 위에서 언급한 세 공간은 自然, 山水의 風趣를 느낄 수 있음을 스스로 자부하였다.

다음 구절의 공간적 배경은 ‘藥山 東臺’이다. 배 밭에는 꽃이 피었고, 두견화는 다 지지 않았을 때라고 하여 봄날의 풍경을 묘사하였다. 시적 화자는 꽃이 활짝 피는 아름다운 계절인 ‘봄’에 관영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으로 山水를 즐기고 싶은 심정을 드러냈다. 또한, 山水를 구경하러 나서며 ‘藥山 東臺’에 오른다. 시적 화자는 山水를 구경함에 흥을 한층 더 돋우기 위해 동대에 술을 싣고 올라간다. 눈 아래 펼쳐진 광경은 구름 하늘로 바라봄에 끝없음을 드러냈다. 藥山 東臺에서 바라본 풍경은 ‘雲天’이라고 하여 시적 화자는 구름에 떠 있는 듯하다고 표현하였고, 그 모습에 놀라움과 즐거움을 표출하였다. 또한, 백두산에서 내려오는 물은 향로봉을 감돌아 흐르고, 이 물이 길고 길게 이어진 그 물줄기를 ‘千里를 비껴 흐른다’고 하였다. 그 물은 東臺 앞으로 지나 흘러가는 형상화하였다. 대를 돌아 곱어가는 물줄기는 마치 늙은 용이 꼬리를 치며 육지와 바다 사이에 있는 통로로 들어가는 듯한 모양이라 하였다. 시적 화자는 장엄하고 신비한 모습에 신선세계에나 있을 법한 용을 들어 묘사하였다. 이러한 風景과 地勢는 너무도 뛰어나 끝이 없다고 하여 그 아름다운 풍경을 계속 즐기고자 하는 시적 화자의 심정이 녹아 있다.

<關西別曲>은 관서지방의 화려하고 아름다운 장관을 은유와 인용을 통해서 드러냈다. 이 작품의 공간은 장흥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학자들은 장흥지역의 가사작품이라고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조선조 사립들은 성리학적 현실 위주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중시하다보니 그들이 지향하는 山水는 더 이상의 이상공간이 아니라 학문과 수양을 위한 현실 생활공간이었던 것이다. 이렇듯 우리나라 기행가사의 효시라는 <關西別曲>에서는 자연과 풍류의 공간으로서의 山水를 말한다. 하지만, 정작 그 山水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자연으로서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보다는 생활공간으로서의 자신들의 세계관을 구축한 仙界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두 번째 작품은 <長恨歌>다. 이 작품은 금강산을 두루 여행하고 그 아름다운 풍경을 적은 부분이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금강산에 가서 노닐었던 상황을 적고 있다. 이 부분은 작품의 전체적인 상황과는 맞지 않는다. 그렇다고 이 구절을 다른 곳에서 붙인 것 또한 아니라고 하니 작가의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을 듯하다.¹⁰⁵⁾ 그렇다면 <長恨歌>에 드러난 遊覽의 양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가자서라 가자서라 구경하러 가자서라/ 무슨구경 가자난가 山水구경 가
 자서라/ 萬古大聖 孔夫子난 泰山에 올으시고/ 千仞氣像 曾點이난 沂水에
 沐浴하고/ 술잘먹던 李太白은 采石江에 玩月하고/ 글잘하던 蘇東坡난 赤
 壁江에 遊船하니/ 如我者 微渺人生 안이놀고 무엇할이/ 青春에 구경턴덜
 臥遊江山 희볼거슬/ 이제야 晚覺이라 名山大川 놀아보자/ 天冠山은 月出
 山은 前日의 올라보고/ 智異山 白雲山은 已往에 놀아또다/ 江原道 金剛
 山은 天下名山 일어시니/ 竹杖芒鞋 차자가서 한번구경 못할소냐/ 中華사
 람 하난말도 願一見之 하여시니/ 本國에 몸이나서 한번구경 못할소냐/
 八萬九菴 萬二千峰 飽聞한제 올이로다/ 가다가 못가거든 人家차차 자고
 가시/ 風俗도 돌아보고 世情도 살펴보아/ 人人淺深 村村厚薄 이도또한
 구경이라/ 열어날 가고가서 金剛山 다닷거든/ 斷髮승에 털얼 끈코 洗身
 岩 저을싯치/ 塵念을 消滌후의 楡店寺 차자가서/ 少僧불너 질을못고 老
 僧불너 景處물어/ 八萬九菴 조흔경을 낫낫치 다본후에/ 仙緣을 더우잡어

105) 이에 관련된 내용은 정익섭, 앞의 논문, 1986, 212면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更上一層 峰이올나/ 萬二千峰 峰峰景을 차례로 구경알제/ 玉京仙子 만나
거든 一席談話 하여보세/ 童子야 손임오시거든 구경갓다 일너서라.

<長恨歌>의 遊覽에 관한 내용의 全文이다. 위의 첫 구절의 궁극적인 목적은 山水를 구경하러 가자는 것이다. 孔夫子, 曾點, 李太白, 蘇東坡 등의 옛 선인들도 山水를 구경하여 詩와 文에 능한 인물들이다. 이는 시적 화자 역시 山水를 遊覽하고자 하는 熱望을 표현하였다. 시적 화자는 봄날의 풍경을 즐기고자 했지만 빨리 깨닫지 못한 아쉬운 마음을 드러냈다. 시적 화자는 자신이 가보았던 天冠山, 月出山, 智異山, 白雲山 등 전남의 여러 산들을 나열하였으나 시적 화자 스스로 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들에게까지 아름다운 곳이라 인정받은 天下의 名山인 金剛山에 가보지 못한 안타까움을 표출하였다. 제일 처음 언급한 ‘天冠山’은 작가의 고향인 長興에 위치한 산이다. ‘月出山’은 전남 영암에 있는 산으로 전남의 유명한 산 중의 하나다. 또한, ‘智異山’은 전남, 전북, 경남에 걸쳐 있는 산으로 ‘方丈山’, ‘頭流山’이라고도 부른다. ‘白雲山’은 전남 광양에 있는 산이다. 이렇듯 시적 화자는 전남에 위치한 名山들은 모두 다녀왔지만 우리나라의 최대 名山인 金剛山에는 가보지 못한 마음과 염원을 드러내며, 스스로 금강산에 가야만 하는 당위성을 언급하였다. 중국 사람도 한번 가보기를 원하는 금강산인데 本國에서 태어난 사람이 가지 못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적 화자는 먼 길이지만 가벼운 짐으로 쉬엄쉬엄 가더라도 금강산에는 꼭 갈 것이라는 熱望을 드러냈으며, 가다가 못가면 人家라도 찾아 쉬어서라도 가고자 하는 시적 화자의 意志를 담아냈다. 더불어 지나가는 마을의 人心을 살펴 세상의 한가로움을 만끽하는 모습 또한 잘 드러냈다. ‘金剛山’은 신선세계로 묘사하였다. 시적 화자는 봉우리에 올라 속세의 더러움을 씻고자 楡店寺를 찾아간다. 즉, 그곳이 바로 신선세계다. 시적 화자는 절의 두 스님께 물음을 청한다. 총명하고 젊은 스님에게는 길을 묻고, 경험과 연륜이 있는 노승에게는 景處를 묻는다. 시적 화자는 신선과의 인연으로 봉우리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선세계에 올라 金剛山의 萬二千峰을 아래서 내려다보며 모두 구경한다고 말하였다. 그 때 신선세계에 사는 玉京仙子를 만나서 談話를 즐기고자 한다. 이

에 심부름하는 동자에게는 손님이 오면 구경 갔다고 전하라고 당부한다. 이는 시적 화자 스스로가 神仙임을 지칭하는 것으로 玉京仙子가 서로 통하는 사이임을 증명하였다.

<關西別曲>, <長恨歌>는 단지 장흥지역 출신의 작가가 창작했기 때문이거나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작품에 드러난 산수 인식의 측면에서 즉, 속세와 차별화된 선계의 모습으로 형상화한 부분이나, 신선세계의 모습을 ‘산’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형상화 한 부분에서는 장흥지역을 소재로 한 다른 작품들과 같았다. 따라서 자연을 대상으로 장흥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을 했을지라도 작품을 쓴 작가들의 의식 세계는 최초의 기행가사인 <關西別曲>을 지었던 白光弘에 의해 형성되었고, 필자가 연구대상으로 삼은 마지막 작품인 <長恨歌>의 李中銓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어져왔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작품은 <關西別曲>, <金塘別曲>, <天風歌>, <長恨歌>는 인간인 주체가 자연을 대상으로 한 작품들이다. 이 작품들은 작품의 공간을 설명하였다. 모두 같은 공간을 드러낸 작품들은 아니지만, 위의 작품들은 지역적 특성을 논하면서 기행가사로서의 면모를 드러냈다. <關西別曲>, <金塘別曲>, <天風歌>로 이어지는 紀行歌辭의 계보를 살펴보았을 때, 기행가사는 효시작품인 <關西別曲>은 <關東別曲>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고¹⁰⁶⁾, 이는 다시 <金塘別曲>에 큰 영향을 주었다.¹⁰⁷⁾ 기행가사 작품들의 구성이나 산수 인식 양상들은 지역적 특성을 막론하고 서로 많은 영향으로 발달, 계승되었다. 이러한 紀行歌辭 가운데서 시적 화자는 아름다운 山水의 모습뿐만 아니라 地名의 유래와 그 주변 배경들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거의 대부분의 자연 공간들은 신성성을 중시하는 16~17세기 기행가사의 특징을 잘 드러내면서도 장흥지역 뿐만 아니라 작품 속에 등장하는 공간에 대해 아름다운 공간으로 표현하였다.

106) 박 미, 앞의 논문, 2003. ; 박덕구, 앞의 논문, 1994.

107) 박일용, 앞의 논문, 1996.

2. 儒教 倫理에 대한 提示

향촌사족 가사의 가장 큰 특징은 유교적 성향이 짙다는 것이다. 유학의 근본사상을 논한 가사의 장르는 道學歌辭, 敎訓歌辭가 있다. 조선시대에 유교가 그 근본이 되었기 때문에 유교는 교훈가사와 도학가사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道學歌辭는 표면적으로는 載道的인 성격을 가장 많이 보여준다. 《道學歌》류에 등장하는 윤리 덕목은 자아의 개인정서가 아니고 이미 사회적으로 공인되어 있는 가치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작품이라기 보다는 무미건조한 교훈서가 되기 쉽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들어와서는 교훈적 성격이 강하기는 하지만, 이들 작품 역시 당대인의 삶을 형상화하는 방식의 하나였다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¹⁰⁸⁾ 가사에서 교훈이라는 요소는 다양한 단계나 요소들에 보편적으로 관여하거나 존재할 수 있다.¹⁰⁹⁾ 향촌사족들 가사문학의 특징으로는 현실비판과 교훈·도덕을 목적으로 하는 가사작품이 창작되었다¹¹⁰⁾고 전한다. 그 가운데서도 교훈·도덕가사 작품들은 교화를 목적으로 가족이나 친인척, 혹은 제자나 아랫사람을 대상으로 쓴 글이다. 그 이유는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교화하고 감화시키는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 후기 문학담당층은 사족이었는데, 이들의 세계관이나 가치관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유교윤리였다. 따라서 이런 작품들은 향촌사족들의 가문 몰락을 막거나 자신들의 지위를 높이기 위해, 혹은 향촌구성원들을 감화시킬 목적으로 창작되었다.¹¹¹⁾ 그러므로 향촌사족들이라는 주체들은 長興이라는 하나의 공간에서 유교적, 교훈적인 행위들을 통해 작품을 완성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교훈, 도덕가사인 것이다.

조선시대는 유교를 기본사상으로 수용했기 때문에 많은 사대부들은 교훈을 주제로 삼은 노래들을 많이 창작하였다. 교훈·도덕가사 가운데 장흥지

108) 최상은, 「도학가사의 교훈과 정서」, 『가사문학의 이념과 정서』(보고사, 2006), 206면.

109) 조규익, 「교훈의 장르론적 의미와 교훈가사」, 『고시가연구』 23집(한국고시가학회, 2009), 325면.

110) 안혜진, 「18세기 향촌사족 가사연구」(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2004)에 자세히 언급되었다.

111) 박연호, 「조선후기 교훈가사연구」(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96).

역의 가사문학은 <自悔歌>, <人日歌>, <勸學歌>가 이에 속한다. 위백규의 <自悔歌>는 회감을 맞이하여 不孝를 참회하는 심정으로 지은 가사¹¹²⁾로, 형제간의 화합과 孝를 중심으로 후손들을 교육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쓴 작품이다. 이상계의 <人日歌>는 <自悔歌>와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갖지만, 이 작품 역시 同族間의 화합을 그리고 있으면서 생계유지와 納稅를 목적으로 한 治産을 강조¹¹³⁾한 작품이다. 그러나 위의 두 작품과는 달리 <勸學歌>는 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학문을 권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렇다면 세 작품에서 드러난 유교적, 교훈적인 면모를 드러낸 행위를 (1) 집단 윤리의식의 강화, (2) 警戒, 啓蒙으로서의 유교윤리로 나누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2.1 집단 윤리의식의 강화

동족집단은 동족기반 자체에서는 그들의 규범과 도덕을 만들어 지키기 시작했다. 이러한 유교적, 교훈적인 행위는 동족집단에 의해 형성된다. 이러한 규범과 도덕적 행위로 인해 촌락의 조직이나 향촌사회가 질서 있게 유지되었으며, 이로 말미암아 門中文化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예로 장흥지역의 가사문학 가운데서 그들만의 생활을 토대로 하여 그들만의 집단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작품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자.

아비는 하늘 되고/ 어미는 짜히 되샤/ 피술을 논하 내어/ 이 몸이 삼겨
 시니/ 비설워 길너 널 제/ 슈고도 곳지 없다/ 짐잘리 알흔 비논/ 늘 위흐
 여 알흐시며/ 아들이라 깃부신가/ 므슴 일을 보라시고/ 물은 잘이 날을
 주고/ 저즌 자리 올마가며/ 낮분 밥을 덜러 주고/ 오는 즈을 놀나 씨여/
 비곱끗가 젓즐 주고/ 치울년가 품의 안하/ 오좁 쑥의 내을 맛고/ 코춤
 차 도히 보니/ 천상의 봉인 듯/ 구름 속의 학인 듯이/ 안즈면 안흐시고/
 나가면 도라보니/ 어이흔 이 술랑이/ 그대지 깃뚫던고/ 세 술의 품의 나
 고/ 열 술의 문의 나이/ 상홀가 염녀호고/ 병들가 근심호며/ 파려할가 밥

112) 김석희, 앞의 책, 1995, 319면.

113) 박연호, 앞의 논문, 1996, 35면.

넘너/ 얼을런가 옷 넘너/ 쥬야 렬 두 쎬을/ 혼신돌 니줄손나

<自悔歌>의 첫 부분이다. 시적 화자는 부모와 자식으로 구성된 가족의 모습을 묘사하였다. 이 부분은 부모에 대한 恩功을 적고 있다. 부모는 귀한 아들에 대한 지극하고 정성스러운 사랑을 보여준다. 모든 부모님들은 자식을 곱게 길러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은 그 은혜를 모르며 살아갈을 서술하였다. 부모님의 아낌없는 사랑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자식은 자신의 아들이 태어난 것에 대한 기쁜 모습을 드러낸다. 또한, 기쁨에 대한 정성으로 고생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수고롭지 않게 길러주신 부모님의 모습을 묘사하였다. 정성스럽게 길러주신 부모님에 대한 사랑보다는 자식에 대한 사랑을 더 크게 드러냈다. 자식은 하늘 위의 봉황에, 구름 속의 학에 비유하여 귀하고도 귀하게 길러주신 부모의 사랑과 정성을 비유적으로 드러냈다. 부모는 자식에 대한 끝없는 사랑을 논하면서도 여러 상황들과 예문들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

어니 다시 장가 들러/ 형여 깃뵈 불라더니/ 제 안해 말이 든이/ 늘근 사람 쓸디 업너/ 제 즈식 나흔 후의/ 사랑이 움단 말가/ 천금 궂든 이 한 몸이/ 나온 디을 전혀 닛저/ 하늘의셔 썩러진드시/ 싸희셔 소산드시/ 집안의 두 늘근이/ 큰 짐으로 알아보이/ 말 것치면 성을 내고/ 닐 것치면 닻을 호이/ 님눈웃 먹는 밥을/ 판식구로 아든 말가/ 불상홀샤 저 늘근이/ 눈 어둡고 귀 어두어/ 남의 눈의 귀인 업고/ 내 몸 주체 할길 업다/ 님고 먹고 쓰을 것슬/ 내 손으로 못호거니/ 설푼 밥 시근 국이/ 드손 마슬 보올넌가/ 무근 소흙 녀은 비웃/ 바람 서리 막을넌가/ 혀염업손 손즈들은/ 지륙은 무슴닐고

<自悔歌>의 2번째 항목이다. 이 부분은 은혜를 잊고 不孝하는 모습을 언급하였다. 자식들은 정성스럽게 길러 주신 부모에 대한 은혜보다는 제 식구 챙기기에 바쁜 모습을 그렸다. 부모의 입장에서 아들을 장가보내 알콩달콩살아가는 기쁨을 보고자 했으나 아들은 아내의 편을 들어 늙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 아들 역시 부모가 되지만 부모의 은혜는 잊고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은 더욱 간절하다. 이러한 모습에서 부모는 은혜를 잊은 자식들에게 서러움을 토로한다. 아들을 장가보내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에서 기쁨을 느껴보려고 하지만, 아들은 자식에게 쏟는 사랑이 너무 커서 늙은 부모는 안중에도 없다. 이런 심정을 ‘큰 짐’으로 비유했고, 서러운 마음을 절실히 표현하였다. 부모는 늙어 세월 가는 것도 서러운데 금지옥엽이야 키운 자식의 냉대에 더더욱 서럽고 슬프기까지 한다.

성인도 사롭이고/ 나도 아니 사롭인가/ 사롭으로 꺾치 삼계/ 저는 엇지
 성인 된고/ 효조도 사롭이고/ 나도 아니 사롭인가/ 스람으로 꺾치 삼계/
 저는 엇지 효조 된고/ 아희 제 싸엿편들/ 헝혀나 밋출 것술/ 불효조 되
 온 날은/ 무슴 일로 날을런고/ 하늘이 시기신대로/ 부즐어코 조심혀여/
 술 먹기 투던 당괴/ 사롭 치기 나기 시름/ 계집 통간 지물 도적/ 의복
 치례 음식 욕심/ 절절이 춤고 춤아/ 이 혼몸이 사롭 되면/ 내 몸이 절로
 늙과/ 늙의 눈의 구인 이셔/ 기리는 말 죠흔 날흠/ 부모님괴 도라가리/
 만일의 그리 안녕/ 내 몸이 즐성 되면/ 그리 안녕 설운 부모/ 다시꿈 설
 움 짓쳐/ 공산 두견성어/ 우는 거시 녀시리라

<自悔歌>의 7항의 한 부분이다. 집단적 윤리의식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孝行을 권장한다는 내용이다. ‘성인= 효자= 나’는 모두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왜 다른지를 서술하였다. 그리고는 뒤늦게 깨우친 不孝에 대한 원망의 마음을 드러냈다. 시적 화자는 不孝의 세부항목들을 적어 경계의 대상으로 삼았다. 사람의 장단점을 논하기, 남과 다투기, 술 먹기, 경제적 욕심(의복, 음식욕심), 투전, 도박, 간통, 도둑질, 낭비 등을 하지 말라고 경계한다. 이러한 행위 자체가 곧 不孝라고 하여 올바른 몸가짐이 바로 ‘孝’라고 하여 그 측면에 대해 강조하였다.¹¹⁴⁾ 경계의 대상을 조심하면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孝道할 수 있는 것이라 하여 행동의 신중함을 보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행동들이 모두 부모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적 화자는 행동을 통해서 바르고 정직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114) 박연호, 앞의 논문, 1996, 61면.

어와 이 혼몸을/ 내 몸으로 아지 말라/ 보는 것도 부모의 눈/ 듣는 것도
 부모의 귀/ 말하느 것도 부모의 님/ 먹는 것도 부모의 님/ 손발 다리 풀
 과 머리/ 수염 ㄱ는 터리/ 낫낫치 부모의 스리라/ 둥흙도 둥홀시고/ 내라
 셔 조심 안여/ 늙의 손의 상하면/ 비설위 닛튼 슈고/ 슬드리도 원통홀셔/
 다시곰 허망코/ 손발을 슬허 놀녀/ 먹을 것 전혀 업서/ 뉴리허야 굴머지
 면/ 부모의 가슴 우히/ 무근 풀 뉘 썩흐리/ 핁스올 조심하고/ ㅁ음을 곳
 게 먹어/ 헛괴신 줌 과기강을/ 다 쓸어 잡아두면/ 핁혀나 우리 부모/ 적
 시 이셔 깃불넉가/ 핁여나 하나님도/ 죄나 아니 주실넉가

위의 구절과 연결되는 부분이다. 여기서는 본인 스스로 느꼈던 자신의 못
 된 행동에 대해 염려하였다. 향촌사회이다 보니 기본적인 사항들은 지키되,
 나라의 기본 윤리에 대해서는 별 관심들이 없다. 하지만, 나라의 기본적인
 사상들로 말미암아 향촌의 규범과 질서를 만들기도 하며, 향촌사족들에게도
 집단윤리를 강조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자신의 몸이 부모로부터 받은 것
 이니 부모의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 구체적인 예로 몸이 상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자신의 몸을 보살피는 것부터 효도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지키라고 설명하였다.

공버든 허날께서 賢愚을 제금넉가/ 性善은 ㄷ 같으되 氣稟은 各各달녀/
 그릇친 바 物慾이요 헐로운 것 血氣로다/ 仁心은 危殆하고 道心은 殘微
 한데/ 無知한 어린사람 自暴自棄 하고만다/ 貴한 스람 되어나서 그 아
 니 익돌손야/ 聖人은 못되여도 君子는 지어하리/ 喜怒愛樂 本性中에 성
 네기를 우선참소/ 성넌 쫓티 快한 닐이 平生을 그릇치네/ 食色은 天性
 이되 酒色은 삼가호소/ 伐性에 狂藥이오 亡身홀 ㅅ이로다/ 天性으로 생
 긴 사람 自作으로 그릇치네/ 有餘힘이 貴홀것가 艱難이 천할소냐

이는 <人日歌>의 한 부분이다. 인간의 본성 자체가 본래 性善을 타고 났
 다고 전하였다. 그렇지만 氣稟은 사람마다 서로 달라 사람을 그르치기도 하
 고, 血氣를 해치기도 한다. 그러므로 人心은 위태해지고 道心은 힘이 약해져
 서 미천하여 스스로 포기하게 된다고 언급하였다. 성인은 못되여도 군자는

되어야 한다면서 道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한 부분이다. 또한, 시적 화자는 인간의 본성인 喜怒哀樂 가운데서도 성내는 것을 우선 참으라고 하고, 그 후에는 주색을 삼가라고 훈계한다. 화 끝에는 평생 그르칠 일이 있고, 주색 역시 그 끝에는 망신이 따른다고 하여 삼가야 할 행위를 통해서 訓戒와 도심경각의 내용을 소개하였다.

身地도 보지 말고 居地로 가지마라/ 제사람 제된後에 蠻貊애도 行홀서라
 / 諸憑이 되 타이되 舜임금이 나시도다/ 歷山 구진비에 누역색갓 바슬가
 니/ 사람 아는 陶唐氏가 ㅎ날님께 薦舉호야/ 두쌀로 사외삼아 萬乘位를
 전호시고/ 僻陋한 陋巷중에 顏氏子의 艱難보소/ 一簞食 못 이기여 외쪽
 박이 자조 빈다/ 堯何人 舜何人되고 不改其樂 길거하니/ 大聲이 稱讚호
 고 千秋애 欽仰호다

순임금과 안자씨의 故事를 인용하였다. 이 부분은 두 선인들의 사람됨을 묘사하고 있으며, 시적 화자는 그들에 대한 사모의 마음을 드러냈다. 어려운 것은 천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몸을 의지하는 곳도, 사는 곳도 보지 말고 가지도 말라고 충고한다. 즉, 이는 태어날 때부터 귀한 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貧寒하고 어렵게 살았더라도 스스로 사람됨이 성실하고 충직한 사람은 귀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노래하였다. 여기서는 두 가지 예를 들었다. 첫 번째로는 순임금의 경우다. 歷山은 순임금이 임금이 되기 전까지 밭을 갈았던 곳이다. 요임금은 순임금의 사람됨을 알아보고 천거하여 사위를 삼아 만승위를 전하는 예를 열거하였다. 두 번째로는 안자씨의 경우다. 안자씨는 貧寒한 생활을 하면서도 가난하고 어려움을 즐겨 그의 사람됨을 칭송하였다. 이에 우리러 공경함이 오래고 오랫동안 길이 전한다고 하니 사람됨은 한 순간에 이루어지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한 말이다.

金谷 조흔터에/ 石崇의 有餘보소 푸른구실 碧석으로/ 고훈겨집 旆바사고
 珊瑚樹 六七珠며/ 金步帳 五十리에 驕氣도 過호더니/ 燭불노 지흔밥을
 못드먹고 滅亡하니/ 百年을 貪한富貴 千古貽笑 뿐이로다/ 貽笑될닐 求치
 말고 欽仰홀일 호라호면/ 富貴을 求호다가 묻어드면 害만되고/ 善事을

求호라면 못홀비 업슬시라

이 역시 중국의 호상인 石崇의 고사를 예거하였다. 석숭은 항해와 무역을 하여 돈을 많이 모은 인물이다. 후세에 부자를 비유하는 말로도 쓰인다. 金谷은 石崇이 애첩 녹주를 사랑하여 별장을 두고 호사한 곳이다. 이런 좋은 곳에 富貴를 넘치게 하였으나 결국 멸망한다. 욕심을 부려 얻은 부귀는 오래토록 비웃음만 당한다. 위에 제시한 예와는 반대로 石崇처럼 살지 말라고 당부한다. 이 부분은 부귀 같은 일장춘몽을 구하지 말고, 차라리 좋은 일을 구하라는 교훈적 내용을 담았다.

聖인이 이뜻아라 五倫으로 가라치니/ 第一에 父子有親 親字뜻 至重호다/
嚴敬만 專主호면 疏遠키 〽조쉬며/ 膝下에 멀니놀아 寒溫도 못살피니/
나많은 저 老人은 뉘와의 지한단말가/ 니우제 갈디업고 洞內에 올리업서
/ 널따란 빈 방안에 편진더시 았었으니/ 主人업는 孤客이오 손도아닌 獨
夫로다/ 親愛는 아니호고 三特으로 奉養호들/ 그것이 孝誠이며 그것이
倫情일가/ 家勢도로 奉養호고 至誠으로 親愛호소/ 第二에 君臣有義 臣義
을 알건마는/ 功名이 薄命호야 靑雲에 期約업서/ 草野에 虛老호니 忠義
行키 어렵도다/ 上下坪 公私田을 김피 굴고 자주미여/ 上父母 下妻子의
飢寒도 면케호고/ 王稅도 愆期뵈고 官穀도 趨時호면/ 田里에 사는 百姓
그도 또호 職分이라/ 第三에 夫婦有別 人倫의 으뜸이라/ 二姓으로 配合
호야 情地가 無間호니/ 枕邊에 曲聽말고 이볼밧티 私謀말소/ 夫婦에 法
이 일우면 家邦도 御거호리/ 第四에 長幼有序 序字뜻 들어보소/ 年歲高
下 달으거든 老少分義 업슬손야/ 남으어른 니섬기면 남으少年 날섬길리/
차차로 敬長호면 風化의 美事로다/ 第五에 朋友有信 人倫의 盛事로다/
사람이 벗이업고/벗잇서도 信업스면/平生에 信이업스 어버인들 섬길손
야/ 懷抱을 알이업서 成德키 어렵또다/ 益友도 세슬두고 損友도 세슬두
고/ 五倫에 信잇으면 五行에 土갓도다/ 仁義 禮智中에 信업시 될손야/
責善도 발키하고 燕樂도 重히호소/ 管鮑의 杻誼가 이젠들 업슬손야/
三千威儀 三百禮에 이다섯시 綱領이라/ 헝하고 힘남거던 학문도 호사이
다

이 작품의 핵심 부분으로, 유교의 근본사상인 三綱五倫을 강조하고 있다. 五倫 즉, ‘父子有親’, ‘君臣有義’, ‘夫婦有別’, ‘長幼有序’, ‘朋友有信’으로 하여금 예를 설명하고 있다. 그 하나하나를 살펴보도록 하자. 첫 번째로 ‘父子有親’이다. 이는 五倫 가운데서 가장 으뜸가는 것으로 ‘孝’를 나타냈다. 여기서는 親이라는 글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엄격한 공경만을 오로지하면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가 소원해지기 쉽다고 하였다. 집안의 기세대로 봉양하고, 지성으로 친애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父子有親’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로 ‘君臣有義’를 말한다. 군신 사이에서 신하의 義를 강조하지만, 공명이 탄탄하지 않음에 기약이 없으니 초저녁에 허하고 늙으니 충성하기 어렵다고 논한다. 관료들만 의를 따지는 것만 아니라 모든 백성 즉, 田里에 사는 농사짓는 백성들까지도 직분이 있어 그 직분에 따라 행하면 의를 충분히 지킬 수 있음을 언급한 것이다. 세 번째로 ‘夫婦有別’을 말한다. 이는 인륜의 으뜸이라고 했다. 두 다른 성이 하나로 짝지어 합하니 몸들 곳이나 마음 붙일 곳이 서로 같다고 하여 부부의 금슬을 드러냈다. 또한, 하나의 마음으로 서로를 존경하라고 말한다. 잘 때는 곡하는 소리를 내지 말고 이불 속에서 사적인 말을 말라고 하여 부부에 법이 곧 집안의 법으로 다스려질 것임을 강조했다. 네 번째로 ‘長幼有序’를 말한다. ‘序’라는 글자에는 나이의 높고 낮음을 포함하였다. 이는 늙고 젊은 사이에 ‘義’가 있는 것처럼 어른을 내가 섬기면 소년 또한 나를 섬기게 된다고 했다. 이는 아름다운 일이라 하였고, 이는 ‘차례’의 중요성을 나타냈다. 다섯 번째로 ‘朋友有信’을 말한다. 인류의 성대한 일이라 하여 ‘信’의 중요성을 가리키고 있다. 벗에는 믿이 있어야 하고, 믿이 없으면 어버이도 못 섬기니, 모든 것의 처음이자 끝이 바로 ‘信’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이 다섯 가지 법령이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라고 논한다. <人日歌>의 마지막 부분은 다음과 같다.

西塢의 이뜻알아 이묘음 設施하니/ 一家親戚 묘은 中에 니웃親古 더욱 좃
타/ 永錫齋 三間房에 술이아닌 情이로라/ 백씨는 爓을불고 中氏난 籠을
불고/ 거문고 통소술래 잡된 것이 화목이라/ 두어라 날마당 人日이면 사
람될가 호노라.

첫 구절을 통해 이 모임을 베푼 이유를 설명하였다. ‘西塢’는 서쪽 마을을 뜻한다. 시적 화자는 일가친척이 모두 모인 가운데에서 이웃 친구가 더욱 좋다고 하여 멀리 사는 친척보다는 가까이 사는 집안사람들의 화목을 드러내고자 했다. 여기에 등장하는 영석재¹¹⁵⁾는 長興의 용산면에 위치한 사당이다. 이 사당에 모여 세 칸의 방에 술이 아닌 情이 있다고 하여 일가친척의 도타움을 이처럼 언술하고 있다. 그 풍경은 이렇다. 큰 형은 질나발을 불고, 둘째 형은 긴 대를 불며, 그 나머지는 거문고와 통소 소리로 음악을 만들어 ‘화목’한 모습을 드러냈다. 이렇게 매일같이 모임을 갖는다면 가족 간의 화목을 만들 수 있고, 이러한 人日에 모여 우애를 돈독히 한다면 사람다울 수 있다고 하여 이웃과 화목한 모습을 그렸다.

위백규의 장흥위씨와 이상계의 인천이씨는 서로 밀접한 관계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증거는 이상계의 문집에 보면 알 수 있는데, 위백규의 동생과 아들을 비롯한 위씨들의 차운시가 실려 있다¹¹⁶⁾고 전한다. 이러한 관계는 두 가문의 결속을 위해 필요했다. 이러한 작품은 흔하지 않다. 가사작품을 통해서 두 집안에서는 서로 결속하여 집단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위백규와 이상계는 혼인으로 이루어진 밀접한 관계이다. 이중전의 경우도 인천이씨로 이상계와는 서로 종친 사이다. 그 역시 <長恨歌>를 통해서 교훈적인 윤리를 잘 드러내고 있다. 작품을 살펴보자.

時和年豊 好衣好食 君父之恩 조홀씨고/ 十一歲을 지낸후의 丙申厄年 當
 희우나/ 家運이 不幸된가 身勢가 기구편지/ 六月望 越翌日의 慈母喪事
 만나서라/ 차례업난 이니몸이 居喪禮節 알을소나/ 壓於所尊 父命으로 三
 年을 기년후의/ 祖母膝下 기러날제 撫育之恩 難忘이라/ 愛之重之 조흔衣

115) 영석재는 청강 이승(1556~1628)을 추모하기 위해 인천이씨 후손들이 주체가 되어 세웠다고 전해진다. 현재는 이승을 주벽으로 9인의 위패가 모셔진 사당이 있다. 영석재는 정면 5칸, 측면 2칸의 단층으로 된 팔작집이다. 양기수, 『문림고을 장흥』 (장흥문화원, 1999), 84면.

116) 김창원, 「18~19세기 향촌사족의 가문결속과 가사의 소통」, 『19세기 시가문학의 탐구』 (집문당, 1995), 324면.

食 호강子弟 아童이다/ 聖善하신 우리繼母 古今속에 드무도다/ 사랑하야
 거두기을 己出에서 더하도다/ 逸居無教 近禽獸난 녀聖人の 明訓이라/ 嚴
 父兄의 命을 바다 書齋에가 入學할제/ 史略通鑑 비온후의 中庸大學 일거
 보니/ 聖賢의 기훈말삼 大綱인들 알을소냐/ 家運이 不幸턴가 身勢가 기
 구편지 六月望 越翌日의 慈母喪事 만나서라 차례업난 이니몸이 居喪禮節
 알을소냐/ 壓於昭尊 父命으로 三年을 기닌후의/ 呼天明地 蒼黃中の 頓絕
 方蘇 설운지고/ 익고익고 이니팔자 이일이 어인일고/ 不孝로다 不孝로다
 早失父母 不孝로다

위는 <長恨歌>의 한 부분으로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구체적으로 드러
 냈다. 하지만, 이는 본인뿐만 아니라 집단의 사람들에게 당부하는 말이기도
 하다. 이 부분은 집단생활의 윤리의식을 논하였으며, ‘三綱五倫’ 가운데서도
 ‘孝’를 강조하였다. 작가는 어릴 때, 좋은 옷과 좋은 음식으로 부유하게 살았
 었다. 그 때의 상황을 떠올렸으며,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와 할머니와 계모
 밑에서 자란 상황을 묘사하였다. 시적 화자는 할머니와 계모 밑에서도 어머
 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누렸던 좋은 음식과 의복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또한 자신의 繼母를 聖善하셨다고 표현하였고, 자신이 낳은 자식들보다 사
 랑하기를 더 했다고 하여 그 계모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도 알 수 있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학문의 길에 들어선다. 사략, 통감, 중용, 대
 학 등을 배우고 읽어보니 성현들의 말씀을 대강 알겠다고 하여 공부의 소중
 함을 드러냈다. 그러던 중 22세 때에는 아버지마저 돌아가서 조실부모하는
 자신의 상황을 애통해 한다. 그러면서도 일찍 부모를 여윈 것이 不孝라고
 하여 孝를 베풀지 못한 자신의 한을 표현한 작품이다.

<自悔歌>와 <人日歌>는 장흥지역에서 출생하고 자란 장흥사람이 주체가
 되어 그들의 행위를 드러내기 위해 지은 가사작품이다. 즉, 동족집단이 형성
 되어 그들이 지켜야 할 질서와 규범을 적었다. 위백규의 경우는 <自悔歌>
 를 통해서 조선후기 향촌사족들이 가문구성원의 이념적 소양을 함양하고 가
 족질서나 가문의 결속을 위해 창작되었다고 한다. 이에 작품의 창작동기와
 작가의 처지, 교훈 대상의 성격과 범위 등에 대해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

고 있다.¹¹⁷⁾ 또한 이상계의 <人日歌>는 유가적 사상을 강조한 작품으로 인륜의 도덕을 세부적으로 그린 작품이다. 이 작품은 작가가 속한 향촌사회의 경제적 몰락으로 인해 가문을 결속하고 그들을 교화하고자 한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이중전의 <長恨歌> 역시 유가적 사상 가운데 인륜을 근본으로 삼아 조실부모한 자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사하여 孝道하기를 권면하고자 한다.

2.2 警戒, 啓蒙으로서의 유교윤리

<勸學歌>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學問을 권장한다’는 내용의 작품이다. 이는 기본적인 윤리적 의식을 토대로 하여 일없이 한가하게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당부하는 警戒의 글이다. 이 역시 장흥 방촌에 있는 주체인 향촌사족들이 그들의 자식들을 경계하고자 쓴 작품이다.

무사한유(無事閒遊) 아희들아 이니말삼 들어스라/ 불학무식(不學無識) 비금수(比禽獸)을 너의 일정(一定)을 모르는다/ 황천황제(皇天皇帝) 사람놀이 각수기직(各授其職) 헛엇찌늘/ 무삼 일로 너희들은 유희도일(遊戲度日) 무념(無念)헛야/ 본연심성(本然心性) 방실(放失)헛고 자포자기(自暴自棄) 즐기는가

한가하게 노니는 아이들을 불러 당부하는 내용이다. 배움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아이들을 금수와 비교하여 경계하고자 한다. 시적 화자는 한가하게 보내는 그들의 행동을 질책한다. 또한 사람은 각각 자기의 직분이 있다고 하여 한가하게 세월을 보내는 아이들을 호되게 꾸짖는다. 시적 화자는 아이들이 본연의 마음을 잃고 스스로 포기하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느껴 그들을 위로하는 마음을 담았다.

박혁음주(博奕飲酒) 조아헛고 호협기(豪俠氣)을 자양(自揚)헛야/ 악의악

117) 김석희, 앞의 책, 1995과 박연호, 앞의 논문, 1996, 10면에서 재인용하였다.

식(惡衣惡食) 스러흐며 리욕여색(利慾女色) 탐(貪)을 하면/ 금수(禽獸)도
 기 불원(不遠)흐고 사람도기 어려오니/ 효제충신(孝悌忠信) 몰으거든 예
 의염치(禮義廉恥) 어이알니/ 문자(文字)을 몰아거든 선더명짜(先代名字)
 어이알니/ 천황씨(天皇氏)를 몰으거든 통음(通音)을 어이알니/ 심중(心
 中)이 무주(無主)흐야 안전(眼前)에 담이놉다

위에서 언급한 ‘本然心性’의 방해요인을 나열하였다. 博奕飲酒(장기, 바둑
 두기와 술을 과하게 마심), 豪俠氣(호방하고 씩씩한 의협심이 강한 기상)이
 강해 스스로 떨치는 것, 惡衣惡食(나쁜 옷과 나쁜 음식)의 싫어함, 利慾女色
 (사사로운 이익을 탐내는 욕심과 여색)들을 탐하고 좋아하면 인격적인 사람
 으로 거듭나기 어렵다고 말한다. 술을 과하게 마시게 되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 이성을 잃게 되고, 호방하고 의협심이 강한 기상을 자양함에
 앞뒤 따지지 않고 의협심이 강하지만, 스스로 자신을 자랑하고 떨치는 모습
 에서 겸손함을 찾아볼 수 없다. 본연의 마음을 가질 때에야 비로소 사람으
 로 사람다운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교의 기본사상인 孝悌忠信을
 모르면서 예의와 염치는 어찌 알 것이며, 문자를 모르면서 先代의 이름들은
 어이 알까? 천황씨를 모르거든 통음인들 어찌 알까? 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려운 것만 하려는 아이들에 대한 어리석음을 논하였다. 시
 적 화자는 하려는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눈앞에 보이는 것만 쫓는
 젊은이들의 생활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다.

이제청춘(青春) 아히달안 니욕(利慾)만 전주(專主)흐고/ 더인(大人)의 하
 논일을 망영(妄靈)도이 시비(是非)흐며/ 문자(文士)의 흐논말을 외면(外
 面)흐야 들으면서/ 우자(愚者)의 흐논닐을 영웅(英雄)이라 닐으나니/ 이
 라타 무식둔(無識群)은 성문(聖門)의 죄인(罪人)니라/ 남자(男子)로 삼겨
 나서 식적(食賊)이 되단말가/ 방탕(放蕩)한 너의마암 이기한유(一其閑遊)
 용열타/ 기주침색(嗜酒沈色) 조와흐야 류희도일(遊戲度日) 흐거이와

이 부분에서 시적 화자는 아이들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시적 화자는
 청춘인 아이들은 이로움과 욕심만이 마음을 움직이는 주인이고, 큰 사람이

하는 일은 망령되었다고 생각하여 옳고 그름이 바뀐 것에 한스러움을 나타냈다. 文士의 말은 외면하면서 어리석은 자의 일은 영웅이라 하여 근본적으로 잘못된 실태를 고발한 것이다. 이렇게도 무식한 무리들은 공자의 도에는 있어서 안 될 죄인이다. 공자의 가르침에 누를 끼치는 무식한 무리들에게 충고하는 말이다. 이렇듯 시적 화자는 남자로 생겨나서 큰 뜻을 품어야 하나 그러지 못하고 食賊(밥도둑)이 되어가는 그들을 보면서 시적 화자는 분노를 느낀다. 위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그네들의 방탕한 마음과 할 일이 많은데도 한가하게 노니는 행동에 용렬함을 느끼고, 술을 즐기고 女色에 빠지는 것을 좋아하여 유희하며 날을 헤아리는 그네들의 모습을 그렸다. 이 글은 학문을 권장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기는 하지만 학문만을 강조한 것은 아니다.

인간(人間)의 만만사(萬萬事)을 역역(歷歷)키 생각하되/ 사람의 ㅎ을닐이
문필(文筆)밖기 쏘잇는가/ 천지간(天地間) 만권설(萬卷書)을 복중(腹中)의
가닥담고/ 공밍안증(孔孟顔曾) ㅎ신닐을 날마다 범바다서/ 정주구소(程朱
歐蘇) ㅎ온후에 자자(字字)이 본바다서/ 작지서지(作之書之) ㅎ온후에 마
암을 종사(從事)하야/ 월중(月中)에 단계화(丹桂花)을 한가지 썩거취고/
락교변(洛橋邊) 청운상(靑雲上)의 반응닌(攀龍鱗) 부봉익(附鳳翼)하면/ 옥
당(玉堂)에 할림(翰林)이오 승평세계(昇平世界) ㅎ을썩의/ 만만(滿滿)한
부귀인(富貴印)을 요간(腰間)의 비기차고/ 홍진도(紅塵道) 자믹생(紫陌上)
의 승피마 의경구(承肥馬 依輕裘)하야/ 호기(豪氣)있게 단일저기 불학무
식(不學無識) 저인물은/ 도로(道路)의 에워서서 추주승풍(趨走承風) ㅎ는
고나

이는 學問의 중요성을 언급한 구절이다. 인간의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하나 곰곰이 생각하니 사람의 할 일이 文筆 밖에 없음을 강조하여 그 중요성을 드러냈다. 하늘과 땅 사이의 만권의 책 즉, 많은 책을 다 읽어 머릿속에 가득 담아야 함을 언급하여 많은 책을 읽으라고 권유하는 내용이다. 그 가운데서도 ‘孔孟顔曾’이라 하여 ‘孔子’, ‘孟子’, ‘顔回’, ‘曾子’의 일을 날마다 본받으라고 하였다. 이러한 예는 여러 권의 책을 읽어 유학에 관한 많은 지식

을 쌓아야 함을 강조한 부분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孔孟顏曾’이 한 일을 날마다 본받으라고 강조한 이유는 ‘儒學’을 대표로 하는 네 성인을 토대로 한 조선시대의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程朱歐蘇’라 하여 ‘정호·정이형제’, ‘주희’, ‘구양수’, ‘소동파’를 가리킨다. 이들은 모두 유학에 깊은 뜻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뜻을 새겨 글자마다 본받고, 그 후에 마음을 중사하라고 한다. 즉, 이 역시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孔孟顏曾’은 유교사회에서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인 만큼 그 사회를 반영하고 있다면, ‘程朱歐蘇’ 또한 유학의 근본이자 성인이라 불리는 여러 문인들의 정신과 문체를 본받으라는 것이다. 시적 화자는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실천하는 것으로 시를 쓰고, 글을 쓴 후에야 마음과 힘을 다하라고 표현하였다.

다음 구절은 神仙의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다. ‘丹桂花’는 붉은 계수나무 꽃을 말한다. 중국에서는 붉은 꽃이 피는 것을 아주 귀하게 여긴다고 전한다. 그 귀한 것을 한 가지 꺾어 쥐고는 락교 주변의 푸른 구름 위에서 용의 비늘을 잡고 봉황의 날개에 붙는다고 한다. ‘洛橋邊 靑雲上’은 높은 명예나 벼슬을 말한다. ‘攀龍鱗 附鳳翼’은 영주를 섬겨 공명을 세운다는 뜻이다. 옥당은 홍문관이나 예문관의 검열을 드러낸다. 이에 太平聖代한 사회를 만들 적에 모자람 없이 넘칠 만큼의 가득함을 나타낸다. 이에 부귀하고 귀한 도장을 허리춤에 찬다고 하니 이는 부귀와 명예를 한꺼번에 취함을 뜻한다. 紅塵道는 ‘속세’를 말한다. 紫陌上은 도성의 길로, 속세의 관직으로 향하는 길에 살찐 좋은 말과 가볍고 따뜻한 가죽옷을 상징하는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음을 언급한 것이다. 즉, 學問을 하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음에 대한 확신을 심어준다. 호기 있게 다닐 적에 배우지 않아 무식한 인물은 길 위에 에워 서서 바람에 휩쓸려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마지막 부분에는 학문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열심히 하면 부귀영화는 물론이고, 높은 명예와 벼슬까지 얻을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다음은 <長恨歌>의 세 번째 단락으로 勤農을 이야기한 부분이다.

철경농上 수여안저 勤農으로 일은말이/ 힘써하소 힘써하소 農業을 힘써하
소/ 以食爲天 일너씨니 農事밭되 쏘인난가/ 勤農하면 부자되고 惰農하면

가난하리/ 논심구고 밭심어서 五穀이 다익거든/ 우흐로 王家賦稅 그직자
先靈奉祀/ 또그직자 父母供養 그아리로 妻子먹여/ 歲時伏臘 當하거든 烹
羊炮羔 집집마다/ 썩치고 술비저서 자네먹소 너먹어라/ 舍哺鼓腹 老少之
樂 康衢煙月 잇씨로다

농업에 힘쓰라는 내용이다. 《史記》의 <陸賈列傳>을 인용하였다. “왕은 백성을 하늘로 삼고,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삼는다”¹¹⁸⁾고 하여 農事의 소중함을 언급하고 있다. 먹는 것이 하늘이 된다고 하여 농사의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또한, 농사를 부지런히 하면 부자가 되고 게을리 하면 가난해진다고 하여 농사에 힘쓰는 富貴와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농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위로는 왕에게 세금을 바치고, 다음은 先靈께 봉사하고 그 다음은 부모님께 공양하며, 다음에는 처자식을 먹인다고 하여 중요한 순서를 차례대로 나열하였다. 복날과 선달에는 양을 찌고 삶아 제사와 같은 의식을 차려 집집마다 장만하여 나누어 먹는 관습을 잘 묘사하였다. 그리고는 배불리 먹고 배를 두드리며 남너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즐거워하는 태평성대의 모습을 형용하였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기본적인 생활이 이루어진 이후에 가능한 이야기다. 그만큼 농사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압집少年 뒤집아이 글工夫들 힘써보소/ 부귀必從 勤苦得은 글을두고 일으
미라/ 만이익고 만이쓰면 文章名筆 뉘안되리/ 春堂埜 조흔科擧 壯元及第
놈피하야/ 皇恩을 謝拜後에 御酒三盃 醉케먹고/ 億萬長安 花柳中에 碧笛
花童 압세우고/ 紅塵紫陌 거리거리 불으난니 실너로다/ 天上郎 地上仙은
道傍觀者/ 誰不羨고/ 楊洲車中 杜牧之며 洛陽布上 蘇秦인가/ 十年燈下 讀
書苦은 三日馬頭 登科榮華/ 到門日을 擇送하야 先山의 掃墳후에/ 國恩을
다시입어 벼슬질을 도도온다/ 方伯守令 다지니고 三台六鄉 놈피올나/ 理
陰陽順 四時난 宰相의 職任이라/ 食君之祿 空이할가 竭力盡忠 하여서라/
期吾君於 堯舜하고 躋斯民於 壽域하야/ 家家忠義 人人英才 國富兵強 그뒤
에난/ 一體君臣 同心으로 北胡을 拒絕하고/ 倭和은 斥破호며 洋路을 拒塞
호야/ 四方이 일이업서 轉國柱臣 안니될가/ 國君난 太平聖代 父母난 富貴

118) 《史記》, <陸賈列傳>: ‘王者以民人爲天, 而民人以食爲天’

榮華/ 忠孝을 兼全하야 立身揚名 할거시니/ 父母膝下 조흔時節 헛뜨이 보
닐소냐/ 青春이 헌번가면 두보오기 어렵도다/ 千鍾祿 萬鍾綠과 有女如玉
고은계집/ 글가온디 잇스이 부더工夫 힘써하소

이 역시 <長恨歌>로 勸學에 관한 글이다. 사실 모든 아이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學問을 권장하였다. 시적 화자는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富貴는 반드시 따르고, 부지런히 하면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도 함께 전한다. 또한, 과거에 급제한 광경을 묘사하여 아이들에게는 황홀함을 느끼게 하였다. 이에 부모님의 이름을 날리고 나라의 은혜에 보답할 것을 권한다. 집집마다 忠義하고 사람마다 英才로 키우는 것을 ‘國富兵強’이라 하였으며, 임금과 신하가 한 몸이 되어 왜적을 격파하고 나라를 지키는 것을 ‘轉國柱臣’이라 하였다. 즉, 이러한 두 가지 길은 학문을 갈고 닦아야만 이루어진다고 하였고, 부귀영화나 입신양명 역시 공부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강조하였다. 青春은 한 번 가면 두 번 오기 어렵다고 하여 젊은 날 시간을 아껴 공부하면 좋은 시절을 보낼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끊임없이 學問을 해야 한다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며 마지막 구절에서는 부디 공부에 힘써 달라고 당부하기에 이른다.

<勸學歌>는 누가 지었는지 확실히 알 수 없는 작품이다. 그러나 《魏門家帖》에 전하고 있어 이를 魏伯珪의 作이라고 논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정확히 누가 창작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필자는 魏伯珪의 作이라도 말하기에는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勸學歌>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작품은 학문을 권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문의 중요성을 언급하지만, 여기서 언급하는 學問은 대표적으로 ‘儒學’을 말한다. 이 작품은 집단종족에 대한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창작되었다기보다는 윤리의식의 일반을 드러내기 때문에 위의 경우와는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반해, 李中銓의 <長恨歌>는 위의 집단 윤리의식의 강화와 윤리의식의 일반에 대한 언급이 모두 드러나 있다. <勸學歌>에서 언급한 것처럼 학문은 누구나 열심히 해야 하며, 때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였다.

3. 不正한 官吏에 대한 批判

현실비평가사는 조선후기 가사의 변화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작품유형이다. 현실비평가사에는 우선 지배계층인 사대부층에 대한 비판의식이 짙게 나타나 있다. 그리고 그런 비판의식은 서민들의 사대부층에 대한 의식이라는 점에서 서민가사로 분류, 연구되어 왔다.¹¹⁹⁾ 지금까지의 기존 연구들은 현실비평가사의 성격을 다양한 측면에서 밝혀주었다. 기존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현실비평가사에 16세기 작품에서는 볼 수 없는 서민들의 생활과 지배계층의 횡포 등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과 유가인 향촌사족들의 보수적 자세가 공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존하고 있는 이러한 역동적인 관계의 양면성을 해명한다는 점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사실 확인을 하는데 그치거나 비판의식을 중심으로 한 장르의 변모에 논의가 편중되어 있고, 전체적 양상의 파악에 관심을 집중시킨 결과 개별 작품에 대한 유기적인 분석이 미흡했다고 지적할 수 있다.¹²⁰⁾ 현실비판 가사 가운데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갑민가>, <合江亭歌>, <香山別曲>, <거창가> 등이 있다. 장흥지역에 속한 작품으로는 <合江亭歌> 그리고 <壬癸嘆>이 이에 속한다. 이 작품들은 부정한 관리로 인한 백성들의 고충을 드러냈다.

<合江亭船遊歌>는 전라감사 정민시(1745~1800, 字는 會叔)가 임자년(1792년, 정조 16년) 가을 9월 23일 합강정이라는 곳에 수십 명의 수령과 기생들을 모아 놓고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 3일간에 걸친 잔치에 대한 비판의 글을 적은 것이다. 이것을 본 어떤 사람이 <合江亭船遊歌>를 지어 유포하여 인구에 회자되었고, 이어서 한양 승례문에 걸려 한양인들이 모두 보고 궁중에까지 들어가 해당자에게 유배를 내리는 일이 있었다고 하여 그 창작 배경에 대해 적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9월 23일이라는 정확한 날짜가 표기되어 있다는 것이다. 1792년 9월 23일은 인평대군 慕致

119) 윤성근, 「<合江亭歌>연구」, 『어문학』 18호 (한국어문학회, 1968).

이능우, 『가사문학론』 (일지사, 1977).

김문기, 『서민가사연구』 (형설출판사, 1983).

120) 최상은, 「현실비평가사의 현실인식과 문학적 성격」, 『한민족어문학』 41집 (한민족어문학회, 2002), 4면.

제가 행해진 날이었고, 따라서 이 날은 국기일이 되었던 것이다.¹²¹⁾ 그렇기 때문에 이 가사작품이 얼마나 큰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었으며, 이로 말미암아 작품에 등장하는 해당자에게는 유배에까지 이르게 한 일이 실록에 기록되었음을 알 수 있다. <合江亭船遊歌>는 부조리한 관리들의 풍자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 작품은 <合江亭船遊歌> 혹은 <合江亭歌>라 하여 ‘합강정’이라는 곳에서 부른 노래, 혹은 ‘合江亭’에서 배를 타고 노닐며 부른 노래로 역사적인 사실을 토대로 하여 작품으로 형상화 한 것이다.

<壬癸嘆>은 제목이 시사하듯이 임자- 계축년간(1732~33, 영조 8~9)에 발생한, 좀 더 정확하게는 1731년부터 1733년까지 3년 동안 장흥지역에서 발생한 대기근과 백성들에 대한 폭압적 수탈상을 체험적 진술로 생생하게 그려낸 작품이다. 그러나 작품의 문제의식은 여기에만 그치지 않았다. 농민들의 아픔에 대한 전언뿐만 아니라, 봉건체제 아래에 국가와 인민의 존재방식에 대한 근원적 성찰을 촉구하고 있는 글이다.¹²²⁾ 위의 두 작품의 특징을 토대로 하여 1) 부조리한 관리의 풍자, 2) 자연재해와 폭정의 양분화로 나누어 논하고자 한다.

3.1 自然災害와 暴政의 양각화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고자 하는 의도에서 쓰인 현실비판가사는 많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자연재해와 연관된 작품은 그다지 많지 않다. 가뭄, 홍수, 태풍 등의 피해를 입고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수탈하는 관리들의 모습은 크나 큰 재해라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자연재해는 향촌의 피해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은 상황은 별 거 아니었지만 무엇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暴政과 같이 인간이 만든 재앙이었다. 長興地域의 가사 작품에 드러난 그 예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121) 고순희, 「<合江亭歌>의 작품세계와 역사적 성격」, 『비교한국학』 6집 (국제비교한국학회, 2000), 127면.

122) 이형대, 「18세기 전반의 농민현실과 <壬癸嘆>」, 『민족문화사연구』 (민족문화사학회, 2003), 35면.

슬프다 백성드라 이내말 드러스라/ 壬子癸丑 無前凶年 介介히 이로이라/
 듯고보는 이景色을三尺童도 알건마는/ 刻骨한 이시절을 銘心하여 닛지말
 자/ 無識한 眞諺文을 才助업시 매와내니/ 句法은 보잔하고 時不見만 적어
 다가/ 長安 大道市에 불이로다 백성(百姓)들아/ 가업는 이時節을 無興하나
 보아스라/ 슬프다 古老人아 일언時節 보안느냐

<壬癸嘆>의 첫 문장이다. 처음부터 작자는 스스로 슬프다는 감정을 토로 하였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壬癸’는 임자년의 ‘壬’과 계축년의 ‘癸’를 나타낸다. ‘嘆’은 탄식함을 나타낸다. 임자, 계축년에 일어난 흉년은 예전에는 없었던 아주 큰 기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 듣는 이 풍경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라 하였다. 시적 화자는 각골한 이 시절을 명심하여 잊지 말자고 당부한다. 또한, 그는 眞諺文을 써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하고자 하여 장안의 큰 도시에 불이하고자 한다면서 글을 쓰게 된 동기를 서술하였다. 그리고는 아무 것도 없는 불쌍한 이 시절을 흥이 없다고 하였다. 노인은 오래도록 많은 경험을 한 사람으로, 여기서는 ‘古’를 사용하여 더 예전이라는 의미를 드러냈다. 시적 화자는 오래 늙은 노인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는 이유는 그 전, 아주 오래 전에도 이렇게 처참한 상황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은 이전, 그 이전에까지도 있지 않은 아주 심각한 상황을 부각시키기 위해 쓰인 구절이라 생각된다.

山原이 불리나니 田野 다타거다/ 赤地 千里하니 惶怯이 절로난다/ 時雨를 못어드니 移秧을 어이하리/ 不違農時 이말씀 人力으로 못하리라/ 六月望 오는비는 嗚呼晚兮 그러나마/ 漚擘의 띄게된 모 움겨두고 試驗하세/ 南村 北村 사람 時刻을 쟁선하다/ 슬프다 農民드라 이畢役 못하야서/ 穉惡코 凶한風波 被害도 慘酷하다/ 곳곳지 남은田地 낫낫치 셋는禾穀/ 이後나 무病하면 生道를 보라더니/ 놀납다 滅吳虫이 四野의 니단말가/ 엇그제 푸른들이 白地純色 되거고나/ 江東의 安石旆을 다시조차 나라온가/ 千載人無魯恭하니 뒤라서 消災할고/ 이朝夕 難繼하니 後生涯 보랄소나/ 秋糴乙 餓

여시들 저徭役 누當糖滂/ □□이 極嚴하니 □□道 어렵도다/ 男負女戴
고 가로라 定處업시/ 自然이 離散하니 村落이 가이업다

자연재해 후에 일어난 후의 상황을 묘사하였다. 暴炎의 날은 계속되니 그런 속에서 산에는 불이 났으며, 논밭 또한 다 타버렸다. 그렇게 붉은 땅이千里에 이르러 펼쳐지니 절로 겁이 난다고 하여 그 때 그 상황의 암담함을 전하고 있다. 때에 비를 얻지 못하니 이양을 어떻게 할까 하며 농사일에 근심하고 또 근심한다. 때에 맞게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말은 농사를 중시 여겼던 그 사람들의 생활상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시적 화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매우 안타까워하였다. 그 후 그 지역사람들은 六月에 내린 비에 겨우 의지했지만, 그들은 곡식의 이삭이 나온 모를 옮겨 심어가며 잘 자랄 수 있는지를 시험했다. 그렇지만 그 때 심은 곡식들은 穉惡한 풍파와 병충해로 피해를 보았다. 엇그제 심었던 벼들로 푸르게 있어야 하는 땅은 심각한 피해를 입고, 흰 땅은 순색이 되어 버렸다. 이러한 현상에 농민들은 밤낮으로 어렵고 요역까지 당하게 되니 정해진 곳 없이 그냥 고향을 떠난다.

□□다 饑民드라 賑恤 奇別 들어스다/ 當初에 피흔 穀石 精備하여 받았더니/ 賑恤廳 모든 쥐가 各 倉의 궁글 뚫고/ 晝夜로 나들면서 섬섬이 까먹 언네/ 이번의 타낸 乞糧 空穀으로 의포하예/ 糶糶맛튼 저 斗升아 너조차 무슴 일로/ 孔輸子 밍근 信을 鐵木으로 삼것거늘/ 無端이 換面하고 憑公營私 하나스다/ 엇그제 寬洪量이 奸貪코 狹隘하다/ 變世은 變世로다 사름이 거북되여/ 賑倉의 들어안자 모든 쥐을 살피더니/ 本性이 鼠狀이라 마침내 어이 되어/ 倉中 賑穀米을 다 주어 무리가라/ 녀코 鬩을 굴을 삼고 暮夜의 藏置하니/ 碩鼠歌 일러난들 狡穴餘腐 누 이시리/ 실갓 쓴 小令監은 秦王의 姓을 어더/ 但坐嘯 다방부리 指揮中の 녀허두고/ 朱墨을 擅弄하며 殘民을 椎剝하니/ 저 餓殍 越視하고 私貨財 圖謀하다/ 賑政事 말게 하소 無實存名 가이업다/ 賑監色의 진진 창을 고뵈고뵈 다 채우니/ 饑民아 네 죽거라 事事로 殺歲로다/ 이 시절 이러하니 바랴 것 없어도야

이 작품에서의 시적 화자는 賑恤廳의 부패한 아전들을 고발하고 있다. 농민들은 당초에 받으려 하는 곡식을 받았더니 賑恤廳의 모든 쥐가 각 창고에 구멍을 뚫고 밤낮으로 드나들면서 다 먹었다고 한다. 부패한 아전들은 賑恤廳의 곡식을 빼내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데 바빴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한 쥐는 부패한 아전을 가리키며, 이번에 타낸 乞糧은 빈 곡식을 나타낸다. 환곡을 맡은 斗升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가! 斗升은 원래 나무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철과 나무로 만들어져 무게가 무거워 정해진 곡식을 담을 수 없게 하였다. 즉, 이는 기계 제작으로 유명한 공수를 비유하여 진흙청에 있는 관리들 또한 농민들의 상황을 드러낸 것이다. 먹고 살기 힘든 날이 계속되다 보니 나라도 변하는 모양이다. 사람의 마음이 편치 않으니 賑恤廳의 창고에 들어 앉아 모든 쥐들을 살피게 된다. 여기서 나타내는 쥐는 부패한 관리들을 말하며, 그의 본성은 ‘鼠狀’ 즉, 쥐의 형상이라 하여 ‘쥐’를 가리킨다. 그 쥐들의 특성은 늦은 밤에 감추어 둔다. 그러므로 이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碩鼠歌>는 즉, 큰 쥐가 창고의 곡식을 먹는 정경을 그린 노래로 《詩經》의 <魏風>에 있는 碩鼠를 나타낸다. 이 노래는 ‘負稅의 무거움을 諷刺한 내용’이다. 이러한 노래로 민심이 일어난다고 한들 간교한 관리들의 남은 곡식이 있음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백성들은 길거리에서 죽어 나가고, 奸惡한 관리들의 창자는 고비 고비 다 채우는 것으로 서로 대립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시적 화자는 굶주린 백성들에게 그냥 죽는 것이 낫다고 할 만큼 고된 생활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를 일마다 죽는 해라고 언급하였다. 이 부분은 자연재해 후에 벌어진 부패한 관리들의 폭정을 여실히 잘 드러냈다. 관리들의 부정부패가 바로 백성들을 죽이는 원인임을 밝혀 사회 모순을 반복적으로 드러내기도 하였다.

塗炭의 빠진百姓 奚暇의 눈을 뜨고/ 실고튼 이목숨이 질금도 질금시키고/
 굶고먹고 그리저리 天幸으로 살아난들/ 父母同生 어디가고 夭逝子息 더욱
 싫다/ 눈의는 피가나고 가슴은 불이난다/ 罔極다 痛哭이여 到處의 慘酷하
 다/ 이몸이 遑遑하야 心不能定情하니/ 이殺歲 사라나서 이樂歲 불동말동

塗炭에 빠진 백성들은 어느 겨를에 눈을 뜰까 하여 逼迫과 患難에 처한

백성들의 삶의 현실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가늘고 긴 실 같은 자신들의 목숨이 질기기도 질겨 죽고 싶으나 죽지 못하는 상황을 드러냈다. 또한 굶고 먹고 이리저리 천행으로 살아났지만, 가족들은 어디 가고 배고파 굶은 자식만 있으니 더욱 서럽다며 백성들의 슬픔을 표현하였다. ‘눈에는 피가 나고 가슴은 불이 난다’고 하여 백성의 처참한 심정을 토로하였다. 통곡이 극에 달한다고 한들 곳곳마다 참혹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으니 이를 보고는 마음을 안정시키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듯하다. 이렇게 힘든 세상을 견디고 견디 살아났다고 할지라도 즐거운 세상이 쉽게 돌아올 것 같지 않으니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에답다 우리승監 巡使道の 面分업서/ 監營을 가시간들 騎馬가 이실년가/
 보선이 업섯거니 冬衣도 難得하다/ 行裝이 不齊하니 邑民完行 勸치마라/
 馳報을 자주하샤 公道만 미뎃더니/ 公道 公道안야 人情이 公道로다/ 使道
 題音 公明하샤 우리고을 낫다하고/ 負琵琶者 起舞하니 荷枷者도 亦動이라
 / 이題音 이러하니 이아니 一可笑가/ 金陵 山陽 두사이요 瀛州는 압피로
 다/ 세고을 鼎足間의 우리고을 삼겨거늘/ 무어시 낫다하고 之次邑의 分等
 한고

자연재해로 인해 입지도 먹지도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관리들의 폭정은 계속된다. 이 부분에서는 관리들의 어리석음을 논하였다. 장흥고을의 수령은 순사또가 있는 감영으로 가고자 하지만 면분이 없어 가지도 못한다. 시적 화자는 ‘배굶은 말이라도 있어야 갈 것이 아닌가?’라고 하며 가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핑계를 늘어놓는다. 영감의 行裝이 가지런하지 못하니 감영인 전주에도 가지 말라고 이른다. 먹고 살기가 급한데 行裝이 가지런하지 못해도 가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하지만 말도 없고, 버선도 없고, 겨울옷도 구하기 어려워니 가지 말라고 전한다. 급히 보고하기를 여러 번 하였지만, 믿고 바르게 처리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즉, 어려운 정도에 따라서 곡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 옳지만 그렇지 않고 인정에 의해서만 판단하니 公道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사또가 보낸 판결서는 공명하여 우리 고을이 낫다는 하나 더 심한 경우를 들어 심하지 않음에 대해 논한 것이다. 비파를 짚

어진 자 일어나 춤을 추니 칼을 쓴 자도 또한 춤춘다고 하여 더 심한 상황을 비유하고 있다. 金陵(강진)과 山陽(보성)의 사이고, 瀛州(제주도)는 앞이라고 하여 세 고을을 술밭에 비유하여 그 사이에 장흥이 끼어 있음을 언급하였다. 그러니 무엇이 낫다하고, 그 다음가는 순서의 나눔이 있겠는가 하여 흉년의 재해를 등급으로 나누었는데 그 정도는 ‘之次邑’이라고 나타냈다. 흉년이 심할 때는 등급으로 나누어서 기근의 심하고 심하지 않은 정도를 나누어 판단하였다. 그 가운데 長興은 등급에서는 기근이 심하지 않은 고을로 결정되었다. 이는 순사또가 잘못된 처리를 한 문제도 있지만, 이 부분에서는 순사또의 게으르고 면분 없는 것을 나무라기보다는 재해의 실상을 감추고 ‘之次邑’으로 신고한 관리들의 비리에 대한 폭로를 하고자 한 것이다.

아모리 連凶인들 上納을 근치손야/ 行關이 連續하여 各項밧자 停止할나/
 大同 結役米와 □還上 乞糧本錢/ 各色保米 運役과 統戶役 香徒役을/ 區別
 區別 別音호라 一時의 督捧호니/ 이리하여 못하리라 別差檢督 내여코야/
 別差檢督 主人使令 약정면장 眼同호니/ 咆哮하는 號令소리 閭閻이 振動한
 다/ 官令을 미섯거니 名分을 도라보라/ 內庭의 作亂호니 壬辰倭亂 이럿던
 가/ 戶首次知 面任次知 里正次知 一族次知/ 다자바 囚禁호고 星火로 督納
 하니/ 永嘉적 時節인가 荷擔은 무슴일고/ 어와 亂離로다 이 亂離 誰當호
 리

이 부분은 수령이 곡식을 은닉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세금은 정해진 법에 맞게 준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에는 현실과 어긋나게 상납됐다고 고해졌다. 그러니 이를 채우기 위한 관가들이 거둬간 착취의 현상은 실로 엄청났다고 예상할 수 있다. 아무리 凶年이 이어진다고 한들 상납은 끊이지 않았다고 하였고 이런 모습에서 시적 화자는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다. 관아에 보내는 공문을 계속 보낸다고 해도 갖가지 항목들을 적어 보내도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하였다. 큰 동의 결속미와 결량본전은 각 군역 대신 내는 세금에 거두는 쌀, 집집마다 부과되는 부역, 부역에 징발된 사람 등을 구별하여 분정을 조정해서 할당하라고 하여 일시에 세납을 독촉하여 거둬들이도록 했다. 결국 시적 화자는 전쟁의 상황에서도 이렇게 어렵지 않

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중간에서 관리들이 부정한 행위를 하는 모습을 간접적으로 언급하는 구절이다. 향촌의 일을 맡아하는 관리가 면임차지, 이정차지, 일족차지들 즉, 징세 담당자를 다 잡아 가두고는 성화로 세금을 바치도록 독촉하였다. 이는 수령의 은닉을 말하며 조사한 기준과 현실과 어긋난 상납의 현상들을 측정하여 이를 더 많은 세금을 요구하는 관가의 착취로 이어졌음을 나타낸 구절이다. 즉, 수령의 은닉을 조장하는 것으로 현실과 상납 사이의 어긋난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러한 부세의 수취는 수령의 고과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凶年의 농민에 대한 현실은 돌보지 않고, 수령 스스로의 이익만을 챙기려 하였다. ‘난리로다 이 난리 누가 당하리’라는 문장에서 부정부패의 상황이 극에 다다랐음을 언급한 것이다.

<壬癸嘆>은 장흥지역 백성들의 어려움을 그린 작품이다. 시적 화자는 자연재해에 괴로워하는 백성들에게 부패한 관리의 폭정이라는 상황까지 얹어 백성들을 더욱 못살게 하는 부정부패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시적 화자는 이러한 백성들의 연민과 분노를 자아냈다. 즉, 시적 화자나 백성들이 생각하는 자연재해의 경우는 원망할 대상이 없었다. 그러다가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가난하고도 힘든 백성들에게 雪上加霜으로 부정한 관리들의 횡포까지 더해졌다. 그러하니 그 원망 또한 하늘을 찌를 듯하였다. 시적 화자는 이러한 현실에 대한 비판을 작품을 통해 사실적으로 드러냈다.

3.2 不條理한 관리들의 諷刺

不條理한 관리들의 諷刺적인 모습은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고려시대 및 삼국시대 그 이전의 계급사회에서부터 이루어져 왔다. 다만,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더 크게 부각되고 있을 뿐이다. 백성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목민관이 백성들에게 수탈하는 인물로 그려지는 것은 이 작품에서 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작품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즉, 조선시대에 탐관오리에 관한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장흥지역의 가사작품 가운데 不條理한 관리의 모습을 보여준 작품들을 살펴보자.

귀경가자 귀경가자 합강정(合江亭) 귀경가자/ 시유구월(時維九月) 염이일(念二日)은 길일(吉日)인가 가절(佳節)인가/ 관풍찰속(觀風察俗) 우리 순상(巡相) 이날의 선유(船遊)하니/ 청추성절(淸秋盛節) 즐거우나 창오모운(蒼梧暮雲) 비감(悲感)하니/ 북궐분운(北闕紛紜) 몽외사(夢外事)라 남주민막(南州民瘼)니 아둔가/ 음주유산(飲酒遊山) 조홀시고 추사방극(秋事方極) 고렴(顧念)홀가/ 식강통도(塞江通道) 홀 올 적의 일월공역(一月貢役) 드단 말가/ 착산통도(鑿山通道) 홀 올 적의 억민가식(抑民稼穡) 홀 단 말가/ 호원(號冤)호는 저 구신(鬼神)아 풍경(風景)의 타시로다/ 범갓탄 우리 순상(巡相) 생심(生心)이나 원망(怨望)홀가

시적 화자는 여러 사람에게 ‘合江亭’으로 구경가자고 선동하고 있다. 이 작품의 시간적 배경은 ‘時維九月 念二日’이며, 9월 22일을 나타낸다. 9월 23일이 국기일이다. 나랏일을 하며 녹을 먹는 사람이 국기일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상은 그 전날인 9월 22일에 음주와 가무를 곁들여 흥청망청 노는 모습을 묘사하였다. 그러나 시적 화자는 그 중앙절이 좋은 날인지를 묻는다. 농민들은 추수에 다급한 모습을 드러내지만, 관리들은 추수에 관심이 없고 날 좋은 날을 찾아서 놀고자 하는 마음에 여염이 없기 때문이다. 관리들은 날씨 좋은 날, 風俗을 관찰하는 巡相이 이를 핑계로 흥겨운 뱃놀이를 즐긴다. 그러나 이러한 뱃놀이를 하는 날인 중앙절은 궁중에 제사가 있는 엄숙한 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속을 살펴야 하는 巡相은 仙遊하며, 푸른 가을의 태평한 시절에 즐거울 뿐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蒼梧暮雲’은 즉, 창오산의 저녁 구름이라고 하여 아황과 여영이 순임금을 추모하는 마음을 드러낸 구절로 투신 직전의 심경을 비감하다고 표현한 것이다. ‘北闕’은 궁중을 말한다. 궁중의 어지러운 일은 꿈밖의 일이라고 하였다. 또한 남쪽 고을의 백성들은 병이 들었음을 아는지 물어 巡相의 여유로운 즐거움과 백성들의 바쁘고 가난함을 대비적으로 표현하였다. 巡相의 끝날 줄 모르는 흥겨운 뱃놀이는 추수에 바쁜 백성들에게는 큰 고통으로 다가왔다. 이러한 현상은 巡相의 뱃놀이에서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순상이 뱃놀이를 하며 즐거운 한 때를 보낼망정, 백성들은 강을 막아 길을 통하는 것으로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못한다. 이러한 잘못된 일에 따끔한 충고를 더해

준다. 즉, 이는 백성들이 해야 할 농사일을 방해하고, 강을 막고 산을 뚫어 길을 내는 일을 하느라 추수할 시기를 빼겨 일손을 낭비하는 꼴임을 한탄하는 내용이다. 농한기도 아니고 꼭 추수를 해야 할 처지에 있는 와중에도 백성들의 고단함을 드러냈다. 이에 시적 화자는 귀신을 불러 원통함을 호소한다. 아름다운 자연과 더불어 함께 살고는 있지만, 이러한 원인은 ‘風景’ 탓이라고 언급한다. 이에 백성들은 아름다운 고장에서 살고 있는 것을 원망하며, 범 같은 순상의 마음을 원망코자 한다. 호화롭게 준비해 놓은 주전장막에 여유로운 巡相의 風情은 백성들에게는 원수와 같고 그럴 수 없는 액운이 미친 것으로 인식되었다. 巡相의 행위와 그에 대한 백성의 반응은 극도로 상치되어 있다. ‘구경가세’, ‘좋을시고’ 라고 하여 첫 부분에서는 백성들의 흥겨움을 드러내고 있는 듯하지만, 이는 진실로 나타내는 즐거움이 아닌 비감하고 원망스러운 정서의 역설적 표현이다.¹²³⁾ 아름다운 풍경에 살기 좋은 마을의 평안함을 느끼기보다는 巡相의 사치스러운 행동 때문에 백성들은 도리어 원통함을 부르짖어 귀신에게 하소연하고 있다.

소림의 빙을 타니 수상(水上)의 승경(勝景)이오/ 을닌옥척(銀鱗玉尺) 주어
 너어 주동(舟中)의 회평(膾烹)하니/ 인간의 남은 액운(厄運) 수국(水國)의
 미논고나/ 오리(五里)밭 주막(酒幕)의 낭자(狼藉)흔 저 주육(酒肉)은/ 열읍
 관인(列邑官人) 적기로다 준민고택(浚民膏澤) 안이런가/ 다담상(茶啖床)의
 수파련(水波蓮)은 향곡우민(鄉谷愚民) 초견(初見)이라/ 괴이(奇異)하고 찰
 난(燦爛)하다 백금물가(白金物價) 드단 말가/ 민원(民怨)이 철천(澈天)하고
 풍악(風樂)이 동지(動地)로다/ 종일(終日) 놀임 부족(不足)해야 병촉야유
 (秉燭夜遊) 하단 말가

위는 감사의 사치스런 유흥을 상세하게 지적하였다. 배에서는 아주 싱싱한 물고기를 잡아 다양한 요리방법을 드러냈다. 5리 밖까지 길게 펼쳐진 술자리의 성대함은 잔치의 시끌벅적하고 요란한 광경을 묘사하였다. 그 곳에는 감사를 수행하는 관리들이 머물러 있었고, 그 주막 역시 널려진 술과 고

123) 최상은, 「현실비판가사의 현실인식과 문학적 성격」, 『가사문학의 이념과 정서』 (보고사, 2006), 279면.

기들 및 잔치상을 꾸미는 꽃 즉, 기생들로 가득했다. 이러한 재물들은 백성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것들이다. 관리들의 기쁨이 크면 클수록 백성들은 더욱 더 힘겨워질 뿐이다. '수파련'은 잔치 때나 굿할 때에 장식으로 쓰는 종이로 만든 연꽃이다. 하지만 여기서의 아주 화려한 꽃 장식을 의미하기도 아름다운 기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시골에 사는 향곡의 어리석은 백성들을 그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기생들을 처음 본 모양이다. 그 모습이 기이하고 찬란하기까지 하다. 이는 전에 없었던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면모와 더불어 이런 광경이 기이하기까지 한다고 하니 현재 부임한 관리들의 횡포를 드러낸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백성들의 원망은 하늘에 사무치며, 시끄럽게 난리치는 風樂소리는 땅을 움직이게 한다고 하니 얼마나 성대하게 잔치를 이끌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하루 종일 놀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지 손에는 촛불을 잡고 밤까지 잔치를 이어가고 있다. 백성들을 돌보아야 하는 목민관은 백성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심지어 그들의 재물을 빼앗기까지 한다. 이는 백성들의 고달픈 삶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관리들의 횡포를 드러냈다.

불상한 저 민전(民田)의 조분 질 널니거다/ 각읍관인(各邑官人) 동역시(動役時)의 편박(便泊)쫓차 무삼 일고/ 허다(許多)한 관인(官人) 격기 디소촌(大小村)의 분정(分定)허니/ 사방부근(四方附近) 십니너(十里內)여 계건(鷄伏)이 멸족(滅族)커다/ 부자는 가(可)커니와 가연(可憐)허다 빈자(貧者)로다/ 석양(夕陽)이 다 저가고 이장(里長)촉반(促飯) 홀 제/ 한쥬(寒廚)의 우난 소부(少婦) 발굴으며 허는 마리/ 방이품 어드 양식(糧食) 한 되는 니건 마는/ 찬소(饑蔬)는 어이하며 기명(器皿)은 누기 빌고/ 압뒹집 보나보니 납일차증(納日差定) 여더로다/ 촌계(村鷄)도 탕진(蕩盡)허고 호수렴(戶收斂) 허단 말가/ 디호(大戶)의 양(兩)이 남고 소호(小戶)의 육칠전(六七錢)이라/ 이 노름 다시 하면 이 빅성(百姓)이 못살 거다/ 한 사람의 호사(豪奢)로서 몇 빅성의 날니넌고

백성들의 삶에 대한 고통을 그대로 드러냈다. 관리들은 백성들의 돈을 거두기 위해 백성들의 밭에 난 좁은 길을 자주 드나든다. 이에 그 좁은 길이

넓어지게 될 지경에 이른다. 백성들은 관리들에게 잔치에 쓰이는 돈을 착취 당한다. 또한, 각 읍의 관리들의 움직임까지 파악하여 그들의 숙식까지 말아야 한다. 많은 관인들을 크고 작은 마을로 나누고, 사방 부근 십리에 있는 개나 닭이 멸족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보아 이들의 착취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보여준다. 부자는 괜찮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도 비참하다. 그 예로 차가운 부엌에서 울고 있는 한 젊은 부인의 이야기를 언급했다. 이장은 관리들의 대접할 것으로 서민들에게 밥을 재촉하는데, 이에 젊은 부인은 밥을 구르며 이장에게 호소한다. 방아품으로 나라에 낼 양식 한 되는 얻었지만 반찬도 없고, 장만할 그릇도 없다. 또한, 이러한 사정은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앞집이나 뒷집, 옆집 모두 똑같다. 이는 이 마을 어디에서도 반찬은커녕 그릇조차 빌릴 수 없는 상황임을 드러내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먹는 것뿐만 아니라 돈도 거둬들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관리들의 놀음으로 인해 백성들은 등골이 빠질 지경이다. 한 사람의 호화로운 잔치를 벌이기 위해 몇 명의 백성들이 난리가 아닌가? 시적 화자는 한탄하고도 또 한탄한다.

한 사람의 호사(豪奢)로서 몇백성의 날니넝고/ 낙토(樂土)의 싱긴 인상(人生) 티평성대(太平聖代) 조하여/ 안토안업(安土安業) 호옵씨니 할길 업서 유리(遊離)호너/ 가장전지(家庄田地) 진미(盡賣)호야 어니 말로 같넝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상제(上帝)님기 비나이다/ 우리 성상(聖上) 인의심(仁愛心)이 광명촉(光明燭)이 도야씨샤/ 빗최소서 빗최소서 이 원전(員前)에 빗최소서/ 전두풍성(前頭風聲) 들니기로 치죄니향(治罪利鄉) 혼자커놀/ 간활(寬濶)인가 네겨씨니 음식(飮食) 드림 썬이로다

순상의 호사스럽고 사치한 부분을 꼬집어 언급한 부분이다. 즉, 관리가 편안하면, 아래 백성들은 힘들어지게 마련이다. 그러나 그 정도가 너무도 지나치다. ‘樂土에서 생긴 人生’이라 하여 이 작품의 작가를 밝히고 있다. ‘樂土’는 이색의 <中寧山皇甫城記>¹²⁴⁾을 통해 살펴볼 때, 장흥의 옛 이름이었음을

124) 중녕산에 성을 쌓는 것은 나라의 근본을 공고하게 하는 일이다. 고을이 큰 바다 언덕에 위치하여 겨울에도 푸른 초목이 많다. 옛날에는 낙토(樂土)라고 일컬었다. 인종왕비(仁宗

알 수 있었다. 두 번째 이유는 《魏門家帖》이라는 책 때문이었다. 《魏門家帖》¹²⁵⁾은 장흥위씨 일문에 전해지는 책으로 여기에 장흥지역이 아닌 배경으로 한 <만고가>와 <합강정船遊歌>가 존재한다. 비록 작가가 알려지지 않았더라도 《魏門家帖》의 기록자가 장흥위씨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 이유는 ‘합강정’이라는 지명에 관한 것이다. 여기 등장하는 ‘합강정’은 어디일까? ‘합강정’은 ‘진주’와 ‘옥과’에 하나씩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樂土에서 생긴 人生’이라 하여 이 글의 작가의 고향을 드러내는 ‘長興’과 밀접한 곳인 것으로 볼 때, 장흥위씨이면서, 옥과와 관련된 사람을 찾아보면 위백규가 유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작자층을 밝히는 과정에서 <합강정船遊歌>의 작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전라도 사람’, ‘湖民’으로 되어 있다¹²⁶⁾고 한다. 그러나 김석희의 논문과 ‘長興’을 나타내는 기록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작품의 작자는 장흥에서 태어난 인물이며, 옥과현감을 지낸 인물인 위백규임에 틀림없다.

위백규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은 태평성대를 좋아하여 편안한 땅과 안심할 수 있는 직업을 원했다. 하지만 땅이름과는 달리 할 일이 없어 떠돌아 노닐게 된다. 자원도 풍부하지 않고, 더군다나 농사지은 것도 별 볼일 없으니 집이나 장막, 밭과 땅을 모두 팔아서 밭천을 마련하고 어느 마을에서 생

王妃)인 공예태후(恭睿太后) 임씨(任氏)가 의종(毅宗)·명종(明宗)·신종(神宗)의 세 임금을 낳아 서로 이어서 왕위에 오르고, 장흥(長興) 고을이 옛날에 비하여 풍년이 잘 들었다. 군(郡)에서 목(牧)으로 승격하였으니, 특출한 것을 극진히 드러내어 표창한 것이다.[城中寧。固邦本也。府岸大海。草木多冬青。古稱樂土。仁王妃恭睿任太后。生毅明神三王。相繼卽位。長興比古有年。由郡陞牧。所以旌異者至矣。] 李穡, <中寧山皇甫城記>, 《東文選》 卷之七十六

125) 이 책은 17세기 말경부터 19세기 초엽 사이에 장흥과 영암 순창을 지역적 배경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엽 장흥지방 세거사족의 작품이 집중적으로 실려 있는 것이 특징이며, 필체가 적어도 셋 이상인 점으로 미루어 어떤 한 개인의 독자적인 편집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장흥지방 사투리의 구기가 많이 배어 있는 것으로 보아 주로 음영구술을 토대로 기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여기 등장하는 <만고가>의 경우, 작가는 영암 鳩林의 세거사족 함양박씨의 일원인 박이화(1739~1783)인데, 그의 《귀계집》에 부록되어 있는 낭호신사에는 순한글 필사로 된 133행 266구의 완본이 전하고 있다. 그러나 중간에 양본이 서로 다른 것으로 보아 《魏門家帖》의 기록자가 검열적 교정자로서, 혹은 흥미위주의 개작자로서 간여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김석희, 앞의 책, 2005, 311~316면.

126) 고순희, 앞의 논문, 2000, 130면.

계를 꾸려야 할지 막막한 심정을 표현했다. 공간은 ‘樂土’라 하여 아름다운 고장이라 불리는데 정작 그 곳은 아름답지 못하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상제님께 聖上이 仁愛心을 돌게 해달라고 빈다. 가장 절박한 순간이 있을 때 누군가를 찾아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거나 기도를 한다. 이 마을의 백성들 역시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며 간절히 원하고 또 바란다. 지방향리의 횡포로 순상이 지방에 왔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큰 희망이 된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는 철저하게 사라진다. 그 이유는 그 역시 잔치에 정신이 팔렸고, 민생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을 드러냈다. 머리 앞에서 바람소리 들리나 죄를 다스려서 향촌에 이익이 된다하나 도량이 넓고 성격이 활달한지 살폈더니 다른 것은 전혀 없고 음식만 드릴 뿐이라는 부분을 표현한 것이다.

식록(食祿) 조흔 우리 순상(巡相)/ 팔록(官祿) 조흔 우리 순상(巡相)/ 드르 시면 병조판서(兵曹判書)/ 나오면 팔도방백(八道方伯)/ 공명(功名)도 자락(自樂)호고/ 부귀(富貴)도 그지업다/ 일단신절(一丹臣節) 알게되면/ 갈역보민(竭力輔民) 호오리라/ 두어라 비은망덕(背恩忘德)호면/ 양급자손(殃及子孫) 호오리라

마지막 결말 부분이다. 순상의 풍자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시적 화자는 비리를 일삼는 병조판서와 고위 간직의 감사들에게 공명과 부귀가 끝이 없다며 비꼬듯 말한다. 또한 신하이면 갖춰야 할 충심이 선택하는 것인 듯 표현되었다. 신하로서의 마음가짐을 깨달으면 백성들을 위해 힘을 쏟을 것이라 하여 신하의 본분을 잊은 순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남겼다. 고위직에 있는 신하로 임금을 보필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개인의 욕심에만 관심있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임금의 은혜를 잊으면 화는 자손에게 미칠 것이라 하여 신하로서의 도리를 다하라는 당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 비판의 대상은 정민시다. 그는 40살 이전에 대사성, 직제학, 5조판서, 좌우참찬을 역임했고, 잠깐 면직되었다가 관찰사, 병조판서, 장용위 대장 등을 역임하며 권력핵심에서 돌았던 점에 비추어 <合江亭船遊歌>의 진술은 정확한 사실 정보에 입각해 있는 것이 확인된다.¹²⁷⁾

<合江亭船遊歌>는 화려한 잔치를 통해 부조리한 관리들의 잔악한 모습을

諷刺적으로 그렸다. 목민관은 스스로 백성을 살펴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잔치를 열어 가진 것 없는 백성들의 등골을 더 휘게 만든다. 이 작품은 鄕村의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고발을 담았다. 가난하고 불쌍한 백성이 피와 땀을 흘려 일군 그들의 재산을 관리들은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냥 도적질하는 것처럼 그렇게 빼앗아 버렸다. 이러한 사회비판적 현실가사는 부조리한 사회를 널리 알려 이러한 부조리한 사회에서 벗어나고자 하여 못된 관리들을 근절하고자 창작된 작품이다.

<合江亭船遊歌>와 <壬癸嘆>은 향촌의 피폐한 실상과 집권층의 부조리를 낱낱이 그리고 있다. 이 작품들은 서로 부정한 관리를 비판한다는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 성격을 조금 다르다. <合江亭船遊歌>의 경우는 선정을 베풀어야 하는 관리가 오히려 백성들을 수탈하는 인물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는 수령들의 잔치 행각과 그에 따른 부조리한 민폐들을 풍자적 어조로 비판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감사와 그에게 아부하려는 수령들의 행태를 여지없이 비판하여 이로 말미암아 생겨난 문제들에 대한 백성들의 도탄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壬癸嘆>의 경우에는 위의 경우와는 다르다. <壬癸嘆>은 나라의 가난이 첫 번째 원인으로 자연재해를 가장 큰 문제점이라 생각하고, 먹고 살기 어려운 사회에 수탈하는 관리들을 두 번째 원인으로 여겨 현실비판 작품으로 현실사회에 대한 부조리함을 형상화하였다. 즉, 거듭된 흉년 속에서도 아랑곳하지 않는 관리들의 수탈이 관행화된 것을 묘사함으로써 중앙집권 체제 속의 비리와 비판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심한 가뭄에 대한 흉년이었던 자연재해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 어려운 상황에서 관리의 횡포는 결국 살 수 없는 현실에서 유랑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그렸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향촌 안에서만 있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렇다고 향촌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이 두 작품에서는 향촌 문제뿐만 아니라 현실사회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향촌사족들은 향촌사회에서의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127) 김석희, 앞의 책, 2005, 331~332면.

위해 그들의 의지와 노력을 그들의 글에서 뚜렷이 확인할 수 있었다. 향촌에 사는 부정한 관리들의 생활상과 백성들의 고충을 그리면서 그 향촌 내의 문제점에 대해서 논하였다. 이는 鄉村이라는 공간에서 가질 수 있는 공간의 모습이라 생각된다.

4. 安貧樂道 삶의 추구

안빈낙도는 ‘風流’와 깊은 관련이 있다. 조선 전기 가사문학에서의 風流는 사대부들의 향유물이었다. 그 대표적인 작품으로 <賞春曲>을 들 수 있다. <賞春曲>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봄을 소재로 하여 현실에서 밀려 나온 사대부가 지닌 현실에의 결핍이 자연과 화합을 얻고, 安貧樂道라는 이상을 현실과는 또 다른 자연에서 이룩하게 되는 현상¹²⁸⁾을 그린 작품이다. ‘風流’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신라의 화랑도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전한다. 화랑도의 이념은 개인의 수양과 단련을 통한 수양방법으로써 道義로써 서로 닦고, 歌樂으로써 서로 즐기며, 名山大川을 찾아 두루 다닌다고 하였다. 고려 말의 亭子文學에서 나온 隱逸者的 風流가 있으며, 조선전기에 士大夫의 風流로 오랜 전통 속에서 면면이 이어져오고 있다.¹²⁹⁾

장흥의 가사문학 가운데서 <草堂曲>은 風流歌辭에 속한다. 이 작품은 李商啓가 나이가 들어 草堂에 살면서 草堂 주변의 아름다운 山水를 노래한 가사작품이다. <草堂曲>의 제작연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草堂曲>은 최소한 草堂을 세운 다음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넓게 보면, 순조 8년(1808) 즈음에서 작자의 卒年인 순조 22년인 壬午年(1822) 사이에 지어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현재 알려진 <草堂曲>은 문헌 혹은 가첩의 형태로 현재 4종이 전하고 있다. 1) 작자 李商啓의 문집인 《止止齋遺稿》, 2) 필사본 <草堂全曲>, 3) 작자 宗家の 가장본인 《분책본》¹³⁰⁾, 4) 《魏門家帖》이 전한다.¹³¹⁾ <草堂曲>의 첫머리를 보면 다음과

128) 윤석산, 「<賞春曲> 구조 연구」, 『고전문학연구』 13집(고전문학회, 1998), 72면.

129) 최영희, 「전기풍유가사의 유형 연구」, 『한국언어문학』 37집(한국언어학회, 1996), 3면.

같다.

草堂 느진날에 깊이 든 잠 놀라깨니/ 門앞 버들우에 새소리 봄이로다/ 百
花酒 두 세 잔에 醉起言志하오리라

시적 화자가 있는 곳은 바로 ‘草堂’이다. ‘草堂’에서 시적 화자는 늦은 날
깊은 잠에 빠지지만, 놀라 잠에서 깬다. 문 앞에 버드나무 위에 새가 있고,
그 새가 지저귀는 까닭에 깊이 든 잠에서 놀라 깬다. 시적 화자는 봄이 오
는 새소리에 놀라 깬 듯하다고 말한다. 관직에 있는 선비나 직책을 맡고 있
는 사람이라면 이런 광경을 즐길 겨를이 없을 것이다. 허나 이 작품에 드러
난 시적 화자는 한적함을 즐기고, 自然에서 風流를 즐기는 모습이 눈에 선
하다. 자세한 초당의 구조는 알 수 없으나 초당 문 앞에는 버드나무가 있고,
그 버드나무 위에 새가 소리를 낸다. 초당에는 봄을 느끼게 하는 버들과 새
소리가 있다. 여러 꽃을 넣어 만든 술(백화주) 두 세잔에 취하여 하고픈 말
을 서술하였다. 버들, 새소리, 백화주 등 봄의 한가로움을 알릴 수 있는 소
재들로 가득하다.

하늘이 사람낼제 職業이다 있으되/ 昏愚한이 인생은 性命 惜 몰라서/
妄想된 어린마음 富貴를 구하려고/ 天寒白屋 쑥대門에 窮且益堅 큰뜻으로
/ 달아래 글을 읽고 빗뒤에 밭을 가니/ 孔子曰 孟子曰에 세월이 절로 가
고/ 上坪田 下坪田에 인력허비뿐이로다/ 어와 虛事로다 世事營爲 虛事로
다/ 富貴는 안이 오고 年少만 간단말가/ 形役에 얻은 것이 白髮兩鬢 뿐이
로다/ 知命年이 되온後에 내 性命 惜알리라

‘人命은 在天이다’는 말이다. 사람이 사람을 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사람을 만들고 거기에 직분까지 더한다고 하였다. 어둡고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 제 신명을 몰라 헛된 마음으로 부귀만을 구하려 한다. 이를 보고 시

130) 분책본은 재래의 고본가첩에서 <草堂曲>과 <人日歌>만을 분책한 가첩을 말한다고 전
한다.

131) 임기중, 『한국가사문학주해연구』 17권(아세아문화사, 2005), 106면.

적 화자는 불쌍한 마음을 토로하며, 배우고 익히는 것을 권장한다. 부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세속 세상과는 다른 한적한 곳에서 공부하면 더욱 견고해지는 이치로써 달 아래 글을 읽고, 비온 뒤에 밭을 갈았던 작자의 젊은 시절을 회상하면서 晝耕夜讀의 모습을 나타냈다. ‘孔子曰, 孟子曰’은 글 읽는 소리로, 조선시대의 유교사상의 단편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달리 말하면 유교의 기본 경전으로 유교에 얽매어 산 삶을 뜻한다. 즉, 벼슬에 나가기 위해 필요한 공부로 벼슬하지 못하고 공부만 한 세월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낸 구절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위아래 밭가는 것으로 인력 허비한 것 말한다. 모든 일이 헛되고 헛되다고 여기니 이는 곧 작자의 심정을 그대로 드러낸 구절이라 할만하다. 작가는 세상 일에 영위를 따지는 것은 모든 헛된 일이라 한다. 하지만, 부귀는 오지 않고 세월만 지나가니 스스로 한탄스럽기만 하다. 작자는 몸으로 한 고생에 얻은 것이라고는 백발의 늙음뿐이라고 그동안 살아온 삶에 대한 후회를 늘어놓는다. 그리고는 知命年 즉, 知天命인 나이 50세가 된 후에서야 비로소 자신의 신명을 알겠다고 뒤늦은 후회와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그렸다.

碧桃杏花 繁華地에 風情이 절로 없고/ 綠水青山 깊은 곳에 舊夢이多情하니/
富貴는 뉘 主人인고 溪山만 니차지라/ 峨洋洞 靜散地에 舊齋墟 아리두고/
白雲을 놉피쓸어 草堂數間 지어니니/ 楸下에 先隴이오 物外에 新基로다/
四面青山 一石門을 天作으로 開局하고/ 두시에 두룬물은 人力으로
깃단말가/ 썩로 덮은 短簷(끝)을 藤蘿로 얼거매니/ 淳朴한 것 옛지度라 拙
흔거시 더욱쫓다

‘碧桃杏花’는 무릉도원인 이상향을 드러냈다. 이 꽃과 나무가 가득 핀 땅에는 풍치 있는 정취가 저절로 없어지고, 푸른 물, 푸른 산으로 아름다운 자연의 깊은 곳에 지나간 꿈이 다정하다고 하니 세속에 속한 부귀는 누가 주인인가 하여 아름다운 자연만한 것이 없다고 일컫는다. 또한, 시냇물과 산만 내 차지라 하여 욕심 없이 자연에 빠져 살겠다는 작가의 각오가 녹아 있는 구절이라 할 수 있다.

아양동은 지금의 장흥 부용산에 있는 아양동을 말하는 듯하다. 아양동의

고요하고 한산한 땅에 옛 가지런한 언덕을 아래 두었다고 했다. 그 곳은 흰 구름을 높이 쓸어내야 지을 수 있는 산 속 깊은 중턱의 어느 한 곳이라 예상된다. 거기에 초당을 지어낸다고 하였다. 이는 이상계가 1808년에 초당을 짓고 여생을 보낸 곳이라고도 전한다. 그곳 오동나무 아래에는 선묘가 있으며, 또한 세속 외의 새로운 터라 자부하였다. 사면이 푸른 산으로 둘러싼 이곳의 풍경을 보이는 그대로 적고 있다. 하나의 돌문이 있고, 흐르는 물 역시 하늘이 만든 것이라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에 감탄하였다. 즉, 이는 하늘이 만든 자연과 인간이 만든 草堂의 모습의 조화로움을 강조하였다. 두 조화로움에서 오는 순박하고 조촐한 자연풍경이 어느 하나만으로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자연풍경에 대한 아름다움을 배가시킨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니웃호야 첫터두고 悟道峙 듯깨끗은/ 主山으로 俯臨호니 眞綠이 엇도던가
 / 俗慮도 절로업고 써업는 두귀꽃을/ 石灘에 다시씻고 濯纈臺 흐르물이/
 洗心潭 도라드니 風臺에 바람소리/ 心神이 灑落호고 月坵(예) 발근달은/
 말근意味 一般이라 石路에 흘은물은/ 數層花階 올느니 절로핀꽃 杜鵑花
 오/ 심어핀꽃 躑躅薔薇 다핀가지 덜핀나무/ 집을 돌너시니 武陵源이 어더
 매요/ 別乾坤이 여기로다 桃花流水 흘러간들/ 어느魚舟 차자올가 雲心不
 知 집퍼거든/ 松下問童 누알손야 林泉에 손을씻고/ 藥爐에 쉼을 쫓고 산
 건 野服으로/ 구름빗겨 안자시니 들니느니 물소래오/ 보이느니 뿔뿔시라
 絶壁에 석근터와/ 石上에 늘근술은 風霜이 몇劫인고/ 못큰거시 格이로다
 石榻에 흐튼바들/ 商山翁이 뒤드간가 壁上에 걸닌洞簫/ 王子晋이 부다간
 다 식줄여진 거문고는/ 流水曲의 音律이오 鍾期업시 혼자타니/ 山水만 峨
 洋이라 煙霞에 짓피든病/ 獨樂으로 다낫것다

이 부분은 작품의 핵심부분이다. 아름답고도 한가한 생활을 묘사하고 있다. 자연의 연분이 숙된 세상을 멀리하고자 함을 드러냈다. 그 예들을 살펴보자. 때 없는 두 귀 끝을 돌 여울에 씻고는 ‘탁조대’에 흐르는 물이 마음을 씻는다는 ‘세심담’에 돌아든다. 풍대에 부는 바람소리는 심신이 쇠락하고 월대에 비친 밝은 달은 맑은 의미라고 하여 자연의 풍경을 나타냈다. 석로에 흐른 물은 여러 층의 꽃 섬들에 올라가니 절로 핀 꽃은 두견화고, 심어서

핀 꽃은 진달래와 장미다. 다 핀 가지와 덜 핀 나무가 집을 둘러 있으니, 이
 아니 무릉도원인가라고 하며 草堂이 곧 武陵桃源임을 시사하고 있다. 별건
 끈이 여기이고, 복숭아꽃 물에 흐르니 어느 고깃배 찾아올까 하여 풍류를
 즐기는 사람이면 어떤 사람이든지 찾아올 만한 아름다운 풍경을 지닌 그런
 곳임을 묘사하였다. 구름이 깊어 있는 곳을 알지 못하니 소나무 아래 있는
 동자에게 묻지만 그 동자 또한 모른다고 답한다. 林泉에 손을 씻고 약로에
 향을 쫓은 시적 화자의 복장은 평민복이다. 신분을 따지지 않고, 자연에서는
 다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작가의 의식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시적 화자가 앉아 있는 그곳에서는 물소리가 들리고, 산 빛이 보인다. 또한,
 그는 絶壁石上の 靑竹과 老松을 바라보기도 하고, 商山翁이 두다가 간 바둑,
 王子晋이 불다 간 동소와 流水曲을 생각하며 홀로 있는 山水의 아름다움에
 빠져 있는 스스로의 모습에 대해 즐거워한다.

달아려 술마시니 酒中謫仙 이아니며/ 門압페 버들서니 五柳先生이 쏘뉘신
 가/ 書冊진 저아히는 學文을 흐라호고/ 瀑布水 빗겨건너 달을볼바 오느樣
 은/ 蓬萊山 靑衣童子 黃庭經을 講호라고/ 雲漢을 바로건너 月宮을 向호는
 덧/ 閑暇호 저 老人은 아히불너 甞심외고/ 靑山에 셤을캐여 月下烹茶 호
 는樣은/ 瀛州山 늘근神仙 龍을 불너 瑤草갈고/ 赤松에 桂樹비여 花下에
 煉丹흡이로다

이 부분은 4단의 시상이 계속 연장되었다. 경치 좋은 달 아래서 술을 마
 시고, 술 마시는 가운데서 다시 시를 쓰는 자신을 스스로 謫仙 즉, 李白이라
 고 하였다. 또한, 문 앞에 있는 버들을 보고는 또 五柳先生 즉, 陶淵明은 또
 누구인가? 라고 하여 도연명 역시 본인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는 風流를 즐
 기는 仙人들의 이름들을 열거한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다. 시적 화자는 또
 한 유명한 仙人인 그들과 함께 風流를 즐길만한 하다고 표현하였다. 즉, 시
 적 화자 자신은 ‘달 아래 홀로 스스로 즐긴다’라고 하여 李白과 陶淵明에 비
 유하고 있으며, 학문하러 오는 門下生들은 월궁으로 향하는 靑衣童子에 연
 상하고 있다. 또한, 한가한 노인은 아이를 불러 꽃을 심게 하고, 청산에 들
 어가서 섶을 캐며, 달 아래에서 차 달이는 모습을 그렸다. 그런 반면 영주산

늙은 신선은 용을 부르고, 아름다운 풀을 갈게 하며, 적송에 계수나무를 베어 꽃 아래에 붉게 하는 모습을 그렸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이백과 도연명을 비교한 것처럼, 아래 한가한 노인이나 영주산의 늙은 신선을 비교하고 있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아름다운 자연에 대한 모습을 잘 표현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도로여 生覺호니 人間淸福 니야만다/ 鶯花富貴 어디잇요 樹竹淸寒 또兼호
 터/ 梧桐明月 楊柳風도 不用一錢 절노있다/ 宦海風波 危險호디 紅塵紫陌
 늘근三公/ 아모리 換比호들 이溪山을 허락호가/ 功名富貴 浮雲이오 鐘鼎
 玉帛 塵埃로다/ 舊時王謝 堂上燕은 飛人尋常 ぬ집이며/ 昔日歌舞 繁華地
 에 數聲寒蟄 쏜이로다/ 天地無窮 이江山은 늘근늘이 업건만은/ 碧海桑田
 變호後에 다호써 잇실손야/ 두어라 傳子傳孫호야 肯構 肯堂하면/ 永錫其
 類 호리로다 아히야 쏜즌 또 노아라/ 醉코놀개 호노라

전체 시상의 마지막 구절이다. 작가 스스로 인간의 淸福에 대해 생각해본다. 아름다운 자연 강산을 여러 나무와 꽃으로 표현했으며, 이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절로 있다고 하였다. 벼슬살이의 힘겨운 풍파를 비유하여 그 위험함을 알렸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늙은 삼공(좌의정, 우의정, 영의정)이라는 부귀와 공명을 바꾸라고 한들 자연과 바꾸지 않겠다는 작자의 굳은 결심을 드러내고 있다. 공명부귀는 뜬 구름일 뿐이고, 종정옥백 역시 티끌 먼지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또한 유우석(772~842)의 <烏衣巷>이라는 시를 인용하였다. ‘왕사’는 왕탄지와 사안을 이르는 것으로 부귀와 번영한 사람을 가리킨다. 옛 시절 세도가의 큰집에 살던 체비는 집에 예사로 날아드는데 그 집은 누구 집이냐며 옛날 가무가 변화한 곳에 풀벌레들의 씹쓸한 울음소리뿐이라고 했다. 천지무궁한 이 강산은 아들에게 전하고, 손자에게도 전할 것이라 하였다. 즉, 安貧樂道를 강조하며 이 글의 끝을 맺고 있다.

自號愚谷 堂號썌서 壁上의 붓치시니/ 愚谷이라 하난 쓰스다름이 아이로다
 / 니가근본 이란지라 山谷居키 맛당하다/ 뒤으로 松竹田과 압푸로 桑麻場

은/ 先世遺庄 그가온디 數間茅屋 더욱조타/ 泉石의 김푼밍세 미鹿으로 벗
 슬삼어/ 변화한 世上事을 分外에 써저두니/ 是非난 從流水요 부귀난 如浮
 雲이리/ 孝親忠君 못한몹니 달은일을 알을소냐/ 終日如愚 안저시니 허소
 이비 宛然하다/ 山水나 노리하고 風月이나 을퍼보며/ 林鳥나 흐롱하고 邱
 松을 만저보니/ 谷谷이 흐른물은 世俗말을 싣쳐가고/ 峰峰이 들은안기 仙
 境이 여기로다/ 蔬食菜羹 이너쓰슬 富貴가 달너소냐/ 金莊山 취고살리 맛
 덤도 맛디도다/ 心爲形役 病된肝腸 이제나 蘇服하자/ 구름속의 캐온藥草
 魚果을 兼히잇고/ 窓압페 부난淸風 故人이 자로운다/ 花開春 落葉秋난 四
 時을 김작하고/ 朝出耕 也讀書난 百年을 期約하니/ 前川花柳 午日景은 道
 心을 자아내고/ 庭上梧桐 露月光은 天樓을 어더뜨다/ 松端의 자난白鶴 烹
 茶烟을 피히가고/ 花陰의 짓난靑枕 손의소식 傳히서라/ 任者난 조흔 風烟
 任意로 主張하니/ 조흘씨고 山水之樂 이도또한 聖德이라/ 草堂春睡 느진
 잠을 시소리에 찌달나서/ 山巾野服 조냥으로 散步閑庭 구름볼바/ 藥圃花
 田 도라보고 아히불너 차다리니/ 物外神仙 니안니면 煉丹道士 그뉘던고/
 紫芝歌 한曲의 靑雲이 멀엇뜨다

<長恨歌>의 한 부분으로 작자의 생활을 드러냈다. 첫 구절에서는 자신의 號에 대해 언급하였다. 작가는 ‘愚谷’이라는 자신의 號를 집에 써서 붙여 놓
 고는 ‘愚谷’ 즉, 어리석은 골짜기라는 뜻 외에는 다른 것이 없음을 논하였다. 자
 신의 號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의 집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그
 리고 그 집은 뒤에는 소나무와 대나무 밭이, 앞에는 뽕나무와 삼나무가 마
 당을 이루었다고 하여 아름다운 풍경을 서술하였다.

선대 때부터 소박한 살림살이와 山水를 좋아하니 본인 스스로도 자연을
 벗삼고자 하였다. 작가는 변화한 세상일 즉, 세속일은 버려두고 是非와 富貴
 와 같은 것 또한 모두 자연뿐이라며 流水와 浮雲에 비유하고 있다. 작가는
 스스로 孝親忠臣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언급함에 종일토록 어리석게
 도 가만히 앉아만 있는 허수아비 같다고 비유하였다. 이에 작가가 世俗에서
 추구한 是非와 富貴를 단념하고, 自然을 느끼는 모습에서는 삶의 이치를 느
 끼게 하였다. 즉, 꽃이 피는 봄, 잎이 떨어지는 가을은 사계절을 짐작하고,
 아침에 나와 밭을 갈고 독서하는 것은 백년을 기약한다며 山水의 즐거움을

밝히었다. 자연에서 얻은 소박함으로 자신이 느끼는 최상의 행복과 즐거움을 느끼니 이를 聖德이라 표현하였다. 작가는 홀로 초당에서 늦잠을 즐기고, 새소리에 놀라 깬으나 그 새를 원망하는 구절은 보이지 않았다. 그 덕분에 작가는 잠에서 깨어 느릿한 걸음으로 마당을 거닐고, 약밭과 꽃밭을 돌아보는 아이를 불러서는 차를 다리게 하니 그 모습은 세속 밖의 神仙이라 하였다. 또한, 그러한 풍경에 노래 한 곡까지 빠지지 않으니 이러한 한가한 모습은 어디서도 발견할 수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草堂曲>은 장흥지역의 가사작품 가운데 유일한 풍류가사다. 시적 화자는 과거에 응시하였지만 오를 수 없는 향촌사족의 사정을 잘 드러냈다. 이로 말미암아 富貴와 功名을 모두 버리고 숨어살고자 하는 심정을 표현하였다. 작품의 결말에서는 작가 스스로가 안빈낙도를 꿈꾸며 자연에 묻혀 사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에 반해, <長恨歌>는 풍류가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단순하게 풍류가사라고 언급할 수 없는 작품이다. 數間茅屋, 蔬食菜羹, 草堂春睡, 散步閑庭 등과 같은 단어들을 통해서 작품의 성격을 알 수 있었다. 다음에 언급된 부분은 작가가 자신의 號를 갖게 된 이유와 속세에서 떠나 살면서 느끼는 자유와 한가로움을 절실히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다.

IV. 작품에 드러난 文化地理學的 表象

이 장에서는 문학 텍스트가 지닌 문화지리학적 표상을 어떻게 형상화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장흥지역을 나타내는 문학 텍스트로써의 가사작품은 많지 않다. 하지만 지역적 특징을 비롯한 文化地理學的 表象을 드러내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長興地域의 歌辭文學에서 그 특성들을 골라 다음과 같은 순서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는 ‘中心과 周邊의 位階化’를 드러내고자 한다. 향촌사족들은 유가사족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려는 보수적인 사고와 더불어 소외계층으로서의 비판의식을 함께 지닌 양면적 성격의 계층이었다.¹³²⁾ 이렇듯 장흥 역시 중심의식이 강화된 부분과 더불어 소외된 주변부로써의 모습을 나눌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문학에서 드러난 長興이라는 공간을 현실공간과 문학공간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므로 중앙과 멀리 떨어진 소외된 주변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심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향촌사족의 모습과 더불어 중앙집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소외된 주변부에서 억울한 삶을 사는 향촌사족들의 모습을 언급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일상생활 공간에서 생활하는 향촌사족들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계층화 양상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두 번째로는 ‘慾望의 현실화’에 관한 부분이다. 위에서 살펴본 작품들에서 드러난 욕망표출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작품은 현실세계를 반영하고 있는 반면, 현실세계에서 이룰 수 없는 소망이나 욕망을 채워주기도 한다. 이처럼 장흥지역의 가사작품 역시 그러하다. 따라서 이를 다시 구체화하여 문학 텍스트에서 드러난 환상과 현실 사이에서 벌어지는 괴리 공간을 언급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종속된 공간의 현실비판의식으로 현실에서 드러내지 못한 저항과 반발의식과 더불어 사회비판의식으로써의 텍스트를 분석하고자 한다. 세 번째로는 ‘誇示의 공간화’의 모습을 그리려고 한다. 이를 바탕으로 장흥지역의 동족집단이 발생한 배경을 논하면서 愛鄉의 긍지와 자

132) 최상은, 앞의 논문, 2006, 260면.

부심의 공간으로써의 향촌사족들의 고향에 대한 애뜻한 마음을 담은 장흥의 모습과 더불어 향촌사족들이 고향에 살면서 경험한 내용들을 반영하여 사회 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집단촌락에 대한 가문 중심의 생활상 등으로 나누어 가사작품에서의 문화지리적인 표상에 대해 구체화해 보고자 한다.

1. 中心과 周邊의 위계화

조선은 중앙집권적 지배체제를 유지하였으며, 이러한 특성은 중앙과 변두리의 대립과 차별을 불러 일으켰다. 이 중앙집권적 지배체제 혹은 봉건체제, 지방분권적 지배체제 속에서 수도는 정점에 자리 잡고 있었고, 최고 지배자로서의 경관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었다.¹³³⁾ 그러나 우리가 흔히 일컫는 ‘中央’이라는 개념 역시 지역, 지방의 한 부류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물론 여기서 우리가 중앙에서 발생한 문학을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중앙이라는 개념 역시 지역이라는 곳에서 출발하였으며, 여기서 드러나는 지역 역시 중앙의 한 부류처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필자는 중앙이라는 특수한 성격을 지니지 못한 변두리의 문학을 가지고 그 시대에 일어났던 변화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33) 봉건체제 또는 지방분권적 지배체제에서 지방도시가 주변 마을의 지배에 대한 상당한 독자성을 갖고 있는 것과 중앙집권체제에서 지방도시는 수도를 대신하는 중간자적 역할을 갖고 있다. 이렇듯 중앙집권체제 속에서 지방도시는 지배층에게 최고지배층의 지위를 부여해주는 중심지가 될 수 없다. 이러한 지방도시는 수도를 대신하는 중간자적 역할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에 사는 최고지배층의 지위는 기본적으로 수도와의 관계 속에서 획득되어야만 하는 경향이 강해진다. 이에 따라 지방도시는 최고지배층에게 꼭 살아야만 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살 수도 있고, 살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변화한다. 이것은 한편으로 중앙집권체제 속에서의 지방도시가 최고지배층의 권위를 표현해야만 하는 당위성에서 상당히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지방도시가 최고지배층의 정치권력을 방어해야만 하는 당위성으로부터도 상당히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렇다고 하여 지방도시에서 마을에 대한 지배공간으로서의 성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지방도시가 독자적으로 마을을 지배하던 형태에서, 수도의 전국적인 마을 지배체제에서 수도를 대신하여 마을을 지배하는 중간자적 역할로 바뀌었을 뿐이다. 이기봉, 『조선의 도시, 권위와 상징의 공간』, (새문사, 2008), 40면.

중앙과 주변은 다시 內와 外로 나눌 수 있다. 중심을 ‘內’이라 하고, 주변을 ‘外’이라 한다. 즉, 공간에서의 ‘內’와 ‘外’은 다시 중심과 주변으로 동일화할 수 있다. ‘內’는 중심이 되고, ‘外’는 주변이 된다.¹³⁴⁾ 중심과 주변 사이에는 표면적으로 평등하게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位階가 성립한다. 중심을 대부분의 지배층이 주류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고, 그 외의 주변에는 피지배층이 지배층의 威勢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이는 하나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은 때때로 중심과 주변으로 그 역할을 나눌 수 있다. 이처럼 중심과 주변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호관계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한다. 그 구체적인 예를 작품에서 찾아 살펴보도록 하자.

1.1 중심의식의 강화

‘長興’은 지리적으로 중앙정계로부터 멀리 떨어진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지리적인 것을 제외하고 사상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중앙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장흥지역은 ‘鄉村’이 형성되었고, 그곳을 다시 ‘傍村’이라 부른다. 이러한 ‘鄉村’은 시골, 향리의 개념으로 중앙과는 대립되는 공간을 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는 중앙정계와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라 때려야 떨 수 없는 더 가까이 있는 공간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 기본적으로 長興을 ‘樂土’라 하여 예로부터 지리적, 지형적으로 매우 풍족한 고장임을 여러 문집을 통해 언급하였다. 이러한 중심의식의 강화는 대표적으로 고려시대 왕후가 탄생되었던 고향의 이미지를 나타냈다. 다음 글은 여러 문집에 드러난 고려시대 왕후가 탄생된 배경에 대해 논한 글들이다. 이를 통해서 ‘長興’의 중심의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중녕산에 성을 쌓는 것은 나라의 근본을 공고하게 하는 일이다. 고을이

134) 로트만의 문화모델은 넓은 의미에서의 문화텍스트를 다루고 있다. 그러므로 공간의 차원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구체적으로 內/外의 대립을 집에 적용시킬 경우, 집안은 <內>공간이 되고 집 바깥은 <外>공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시점은 가족과 집안에 있는 경우와 그 밖에서 집을 바라보는 역방향성으로 나누어진다. 이어령, 『공간의 기호학』 (민음사, 2000), 271면.

큰 바다 언덕에 위치하여 겨울에도 푸른 초목이 많다. 옛날에는 ‘樂土’라 일컬었다. 인종왕비인 恭睿太后 任氏가 毅宗·明宗·神宗의 세 임금을 낳아 서로 이어 이어서 왕위에 오르고, 장흥 고을이 옛날에 비하여 풍년이 잘 들었다. 郡에서 牧으로 승격하였으니, 특출한 것을 극진히 드러내어 표창한 것이다. 백성들은 순박하고 다스리는 일은 간소하여 이름난 어진 이와 재주 있는 대부들로 조용히 다스릴 뿐 다른 공리심이 없는 자가 많이 이곳의 수령이 되었다. 至正 경인년 이후로는 일본 섬 오랑캐들이 몰래 침입하여 난리를 일으키고 밤에 왔다가 날이 새면 문득 달아나곤 하였다.¹³⁵⁾

이는 이색의 <中寧山皇甫城記>라는 글이다.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장흥 지역의 사람들이 문화중심 의식의 강화를 갖게 된 것은 아마도 고려 때부터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자연적으로는 자원이 풍부하여 ‘樂土’라 불렸고, 사회·정치적으로는 태후에 이르게 되는 임씨 덕분에 왕비의 고향이라는 명분으로 중앙과의 친밀성을 유지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135) 城中寧。固邦本也。府岸大海。草木多冬青。古稱樂土。仁王妃恭睿任太后。生毅明神三王。相繼卽位。長興比古有年。由郡陞牧。所以旌異者至矣。民淳事簡。名賢才大夫。靜理無外慕者。多爲之。至正庚寅以來。日本島夷竊發作亂。夜至。天明輒犇。國家輕之。不以爲慮。日增月熾。白晝深入。彌旬月橫行自得。濱海民居。於是蕩然矣。朝廷每遣大將。驅逐稍定。然勢窮事迫。移民之令出焉。長興流寓鐵冶縣。己未歲也。合入寶城郡。己巳歲也。諸侯失國。寓於諸侯。雖曰禮則然矣。而其士大夫之退老于鄉者。吏之有志。民之桀驁者。咸憤于心曰。吾府銀帶已上官所治。而寄於支縣知官。如首顧居下。如懸疣附贅。豈非可恥之甚。今年春二月。府使皇甫公下車。父老陳其故。皇甫公曰。是也。具告按廉使李原。李公亦曰。是也。下牒傍郡。差壯士三百五十名。十七日起役。九月二十七日。訖功。城高十五尺。厚六尺。周回一千五百尺。東西二間。扁鑄吶固。守者刁斗聲不絕于夜。晝則割開樵牧。以便出耕入息。民無所懼。怡然享妻子之養。北走之害絕矣。士大夫吏民之望。於是乎不缺矣。固封守。供賦役。又有餘裕。書曰。固邦本。奚不可哉。役之方興也。聞于節度使金公用貂曰。役夫無兵器近海。請撥軍官衛不然。金公差二十員來。典農副正李云起。中郎將鄭乙忠。曰金吉。曰郎將梁世。府人之督役者。前承奉郎宋元庇。郎將高迪。散員申得貴。金乙寶。邢方彥。檢護軍高天景。曹漢貴。高仲鶴。令同正任寶。魏彥。吳甫萬。曹生哲。張龍世。金成奇。魏宣。姜仁德。戶長申奉閒。供給爲頭。戶長吳因教。文記官曹修。揚其事功。曰又城完矣。糧又急焉。故稻米二十石爲義財。使吏迭主之。存本用息。永不失墜。所以供使客也。併著之。予以玄陵宰相。失身僞朝。罪當誅。今上議舊。降教書爲庶人于此。茲又例賜從便。明當北上。皇甫公請記。直書如此。公爲人愷悌。民樂附之。故其事易輯云。한국고전번역원(<http://www.itkc.or.kr>)에서 발췌한 《동문선》 제 76권에 실린 이색의 <중녕산황보성기(中寧山皇甫城記)>이다. 이와 관련된 부분은 《新增東國輿地勝覽》 제 37권 전라도 장흥도호부 조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長興’의 승격은 왕비의 고향이기 때문에 예우하고자 했던 것도 있다. 하지만, 이는 長興이라는 중앙과는 먼 거리에 있는 지방의 작은 마을에서도 중앙집권과의 연계를 맺어 강력한 토호세력임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長興은 府로 승격한 이후, 그 주변의 여러 지역들을 거느리면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다가 원종 때에 이르러서는 이름을 회주로 고치고 牧으로 승격하였다. 이렇듯 역사적 인식을 지니고 있는 ‘長興’이라는 곳에서 사는 위씨 문중들은 화려하게 수놓았던 고려의 그 때를 회상하며 토호세력의 위엄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세력 강화로 인해 고려 때부터 전해오던 문화 중심의 역할은 조선후기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전해 내려온 듯하다. 그렇다면 장흥이 왜 문화 중심의 역할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그 이유를 장흥의 형성과 발전에 두고자 한다. 다음은 《高麗史》 15권 인종 4년 6월조와 《高麗史》 88권 <열전- 恭睿太后>에 관한 글이다.

6월 초하루 병신일에 왕이 봉은사(奉恩寺)에 갔다. 갑진일에 소재(消災)도량을 천복전(天福殿)에 베풀었다. 을사일에 척준경을 검교 태사 수태보 문하시랑 동 중서 문하 평장사로, 이공수(李公壽)를 판 이부사로, 김향(金珣)을 호부상서 지문하성사로, 최사전을 병부상서로 각각 임명하였다. 을묘일에 이자겸의 딸인 두 왕비를 내쫓고 전중 내급사(殿中內給事) 임원애(任元鼐)의 딸을 맞아들여 왕비를 삼았다.¹³⁶⁾

이자겸은 자기의 두 딸을 왕에게 바쳤는데 임원후의 딸이 왕비가 될 사람이라는 소문을 듣고 아주 싫어하였다. 그래서 즉시로 왕에게 고하여 임원후를 개성 부사(開城府使)로 강직시켰다. 인종이 일찍 꿈에 들깨 5승(升)과 황규(黃葵) 3승을 얻었다. 이 꿈 이야기를 척준경에게 말하니 척준경은 해몽하기를 “들깨(荏-임)란 임(任)입니다. 임(任) 성을 가진 후비를

136) 六月丙申 朔王如奉恩寺. 甲辰 設消災道場于天福殿. 乙巳 以拓俊京檢校太師守太保門下侍郎同中書門下平章事 李公壽判吏部事 金珣爲戶部尙書知門下省事 崔思全爲兵部尙書. 乙卯 出李資謙女二妃納殿中內給事任元鼐女爲妃. 庚申 以李珍福爲右僕射鷹揚軍上將軍高公現爲兵部尙書龍虎軍上將軍林修爲殿中監左右衛上將軍又以鄭惟晃等二十人有扈駕及捕賊功賜職有差. (출처:www.krpia.co.kr)

맞이실 징조이고 그 수가 다섯이니 다섯 아들을 낳을 길조이며 황규(黃葵)의 황(黃)은 임금 황자(皇)와 같으며 규(葵)는 도규(道揆)라는 규(揆)와 같으니 이른바 ‘황규’란 임금이 도규를 잡고 국가를 통치하는 조짐이며 그 수가 셋인즉 다섯 아들 중에서 세 아드님이 국왕으로 될 조짐입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이미 이자겸의 두 딸을 내보내고 인종 4년에 임씨를 선택하여 궁중에 들여오고 연덕궁주(延德宮主)라고 불렀다. 5년(1127)에 의종(毅宗)을 낳았고, 인종 7년에 왕비로 책봉하였다.¹³⁷⁾

이 글은 長興任氏가 恭睿太后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을 적은 내용이다. 長興任氏가 태후가 된 배경을 소개하였다. 이자겸의 막강한 권력에 인종은 이자겸을 비롯하여 인종의 비인 그의 딸까지 몰아내게 하였다. 최사전에 의해 長興任氏가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고, 그로 인해 최사전의 출신지까지 장흥부에 속하게 한 일을 적었다. 長興任氏 집안은 중앙 진출에 성공한 토성가문이라 하였고, 최사전에 의해 長興任氏는 태후가 되었다. 그때부터 長興이 부각되었다고 전한다. 결국에는 충선왕이 내세운 왕실과의 통혼권에 드는 가문에 이르는 예우까지 받았다고 하니 그 지역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제도적 변화에 불안하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사건 덕분에 왕비가 태어나고 자란 長興이라는 곳이 이렇게 중앙에 이목을 받게 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이렇게 장흥지역의 제도들은 고려에서 조선에 이르기까지 계속 전해져 내려왔고, 그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중앙집권의 한 축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문화중심 의식을 갖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¹³⁸⁾

다음은 魏伯珪의 <泄泄說>의 한 대목이다. <泄泄說>은 해남지방에 귀양

137) 時李資謙已納兩女子于王 聞其言惡之 卽奏貶元厚爲開城府使.....仁宗嘗夢得荏子五升黃葵三升 以語拓俊京 俊京對曰 荏者任也 納任姓后妃之兆也 其數五者 誕五子之瑞也 黃者皇也 與皇王之皇同葵者揆也 與道揆之揆同所謂黃葵者 皇王執道揆御邦家之瑞也 其數三者五子之中三子御國之兆也 王旣出資謙二女四年 選入宮號延德宮主 五年 生毅宗王遣使下詔曰 汝任氏起自德門入司陰教受儆戒相成之道無險陂私調之心得純震之長男協斯干之吉夢爰勅邇臣式將好賜 賜銀器彩段布穀鞍馬 七年 冊爲王妃詔 (출처:www.krpia.co.kr)

138) 長興任氏는 전형적인 문반가문이면서도 무신난에 피해를 입지 않고 오히려 무신집권기에 가세의 전성기를 맞이하여, 충선왕이 내세운 왕실의 통혼권에 드는 가문으로 예우를 받았다. 이해준 외, 앞의 책, 1994, 71면.

살이 왔던 민형수의 歸路 行脚에 대한 글이다. 이는 閔氏와 魏氏 사이의 世交의 변천과정이 아울러 잘 반영되어 있다. 이는 17세기 봉당정치에 어떤 형태로 참여하였지만, 17세기 후반 이후 동인계열의 위축, 북인의 몰락 추세 속에서 노론으로서의 전향을 피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전향은 三房派 閔氏일문과의 결교 형태로 실현되어 갔다. 이러한 노론의 頷首 가문으로 벌열의 지위를 확고히 한 三房派, 그 가운데서도 민유중, 민진원, 민형수, 민백상으로 이어지는 驪陽派와 장흥 위씨 사이의 격차를 드러낸 글이라고 볼 수 있다.¹³⁹⁾ 그러나 여기서는 중심의식에 대해 논하고자 하기 때문에 필자는 천관산에 대해 논한 부분만 발췌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天冠山은 바위로 된 뿔부리들이 기이하다. 암자와 승방들도 신비스런 勝景을 이루고 있다. 그곳은 예로부터 모든 나라에 이름이 나서 무릇 사대부로서 남쪽에 오는 자는 으레 한번 보기를 얻지 못할까 걱정을 했고 본 사람들마다 다 돌아가기를 잊었다. 그런 이유로 대소 官長들이 이름을 지어 돌에 새긴 것이 봉우리마다 널려 있다.¹⁴⁰⁾

첫 문장에서부터 ‘天冠山’의 기이한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자연적으로 생긴 바위에서부터 사람의 손에 의해 지어진 암자에 이르기까지 그 광경이 기이하고 신비하다고 말한다. 즉, 이 부분은 天冠山의 신령함을 표현하고자 한 듯하다. 이곳은 모든 사람에게 이름난 곳이며, 남쪽에 오면 꼭 한 번씩 들렀던 곳이라고도 언급하여 예전에는 유명한 장소였음을 알 수 있다. 아무리 남쪽이라고 해도 長興이 아니라면 결코 찾아오기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위치상으로는 남쪽의 먼 곳에 존재하지만, 남쪽에 오게 되면 天冠山을 가지 못할까 염려하는 모습에서는 風光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天冠山에 왔다가 돌아가기를 잊었다고 하여 아름다운 山水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여러 이름난 사람들이 다녀갔고, 그들은 돌에 이름까지 새겼다고 전한다. 따라서 天冠山은 아름다운 자연을 매개로 하여 한번

139) 김석희, 앞의 책, 2005, 29면.

140) 《존재전서》上 192~3면의 내용이다. 이는 다시 김석희, 앞의 책, 2005, 32면에서 재인용하였다. 그 내용이 대외적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집》에는 전하지 않는다고 전한다.

거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곳으로 그려졌다. 지형, 지리적으로는 장흥지역 마을의 중심에 있는 天冠山을 통해서 작품에서 얻을 수 있는 현상으로 문화 중심 의식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長興’이라는 고장은 한 시대의 황후가 태어나 자란 곳이라는 점에서 ‘長興’은 중앙으로서의 진출세력을 키우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長興이 크게 성장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시대에 따른 제도적 차이 때문이라 생각된다. 고려는 지방 세력의 강화로 인해 호족세력이 발달할 수 있었지만, 조선은 지방중심주의에서 중앙집권 체제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두 나라 사이에 제도적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는 중앙집권의 강화를 만들게 되었던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조선 시대에는 중앙세력의 강화와 더불어 지방의 세력이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제도적 차이는 문화의 변화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여기에 드러나는 공간은 기억의 공간으로, 고려시대의 장흥을 기억하며, 조선시대의 장흥지역 가사작품들을 통해서 고려시대 화려한 장흥의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공간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바뀌게 마련이다.

공간을 시간과 매개시켜주는 것은 기억이다. 인간은 기억을 통해 공간을 시간을 접목시킨다. 인간은 공간의 경험을 그대로 기억하지 않는다. 인간은 몸, 특히 뇌의 메커니즘, 자신의 참조체계와 이해관계, 타인과 관계에 따라 기억한다. 그러기에 기억은 파편이며 몸에 흔적으로 남으며 사건과 절대 일치하지 않는다. 공간이 시시때때로 변하듯, 나의 삶도, 나라는 주체도 기억의 파편과 흔적에 따라, 공간 안에서 타인과 기억을 소통하는 데 따라 끊임 없이 변화하는 사건일 뿐이다.¹⁴¹⁾

이렇듯 위에서 살펴본 장흥지역과 관련된 ‘文化地理書’ 및 여러 문인들의 문집들을 통해서 ‘長興’이 중앙과는 멀리 떨어진 자그마한 鄉村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향촌사족들은 스스로 중심의식을 가지고 자신들의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드러냈다. 그렇다면, 각 작품에서 중심 의식이 강화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자.

141) 이도흠, 앞의 논문, 2010년, 99면.

천만이십(千萬二十) 이 강산(江山)을 일골으로 다 보리라/ 부유(浮游) 물 표(物表)호야 노난 더도 하건만눈/ 천풍산(天風山) 팔만봉(八萬峰)은 각별(各別)한 천지(天地)로다

<天風歌>의 한 구절이다. 시적 화자는 ‘천풍산의 팔만봉은 각별한 천지로다’라고 하여 천관산의 표면적인 아름다움과 장엄한 장관을 드러냈다. 지리적으로 천관산은 장흥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각별하다는 것은 특별한 것을 의미한다. 시적 화자뿐만 아니라 장흥에서 사는 장흥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천관산은 특별한 곳임이 틀림없다. 《東國輿地勝覽》에서도 ‘산세가 몹시 높고 험하여 더러 흰 연기 같은 기운이 서린다’라고 하여 신비하고도 장엄한 경관을 드러낸 동시에 왜구의 침략을 물리친 중요한 위상을 드러내는 곳이기도 하다.

태산 天下을 聘目하며 歎息하고 領略하니/ 十二諸國 東一隅의 우리 朝鮮 偏小하다/ 地利도 조커니와 禮義之邦이로다/ 萬物이 자자커니 大國을 부러하라/ 우리나라 八道中의 하삼남 더욱조타/ □□□ 조커니와 □□□節 사치한다/ 五十三州 湖南道の 長興은 海邑이라/ 地出도 크거니와 山海珍味 갖출시고/ 冠山 삼긴후의 樂土라 有名터니

위의 작품은 <壬癸嘆>의 내용 중에 우리나라의 지형과 더불어 장흥지역의 지리적 여건을 드러낸 부분이다. 장흥의 위치와 그 지역의 특산물이 풍요로웠던 시절을 나타내고 있다. 태산의 제일 높은 봉우리를 올라가는데 마디마디 쉬어 올라 태산 아래를 조용히 관망하며 탄식한다. ‘십이제국’은 천도교에서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가리킨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동쪽 한 구석에 있는 우리나라 조선은 편벽되게 작다. 그러나 지리는 좋고, 예의의 나라라고 하였다. 작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만물이 모두 갖추어졌으니 큰 나라도 두렵지 않다고 하여 큰 위상을 드러낸 구절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팔도 가운데 하삼남 즉,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가 더욱 좋다고 하여 전라도에 속한 장흥지역 역시 좋은 고장임을 나타냈다. 그 가운데 53개 주 호남도의 長興은 海邑이라고 하여 장흥의 지형적 특징을 설명하였다. 지

출도 크고 산해진미도 갖추어져 낙토로 유명한 고장임을 언급하였다. ‘樂土’는 더 이상 바랄 것 없을 만큼 풍족하고 평화로운 상태를 드러낸 표현이라 하였다.

‘長興’은 고려시대의 화려한 ‘長興’의 모습으로써의 그때만을 기억했다. 그런 반면, 고려시대와는 다른 이면적인 모습을 보여준 長興의 또 다른 하나의 공간은 시간의 변화로 달라진 조선시대 ‘長興’의 모습이다. 이는 가사문학에서 살펴볼 수 있다. 조선시대의 ‘長興’은 지역의 화려함보다는 중앙과 멀리 떨어진 후미진 곳이라는 이질적인 공간의 면모를 드러냈다. 그러나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백 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때의 그 화려함을 기억했다. 또한, 그 화려한 시대를 회상하는 여러 선인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다.

아름다운 산수를 지닌 ‘長興’은 천관산을 중심으로 혹은 장흥의 지형적, 지리적 조건을 통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드러냈다. 조선시대의 향촌사족이라 일컬어지는 장흥 방촌의 향촌사족들은 그들 스스로 중심의식을 강화하게 되어 그 찬란한 시대를 염원하는 마음을 글 속에 잘 드러냈다. 그들의 이러한 中心 意識은 조선시대에 대표적인 사상이었던 유교의 한 측면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반면, 방촌지역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교의식을 지키는 지방의 작은 마을이라는 의미보다도 예전의 화려한 때를 기억하는 조상들에 대한 긍지를 드러냈고,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기를 염원하는 심정을 표현하였다.

1.2 소외된 주변부

중앙집권체제에서 ‘지방’은 소외된 주변부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중앙집권체제에서는 중앙집중적인 권력이 상징이 된다. 조선시대는 지방이라는 명칭보다는 ‘鄕村’이라고 많이 사용하였다. 즉, 중앙이 아닌 다른 ‘鄕村’이라는 공간은 크게 중앙과 대칭되는 개념이다. 구체적으로 ‘鄕’이란 鄕約, 鄕校, 鄕案, 鄕祠堂 등의 쓰임에서와 마찬가지로 행정구역상 郡縣의 단위를 말한다. 그렇다면, ‘村’이란 촌락, 마을을 의미한다. 따라서 郡縣 단위로서의 鄕村은

선조 군현제의 정비와 더불어 한말에 이르기까지 거의 변동 없이 유지되어 왔다. 이를 단위로 한 지배세력 역시 鄕村의 여러 조직을 통해 종횡으로 연결되고 중첩적인 혼인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러한 향촌사회는 하나하나가 그 자체로서 일정한 개별성과 독자성을 갖는다. 따라서 각 鄕村마다 재지사족의 존재 형태나 위상이 동일하지 않았다.¹⁴²⁾ 이러한 소외된 주변부를 드러내는 요소는 지역을 바탕으로 한 토속적인 정서를 바탕으로 한다.

향촌사족들은 중앙집권체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상황들을 묘사하였고, 중앙집권체제에 대한 많은 불만은 현실 사회에 대한 비판으로 작품 속에 녹아나게 되었다. 이를 토대로 하여 향촌사족의 특징을 나타내는 구절을 찾아 살펴보도록 하자.

만 이십(萬二十) 이 청산(靑山)이 역문안 니련는다 청산(靑山)을 못니저서
다시 또 보자더니 포의(布衣)로 미양(每樣) 오니 산수(山水)도 붓글업다

<天風歌>의 마지막 구절이다. 이 부분은 향촌사족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 시적 화자는 天冠山을 유람한 후에 산에서 내려오면서 품은 생각을 적었다. 시적 화자의 형편과 상황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향촌사족들의 특성을 잘 묘사한 부분이다. 시적 화자는 그 푸르른 天冠山의 모습을 잊지 못해 다시 또 보고자 한다. 하지만 진짜 天冠山의 모습을 잊지 못해 다시 보고자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시적 화자 스스로 한 공부에 대한 미련이 남지만 出仕의 어려움을 알고 그럴 수 없는 심정을 노래한 경우라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出仕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天冠山을 통해서 風流를 즐기고자 하는 염원을 언급하였다. 또한, 이는 중앙 세력에 직접 포함되지 않은 안타까움과 더불어 소외된 향촌사족으로서의 심정을 잘 드러낸 것이다. 유교적 이상을 추구하여 벼슬하고자 하는 자신의 꿈을 다 이루지 못하고 늙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쉽게 단념하지 못하는 갈등을 표현하였다. 시적 화자는 天冠山의 아름다운 경치를 적은 江山의 風流를 논하고는 있으나 이것이 자신이 이 글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소망은 아니었다. 시적 화자처럼

142) 정진영, 앞의 책, 1998, 24면.

오랜 세월동안 준비했던 공부가 있음에도 발휘할 기회를 잡지 못하는 소외된 주변인들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이 글에 남기고자 한 것이다. 시적 화자는 본인의 신분을 ‘布衣’라 하였다. 즉, 벼슬 없는 시골 선비로서 매번 이렇게 찾아오는 자신의 모습에서 ‘山水에 부끄럽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자신에게 부끄러울 뿐이다. 작가의 고향에서 가장 중요한 구실을 하는 천관산을 돌아보면서 시적 화자가 느끼는 마음이 남과는 다르다는 것을 작품에서 발견할 수 있다.

昏愚한이 인생은 身命 제 몰라서/ 妄망된 어린마음 富貴를 구하려고/
天寒白屋 穞대門에 芎且益堅 큰뜻으로/ 달아래 글을 읽고 빗뒤에 받을 가
니/ 孔子曰 孟子曰에 세월이 절로 가고/ 上坪田 下坪田에 인력허비뿐이로
다/ 어와 虛事로다 世事營爲 虛事로다/ 富貴는 안이 오고 年少만 간단말
가

<草堂曲>의 한 부분이다. 여기서 등장하는 ‘혼매한 인생’은 몸과 목숨을 자기도 모르고, ‘망령된 마음’은 부귀를 구하려는 사람이라고 전한다. 이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시적 화자는 불쌍한 마음을 토로한다. 그리고는 다시 배우고 익히는 것을 권장한다. 시적 화자는 부귀에 속해 있는 세속 세상과는 다른 한적한 곳을 초당이라고 하였다. 궁하면 더욱 견고해지는 이치를 깨닫고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달 아래 글을 읽고, 비온 뒤에 받을 갈았던 시적 화자의 젊은 시절을 회상한다. 여기서는 晝耕夜讀의 정신을 드러냈다. ‘孔子曰, 孟子曰’은 조선시대의 유교사상의 단편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즉, 벼슬에 나가기 위해 필요한 공부로 벼슬도 하지 못하고 공부만 했던 지난 세월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낸 구절이다. 즉, 시적 화자는 벼슬에 나아가고자 하지만 향촌사족이라는 명목에 벼슬에 진출할 수 없었던 한을 적었다. 이를 통해 모든 일이 헛되고 헛되다고 여기며, 이 구절은 곧 시적 화자의 심정을 그대로 드러낸 구절이라 할만하다. 세상 일에 富貴와 榮華를 따지는 것은 모든 헛된 일이라 하여 젊은 시절 있었던 자신의 생활을 부끄럽게 여긴다. 富貴는 오지 않고 세월만 흘러가는 안타까움과 현실 속에 오는 절망을 동시에 적고 있다.

壬子癸丑 無前凶年 介介히 이로이라/ 듯고보는 이景色을 三尺童도 알건마
 는/ 刻骨한 이시절을 銘心하여 닛지말자/ 無識한 眞諺文을 才助업시 매와
 내니/ 句法은 보잔하고 時不見만 적어다가/ 長安 大道市에 붙이로다

<壬癸歎>의 첫 부분이다. 이 시대의 배경은 壬子年과 癸丑年에 해당한다. 이 시기에는 전에 없던 아주 흉악하고 지독한 凶年이 들었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시적 화자는 각골한 이 시절을 명심하고 명심하여 잊지 말자고 당부한다. 시적 화자는 어려운 상황을 알아주지 않는 관리들의 부정을 알리고자 眞諺文을 쓰고자 한다. 이에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장안의 큰 도시에 붙여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널리 알리고자 한다. 이는 작품을 쓰게 된 서술 배경을 논한 것이다. 아무리 中央과 멀리 떨어진 작은 鄉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중앙에서 권력을 행하는 사람들은 鄉村의 어려운 상황을 모른 척하며 살아가는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였다. 그리하여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을 여실히 잘 보여주는 구문을 위와 같이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승監 神明하사 饑民戶을 預知하야/ 人口數을 磨鍊하야 三等의 分定하
 고/ 定式數로 成冊하라 嚴俊히 傳令하니/ 么麼한 尊位約正 違越官令 닛
 이시리/ 七八九 인는戶을 二三口로 抄出하고/ 優劣업슨 저饑民을 定數外
 에 물리치니/ 成冊의 못든饑民 눈물지고 식설한들/ 官令메신 저面任이 加
 減을 어이하리/ 長擇서 타운 乞糧 終始히 일어하면/ 드나마나 설위마라
 타나마나 彼此업다

대기근으로 말미암아 먹고 살기도 힘든 가운데, 관리들은 살아남은 백성들에 대해 냉담하기만 하다. 이는 자연재해의 실상보다는 관리들의 비리와 고발, 백성들의 불만 등을 토로한 구절이기도 하다. 첫 구문에서 등장하는 ‘우리 영감’은 고을을 다스리는 인물로 보면 된다. 시적 화자는 그를 ‘神明하다’고 언급하였다. 그 이유는 배고픈 백성들의 집도 미리 알기 때문이다. 인구수를 바꾸고 이를 다시 세 등급으로 나누어 정해진 수로 책을 만들었다.

즉, 어려운 시기에 중앙에서 주는 식량을 나누기 위해 만들어진 책이었다. 영감의 모습은 보기와는 다르게 준엄한 태도로 전령을 전하고 변변치 못한 자리를 높이는 관리들의 태도를 발견할 수 있었다. 7~8명이 사는 집을 2~3명이라고 속여 조출하게 만들고, 정해진 숫자 외에는 적지 않으니 배고픈 백성들은 눈물을 짓게 되는 억울한 상황을 만든다. 여기서의 지방 관리의 횡포에 대한 내용이다. 지방의 호적을 관리하는 사람은 사람 수를 더하고 빼는 것을 어찌 알겠는가? 라고 하여 배고픈 백성들의 억울한 심정과 더불어 부조리한 관리들을 비판하는 장면을 드러냈다. 그 외에도 다른 지역에서 타운 곡식이 처음과 끝이 이러하다면 관리들의 탐욕과 부도덕적인 모습은 같을 수밖에 없음을 한탄하며, 장흥지역에서 일어난 기근의 현장을 묘사하였다. 이 단락에서는 중앙 권력에 대한 비판과 반항의 모습도 잘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이러한 모든 사건은 중앙과 멀리 떨어진 향촌이라는 공간적 성격을 부각시키고 있다. 지방의 향촌사족들은 중앙의 간섭 없이 행해지는 즐거움도 있지만, 중앙의 무관심으로 겪는 슬픔이 더 짙게 묻어나는 부분이라 말할 수 있다. 그 가운데서도 시적 화자는 과거에 진출하고 싶어도 '향촌'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벼슬에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나 중앙관리들의 무식함 때문에 지방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고스란히 그 지방의 백성들이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을 글에서 표현하였다. 이러한 특성들은 어느 한 작품에서만 드러난 특성이 아니라 향촌사족이 지은 여러 작품에서 드러났다. 중앙과 대립되는 이분법적인 사고는 향촌사회를 소외로 몰아넣게 된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長興’은 지리적으로 中央과 멀리 떨어져 있다. ‘長興’은 시골의 작은 지역의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中心意識’을 강화하고 있는 부분과 소외된 주변부로서의 서로 다른 두 가지 상황을 언급하였다. 여기는 같은 공간이지만, 시간의 변화라는 전제가 포함되어 있다.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는 하나의 공간이 중심이 되기도 하고, 주변이 되기도 한다. 여기서 필자는 歷史的, 地形的인 특징으로 ‘長興’의 특성을 잘 나타냈다고 생각한다. 中央에서 멀리

떨어진 작고 소외된 작은 공간에서도 ‘中央’으로써 지켜야 할 도리들을 선택한 것과 더불어 ‘周邊’으로써 소외받았던 鄉村土族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 둘을 통해 서로 대립되는 공간으로 표상화하였다. ‘中央’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써 ‘長興’이라는 작은 공간은 그림에도 불구하고, 의미상 서로 반대되는 공간으로써 세분화한 것이다. 즉, 현실사회에 대한 비판은 결국 향촌사회의 문제의식을 갖게 만든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고, 中央과 멀리 떨어진 후미진 작은 공간에서 일어났던 윤리적 태도를 통해서도 향촌의 궁지와 자부심을 드러내었던 것이다. 이러한 향촌사족들 사이의 윤리적 태도와 더불어 현실비판의 양상은 다양한 의미로서의 공간을 만들고, 이는 다시 이질화된 면모를 뽑아내기도 했다고 볼 수 있다.

2. 慾望의 현실화

慾望은 現實에서 이루지 못할 때 생겨난다. 現實에서 억압된 생각들은 慾望을 통해서 표출하게 된다. 즉, 慾望은 現實에서 이룰 수 없는 소망을 드러낸다. 따라서 慾望과 現實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드러나는 慾望은 현실과 환상 사이에서 괴리를 형성한 것이다. 하지만 그 괴리는 현실과 환상이라는 두 측면을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형상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관계를 통해서 나타난 慾望의 현실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자.

2.1 현실과 환상의 괴리

現實에 드러난 幻想공간은 神仙 世界를 가리킨다. 幻想은 現實과는 다르다. 그렇다고 환상과 현실이 서로 반대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러한 환상은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사건에 대한 욕망을 표출하는 하나의 형식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환상’이라는 것은 큰 의미로 눈에 보이지 않는 헛된 것을 꾸며 만든 것이라고도 해도 좋다. 장흥지역 가사작품에서는 <天風歌>

<草堂曲>, <金塘別曲>를 바탕으로 하여 자연의 흥취를 드러내고자 한다. 이 작품들은 고향에 살면서 향촌사족들의 특징인 處士的 면모를 통해 神仙的 風流의 공간을 형상화할 것이다. 그 첫 번째 작품으로 <天風歌>를 살펴 보도록 하자. 유람 공간인 ‘天冠山’을 신선세계로 설명한 부분이다.

청녀장(靑藜杖) 7는 터로 구정암(九精庵) 드러가니/ 침단(簷端)의 자던
구름 석정(石井)을 더퍼 잇다/ 학골(鶴骨)은 어더 가고 벽도(碧桃)만 나만
나고/ 단이(斷崖)을 빅기 건너 수층(數層)을 올라가니/ 원통(圓通) 빈 암자
(庵子)의 운학(雲鶴)이 직키였다/ 옥정(玉井)의 연만(連滿)호고 가난 길로
도라가니/ 영축(靈築)은 터만 잇고 수목(樹木)이 자자 잇다/ 선궁(仙宮)도
이러하니 인세(人世)을 가지(可知)로다

이 작품의 시적 화자는 산의 여행경로를 드러내면서 구체적 공간을 설명하고 있다. 청녀장, 구정암 등의 지명은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공간에서 신선적 이미지를 강화하여 현실과 환상과의 괴리감을 시키는데도 신선적 이미지를 많이 등장시키는데, 이 부분 역시 그러하다. 위의 구체적인 공간은 ‘구정암’으로 그 주변 상황을 묘사하였다. ‘碧桃’, ‘雲鶴’과 같은 단어들을 나열하여 신선세계에 비유하였다. 여기에 드러난 ‘鶴骨’은 수도자의 형상이며, ‘碧桃’는 선계에 있는 전설상의 복숭아로 이 역시 직접적으로 신선세계를 언급한 내용이다. 시적 화자는 끊어진 절벽을 비껴 건너고, 여러 층의 계단을 올라가야만 빈 암자에 도달한다고 하여 ‘험하디 험한 산중’임을 묘사하기도 하였다. 또한, 기둥만 남아 있는 빈 암자라 하여 山의 적막함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여기 등장한 ‘雲鶴’은 ‘碧桃’와 마찬가지로 신선세계의 한 부분을 나타냈다. 이 부분을 통해서도 작가는 속세에서 벗어난 모습을 그렸다. 다시 말해, 신선세계에 대한 동경으로도 볼 수 있다. ‘구정암’을 지나 돌아가는 길에는 玉井에 물이 가득 차 있었고, 가는 길을 돌아서는 암자의 화려하게 쌓아올린 건물은 없었다. 하지만, 그 터가 남아 나무만 울창하게 자랐다고 하여 예전의 화려함과 대비되는 모습에서 적막함과 쓸쓸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 구문에서 시적 화자는 ‘구정암’을 찾았을 때의 느낌과 기분, 다시 돌아가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의 느낌과 기분에 대한

변화를 나타내기도 했다. 여기서 시적 화자는 ‘구정암’을 仙宮이라 하여 자신이 있는 현실의 공간을 신선세계라 표현하였다. 이러한 仙界의 표현은 다음 구절에 더 자세하게 드러나 있다.

사양(斜陽)과 함피 내려 의상암(義尙庵) 들려가니/ 빅석(白石) 창티(蒼苔)
에 구름이 주인(主人)이다/선익(仙崖) 선제(仙梯)의 역역(歷歷)키 지니보니
/ 종성(鐘聲)을 겨오 차차 탐선암(塔仙庵) 드러가니/ 암만(暗滿) 초목(草木)
은 지니난 곳 갓건니와/ 누각(樓閣)이 몇 층(層)이며 동학(洞壑)이 황홀
(恍惚)하다

이 부분에서는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을 논하고 있다. 시간적으로는 해지는 풍경을 그리고 있으며, 공간적으로는 ‘의상암’과 ‘탐선암’을 나타내고 있다. 시적 화자는 떨어지는 해와 함께 더불어 의상암으로 들어간다. 이러한 풍경을 바라본 시적 화자는 흰 돌과 푸른 이끼에 주인이 구름이라 하여 의상암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을 만끽하고 있다. 또한, ‘선애(仙崖)’, ‘선제(仙梯)’라는 단어는 의상암의 풍경을 신령스럽게 표현하였다. 아름답고 신령스러운 풍경을 보고 난 후 시적 화자는 ‘탐산사’의 종소리를 겨우 찾아서 ‘탐산사’로 이동한다. 시적 화자가 탐산사에 도착한 시간은 ‘암만(暗滿)’이라 하여 어두운 밤임을 드러냈다. 그 어두운 길을 가면서 느끼는 시적 화자의 느낌도 적고 있다. 누각은 몇 층인지 알 수 없다고 하며, 그 곳에서 바라본 마을의 모습은 황홀하기까지 하다고 했다. 이렇듯 자연, 산수의 풍경을 아름답게 있는 그대로 읊으면서도 구절 중간 중간에 드러나는 神仙的 風流는 <天風歌>를 나타내는 특징 중의 하나인 듯하다.

장공(長空)의 긴 바람이 양액(兩腋)의 것이 되며/ 탈건(脫巾) 노발(露髮)하고
창포봉(菖蒲峯) 올라가니/ 창포(菖蒲) 푸른 넓피 구절마다 고시 피고/
굴곡(屈曲)한 늘근 솔은 하늘 다허 못커 있다/ 山翁의 옥장기(玉將棋)난
뒤다가 어디 간고/ 옥저(玉指)로 찢던 아(樣)은 날 위하야 두고 간고/
안기상(安期生) 보게 하야 석면(石面)의 일흠쓰니/ 인간의 꿈이로다 너 안이
신선(神仙)인가

이 부분은 시적 화자가 본인 스스로 신선이 되었다고 하여 그 모습을 묘사한 장면이다. 바람이 양 겨드랑이에 붙어 날개가 되었으며, 두건은 벗어제끼고 머리카락을 다 드러내고서야 ‘창포봉’에 올라갔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시적 화자는 神仙의 모습으로 형상화하였다. 시적 화자는 아무에게도 구속받지 않고, 자연 그대로 자유를 느낀 심정을 잘 드러냈다. 이것이 바로 그가 그렸던 神仙의 모습일 것이다. ‘창포봉’은 ‘창포’라는 꽃 이름을 따서 꽃이 많이 피는 창포봉의 꽃 맺음을 묘사하기도 했다. 또한 많이 굵은 늙은 소나무는 하늘에 닿아서 더 크지 못했다고 하여 웅장한 소나무의 모습을 표현하기도 했다. 시적 화자에 따르면 ‘창포봉’은 신선과 함께 장기를 두었던 곳이기도 하고, 자신의 이름을 돌에 새겼던 장소이기도 하다. 신선에 비유하는 ‘안기생’에게 시적 화자 자신의 이름을 보게 하고자 한다. 이 부분은 시적 화자 역시 신선이라는 모습을 드러내고자 하는 구절이다. 이러한 아름다운 풍경과 자유로운 시적 화자는 신선세계의 신비로움을 전하고 있다.

금수굴(金水窟) 금든 물을 슬토록 먹근 후의/ 심신(心身)이 상연(爽然)커
 날 반야암(般若庵) 차자가니/ 도화(桃花) 뜯 시냇물은 밋 밋기 흘러 간다/
 고읍(古邑) 방촌(傍村)은 무릉도원(武陵桃源) 아니런가/ 금선대(琴仙臺) 청
 원대(淸遠臺)는 운무간(雲霧間)의 싸 잇다

시적 화자는 ‘북바위’, ‘배바위’를 지나 ‘금수굴’로 이동한다. 이 부분은 ‘금수굴’에서 ‘반야암’으로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금수굴’에서 금빛 물든 물을 마신 후에 몸과 마음은 시원해진다. 다음은 ‘반야암’의 모습이다. ‘반야암’은 桃花, 즉 무릉도원을 나타내는 복숭아꽃이 시냇물에 띄워져 흘러내려오고 있었고, 그 시냇물은 산 밖으로 흘러갔다. 무릉도원이라 일컫는 ‘반야암’에서 내려온 시냇물은 산 밖으로 흘러 고읍 방촌으로 들어간다. 흘러 들어간 桃花는 시적 화자가 살고 있는 ‘傍村’을 무릉도원으로 만들었다. 또한, 그 주변의 ‘금선대’와 ‘청원대’는 구름과 안개가 짙게 쌓여 있다. 구름과 안개 역시 무릉도원의 한 단면이라고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金塘別曲>에 드러난 ‘幻想’의 모습을 살펴볼 것이다. 이 작품의 시적 화자는 그 주변의 유람 공간을 신선공간으로 드러냈다. <金塘別曲>은 <天風歌>와 마찬가지로 여행 일정에 드러난 공간을 風流의 공간으로 나타냈다. 그렇다면 작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전산(前山) 아츰 비애 봄빛이 빼어나니/ 산화(山化) 피은 곳이 흥미(興味)
도 하고만타/ 학우(鶴友)의 신선(神仙)들을 이 때에 만나보아/ 황금단(黃金丹)
여지내여 삼동계(參同契) 못자 혀야

<金塘別曲>의 한 구절이다. 시적 화자는 현실 세계인 앞산에 신선들을 동원하여 신선세계를 드러내고 있다. 시적 화자가 있던 그 앞산에는 아침이 되어서 비가 내린 모양이다. 그 비로 인해 산의 푸른 봄빛은 더욱 푸르게 되었음을 묘사하였다. 그렇게 시적 화자는 세월을 한탄하고 있는 사이에 봄이 되어버렸던 듯하다. ‘봄’은 풍월주인이 된 작가의 흥미를 더해주고, 신선의 친구라 일컫는 학을 맞이하는 시적 화자는 반가운 마음을 표현한다. 이 부분은 遊覽의 동기에 대해 진술한 것이다. ‘황금단’은 신선이 먹는 알약¹⁴³⁾이라고 풀이하였다. 그 신선의 약을 얻고, 신선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절실하게 드러난 구절이라 할 수 있다. 작가 자신이 신선으로 태어나 신선들만이 먹는다는 약을 먹고 스스로 신선이 되었음을 언급하였으며, 더불어 신선들만 모인다는 모임을 만들어 유람을 떠나고자 하는 작가의 내면의식을 표현한다. 즉, 이는 ‘유람의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이라 언급해도 될 듯하다. 시적 화자는 금당도를 유람하는 이유를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선경을 찾아가 신선들과 함께 만나고, 신선이 되는데 필요한 단약을 얻어 신선이 된 뒤, 신선들과 삼동계를 묻고 선계에서 살기 위해서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¹⁴⁴⁾한다. 이 역시 현실을 초월하고 싶은 화자의 강한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듯하다. 그러나 진정한 신선세계는 ‘금당도’다. <金塘別曲>에 드러난 ‘금당도’의 풍경을 살펴보자.

143) 임기중, <金塘別曲>, 앞의 책, 2005, 176면.

144) 박일용, 앞의 논문, 1996, 301면.

평사(平沙)의 닳슬 주고 치하(彩霞)을 헛쳐 보니/ 밧 알에 물 우희 그 스
이 천척(千尺)이라/ 기상(氣象)이 만천(滿天)이라 파능(巴陵)이 이갓든가/
대굴은 그 일흠이 이제보니 과연(果然)흐다/ 연하(烟霞)와 흠기 느려 석노
(石路)로 올라가니/ 경화노초(瓊花瑤草)는 곳곳의 김피 잇고/ 옥던금경(玉
殿金莖)은 골골이 널러 잇다

시적 화자가 ‘金塘島’에 도착한 부분이다. ‘彩霞’, ‘巴陵’, ‘瓊花瑤草’, ‘玉殿金莖’과 같은 단어들의 나열로 신선세계임을 표현하였다. 시적 화자는 빛이 아름다운 노을, 옥 같은 꽃과 아름다운 풀, 옥으로 만든 집과 금으로 만든 기둥 등으로 금당도의 풍경들을 묘사하였다. 평평한 모래사장에 닳을 내리매 고운 빛깔의 노을이 보인다. 그 고운 빛깔의 노을은 모래알과 물 위 사이에 높게 드리워져 있으며, 그 기상은 하늘에 가득 찼다고 한다. 이는 중국의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파능(巴陵)’과 우리나라 ‘금당도’의 아름다운 풍경을 비교하고자 했던 것이다. 금당도 역시 ‘이제 보니 과연 그러하다’라 하여 뛰어난 조망을 자랑하는 중국 못지않은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풍광을 소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연하(烟霞)’는 하늘의 모습을, ‘석로(石路)’는 땅의 모습으로 하늘과 땅의 조화로움을 통해서 그야말로 신선세계를 여실히 잘 표현한 부분이라 할만하다. ‘경화노초(瓊花瑤草)’와 ‘옥전금경(玉殿金莖)’는 옥을 소재로 한 옥 모티브라 할 수 있다. 이는 신성과 고결을 나타내는 색채의 이미지인 것이다. 또한, 화려하고 사치로움을 나타내기도 한다. 여기에 나오는 ‘풀’은 신선의 풀을 가리킨다. 따라서 시적 화자는 이러한 것 모두를 환상적인 신선세계로 표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성관 월패(星冠月佩)을 꿈애나 보자흐야 / 송근(松根)을 눕피 베고 낮잠을
잠관(暫間)드니/ 청동(靑童)이 나올 잡여 봉내산(蓬萊山) 건너 비니/ 소노
쥬(松醪酒) ㄹ독 부여 나 잡고 저 권(勸)홀 제/ 장생(長生)게 못썸 말을
반튼 채 못들여/ 구고 일성(九臯一聲)의 선몽(仙夢)을 놀나 씨이/ 장연(長
烟)이 일공(一空)흐디 호월(皓月)이 철니(千里)로다/ 화정(霞汀)의 멸파(滅
波)흐고 수로(水路)도 무변(無邊)흐다

이 역시 <金塘別曲>의 한 구절이다. ‘星冠月佩’는 신선의 상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星冠’은 말 그대로 별빛 구슬로 머리 꾸리개를 뜻하고, ‘月佩’는 허리에 차던 패옥을 말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성관월패’는 신선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모습을 ‘꿈에나 보자’고 했으니 이는 현실에서 볼 수 없는 안타까움을 언급한 것이다. 그리고 이내 잠깐 낮잠을 청한다고 하니 이 부분은 꿈의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즉, 불가능한 일은 꿈에서 일어난다. 그렇다면 시적 화자 꿈속의 이야기를 살펴보자. ‘靑童’은 신선세계의 인물로, ‘仙人’을 가리킨다. 仙人의 시중을 드는 인물은 사동(使童), 선동(仙童), 혹은 청의동자(靑衣童子)라고도 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神仙으로 보는 것이 가장 좋을 듯하다. ‘神仙’은 나를 잡고 봉래산으로 건너간다. 그곳에서 신선들과 함께 송료주 마시기를 권한다. 이에 장생에게 묻고는 그 말은 못 듣게 되니 놀라 꿈에서 깬다. 오래도록 연기 즉, 안개가 피어난 물가는 안개로 모든 것이 비어있고, 흰 달빛은 천리같이 멀게만 느껴진다. 노을 진 물가에는 물결은 없고, 물길은 끝이 없다고 했다. 꿈이 깬음에도 불구하고 그 꿈에서 본 것과 비슷한 광경을 그리고 있다. 시적 화자는 이 꿈을 ‘仙夢’이라고 언급하였고, 꿈속의 풍경들과 비슷한 장면들을 그렸다.

신선세계에는 ‘술’과 ‘꿈’이라는 매개물이 있다. <金塘別曲>에서는 이 두 가지의 사물이 함께 등장한다. 이렇듯 시적 화자는 여정의 정점에서 이와 같이 공유 체험 장면을 설정한 것은 ‘분분한 세사’를 초월하여 ‘명구선경’에서 풍월주인이 되려는 의지의 확대 연장으로 보면 될 것이다. 이러한 금당도 여행이 결국 시적 화자에게 있어서는 현실과 초월 세계와의 거리를 드러내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이는 그만큼의 거리가 먼 것이라는 자각을 하게 해준 계기이기도 하다. 여기에 등장하는 夢遊의 장면은 금당도 유람의 현실적 의미를 화자에게 객관화하여 각인시켜주는 매개 장치인 것이다.¹⁴⁵⁾

이러한 신선세계는 꿈과 술이라는 매개체로 인해 ‘환상성’을 표상화하기도 한다. ‘꿈’은 현실과 선계 혹은 초월적 공간으로 이어주는 매개체이다. ‘꿈’은

145) <金塘別曲>에서 이후 부가되는 만화도의 유람 내용은 구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군더더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박일용, 앞의 논문, 1996, 306면.

현실의 경험과 인과적 논리성을 넘어선 초자연적이고 상상적인 세계를 실제화 할 수 있는 전통적인 환상 양식으로 사용되어 왔다. 따라서 이러한 꿈은 현실이 아니라 쾌락이 지배하는 상상계로의 진입을 가능케 하는 환상의 입구인 것이다.¹⁴⁶⁾ ‘술’ 역시 꿈과 더불어 흥을 돋아주어 환상성을 한층 더 가깝게 하는 매개체라 할 수 있다. 다음은 이상계의 <草堂曲>의 일부분이다.

碧桃杏花 繁華地에 風情이 절로 없고/ 綠水青山 깊은 곳에 舊夢이多情하
니/ 富貴는 누 主人인고 溪山만 너차지라/ 峨洋洞 靜散地에 舊齊墟 아리
두고/ 白雲을 뉘피쓸어 草堂數間 지어너니/ 楸下에 先隴이오 物外에 新基
로다/ 四面青山 一石門을 天作으로 開局하고/ 두시에 두룬물은 人力으로
깃단말가/ 썩로 덮은 短簷(끝)을 藤蘿로 열거매니/ 淳朴흔 것 옛지度라 拙
흔거시 더욱쫓다

‘碧桃杏花’는 무릉도원인 이상향을 드러내는 꽃과 나무를 가리킨다. 여기서 말하는 꽃과 나무가 가득 핀 땅은 시적 화자가 있는 ‘草堂’이 지어진 곳을 말한다. ‘草堂’의 풍치 있는 정회는 저절로 없고, 푸른 물과 산의 깊은 곳에서 옛 꿈이 다정하다고 한다. 즉, 草堂이 지어진 그 땅은 시적 화자가 예전부터 꿈을 꾸었던 이상향의 세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세속에 속한 富貴는 누가 주인인가’라 하여 부유하고 귀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바로 아름다운 자연이라고 하였다. 또한, ‘시냇물과 산만이 내 차지’라 하여 부귀보다 더 귀한 자연에서 사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이를 통해 욕심 없이 자연에 빠져 살겠다는 시적 화자의 각오가 녹아 있는 구절이라 말할 수 있다.

‘峨洋洞’은 지금 長興의 ‘부용산’에 있는 ‘아양동’을 가리킨다. ‘아양동’은 고요하고 한산한 땅이라 하였고, 옛 가지런한 언덕을 아래 두었다고 했다. 그곳은 흰 구름을 높이 끌어내야 지을 수 있는 산 속 깊은 중턱의 어느 한 곳이라 예상된다. 거기에 초당을 지었다고 했다. 이는 이상계가 1808년에 초당을 짓고 여생을 보낸 곳이라고도 전한다. 그곳 오동나무 아래에는 선묘가 있으며, 그 외에는 새로운 곳이라고 자부하였다. 시적 화자는 사방이 온통

146) 심진경, 「환상문학소론」, 『한국문학과 환상성』 (예림기획, 2001), 35면.

푸른 산으로 둘러싸인 이곳의 풍경을 보이는 그대로 적고 있다. 그 풍경은 이러하다. 하나의 돌문이 있고, 흐르는 물 역시 하늘이 만든 것이라 하였다. 시적 화자는 그 풍경에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으로 감탄을 표현하였다. 즉, 이는 하늘이 만든 자연과 인간이 만든 草堂의 모습의 조화로움을 강조하였다. 두 사물의 조화로움에서 오는 순박하고 조출한 자연 풍경은 어느 하나로 충족시키지 못한다. 草堂에서 얻어지는 자연 풍경은 두 사물의 적절한 조화로움으로 인해 그 아름다움은 더욱 아름다워진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신선적 흥취에 대한 구체적 현상은 기행가사와 은일가사에서 선명하게 드러난다. 장흥의 천관산을 노래한 노명선의 <天風歌>와 더불어 ‘만화도’와 ‘금당도’의 풍경을 그린 위세직의 <金塘別曲>, 이상계의 <草堂曲>은 모두 그곳의 勝景과 興趣가 묻어나는 작품들이다. 작품 곳곳에서 신선세계의 모습을 보였으며, 이러한 신선세계는 신선의 흥취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天風歌>와 <金塘別曲>의 경우는 유람의 공간이 바로 仙界의 공간임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 또한 발견할 수 있었다. 이렇듯 理想郷은 공간과 시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공간적으로는 독립성을 드러냈고, 시간적으로는 압축된 원망을 나타냈다. 이러한 공간과 시간은 작가에게 문학적 상상력을 더욱 확장할 수 있으며, 아울러 독자의 마음과 이어지는 신선한 소재로서 삶의 의미를 더욱 다양화¹⁴⁷⁾할 수 있다.

위의 세 작품의 주체는 모두 향촌사족들이다. 그들은 自然이라는 대상을 통해서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발견하고자 했으며, 그에 대한 행위로써 가사작품을 완성하였다.

2.2 종속된 공간의 현실비판의식

향촌사족들은 사회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고, 이러한 불만들을 토대로 하여 글에 담기 시작했다. 이는 나아가 현실비판, 사회풍자라는 큰 장르로까지

147) 소재영, 「한국문학에 나타난 이상향」, 『조선조 문학의 탐구』 (아세아문화사, 1997), 107면.

확산되었다. 현실비판 작품의 작가들은 대부분 작자미상이 많다. 이는 아무래도 그 시대의 현실사회를 비판하는 작품이다 보니 그 시대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이름이 알려지거나 알려져 버린 사람이라면 중앙 관료나 그 무리들이 반역이라는 명목으로 그의 삶을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대체로 향촌의 지식인이라 할 수 있다. 즉, 중앙에 불만이 많았던 향촌사족들이 창작한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鄕村의 문제를 정확하게 꿰뚫어볼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이 창작해야 하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향촌의 지식인들이기 때문이다. ‘鄕村’의 토속세력들인 향촌사족들이 아니고서야 他地에서 부임해 온 집권층의 탐욕에 시달리게 되는 향민들의 고통을 다루어 그들의 고통을 수궁하며, 부정한 관리들에게는 다시는 정계에 나갈 수 없게 널리 알리기도 한다. 이렇게 부정함을 꼬집어 낼 수 있는 공간은 지리적으로 중앙에서 멀리 떨어진 외진 곳 혹은 中央에서 소외된 곳에 위치하고 있어야 했다. 따라서 장흥지역의 가사문학이 이러한 공간을 드러내기에 적합할 것이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작품을 통해서 본 부조리한 관리들의 횡포들에 대해 살펴보고, 부정한 관리들에 대한 비판을 어떻게 풀어놓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다 饑民드라 賑恤 奇別 들어스다/ 當初에 匹혼谷石 精備하야 바다더
 니/ 賑恤廳 모든 쥐가 各倉의 궁글뚫고/ 晝夜로 나들면서 섬섬이 까먹언
 네/ 이번의 탄넨乞糧 空穀으로 의포하에/ 糶糶맛튼 저斗升아 너조차 무슴
 일로/ 孔輸子 멍근信을 鐵木으로 삼것거늘/ 無端이 換面하고 憑公營私 하
 나스다/ 엇그제 寬洪量이 奸貪코 狹隘하다/ / 倉中 賑穀米을 다주어
 무리가라/ 녁코뉘풀 굴을삼고 暮夜의 藏置하니/ 碩鼠歌 일러난들 狡穴餘
 腐 뉘이시리/ 실갓쓴 小令監은 秦王의 姓을어더/ 但坐嘯 다방부리 指揮中
 의 너허 두고/ 朱墨을 擅弄하며 殘民을 椎剝하니/ 저餓殍 越視하고 私貨
 財 圖謀하다/ 賑政事 말게하소 無實存名 가이업다/ 賑監色의 진진창을 고
 뷁고뷔 다치오니/ 饑民아 네죽거라 事事로 殺歲로다

<壬癸嘆>의 내용이다. 이는 부정한 관리들이 곡식으로 배고픈 백성들에게
 장난을 치는 참혹한 장면을 그렸다. 굶고 있는 백성들은 진흙청에 쥐가 들

었다는 기이한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진흙청의 쌓인 곡식들을 정비하려 했더니 모든 쥐가 와서 창고에 구멍을 뚫고 밤낮으로 드나들면서 다 까먹었다. 여기에 등장하는 ‘쥐’는 부정한 관리들을 의미한다. 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굶고 있는 백성들을 위한 진흙청의 곡식까지 싹쓸이한다. 이러한 부정부패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번에 배급받은 양식은 ‘空穀’이다. 빈 곡식을 뜻한다. 즉, 먹을 수 있는 ‘알곡’이 아니라 먹지 못하는 ‘등겨’이다. 아전들은 백성들에게 ‘空穀’을 주고, 곡식의 출납은 斗升(말과 되)으로 정확하게 무게를 달아서 적어야 한다고 하니, 손재주가 빼어난 사람의 기계 제작으로 철 그릇을 만들어 그것으로 무게를 단다. 부정한 관리들은 무단히도 사람들을 바꾸고 공적인 일을 도모하며 자신들의 私利를 챙기는 꼴을 나타낸다. 진흙청에는 곡식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관리들의 비리와 폭정을 들키지 않으려면 나라에 허위보고를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상이라도 부정한 관리들은 먹을 수 없는 빈 곡식을 백성에게 나눠주어야 한다. 그리고는 창고의 진곡미는 쥐들에게 다 주어 물어가게 하라고 한다. 이는 《詩經》의 <魏風>편¹⁴⁸⁾을 인용하였다. 시적 화자는 인용을 통해 부세의 무거움을 풍자하고 있다. 문서를 멋대로 조작하는 부정한 관리들의 횡포와 그대로 빼앗기는 백성들의 수탈 장면을 그렸다. 또한, 굶어 죽은 시체들이 아랑곳하지 않고 있음에도 마치 자신의 일이 아닌 것 마냥 그렇게 바라보고만 있는 상황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시적 화자는 굶주린 백성들에게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하며, 부정부패에 찌든 관료들의 모습을 통해 백성들을 죽이는 원인임을 지적하였다.

이時節 살펴보니 倍倍殺年 다시만나/ 官庫도 蕩盡하니 賑政인들 미들년가
/ 아마도 못살인생 永訣會나 하여보세/ 마고 떨어 수을사고 머리 버혀 안
쥬사고/ 고지고지 聚會하니 永訣會가 樂事런가/ 아마도 죽글인생 命監기
進退마라/ 애둡다 우리命監 巡使道の 面分업서/ 監營을 가시잔들 騎馬가
이실년가/ 보선이 업섯거니 冬衣도 難得하다/ 行裝이 不齊하니 邑民 完行

148) 《詩經》, <魏風>의 「石鼠」는 큰 쥐가 창고의 곡식을 먹어치우는 정경을 그린 노래로, <壬癸嘆>에서도 쥐를 행정을 처리하는 관리들을 비유하여 부조리한 사회를 풍자하고 있는 부분이다.

勸치마라

‘壬癸年’을 말한다. 이 해는 다른 흉년보다 곱절이나 더 크나큰 살인적인 흉년임을 시사하며, 어려운 생활고를 드러냈다. 관아의 창고에는 백성들을 위해 쌓아둔 곡식이 전혀 없다. 이에 시적 화자는 관리들의 허술하고 부조리한 행정 처분을 지적하며, 나라에서 관장하는 구휼기관까지도 믿을 수 없다며 恨歎의 목소리로 언급하고 있다. 시적 화자는 어려움에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는 인생을 걸고 모임을 결성한다. ‘永訣會’, 영원히 이별하는 모임이다. 즉, 죽기를 각오하고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한다. 없는 돈에 술과 안주를 사고서는 굳이 모임을 갖고자 한다. 그러니 ‘永訣會’가 어찌 즐거운 일이겠는가 하여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님을 설명하였다. 기근에 시달린 백성들은 죽을 각오를 하고 영감께 나아간다. 그러나 애달픈 장흥부사는 순사또와는 면분이 없어서 아무리 찾아간다고 한다. 그러한들 영감은 백성들을 위해서 구휼해 줄 도리가 없음을 언급하면서 무능한 장흥부사를 원망한다.

장흥부사는 발에 신을 버선도 없었다. 심지어 겨울 옷도 얻기 어려우니 행장을 차려입고 순사또께 가는 것은 아예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다. 고을 원님의 형색은 거지꼴과 비슷하다. 이에 굳이 고을 백성들은 원님에게 감영에 올라가라고 권유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될 것이다. 이 구절은 역설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 마당에 갖춰지지 않은 복장이 중요하지 않거늘 시적 화자는 형색이 가지런하지 않으니 가지 말라고 언급하였다. 백성들을 위해서라면 복장도 체면도 아무 소용이 없음을 드러낸 구절이다.

頑命이 죽존하고 天意만 바라더니/ 前監司 李匡德이 監賑史로 온다하니/
어와 百姓드라 이아니 石底佛가/ 前王不忘 이百姓이 先聞이 欣幸이라/ 湖
南輕重 去來間의 勿剪甘棠 歌頌이라/ 竹馬來迎 멋고지어 白叟康壯 蹈舞하
니/ 德澤을 廣布하니 各畠이 均蒙이라

‘頑命’ 즉, 죽지 않고 모질게 살아 있는 목숨으로 죽을 지경에 다다랐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이 지켜준 목숨으로 인해 하늘의 뜻만 바란다고 그 소망을

드러냈다. 시적 화자는 전 감사 이광덕이 감진어사로 온다는 소문을 듣는다. 여기 등장하는 ‘石底’는 광주 밑에 자리하고 있는 지명이다. 시적 화자는 이 광덕이 예전에 전라감사로 벼품 선정을 드러내었고, 이를 잊지 못한다고 하여 ‘감당나무를 자르지 말라’는 《詩經》의 召南 5편 甘棠 3장¹⁴⁹⁾의 구절을 인용하였다. 이는 지방관의 은혜를 잊지 못해 불렀다는 노래이다. 호남의 가뭄고 무거운 일들이 오고 감을 나타내는 것은 세월의 흐름을 드러낸 것이며, 그 가운데 어떤 지방관의 은혜를 잘 묘사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광덕이 감진어사로 온다는 소문에 몇 곳에서 後漢의 ‘곽금’에게 했던 것처럼 어린 아이들 몇 백이 각각 竹馬를 타고 길가에 나와 맞으며 절하는 모습을 드러냈다. 또한, 머리 흰 노인이나 건장한 젊은이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 기쁨에 춤을 춘다. 이러한 덕택은 그 고장뿐만 아니라 다른 읍에 이르기까지 넓게 퍼져 각 읍들이 고르게 확산된다. 즉, 균등하게 서로 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방관의 善政을 매우 반가워하고 있다. 바른 정치를 하는 한 명의 지방관이 감진어사로 온다고 하니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 동안의 횡포와 부정부패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고을 曖昧之次 不攻自破 업서지계/ 百役을 停減하고 賑政만 심을쓰니
 / 監賑使의 施仁善政 이맛기 또업거늘/ 散在各處 列邑首令 須體施行 몇몇
 치고/ 우리고을 센개꼬리 아모린들 黃毛되랴/ 冤痛코 切迫할사 有庫百姓
 무슨罪로/ 죽기는 이百姓이요 기괴나니 阿大夫라/ 애달프다 監賑使를 고
 을마다 보내던들/ 可憐한 人命을 그대지 죽기닌가/ 事目을 塞責하야 設賑
 으로 作名할제/ 壬午年 해저을고 癸丑正月 다금온다

149) 《詩經》, <甘棠>을 인용한 부분이다. ‘蔽芾甘棠을 勿翦勿伐하라 召伯所芘이니라 賦也 | 라’, ‘蔽芾甘棠을 勿翦勿敗하라 召伯所憩니라 賦也 | 라’, ‘蔽芾甘棠을 勿翦勿拜하라 召伯所說니라 賦也 | 라’, ‘甘棠三章이라.’이라 하였다. 甘棠은 杜梨也 | 니 白者爲棠이오 赤者爲杜라 翦은 翦其枝葉也 | 오 伐은 伐其條幹也 | 라 伯은 方伯也 | 라 芘은 草舍也 | 라 ... ○ 召伯이 循行南國하야 以布文王之政할새 或舍甘棠之下러니 其後人思其德이라 故로 愛其樹而不忍傷也 | 라

‘우리 고을’은 애매한 차례라 하여 순상의 무식하고 융통성 없는 모습을 드러냈다. 즉,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구휼 순서를 정해서 어려운 대로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제도가 있었다. 그러나 장흥의 경우는 어려운 처지에 처했음에도 순상의 뒤늦은 대처와 탐관오리들의 술수로 인해 백성들을 구휼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억울한 상황을 말하였다. 억울하게 흉황의 등급을 ‘지차읍’으로 정한 일을 말하고 있다. ‘不攻自破’는 힘 쓰지 않고도 저절로 해결되었다는 뜻으로 영리한 관리의 선출로 인하여 전에 있었던 부패한 관리들의 잘못이 저절로 없어짐을 의미한다. 모든 나라의 세금을 면제하거나 줄여주어 나라를 구휼하는 데에만 힘을 쓴다고 하여 어려운 백성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한 백성들은 그들을 위한 감진어사의 바른 성품에 仁을 베푸는 옳은 정치는 이보다 더한 것이 있겠는가 하여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묘사하였다. 흩어져 여러 곳에 있는 열읍의 수령들은 감진어사의 뜻을 따라 본받아서 시행하려는 사람이 몇몇인가 하여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그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다음의 예를 통해서 설명하였다. 즉, 우리 고을의 센 개꼬리는 전 수령들을, 황모는 감진어사를 비유한 것이다. 이 구절은 아무렇게나 해도 사물의 원형은 절대 바뀌지 않음을 언급하였다.

슬프다 사름들아 하로도 못살이라/ 賑恤廳이 不恤하니 解懸廳이 倒懸이라
 / 大同廳을 謹避하야 書役廳을 살펴보니/ □고한 貯환債가 어디어디 쇠어
 진고/ 一城中 漏落하니 任掌者의 生涯로다/ 어와 짹짹하다 쇠경都監 눈을
 뜨소/ 腹中千斤 二十五는 都書員 네알리라/ 雙南秋色 百餘數는 各面書員
 뉘 모르리/ 墨客黑心 併發하니 掩耳偷鈴 查災로라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은 굶주린 백성들을 가리킨다. 굶주리고 굶주려 하루도 못살 것이라고 하였다. ‘賑恤廳’과 ‘解懸廳’은 백성의 고난을 구제해 주는 일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賑恤廳은 구휼하지 못하고, 解懸廳은 거꾸로 매달아 있으니 백성의 고난을 구제해 주기는커녕 도리어 백성들에게 고난을 더하게 하는 꼴임을 표현하였다. ‘진휼청’, ‘해현청’, ‘대동청’, ‘서역청’은 모두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리 기관들이다. ‘대동청’을 삼가 피하고는 ‘서역청’

을 살핀다. 그리고 그 곳에서 거두어간 물건이 어디에 쓰였는지 알고자 한다. 그러나 직무를 담당하는 관리자의 생애라고 답을 함으로써 부정부패가 만연한 세상임을 드러냈다. 시적 화자는 부조리한 세상에 환멸을 느끼며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였다. 그들이 가졌던 많은 양식 가운데서 그 1/4이나 되는 스물 다섯 근은 조세 징수 담당자인 도서관이 알 것이라 하였다. 이는 높은 벼슬아치들의 횡포뿐만 아니라 지방 아전의 신분에도 이르기까지 못 먹고 못 입는 가난한 백성들에 대한 횡포는 계속되었음을 드러낸 구절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구절의 ‘雙南秋色’에서 ‘雙南’은 중국 남쪽의 어느 지방을 말한다. ‘秋色’은 가을빛, 가을 경치를 나타낸다. 그러나 여기서 가을에 걷는 세금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즉, 우리나라 남쪽의 어느 지방에서 가을 걷이로 걷은 세금 가운데서 많은 수는 각 면의 서원들도 모두 알게 도적질을 한다는 내용이다. 탐학한 자들의 검은 마음이 한꺼번에 일어나니 이러한 일은 사실 재앙이라는 것이다. 즉,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을 수확할 수 없는 자연의 재해를 재앙이라고 한다. 하지만 부정부패한 관리들 때문에 굶어 죽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니 이 역시 자연재해와 더불어 크나 큰 재앙 중의 하나라는 것이다.

슬프다 이런말씀 다하자면 가이업다/ 周民의 黃金歌와 傷田歌 一篇詩을/
流民圖 한 가지로 이 곳에 그려 내어/ 니르자면 목이메고 보자하면 눈물
난다/ 十襲 同封하야 百拜稽首하야/ 님계신 九宮宮闕의 들여볼가 하노라

<壬癸嘆>의 마지막 구절이다. 위에서 언급한 자연재해와 더불어 부정한 관리들의 횡포들로 인해 굶주린 백성들의 원망을 그리고 있다. 시적 화자는 그 원망과 분노를 슬프다고 표현하였다. 이 구절에서는 ‘이런 말씀 다 하자면 끝이 없다’고 하여 얼마나 큰 원망과 현실비판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백성들이 부르는 <黃金歌>와 <傷田歌>라는 한 편의 시를 흉년의 유민들의 모습을 그린 그림에 그려 낸다. 그 노래와 그림을 보고 들으면 눈물이 날만큼의 참혹하고 이르면 목이 메고, 보면 눈물이 날만큼 참담하고 안타까운 현실이 떠올라 목이 메고 눈물이 난다. 그 풍경과 광경

을 잊을 수 없기에 열 겹이나 싸서 소중히 간직하고 같이 봉하여 수없이 머리를 깊이 숙여서 절을 하고자 한다. 그 다음 구절에 등장하는 님은 ‘임금’이다. 그 님이 계신 넓은 궁궐에 들러 볼까 하노라 하여 높은 벼슬아치들 또한 이와 같이 부정한 세계에 빠져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으니 임금에게 직접 고하고자 하는 마음의 염원을 가사작품에 실었던 것이다.

<壬癸嘆>과 더불어 현실비판가사에 속한 <合江亭歌>는 제목에서 언급한 ‘合江亭’은 장흥의 공간이 아니다. 다만, 그 ‘合江亭’에서 일어난 일을 장흥에 있는 鄕村士族이 쓴 작품이다. 반면에 <壬癸嘆>은 장흥지역을 소재로 하고 있으며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을 이름을 밝히지 않은 鄕村士族이 지은 작품이라 전한다. 사건이 일어난 공간은 중요하지 않다. 다만, 이런 일들을 통해 작가가 어떤 의도로 글을 썼는지, 이 글로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가 더 중요한 것이라 생각한다. 이 글을 쓴 작자 미상의 인물은 이 글로 말미암아 중앙 관료들과 거리를 두며, 그들의 횡포와 부조리를 통해 반성과 더불어 목민관으로서의 자세를 바라는 심정으로 글을 쓰고 있는 듯하다. 위에 언급한 <壬癸嘆>의 경우는 작품을 통해서 그 시대의 생활상을 잘 그렸다. 배고픈 백성들의 모습과 흉악한 관리들의 모습이 서로 대조를 이루면서 이는 마치 중앙집권 세력과 향촌사족들의 권력 다툼으로 묘사되고 있는 듯하다.

위의 두 작품인 <合江亭歌>, <壬癸嘆>은 현실비판을 목적으로 쓴 작품이다. 이 작품들의 경우, 서민의 입장이라면 현실비판은 諷刺를 통한 비판을 중심으로 하여 작품을 형성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는 사회를 비판하는 주체가 향촌사족이 되기 때문에 諷刺의 양상보다는 不正腐敗의 모습과 백성들에게 못된 짓을 일삼는 無能한 관리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묘사하여 어리석은 관리들의 모습을 통한 현실비판을 나타냈던 것이다. 이는 당시 상층에 있던 양반과 남성을 조롱하며 풍자하고, 지배 이데올로기였던 유교에 저항하고 억눌렸던 욕망을 발산하는 등의 비판과 저항의 場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誇示의 空間化

誇示의 공간화는 주로 소외된 鄉村에서 일어난다. 그 이유는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의 위상을 높이고 권위를 드러내고자 하기 때문이다. 誇示化 현상은 중앙집권과 대립되어 스스로 소외되었다고 여기는 향촌사족들에게서 많이 나타난다. 이는 ‘門中’과 관련시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門中은 그 활동 내용상 향촌사회에서 특정 성씨집단의 가문을 중심으로 하면서, 嫡長子 중심의 父系 친족의식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시기와 성격이 다르다. 또한 활동지역 범위가 동족마을 내부이거나 몇 개의 동족마을이 연계되어 이루어진 향촌 단위였다는 점에서 주목¹⁵⁰⁾해야 한다. 이렇듯 誇示化 현상은 집단문화에서 드러날 수 있는 큰 특징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중앙집권에 대한 도전의식으로써의 집단의식 강화는 門中의 형성과 발전을 가져오게 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따라서 필자는 위에서 언급한 同族集團의 발전으로 인한 愛鄉의 긍지와 자부심, 사회 기능의 강화 현상, 더불어 가문 중심의 생활상으로 구체화하여 誇示의 효과를 설명하고자 한다.

3.1 愛鄉의 긍지와 자부심

장흥의 가장 큰 자부심은 ‘天冠山’이다. 이 天冠山은 장흥지역의 사대부들에게 고장을 대표하는 명승지로 애향심을 불러 일으키는 대상이다. 장흥지역에 세거하던 유력가문은 누정을 경영하고 있던 곳이기도 하였다. 특히 청사 노명선의 경우는 거의 일생동안 장흥지역을 떠나지 않았던 만큼 자신의 향리에 위치하고 있는 천관산에 여러 번 올랐을 것으로 짐작된다. <청사공가장>에는 날마다 천풍가를 읊으면서 내가 곧 신선이라고 하면서 구룡봉에 솟구쳐 올랐다는 이야기가 전한다고 밝히고 있다.¹⁵¹⁾

‘鄉村’은 가문을 유지하고 그 가문을 잘 지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鄉村은 17세기 중반에 형성되어 18세기에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150) 이해준, 앞의 책, 2008, 14면.

151) 노형식, 앞의 책, 106면; 유정선, 앞의 책, 2007, 288면에서 재인용하였다.

18세기 후반~19세기에 이르기까지 鄕村의 모습은 쇠퇴해지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향촌의 의미는 무색해지게 되었다. 그러나 시적 화자들은 향촌사족으로의 불만과 사회에 대한 비판을 그들의 고향에 대한 애착과 긍지, 자부심으로 작품에 표출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인식들은 盧明善의 <天風歌>와 魏世稷의 <金塘別曲>에서 잘 보여준다. 작품의 첫 부분에서는 鄕村士族들로서의 아픔과 더불어 고향에 대한 자긍심이 짙게 묻어나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작품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다음은 盧明善의 <天風歌>의 첫 부분이다. 첫 부분에서는 시적 화자의 처지를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더불어 천관산의 아름다움을 적고 있다. 작품을 살펴보자.

공명(功名)의 薄명(薄明)하고 부귀(富貴)에 緣分(緣分)업서/ 탁남(卓犖)한
문장(文章)이 白屋(白屋)의 허노(虛老)하니/ 忠孝(忠孝) 양절(兩節)을 원
(願)대로 못할망정/ 仙風(仙風) 도골(道骨)이 세속(世俗)에 마글소야

작품의 첫 부분에서 시적 화자는 富貴와 公明에 인연이 없다고 한다. 이는 가난한 자신의 처지를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鄕村에 살기 때문에 부유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적당한 벼슬자리도 없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의 어조로 언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적 화자는 스스로 두드러지게 뛰어난 문장임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글 쓰는 재주가 아무리 뛰어나도 향촌사족으로서 중앙에 진출하지 못한 시대상황을 언급한 것이고, 쓸쓸히 늙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탄식하는 부분인 것이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출세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절실히 표현하였다. 이러한 안타까운 심정은 出仕의 좌절에 잘 드러나 있지만, 그대로 포기하지 않고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즐기면서 안타까움을 잊고자 한다. 시적 화자에게 있어서 自然 遊覽의 대상은 다름 아닌 시적 화자의 고향에 위치한 天冠山이다. 이는 시적 화자 스스로 뛰어난 경치로써의 天冠山을 꼽기도 했으며, 天冠山의 모습을 다시 ‘仙風’, ‘道骨’이라고 하여 세속과 대립되는 모습으로써의 신선세계를 그리기도 했다.

연흔(煙霞)에 고질(痼疾)되고 천석(泉石)의 고향(膏肓)되어/ 삼산(三山)의
기약(期約) 못하고 오호수(五湖水)에 못갓신 제/ 천만이십(千萬二十) 이 강
산(江山)을 일골으로 다 보리라/ 부유(浮游) 물표(物表)하야 노난 디도 하
건만논/ 천풍산(天風山) 팔만봉(八萬峰)은 각별(各別)한 천지(天地)로다/
갓 업슨 풍경(風景)을 디기(大概)만 니로리라

이 역시 天冠山의 아름다운 풍경을 적고 있다. 시적 화자는 자연을 사랑
하는 마음에 병까지 얻는다. 이렇게 발생한 작가의 고질병은 사회에 진출하
지 못한 상황에 대한 부정적 모습을 표현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가로
운 풍경을 즐기다 못해 병에 걸리게 된 작가 자신은 자연을 즐기는 것으로
병을 이겨내고, 더불어 자연과 함께 하고자 하는 모습이 더 절실히 나타난
다. 예로부터 ‘三山五水’는 산과 물이 어우러진 살기 좋은 곳이라 하였다. 이
를 작품에 등장시켜 ‘三山’과 ‘五湖水’로 비유하기도 하였다. 또한 시적 화자
는 가보지 못한 중국의 유명하고 아름다운 山水의 모습으로 중국이 아니라
우리나라 그 가운데서도 시적 화자의 고향인 長興의 아름다운 풍경을 경험
하고자 한다. 시적 화자는 유명하고도 아름다운 山水에 가보지 못한 아쉬움
을 크게 나타냈다. 하지만 이보다도 ‘천만 이십’이나 되는 많고도 많은 우리
나라의 아름다운 강산을 다 보리라는 굳은 의지를 더 크게 드러내고 있다.
작가는 스스로를 物表에 비유하여 등등 떠다는 것처럼 놀고 싶다고 말하였
다. 또한, 시적 화자는 많고도 많은 곳 가운데서 ‘天風山 八萬峰’이 ‘각별하다’
고 하여 고향에 대한 애뜻한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 문장으로 보았
을 때, 이곳은 작가의 愛郷心이 짙게 묻어나는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곳이 우리나라 모든 강산을 다 볼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사
실 그곳은 우리나라 모든 강산을 다 볼 수 있는 높은 곳도, 넓은 곳은 아니
다. 다만 天冠山은 長興都護府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산이기도 하면서도
장흥지방의 면모를 살펴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만큼 天冠山은 시적
화자의 고향에서 유명한 곳이기도 하지만, 고향에 대한 자긍심을 드러내기
에 안성맞춤인 곳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시적 화자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우
리나라 금수강산의 대표적인 산인 금강산과 전남 장흥의 천관산을 비유하여

금강산의 ‘一萬二千峰’을 長興 天冠山의 ‘八萬峰’로 비유하였다. 또한, 천관산의 풍경이 너무도 아름다워 각별한 천지라고 애항의 긍지와 자부심을 논하였다.

시적 화자는 향촌사족으로 벼슬에 나아가지 못하는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향에 있는 천관산 내부의 여러 곳을 여행하였다. 그러면서 시적 화자는 천관산의 모습을 보고 느낀 감정들을 묘사하였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그 지역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또한 표현하였다. 이러한 묘사는 비단 <天風歌>에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다음은 <金塘別曲>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金塘別曲>은 장흥도호부에 속한 ‘금당도’와 ‘만화도’를 두루 여행하고 그 여정과 풍경을 묘사한 작품이다. 이러한 기행가사의 특징은 작품 서두부분에 여행의 동기를 언급하고 있으면서 시적 화자의 심정을 여실히 잘 드러내고 있다. 다음 부분 역시 <金塘別曲>의 서론 부분에 해당한다. 이 부분을 통해서 시적 화자는 愛郷의 긍지와 자부심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일신(一身)의 병(病)이 드어 만사(萬事)에 흥황(興況) 업셔/ 죽림(竹林) 곱
픈 곳의 원학(猿鶴)을 벗슬 삼마/ 십년(十年) 서창(書窓)의 고인시(古人詩)
뿐이로다

이 역시 작품의 도입부분이다. 시적 화자가 작품을 쓰게 된 동기에 대해 서술하였다. 시적 화자는 몸에 병이 깊었다고 하였고, 이 모든 일에 흥미로움을 느끼지 못함에 외로움이 더해간다고 자신의 심정을 표현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 깊은 곳에 있는 ‘猿鶴’을 벗으로 삼고자 한다. 즉, 여기서 드러나는 시적 화자는 실제로 병에 걸렸다고 하기보다는 자연과 더불어 함께 살고자 하는 마음을 담고자 했던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깊은 산 속까지 들어온 시적 화자의 외로움을 절정에 이르게 하는 구절이기도 하다. 시적 화자는 십년동안 자연과 더불어 살면서 자연을 사랑하는 병에 걸렸고, 그 병으로 인해 10년 동안 자연과 벗삼아 살아온 시적 화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행동으로 볼 때, 시적 화자는 선비로서 독서를 사랑하는

삶을 드러내고 있지만,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선비의 위상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시적 화자는 옛 시인들의 詩句에 대한 뛰어난 감탄하며 독서하는 선비의 모습을 잘 보여주었다. 이 부분은 오래도록 ‘自然’을 사랑해서 자연과 벗삼은 시인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으며, 그 시를 읊으며 세월을 보내고 있는 시적 화자의 모습도 잘 드러내고 있다. 시적 화자는 사람도 없고 ‘猿鶴’만 있는 그곳의 적막한 분위기를 통해서 외로움과 쓸쓸함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더불어 병들고 아픈 몸에 대한 시적 화자 자신의 한스러움을 보여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일생호입(一生好入) 명산곡(名山曲)을 우연히 기리 읊어/ 만고(萬古) 시호(詩豪)을 역력히 하여 본이/ 팔선(八仙) 천재후(千載後)에 니을 이 괴 닐게요/ 강산 풍월(江山風月)이 한가(閑暇)한지 여러 해여/ 분분세사(紛紛世事) 나오슬여(나도슬여) 풍월주인(風月主人) 되랴 호야/ 명구선경(名區仙境) 반세(半世)를 늙어 있다

이 부분도 <金塘別曲>의 서사에 해당한다. 시적 화자는 名山에 들어가는 것을 좋아하고 더불어 ‘名山曲’을 우연히 오래도록 읊어 전해졌다고 했다. 이렇게 읊어진 오래되고 많은 뛰어난 시인들을 하나하나 헤아려 본다. ‘八仙’은 중국 신화의 전설적인 도교 선인을 가리킨다. 이렇게 道를 터득한 신선은 천년 즉,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라도 名山曲을 이을 사람이 있는가 하여 ‘名山曲’이 시 가운데에 가장 좋음을 나타냈다. 이는 후대에 더 이상의 명산곡이 나오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안타까움을 토로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 구절에 있는 ‘江山風月’은 ‘自然’을 통칭하는 말이다. ‘자연이 한가한지 여러 해’라고 한 것으로 시적 화자의 한가로움을 자연에 빗대어 묘사하였다. 또한, 어지러운 세상일에 대해서는 ‘슬다’고 표현하였다. ‘슬다’는 ‘사라지다’라는 뜻으로, 어지러운 세상 일에 자연과 더불어 살고자 하는 시적 화자의 염원이 담겨진 구절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시적 화자는 아름다운 자연에서 신비스럽고 그윽한 곳에서 오랫동안 살아가고자 한다. 다음의 ‘반세가 늙어 있다’라는 구절에서 시적 화자는 속세를 버리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을 나타냈으며, 그의 나이 역시 50세 즈음으로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것이 바로 고향에 대한 마음을 담아 그동안 떠나지 못하고 자연과 더불어 사는 모습에서 엿볼 수 있었다.

石路에 흘은물은 數層花階 울느니/ 절로핀꽃 杜鵑花오 심어핀꽃 躑躅薔薇/
 다핀가지 덜핀나무 집을 들너시니/ 武陵源이 어디매요 別乾坤이 여기로다/
 桃花流水 흘러간들 어느魚舟 차자올가/ 雲心不知 집퍼거든 松下問童
 뉘알손야/ 林泉에 손을씻고 藥爐에 향을 쫓고/ 산건 野服으로 구름벗겨
 안자시니/ 들니느니 물소래오 보이느니 뗏뗏시라/ 絶壁에 석근디와 石上에
 늘근술은/ 風霜이 몇劫인고 못큰거시 格이로다/ 石榻에 흐튼바돌 商山翁이
 뒤드간가/ 壁上에 걸넌洞簫 王子晋이 부다간다/ 시줄여진 거문고는
 流水曲의 音律이오/ 鍾期업시 혼자타니 山水만 峨洋이라/ 煙霞에 짓피든病
 獨樂으로 다낫것다

<草堂曲>의 일부이다. 이 작품은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과 시적 화자의 한가한 생활을 묘사하여 둘 사이의 조화를 드러내고 있다. 돌길을 따라 흐르는 물은 여러 층의 꽃 섬들에 올라간다. 그 꽃 섬들에 핀 꽃은 저절로 핀 꽃과 인위적으로 심어서 핀 꽃으로 나누었다. 자연에 의해 핀 꽃은 두견화이고, 인위적으로 심어서 핀 꽃은 진달래와 장미이다. 이는 또 펴고 펴지 않은 가지와 나무들을 두고 집을 묘사하기도 했다. 시적 화자는 꽃과 나무를 두고는 武陵桃源이 어디인지 물어본다. 즉, 이는 草堂이 곧 武陵桃源임을 시사하고 있는 표현이다. ‘別乾坤’은 시적 화자가 있는 草堂을 나타내고, 복숭아꽃 물에 흐른다고 하니 그곳이 즉, 신선세계를 뜻하는 무릉도원임을 설명해 주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어느 고깃배 찾아올까 하여 풍류를 즐기는 사람이면 어떤 사람이든지 찾아올 만한 아름다운 풍경을 지닌 곳임을 묘사하였다. 구름이 깊어 있는 곳을 알지 못하니 소나무 아래 있는 동자에게 물지만 그 동자 또한 모른다고 답한다. 林泉에 손을 씻고 약로에 향을 쫓고 복장은 평민복을 나타낸다. 신분을 따지지 않고, 자연에서는 다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작가의 의식을 담고 있는 구절이라 할 수 있겠다. 시적 화자가 앉아 있는 그곳에서는 물소리가 들리고, 산 빛이 보인다. 시적

화자는 절벽으로 된 돌 위에 있는 푸르고도 푸른 대나무와 늙은 소나무를 바라보기도 하고, 商山翁이 두다가 간 바둑, 王子晋이 불다 간 동소와 유수곡을 생각하며 홀로 있는 山水의 아름다움에 빠져 있는 스스로에 대해 즐거워한다.

위에서 언급한 <天風歌>와 <金塘別曲>의 경우는 ‘紀行’이라는 소재를 택하였다. 두 작가는 자연의 아름다운 곳을 선택하여 고향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표현하고자한 것이다. ‘紀行’이라는 소재는 그 지역을 두루 소개하면서 아름다운 경치를 드러낸 장르이다. 이러한 작품을 쓴 배경에는 그 지역에 대한 애착과 긍지를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물론, 그들이 소재로 삼은 그 공간은 모두 작자들의 고향인 ‘장흥도호부’에 속해 있는 곳이다. 그들은 때때로 아름다운 산수가 있는 풍경의 아름다움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고향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다. 위의 작품들을 향촌사족의 특성에서 본다면 두 작가 역시 고향을 세속이라는 개념과는 반대되는 의미로써 고향의 아름다움을 뽐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하면, 자신의 고향의 아름다움을 드러낸 작품들을 통해서 다른 지방 혹은 경화세족들에게까지 자신이 속한 향촌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염원이 마음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安貧樂道의 삶을 추구하고자 하며 자연에 살고자 하는 염원을 담고 있는 <草堂曲>의 경우는 위와는 조금 다른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이 작품은 기행이 위주가 아니다. 그곳에 살면서 느낀 감정들을 통해서 그 고장의 아름다움을 나타냈다. 세상에 대한 염증으로 인해 자연에 묻혀 사는 향촌사족의 마음을 담았다고 볼 수 있다.

3.2 사회 기능의 강화

조선 이전에는 피지배층인 농민이 거주하고 있었던 반면, 조선 이후에는 그들과 함께 지배층인 양반이 거주하였다. 이들 양반층은 특정촌락을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었다.¹⁵²⁾ 이렇게 형성된 촌락이 바로 同族마을이 된다. ‘장

152) 정진영, 「성씨와 촌락」, 『지방사연구입문』(역사문화학회, 2008), 145~146면.

흥' 역시 이러한 마을을 형성하고 있었고, 이곳이 바로 '傍村'이다.¹⁵³⁾

고려 말의 '長興'은 왜구의 침입이 잦아 고을을 다른 곳으로 여러 번 옮기는 수고를 겪어야만 했다. 하지만,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장흥위씨가 장흥의 '傍村'에 입촌하면서 동족마을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傍村'은 왜란과 호란을 극복하는데 기여한 많은 충절인물들이 배출하였고, 그들의 활동은 存齋 魏伯珪라는 호남실학의 선구자를 낳았다. 현재까지도 相扶相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향촌 자율의 다양한 전통들을 세워 지켜 나가고 있다. 이러한 장흥의 위씨문중은 향촌 내의 이주성씨로서 기존 세력들에게 협력체계를 유지하다가 점차 방촌에서 유력한 성씨로 성장하면서 향촌 내 제반사는 물론이고, 방촌마을을 장흥위씨의 동족마을로 변형시켰던 것이다.¹⁵⁴⁾ 이러한 방촌사회에서 동족마을이 형성되고 발전하게 된 까닭은 다음과 같은 규범과 차례의 교본 때문인 듯하다. 문중의 유대와 생활규범을 제시한 글인 《顏巷遺書》의 내용 중 <桂岩家訓> 6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農桑에 힘쓰고,
2. 제사를 받들며,
3. 형제끼리 화목하며,
4. 자손을 가르치며,
5. 노복을 어루만질 줄 알아야 하고,
6. 관리를 우대하여 관청과의 마찰이 없도록 규제한다.¹⁵⁵⁾

<桂岩家訓>의 내용이다. 위씨가문의 전통적인 의식기반을 忠節과 禮로 나타낸 것이다. 전통적인 유교사상이 뿌리 깊게 내려진 이 고장에서도 가장 중시했던 것은 <桂岩家訓>의 첫 번째 항목인 農桑이었다. '傍村'은 自給自

153) 이해준 외, 앞의 책, 1994, 37~46면.

154) 이해준 외, 앞의 책, 1994, 127면.

155) 위의 내용은 이해준 외, 앞의 책, 1994, 118면에서 《안향유서》의 <계암가훈> 6조를 요약하여 서술한 것이다. 《안향유서》는 <계암가훈> 6조와 <고훈요어> 6조가 중심내용인데, 특히 <계암가훈>의 경우는 위덕후가 평소 '田畝保身之道'의 요체를 궁리하여 만든 것이라고 하였다.

足的 생활로, 농민 스스로 농사지으면서 마을에 보탬이 되는 누에 기르는 일을 함께 했다고 전한다. 두 번째 항목으로 제사를 만드는 것을 강조했다. 그 이유는 전통적 유교사상 때문인 듯하다. 제사는 유교의 기본항목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제사를 받들고, 형제끼리 화목한 모습을 잘 드러냈다. 향촌 사족들은 유가에서 강조하는 규범을 준수하여 그들의 위상을 스스로 높게 드러내기도 했다.

위씨들은 文은 司馬에 오르고 武는 임진년간 국가의 큰 난리를 당하자 국왕을 돕는 자가 끊어지지 아니하니, 공을 이루어 기록할 만한 큰 업적은 없으나, 그 충의와 적개의 기풍이 집안과 세상에 오랫동안 미쳤다. (중략) 10여대에 이르도록 큰 벼슬은 없으나 한미한 집안이 野人の 편호를 벗어나 능히 선비의 뒤를 좇은 것이 이 어찌 충의와 행의의 실상에 근원함이 아니리¹⁵⁶⁾

위는 위백규가 지은 《魏氏忠義錄》의 서문이다. 魏氏家門은 문무에 큰 벼슬을 하지 못했지만, 10여대에 내려오는 동안 중앙관직에서 일하였음을 언급하였다. 그럼에도 忠節을 오랫동안 지킨 가난하고 변변치 못한 가문의 位相을 드날리고자 하여 쓴 글이다. 이렇듯 한 마을을 이루고 사는 향촌사람들은 그들마다 규칙과 윤리가 존재했다. 그 ‘同族部落’은 門中活動의 실체를 분명히 하였으며, 그들 가계의 지위를 확보하는데 큰 힘을 쏟았다.

위백규가 지은 <社約>¹⁵⁷⁾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는 위씨 문중의 규약으로 門中規約을 토대로 하여 篤敬竝行의 문중활동에 남보다 먼저 헌신한 것이 40대 초반에서 50대 초반에 이르는 기간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 <社約>은 집안에서 전해진 家訓과 俞柴를 통해 강조되던 ‘農桑에 힘쓰고 형제

156) 위백규, 《魏氏忠義錄》, 序文, 1778; 이해준 외, 앞의 책, 1994, 117면에서 재인용하였다.

157) <社約>은 7개의 큰 항목을 정하여 그 외에 세부 조목을 나눠 가훈과 종래의 향약류에서 표집하였다. 사약의 큰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①행동을 삼가라, ②친족끼리 돈독해라, ③웃어른을 공경해라, ④집안이 화목해라, ⑤후손을 교육시켜라, ⑥경조를 중히 여겨라, ⑦계의 규약을 지켜라. 이런 항목들을 가지고 방촌의 위씨들은 경제적으로 스스로 생활하는 한편 사족가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자구적인 방안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이해준 외, 앞의 책, 1994, 123면.

사이에 화목하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家中四時會>의 9가지 항목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은 ‘후손을 교육시키고, 웃어른을 공경하라’는 조목이라고 언급한다. 이는 동성집단의 협동 부분과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戒辭>의 경우는 말마다 고인의 가르침이라고 내세우면서 가부장제적 규범과 관습을 강조하고 있는 글이다. 또한 이 글의 실제 내용은 해이 및 파탄 현상에 대한 분석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고, 특히 이러한 현상의 시발적인 근원이 되고 있는 아내나 며느리들에 대한 비판과 성토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이는 향촌사족층의 가문에서 가부장제적인 질서를 둘러싼 갈등이 어떻게 대두되고 작용해 가는지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사례여서 주목되는 글이라고 볼 수 있다.¹⁵⁸⁾ 또 다른 문헌 가운데 <四誠錄>은 1784년 위백규가 혈서로 작성한 서문이다. 그 내용은 위씨 선조들의 세계, 향리에 관한 것, 후손들에 대한 가르침, 魏氏 門中의 家禮, 德行, 孝道, 教訓(12조), 敦睦, 선비의 지조, 사우, 문덕 등이다. 또한 인간으로서의 도리에 이르기까지 매우 면밀한 내용으로 모두 33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서술되어 있다. 이러한 규범들은 18세기에 이르러 형성되었고, 19세기에 이르러서야 확고하게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이 모임은 아비와 자식, 부부, 형제 및 아재와 조카가 한 방에 둘러 모여 술을 마시며 웃고 즐기는 자리로, 인생에서 즐거운 일이며, 한 평생 좋은 날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하는 말을 지어 家法을 만들었다. 무릇 사나운 때는 길들이면 순해지고, 어리석은 개나 소도 말을 하면 알아듣는다. 만약 허물이 있으면 능히 고쳐 마치 먼지 낀 거울을 닦는 것처럼 하면 모든 사

158) 김석희, 앞의 책, 1995, 52~53면. <社約>에서는 9개의 소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1단락은 총론에 해당하는데 결혼에 따른 인륜적 질서의 붕괴현상을 전반적으로 언급하고 있고, 2단락에서 5단락까지는 가족관계의 각부면에 걸친 구체적인 양상들을 묘사하고 있는데, 부모에 대한 불효, 형제에 대한 불우, 아내들의 남편에 대한 잘못, 조카들에 대한 무성의 등을 개탄적인 어조로 성토하고 있고, 6단락에 이르러 이러한 현상들이 장차 어떠한 결과에 이를 것인가를 들어 구성원 모두의 자세전환을 촉구한 뒤에 7,8단락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분석으로 소가족이기주의와 물질중심주의를 들고 있고, 9단락은 결론적인 당부로서 이러한 이기적이고 물질주의적인 풍습을 청산하고 인륜에 입각한 가법을 수립하고자 간곡히 호소하고 있다. 《집》 권 18, 13~17면, <家中四時會> 중. 김석희, 앞의 책, 1995, 54면.

람이 우리를 것이다. 마치 귀한 옥을 훼손하듯이 방자하게 善을 해치면 하늘 또한 그것을 두려워한다. 만약 이를 경계했는데도 행하지 않고 이를 알리어 깨닫게 해 주었는데도 알지 못하여 스스로 개나 소만 못하다고 여긴다면 비록 성인이라도 또한 어찌해 볼 수 없다. 각기 그 자손들을 염려하고 그 장래를 걱정한다면 반드시 한 순간 스스로 깨달을 것이니 사람의 말을 기다릴 것 없다.¹⁵⁹⁾

위의 글은 <家中四時會飲規>의 한 구절로 모임을 만들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모임의 구성원들은 ‘家中’이라는 제목의 한 부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문중 사람들이다. 그 구성원들은 3개월에 한 차례씩 날짜를 정해 놓고 한 방에 둘러 앉아 술과 안주를 마련하여 그 구성원들이 예법을 행한다. 또한, 경계하는 말인 <戒辭>를 읽고 풀이하는 과정을 거쳐 집안사람들에게 모두 이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 알게 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문중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警戒의 말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는 짐승만도 못하다고 하여 실천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그리고는 이를 염려하여 문중의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미에 대해 스스로 깨닫게 하고자 한다.

위의 언급한 예시들은 魏氏 門中의 경우로 제한된다. 위씨 사람들은 하나의 작은 집성촌을 이루어 살아가고 있고, 그들만의 새로운 세계를 형성하였다. 그들은 오직 위씨 문중만을 위해서 만든 이러한 규약들로서 하나의 부족을 이끄는 원동력이었던 동시에 그들은 위씨 문중 자신들만의 세계를 가졌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가진 ‘同族集團의 閉鎖性’을 드러내게 된 것이다.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敎訓과 道德은 필요한 것이었다. 다만, 이러한 敎訓과 道德이 鄉村土族들에게는 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첫 번째로, 중앙과 멀리 떨어진 향촌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었다. 鄉村은 경제적으로 뒷받침해줄 만한 것도 없었고, 무엇보다도 사회적으로 어떠한 관직이

159) 위백규, <戒辭>, 《家中四時會飲規》; 是會也。父子夫婦兄弟叔姪。團會一室。飲酒歡愉。人生樂事。百年好日。因作戒辭。庶成家法。夫鷹鷄之鷙。馴之即順。犬牛之昏。語之即諭。若過而能改。如磨塵鏡。人皆仰之。傲以敗善。如毀寶玉。天亦厭之。苟戒之而弗迪。告之而不知。自甘犬牛之不若。則雖聖人亦如之何哉。但各念其子孫。各慮其將來。必怵然自悟。不待人言矣。

나 권력을 가지지 못했던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만의 사회를 만들고 그 사회에서 지켜야 할 법률과 규칙을 만들어 활동하게 되었던 것이다. 두 번째로, 규율과 규범으로 인한 長興의 魏氏만이 가질 수 있는 단결력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닐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흥위씨의 同族集團은 規約과 敎訓으로 조직적인 규범을 촌락 전체의 구성원들에게 교화하였다. 이러한 규범들은 長興 魏氏의 집단적 특성이었기 때문에 위씨 문중의 조직 체계를 계승하고 있는 것은 이 시기 향촌의 사정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이는 그들만의 폐쇄성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렇게 동족부락인 향촌공간이 강화되고 발달하게 되는데 목적을 두어 이루어졌던 작품들에 대해 알아보자.

諸子百家 通史類은/ 博覽으로 보아두고 四書三經 禮記等은/ 基業으로 강
 습흐소 聖訓을 쫓나고디/ 家訓을 이질손야 世忍軒 참는뜻과/ 日省齋 살핀
 날과 날날로 짜라항코/ 드디로 본배오며 구세동거 나도호이/ 백항원을 누
 못홀가 守拙堂의 拙호뜻과/ 恕菴의 접든마암 隱亭의 수문지취/ 일체로 쓴
 바드면 니몸에 病이업고/ 남안이 미어홀리

<人日歌>의 한 부분이다. 《諸子百家》와 같은 모든 역사류의 책들을 넓게 살펴보고, 《四書三經》, <禮記> 등의 책들은 학문의 기초로 두라고 한다. 또한, 聖訓과 家訓을 예로 삼아 그 근본에 대해 언급하였다. 즉, 聖訓을 좇아 몸을 닦는 그것을 기본으로 하고, 수신으로 나아가 가훈을 본받아 근심 수행하라고 했다. 집안의 화목을 가리키는 말로는 ‘구세동거’라는 말을 사용했다. 세상을 건디는 집인 ‘世忍軒’의 참는다는 뜻과 하루를 살피 가지런히 한다는 곳의 ‘日省齋’의 살피는 일을 나날이 따라하고 대대로 본받고자 한다. 집안이 화목함을 나도 하는데, ‘백항원을 누가 못할까?’라 하여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그렇게 하지 못할 사람이 없음을 돌려 적었다. 즉, 본받아 익히고 집안이 화목함을 두루 살피면 못할 것이 없다는 뜻으로 쓰였다. ‘守拙堂’의 졸한 뜻과 ‘恕菴’의 헤아리는 마음, ‘隱亭’의 숨은 자취라 하여 글자에 대한 풀이를 하였다. 이러한 것들을 모두 본받으면 내 몸에 병이 없고 남도 미워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 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강조하였다.

어와 이혼몸을/ 내몸으로 아지말라/ 보는것도 부모의 눈/ 듣는것도 부모
의 귀/ 말하느 것도 부모의 뱀/ 먹는 것도 부모의 뱀/ 손발다리풀과/ 머리
수염 ㄴ는터리/ 낫낫치 부모의 스리라/ 똥흠도 똥홀시고/ 내려서 조심안
여/ 늙의 손의 상하면/ 비설위낫튼슈고/ 슬드리도 원통홀서/ 다시곰 허망
코/ 손발을 슬허놀너/ 먹을것 전혀업서/ 뉴리허야 굴머지면/ 부모의 가슴
우히/ 무근풀뉘쑤호리/ 횡스을 조심호고/ 믹음을 곱게 먹어/ 헛기신좁과기
장을/ 다쓸어 잡아두면/ 횡허나 우리부모/ 너시이서 깃불넌가/ 횡어나 하
나님도/ 죄나 아니 주실넌가

<自悔歌>는 존재 위백규가 그들의 후손이나 제자들에게 ‘孝’를 권장하는 내용이다. 위의 글은 <自悔歌> 가운데서도 ‘孝’에 대해 가장 잘 드러낸 부분이다. 위백규가 <自悔歌>를 통해 효를 강조하게 된 이유는 同族的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는 위씨문중들이 모두 조직화되어 유력한 성씨로서의 면모를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것도 아니고 왜 ‘孝’를 강조하고 있을까? 동족부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이는 ‘孝’사상 때문이다. 유교사상을 드러내는 ‘三綱五倫’ 가운데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忠’이다. 하지만, 향촌사족이 중앙에서 임금의 명에 따라 일하는 관료들도 아니고, 그 동족부락으로 형성된 향촌사회에서 그들의 윤리에 더 힘을 쏟아야 하기 때문에 위계질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임금에 대한 충성을 가르치기보다는 부모에 대한 ‘孝’를 중시여기는 것이 당연한 듯하다.

그렇다면, 위씨 가문의 윤리 공간을 지향하는 다른 예를 살펴보도록 하자.

위씨들은 文은 司馬에 오르고 武는 임진년간 국가의 큰 난리를 당하자 국왕을 돕는 자가 끊어지지 아니하니, 공을 이루어 기록할 만한 큰 업적은 없으나, 그 충의와 적개의 기풍이 집안과 세상에 오랫동안 미쳤다. (중략) 10여대에 이르도록 큰 벼슬은 없으나 한미한 집안이 野人の 편호를 벗어나 능히 선비의 뒤를 좇은 것이 이 어찌 충의와 행의의 실상에 근원함이

아니리¹⁶⁰⁾

이는 위백규가 지은 《魏氏忠義錄》의 서문이다. 이 글은 忠節을 오랫동안 지켰다고 하여 가난하고 변변치 못한 가문의 위상을 드날리고자 쓴 글이라 여겨진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위씨의 忠義에 관한 글이다. 위씨문중은 10여대 째 내려오는 동안 중앙관직에서 큰 직분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궁벽한 ‘鄕村’의 특성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이렇듯 한 마을을 이루고 사는 향촌사람들은 각각 그들만의 규칙과 법칙을 만들어 그 사회를 이끌어 나갔다. 이로 인해 그 동족마을은 문중활동의 실체를 분명히 하였으며, 그들 가계의 지위를 확보하는데 큰 힘을 쏟았던 것이다. <社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는 위씨문중의 규약의 하나이다. 1760~1770년 사이에 수정과 보완을 거쳐 완비되었다고 전한다. 집안에서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家訓과 兪檄에서는 위씨문중뿐만 아니라 여러 동족마을에서는 농사에 관해 강조되어 왔음을 나타낸다. 그 내용을 살펴볼 때, ‘농상에 힘쓰고 형제간에 화목하라’라는 내용이 골격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自悔歌>나 <人日歌> 같은 경우는 한 향촌사족들은 가문의 몰락을 막거나 자신들의 계급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가문구성원들에 대한 교화를 강화하였다¹⁶¹⁾고 보았다. 長興의 동족마을인 ‘傍村’의 경우는 지리적으로 그 시대에 주를 이루었던 정계나 정치로부터 멀리 떨어진 외진 곳이었다. 이렇게 중앙의 간섭이 없는 곳에서 살아가는 방법에는 문중사회의 유대감이 필요했다. 따라서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정한 이 규칙과 윤리로서 문중활동을 더욱 활성화시켜 발전해 나아가는데 주력했던 듯하다.

이상으로 장흥지역의 가사작품들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장흥지역 가사문학은 그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을 주체라 하고, 그 주체가 있는 공간에서 일어난 행위, 대상, 권력의 관계를 드러내 작품화한 것을 장흥지역 가

160) 魏伯珪, 《魏氏忠義錄》序文, 1778.

161) 박연호, 앞의 논문, 1996, 35면.

사문학이라고 한다. 즉, 그 공간에서 일어난 문화적, 역사적인 것을 토대로 하여 지은 가사이다. 지역, 지형적 아름다움을 그린 작품이 있는가 하면 사회적 기능을 강조하여 집단윤리 의식을 강조한 작품과 현실사회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작품도 눈에 띄게 드러났다. 이를 토대로 하여 문화지리적인 표상은 다음의 세 가지로 나누었다. 中心과 周邊의 位階化, 慾望의 現實化, 誇示의 空間化가 그러하다. 위의 세 가지 현상들은 모두 한 공간에서 서로 대립되는 양상을 그렸다. 대립되는 양상들은 지배층에 대한 비판의 문제를 자아내게 되었고, 더불어 피지배층의 소외의식을 나타내게 되었다. ‘現實’과 ‘慾望’ 사이에서의 대립양상은 慾望의 現實化를 통해 이루기도 하였다. 게다가 종속된 공간의 현실비판 양상 역시 지배층과 피지배층 사이의 괴리 현상에서 얻어진 결과가 아닌가 생각해본다. 이렇듯 하나의 공간을 드러낸 작품들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이항 대립되는 관점으로써 갈등양상을 잘 묘사하였다.

V. 장흥지역 가사문학의 文化地理學的 의의

이 장은 장흥지역의 가사문학의 주제적 특징과 문화지리학적 표상으로서의 문화지리적인 의의에 대해 살피고자 한다. 문화지리적인 측면에서의 환경은 즉, 공간으로써의 지리적인 부분과 주제, 그리고 가사문학이라는 텍스트가 어떤 상관관계에 있는지를 논할 것이다.

‘長興’이라는 하나의 공간에서 이루어진 주제, 권력, 행위, 목적, 표상체계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각각 작품들의 기능들에 따라서 작품의 주제와 권력, 행위, 목적, 표상체계와 창작시기가 달라진다. 이 특성은 16~19세기까지 향촌사족이 처한 상황이 강하게 반영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분류는 한 공간에서 발생한 주제와 권력과 행위와의 관계를 다양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주제, 권력, 행위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주제는 권력에 따라 행위가 변화하기도 하고, 행위에 따라서 권력이 형성되기도 한다. 이것들 가운데서 어떤 것이 우선이고, 나중이고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이러한 관계들이 서로 다른 목적과 표상체계를 만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들을 간단히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주제	紀行	敎訓/道德	現實批判
창작시기	16~17세기	17~18세기	18~19세기
주체	長興의 鄉村士族	長興의 鄉村士族	長興의 鄉村士族
권력	中	上	下
행위	有名한 場所 소개	規範, 規律의 작성	中央과의 대립
목적	愛鄉心, 文化意識 強化	結束力, 倫理意識 強化	批判意識의 強化
표상체계	메타포	이념적 표상	알레고리
공간	유람, 풍취	교육, 도덕	부정, 반항

위에 언급한 작품들의 주제들은 ‘長興’이라는 하나의 공간을 배경으로 하

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長興’과 관련된 사람들이어야 한다.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이름을 밝힌 인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가 글을 아는 선비집안의 사람들인 鄕村士族에 속하기 때문에 ‘長興士族’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關西別曲>와 <長恨歌>을 창작한 白光弘과 李中銓을 제외하고 <金塘別曲>, <天風歌>, <人日歌>, <草堂曲>, <自悔歌>의 작품들은 魏世稷, 盧明善, 李商啓, 魏伯珪 등에 의해 창작되었다고 전해진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그들은 모두 ‘長興’이라는 鄕村에서 태어나서 鄕村에 기반을 두고 있었으며, 그곳 鄕村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도 어느 정도 가능하였다. 물론, 경제적으로도 농민들과 서로 통할 수 있는 정도인 鄕村士族들은 이 작품들의 작가이면서 주체가 된다. 이 모두는 그 지역에서 일어난 생활상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가사작품은 鄕村士族들의 삶을 토대로 하여 창작되었고, 그들에 의해 발전되었다.

이러한 鄕村士族들의 작품들은 한 공간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기준에 따라서 上, 中, 下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權力’은 다른 것과의 관계에서 형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계급인 향촌사족이지만, 타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權力이 변주한다. 中央의 양반과 견줄 때는 長興士族의 권력은 下流에 포함되고, 같은 부류의 鄕村士族들과 견줄 때에는 中流에 속하며, 향촌사족들이 아닌 평민 혹은 천민들 또는 향촌사족들이 누군가를 가르칠 때에는 그 대상은 上流가 된다.

장흥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향촌사족들 역시 벼슬에 나아가 이름을 드높이고 나라에 이바지하고자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향촌사족들은 ‘鄕村士族’이라는 신분의 한계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벼슬에 나갈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다고 그들은 향촌사족이라는 신분사회에 대한 불만을 가졌으며, 더불어 그 고장의 아름다움을 벗삼아 그들의 집단에서 지켜야 할 질서와 규범을 만들어 지키며 살아갔다. 이렇듯 주체는 질서와 규범을 정하거나 만들기 위해서 권력이 필요하다. <自悔歌>는 유교윤리의 기본사상을 중심으로 형제와의 우애와 부모님께 不孝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작자는 참회의 뜻을 전하며 도덕적 관념을 중요하게 생각한 경우로 효를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人日歌>는 동족마을에서 서로 우애하고 화합을

그리며, 협동정신을 키우도록 권고한 작품이다. <自悔歌>와 <人日歌> 두 작품 모두가 敎訓을 바탕으로 한 작품이다. 두 작품을 지은 향촌사족들은 鄉村에서 지켜야 할 질서와 기본 규범들을 만들어 향촌사족이라는 주체로서의 위치와 권력을 지키고자 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가사작품 이외에도 <傍村 上下契>나 <傍村 洞約>은 공동조직을 이끄는 데 필요한 규범들이다.¹⁶²⁾ 鄉村士族은 그들만의 사회를 만들어서 그들 나름대로의 규범을 정해서 엄격하게 지키게 했다면 그 규범을 만드는 향촌사족들은 권력을 소유하는 상층부류에 해당될 것이다.

권력이 중간에 속한 향촌사족의 경우는 다른 대상과 서로 동등한 입장에 놓인 경우이다. 아래 계층을 지배하고 위의 계층에 지배당하는 지배-종속의 양면성을 내포한 계층이다. <天風歌>와 <金塘別曲>의 주체 또한 鄉村士族이다. 두 작품에 드러난 ‘草廬’와 ‘布衣’, ‘鄉關’의 모습은 ‘鄉村’인 고향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들인 ‘鄉村士族’을 가리키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에서는 그들이 겪어야 했던 억울한 상황을 묘사하기도 하였다. 두 작품의 첫머리는 ‘공명(功名)의 빅명(薄明)하고 부귀(富貴)에 연분(緣分)업서’, ‘일신(一身)의 병(病)이 드어 만사(萬事)에 흥황(興況) 업서’라고 하여 모두 가난한 삶에 대한 처지와 출세하지 못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 작품들은 아름다운 自然風光을 소개하고 있으면서도 그 내면에는 鄉村士族들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사회적 현실은 꿈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이 때문에 작품을 통해서 이를 수 없는 꿈을 표출하고자 한다. 따라서 현실의 소외는 좌절된 현실로 드러나고, 이러한 불만은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표현하여 작품으로 승화하는 은유적인 공간을 드러냈다. 鄉村士族을 통한 향촌사회는 아름다운 自然으로 표현하였고, 이를 다시 신선세계로 형상화하였다. 즉, 향촌사족들이 사는 鄉村은 神仙들이 머무는 곳으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향촌사족들은 신선과 같은 모습으로 그려졌다. 그러나 향촌사

162) <傍村 上下契>, <洞契>, <講契> 등은 동일한 구성원들이 중복되어 복잡하게 조직되어 있었다. 이러한 조직체제 아래에서 장흥위씨 문중은 향촌내의 이주성씨로서 기존 세력들에게 협력체계를 유지하다가 점차 방촌이 유력성씨로 성장하면서 향촌 내 제반사는 물론 방촌마을을 장흥위씨 동족마을로 변형시켰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해준 외, 앞의 책, 1994, 127면.

족들은 현실에 대한 불만을 自然이라는 空間에 은유적인 표현하여 인식한 부분이며, 自然은 곧 현실도피의 공간인 것이다. 그들은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마을에 있는 아름다운 自然을 소개하는 동시에 향촌사족들은 그들의 고민과 걱정을 그곳에 녹아내려고 노력한 흔적들이 역력하다. 이는 고향을 사랑하는 향촌사족들의 생활상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낮은 권력을 형성하는 경우는 中央과 대립되는 향촌사족들이다. 中央과 멀리 떨어져 경제적, 문화적 혜택도 없이 혹은 집중이 잘 되지 않고,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서 지방관원의 부정부패에 시달리게 되는 등의 다양한 문제를 거론할 수 있다. <壬癸嘆>은 부조리한 세력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작품이다. 작품의 대부분이 백성에 대한 수탈상을 진술하고 있다. 그 가운데 한 장면을 서술하고자 한다. ‘賑恤廳이 不恤하니 解懸廳이 倒懸이라/ 大同廳을 謹避하여 書役廳을 살펴보니/ □고한 貯환債가 어디어디 식어진고’라는 부분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진휼청’, ‘해현청’, ‘대동청’은 조선시대 나라에서 주관하는 구휼기관이었다. 그러나 향촌사람들은 국가기관에서도움을 받기는커녕 도리어 백성들은 더욱 극심한 고난을 받게 된다. 鄉村은 중앙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지리적,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부조리한 관리들에게 남아있는 곡식까지 다 뺏기고 만다. 주체인 향촌사족은 중앙집권에 대한 부조리함과 불평등함이 불만으로 가득하다. 작자가 장흥지역 향촌이 아닌 중앙세력과 조금 더 가까운 곳에 있었다라면 중앙에 갖는 적대감과 長興의 鄉村이 갖는 소외감을 조금이나마 덜 느끼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권력의 층위에 따라 주체의 대상들이 달라지며, 또한 주체의 행위도 달라진다. 작품에 드러난 표상체계 역시 주체, 대상, 주체의 행위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작품의 주제에 따라 메타포와 이념적 표상, 알레고리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메타포’에 관한 것이다. 이는 구체적인 것에서 관념적인 것으로의 변화를 나타낸다. 여기서는 ‘自然’이 주체의 대상이 된다. 自然은 양면적인 모습을 보인다. 주체인 향촌사족은 自然이라는 공간에서 ‘현실’과 ‘환상’의 괴리현상을 형성한다. 현실의 자연은 대부분 아름다운 지리적, 지형적인 특징으로 이루어지지만, 환상의 자연은 작가의 내면의식을 포함한 관념적인

대상으로서의 의미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권력이 없는 주체는 대상으로서의 自然을 드러냈고, 그 대상을 바탕으로 현실 공간의 아름다움을 재현하고자 했으며, 풍경 좋은 유명한 장소를 소개하는 행위로 향촌사족의 내면을 환상 공간으로 대체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 작품들은 紀行, 遊覽이라는 큰 주제를 형성하게 된다.

두 번째는 ‘이념적 표상’에 관한 것이다. 향촌사족들은 동족마을을 형성하였고, 그들만의 규범과 질서를 만들어서 생활하였다. 여기에 드러나는 향촌사족들의 규범과 질서는 도덕적 이념이다. 향촌사족이라는 주체는 집단사회에서 공동체적인 생활을 강조하였고, 그들의 행위에 따라 조선시대의 유교적 사상을 바탕으로 한 규범과 질서를 작성하였다. 이는 집단생활의 단결력과 함께 유교윤리의 강화를 가져왔다. 집단생활을 하는 향촌사족들은 특히나 ‘孝’와 깊은 관련이 있다. 이러한 까닭으로 향촌사족들이 규범과 질서를 중시한 경우에는 敎訓적인 주제를 갖게 된다.

마지막으로 ‘알레고리’에 관한 것이다. ‘알레고리’는 인간사회의 한 단면을 극적으로 제시하여 하나의 교훈적 주제를 표출하고 있는 수많은 우화와 비유담을 드러낸다.¹⁶³⁾ 이러한 알레고리는 모호한 의미를 나타내며, 어떤 사물 하나를 말하고 다른 의미를 덧붙인 개념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향촌사족들은 ‘中央’과 대립되는 양상을 보인다. 작품에서 더 구체적으로 따져본다면, 중앙세력을 압압한 ‘쥐’로 묘사하고 있다. 작품에서 쥐는 진흙청 창고의 진 곡미를 취하였고, 배급받은 곡식에는 빈 곡식을 섞어 분배하는 것으로 백성을 착취하는 모습을 은연 중 드러내고 있다. 비록 쥐를 인용한 이야기이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중앙의 귀족이 백성에 대해 수탈하는 행위를 풍자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현실비판 혹은 현실적 염원을 담은 작품들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주체와 대상, 행위의 관계를 통해서 작품들의 목적이 달라질 수도 있다. 첫 번째로는 부모를 섬기고 형제와 우애하며 지내야 한다는 유교윤리를 바탕으로 한 敎訓의 경우에는 올바른 윤리의식을 키우는데 목적이 있다.

163) 정끝별, 「현대시에 나타난 알레고리의 특징과 유형」,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1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3), 307면.

그렇기 때문에 동족마을이 형성된 공간에서는 나라를 근간으로 하는 유교적인 질서와 규범으로 정한 것이며, 그 동족집단 사이의 단결력을 강화시키는데 큰 의의를 갖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自然을 유람하여 그 아름다움을 전하고자 하는 紀行의 경우에는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을 아끼는 마음과 더불어 문화의식을 강화하고 고취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마지막으로 현실사회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비판의 경우에는 中央과 차별되는 소외감을 극복하고, 잘못된 관리들의 부패한 현상을 보여주어 비판의식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長興’은 문화를 담은 하나의 작은 공간이다. ‘長興’은 유명하지도 크지도 않은 아주 작은 시골마을이다. 고려시대에는 이름을 널리 떨쳤고, 조선시대에는 도호부에 이르렀다. 이곳은 작은 마을이지만, 그곳에 사는 향촌사족들은 스스로 주체가 되어 그들만의 사회를 형성하며, 그에 맞는 규율과 의례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이는 다시 歌辭라는 형식으로 하니 그 전의 가사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작품에 대한 주제는 다르지만, 이러한 가사문학의 영향은 상호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나타낸다.

16세기~17세기에 이르는 작품에서 ‘長興’은 지형적으로 매우 아름다운 곳으로 묘사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山水를 노래할 수 있는 풍경을 위주로 하여 紀行歌辭나 江湖歌辭로 발전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江湖歌辭에서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답고 신비한 풍경을 소재로 신선세계에 빗대어 표현하였으며, 紀行은 ‘여행의 구조’에 녹아내어 가사문학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아름다운 山水를 즐기하고자 하는 紀行歌辭의 경우는 호남문학의 특징을 대변하였다. 하지만, ‘長興’이라는 아름다운 山水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의 풍족함으로 인해 시가문학이 형성되고, 발달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는 많은 작품들이 형성된 원동력이 되었던 듯하다. 또한, 17세기 중엽에 이루어진 동족마을은 ‘長興’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동족마을이라는 ‘傍村’을 통해, 중앙과의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중앙과 대립되는 ‘鄉村’을 형성하였다. 지리적으로는 중앙의 간섭이 없고, 정계나 정치로부터 멀리 떨어진 외진 곳이었으나 이들은 스스로를 의지하며 문중사회의 유대감을 느꼈다. 따라서 그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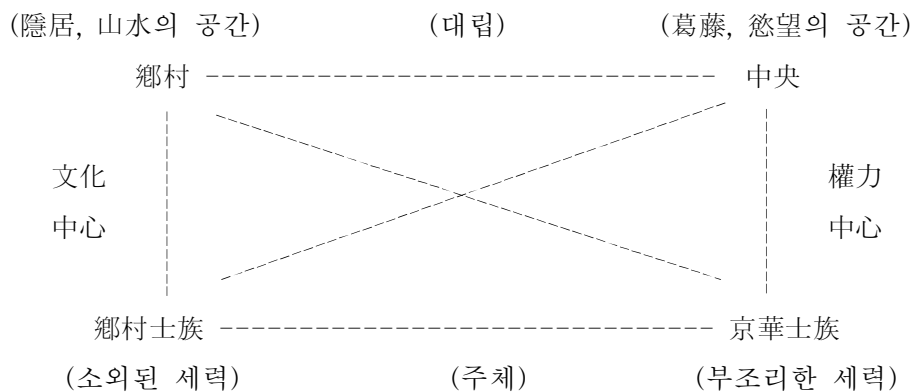
그들 스스로가 정한 이러한 규례와 질서는 윤리로서의 문중활동을 더욱 활성화시켜 발전해 나아가는데 주력했던 듯하다. 또한, ‘鄕村’은 신분적 권력관계를 보여준다. 중앙의 관료들에게는 비판과 풍자의 모습으로 사회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도, 鄕村의 후학과 백성들에게는 도덕과 교훈의 모습으로 유교적 사상을 따르게 하였다. 이렇게 창작된 교훈가사의 경우는 한 향촌사족들은 가문구성원들에 대한 교화를 강화하는 의도에서 쓴 작품인 것이다.

이러한 향촌사회에서 현실을 비판하는 작품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들은 스스로가 중앙과 타협하려 하지 않고, 교류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대체로 향촌의 지식인들로, 이러한 작품은 중앙에 대해 불만이 많았던 향촌사족들이 창작한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향촌의 문제를 정확하게 꿰뚫어볼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이 창작해야 했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鄕村의 지식인들이었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山水를 지닌 ‘長興’은 참으로 매력적인 곳이다. ‘天冠山’을 통해서 작가들을 신선세계로 빠져들게 하였고, 다시 찾아오고자 하는 안타까움을 표출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의 향촌사족이라 일컬어지는 방촌지역의 사족들은 스스로 문화 중심적인 의식을 갖게 하였다. 방촌사람들에게 이러한 의식은 지방의 작은 마을을 지키는 하나의 의미라기보다는 예전의 화려한 때를 기억하고자 하는 염원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다. ‘長興’에 살고 있는 향촌사족들은 스스로 中央과의 대립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그런 반면, 더불어 中央을 지향하고 따르려는 모습 또한 작품을 통해 내보이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스스로 이중적인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지리적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에 형성된 동족마을은 ‘鄕村’이라 불리면서도 내면적으로는 이상을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로 활용되었으며 이러한 하나의 작은 공간에서도 이중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문화지리학적 관점은 ‘작품에 드러난 주체’와 ‘長興의 공간에서 발생한 문화’가 ‘가사라는 작품’으로 어떻게 형상화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작품을 지은 주체는 향촌사족이다. 그들은 비록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에 나아가지는 못했으나 그들 나름의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천관산을 통해 드러냈으며, 이 공간은 신성성을 강조하여 아주 각별한 곳임을 부각시키기도 하였다. 또한, 동족마을로 인해 하나의 단결체임을 드러냈으며, 경제적 뒷받침이 없는 鄉村이라는 점에서 자급자족을 통한 경제력을 강화하려 권농을 강조하였다. 게다가 가문구성원들의 교화를 위해서 그들은 스스로의 규범과 질서를 만들어 門中活動을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그들은 中央과 멀리 떨어져 산다는 지형적인 단점을 장점으로 부각시켜 ‘안에서 안을 바라보는 입장’이 아닌 ‘밖에서 안을 바라보는 제 3의 입장’에서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직설적으로 표현하여 부당한 관리들을 벌하고자 하였다. 또한, 그들은 역사와 기록을 통해서 화려한 그때를 소망하며 고장의 발전을 염원하였다. 필자는 공간으로서의 鄉村과 中央, 주체로서의 鄉村士族과 京華士族을 중심으로 하여 서로 대립되는 4개의 요소들을 가지고 서로 어떤 관계들을 맺고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위의 그림은 주체들이 생각하는 공간의 활용에 따라서 대상과 행위가 달라진 상황을 나타냈다. ‘鄉村’에서는 ‘鄉村士族’이라는 주체가 있으며, ‘中央’에서는 ‘京華士族’이라는 주체가 있다. ‘鄉村’과 ‘中央’은 서로 이항대립적인 공간으로 표현하였으며, 이러한 이질적인 공간에서 드러나는 현상들을 체계화하고자 하였다. 주체가 京華士族이라면 ‘鄉村’이라는 공간은 ‘山水의 공간’이자 ‘隱居의 공간’으로 설명할 수 있다. 京華士族의 눈에 비친 鄉村은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는 공간으로 있을지언정 죄를 짓고 다른 곳으로 귀양의

공간으로도 그려진다. 그런 반면 鄉村士族들이 본 鄉村은 물론 아름다운 자연을 가진 낙원으로 그려지고 있으며, 고향을 자랑할 수 있는 곳으로 安貧樂道の 삶을 영위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그렇기 때문에 京華士族에게 ‘鄉村’은 休息, 山水의 공간인 반면, 부정적인 의미로 隱居의 공간으로도 그려질 수 있는 것이다.

이와는 다르게 ‘鄉村士族’이 주체가 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中央’은 權力의 공간이자 渴望의 공간으로 나타낼 수 있다. 鄉村士族들은 어릴 때부터 경제적 능력, 지위, 명예, 권력 따위의 것들을 키우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갖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그러나 ‘鄉村’ 혹은 ‘鄉村士族’이라는 지역적, 신분적 특성으로 인해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落鄕하거나 혹은 나이가 들어 세월이 오랜 경우가 되더라도 수십 번, 수백 번을 시험에 응시하고도 포기하지 못한 채 계속 과거에 얽매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鄉村士族들은 中央을 벼슬에 진출하고자 하는 꿈을 키우는 渴望의 공간으로 드러났고, 현실의 꿈을 이루는 욕망의 공간으로도 그려졌다.

공간의 측면에서 살펴볼 때, ‘中央’은 향촌사족을 소외된 세력으로 취급한다. 각 도마다 여러 부류의 향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中央은 지형적으로 中央과의 거리가 먼 곳에 존재할수록 소외되는 기준이 점점 커지게 마련이었다. 왜냐하면 中央과의 거리가 멀다보면 中央에서 내려지는 관례나 법규들은 느리게 전파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보면 영향을 미치는 범위 또한 작아지기 때문에 점점 더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장흥지역 역시 소외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음을 알 수 있다. 현실비평가사의 작자층을 ‘지방하층사족층’이라고도 일컫는다.¹⁶⁴⁾ 京華士族들이 鄉村士族들을 가리키는 ‘지방하층사족’이라는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화사족들은 ‘鄉村’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에서나 용어 자체에서도 소외 혹은 멸시하는 태도를 드러냈다. 즉, ‘지방’이라는 용어는 中央과는 다른 소외됨을 포함하고 있으

164) ‘鄉村’에 사는 사람들은 향민들의 이해와 경제적 지위, 그리고 향촌 내 지배력을 잃지 않았던 사회적 신분을 아울러 나타내주는 것으로 ‘지방하층사족층’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고순희, 앞의 논문, 1990, 71면.

며, ‘하층사족’이라는 용어는 상층부류에서 도외시하는 경향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鄉村’은 중앙 아전들을 부조리한 세력으로 취급한다. 조선 후기에는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혼란한 시기에 이르러서 중앙에서 벼슬하고 있는 아전들은 民心을 수습하고 경제를 회복해야 했다. 하지만, 중앙 아전들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 탐욕에 휩싸여 부조리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해 왔다. 이러한 시기에 향촌사족들이 지은 현실비판 작품들은 많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鄉村의 주체인 향촌사족들이 그들이 살고 있는 공간인 鄉村을 배경으로 하여 歌辭라는 표현수단을 가지고 鄉村의 피해 양상을 널리 알려 다른 향촌에게 알리거나 다른 향촌 사회의 피해상황들을 알려 또 다른 피해를 막아보고자 했었던 것이다. 또한, 長興의 향촌사람들은 동족마을을 이루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쉽고도 빨리 공동체적 결속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통해서 향촌사족들은 중앙 아전들이 저지른 不正腐敗의 모습을 빨리 다른 곳에 알려 長興 이외의 다른 지역에도 피해를 주지 않게 할 수 있는 가장 알맞은 방법 중의 하나였던 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보다는 부당한 권력을 행사하는 중앙권력층에게 따끔한 충고를 던지며 다시는 부정행위를 할 수 없게 하고자 하는 의도였으며, 향촌에 살고 있는 여러 사람들의 안녕과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보장을 위해 지어진 작품이었다. 그러므로 향촌사족들은 현실비판의 작품을 통해서 부조리한 중앙아전들의 모습을 낱낱이 파헤친 경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향촌사족들이 바라본 鄉村의 모습과 中央 아전들이 바라본 중앙의 모습을 살펴보자. 향촌사족들에게 ‘鄉村’은 고향 이상의 기대를 갖게 한 공간으로 생각하였다. 향촌사족들에게 고향이라는 곳은 향수만 불러일으키는 공간이 아니라 향촌사족으로서 힘든 상황일 때 위로의 공간이 되어주기도 했고, 아름다운 자연을 지닌 궁지와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공간이기도 했다. 또한, 가장 화려했던 고려 때의 모습을 기억하는 ‘文化中心’의 공간으로도 그 의미를 더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中央 관리들이 바라본 ‘中央’은 권력중심의 공간으로 그려졌다. 관직에 오르고 싶어도 오를 수 없는 향촌사

족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드러냈고, 이와는 반대로 중앙에서 권력과 명예를 거머쥔 아전들의 권력 중심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공간으로 형상화되기도 하였다.

長興地域의 鄕村士族들에게 가사문학은 아름다운 고장을 소개하고 遊覽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혹은 집단의식을 강화시키는 도구이면서 현실사회를 비판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가사 텍스트는 또한 長興의 鄕村士族들이 자부심을 드러낼만한 표현방식 중의 하나였던 것이다. 이렇게 작품의 주체와 권력, 행위, 공간, 가사 텍스트 등의 관계는 상호 역동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향촌사족들의 의식과 표상체계를 드러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장흥지역의 가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문학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리라 본다.

VI. 결 론

지금까지 장흥지역의 가사문학에 나타난 주제를 살펴 문화지리학적 표상과 담론 등을 사회적, 지리적 맥락 속에서 살펴보았다. 이 논문에서는 단순히 작품에 드러난 공간만을 바라보지 않고, 주체, 가사텍스트, 공간이라는 세 층위에서 ‘文學’이 ‘文化’로서의 해석이 가능한지를 언급하고자 하였다.

전체 논의의 토대로서 II장에서는 작자층의 특성과 가사의 전승양상에 대해 검토하였다. 16세에서부터 19세기에 이르기까지 필자가 연구대상으로 삼고자 했던 가사작품을 중심으로 그 작가들의 특성에 대해 논하였다. 또한, 장흥지역의 가사문학은 초기 기행가사를 중심으로 하여 山水의 아름다움을 즐기면서 강호가사의 느낌에서 이후에는 신선세계의 동경으로서의 신성하고 황홀한 山水의 風景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현실세계와는 다른 분위기를 창조하였다. 17세기 중반부터는 동족마을이 형성됨에 따라 큰 틀은 중앙집권체제인 유교윤리에서는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그 지역사람들 스스로가 규범과 질서를 만들어 그들만의 교훈과 경계를 선정하여 그들만의 집단 의식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그들이 강조하고자 하는 교훈과 경계의 내용은 대부분 孝와 忠에 관련된 것이었으며, 이는 유교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었다. 그들은 스스로 소외된 향촌계층이라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나라에 대한 걱정과 안위의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보이기도 하였다. 후에 18세기에 향촌사족들은 서울이 아닌 향촌에서 일생을 보내면서 중앙집권체제의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즉, 이러한 불만에 대한 폭발은 향촌사족 및 백성들을 괴롭히는 부조리한 관리들에 의해서였다. 이에 향촌사족들은 가사작품을 통해 중앙관리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것이다.

III장에서는 향촌지역의 특성과 관련하여 지역문학의 개념에 대해 정리하였다. 장흥지역이 속한 향촌지역의 특성을 살폈고, 장흥지역의 특성을 선별하기 위해 장흥의 지리적, 역사적 인식과 더불어 문화적 인식까지 살펴보았다. 지리적인 특징으로는 서울과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정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三面이 육지이고, 一面이 바다인 자원이 풍부한 곳이라 하였다. 이에 자원이 풍부해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곳임을 나타냈다. 이에 사람들의 정서도 활발하여 시가가 발생하고 발달하기에는 아주 좋은 조건임을 드러냈다. 그러나 서울과의 먼 거리 때문에 중앙에서는 소외되기 쉽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恨’의 감정이 짙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17세기 중반에 이루어진 동족마을의 형성으로 장흥지역에는 위씨 집성촌을 형성하고 발달시켰다. 역사적으로는 고려시대에는 공예태후의 친정이라는 명목으로 장흥지역의 사람들은 스스로를 토호세력의 문반에 올려놓았으나,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이와는 반대로 소외된 향촌사족 집단으로서의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들은 유교적인 실천 규범을 지켰고, 가문의 번성을 위해 결속하고 강화하였다. 또한 勸農, 治産 등으로 인해 그들 스스로 경제적 기반을 유지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향촌에서 발생하는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또한, 지역문학의 쟁점에서는 다양한 지역문학의 개념들을 새롭게 재정립하고자 하였다. 이전의 지역문학은 중앙문학과 대립되는 관계였으나 더 이상 중앙문학과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동등한 입장에서 발전해야 함을 나타냈다. 그러므로 소외된 지역문학의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지역문학이 연구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향촌지역의 특성을 살피기 위해 경기, 경상, 충청 지역에 나타난 同族集團을 소개하였다. 이에 필자는 전라도의 장흥지역과 비교하여 장흥지역의 특성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동족마을의 형성되는 과정이나 발전되는 부분에서 장흥지역만의 특별한 동족마을의 특이성은 발견할 수 없었다. 다만, 17세기 이후에 형성된 동족마을에서 유교윤리를 가사라는 양식으로 표현하여 지향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다른 지방의 동족마을을 보더라도 가사작품으로 유교윤리를 내세운 경우는 거의 없었다.

IV장에서는 장흥지역의 가사의 주제적 특징을 논하였다. II장에서 살핀 작자들 혹은 작자층들이 지은 가사작품의 주제적 특징을 찾아서 주제에 대해 작품을 짓게 된 이유들을 설명하면서 작자와 주제와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초기에 유행했던 가사작품 가운데는 주제적 특징으로 자연 유람

을 들었다. 아름다운 자연을 자랑하는 장흥지역의 自然, 遊覽에 대한 風趣를 바탕으로 장흥지역의 향촌사족들이 유람한 공간을 위주로 長興과 長興이 아닌 곳으로 나누어 그곳의 풍경과 작자들의 생각을 정리하였다. 두 번째는 儒敎 倫理에 대한 提示로 향촌사족들의 큰 특징으로 꼽히는 동족마을의 집단 의식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스스로 경제적 지원이 없었던 그 때에 자급자족하는 생활을 강조해야만 했고, 가문구성원들의 문중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여 가사라는 작품을 가지고 그들을 교화하기도 하였다. 동족마을의 특성이인 집단문화에 대한 것으로 ‘집단 유교윤리의 강화’와 ‘警戒·啓蒙으로서의 유교윤리’로 나누어 그 특징을 작품에 비취 잘 드러냈다. 이 부분은 유교윤리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三綱五倫과 관련하여 집단 윤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부분과 勸學과 勸農의 형태로 하는 일반적인 윤리의식으로 설명하였다. 세 번째로는 不正한 官吏에 대한 批判意識에 관한 부분이다. 이 부분은 다시 鄉村土族들의 눈에 비친 중앙집권세력인 관리들의 부조리한 부분에 대한 풍자적인 면을 설명하였다. 또한, 자연재해로 인해 飢餓에 허덕이는 불쌍한 농민들의 삶과 게다가 그곳에서 드러나는 暴政의 모습을 통해 나타난 부조리한 관리들의 모습에 대해서도 논하였다. 향촌사회의 특징을 잘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장흥은 서울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소외된 향촌으로서의 면모를 잘 드러냈다. 이에 서울 즉, 중앙에 대한 불만을 토로할 방법을 찾지 못함에 표출할 수 있는 가사 작품을 통해서 현실을 비판하는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였던 것이다. 네 번째로는 安貧樂道적인 삶을 강조하였다. 벼슬에 나가지 못한 향촌사족들은 과거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기도 했지만, 그들 스스로는 위안으로서 자연과 벗삼아 세속에 묻혀 사는 은일자의 삶을 택하기도 하였다.

V장에서는 가사작품 속에 드러난 문화지리적인 표상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는 위에서 살핀 장흥지역 가사의 주제적 특징들을 토대로 장흥지역에서 발생한 주제적 특징이 공간과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에 살펴보았다. 필자는 長興이 가지고 있는 공간사적 명제들을 뽑아 위의 작품들에 나타난 주제들을 살펴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선별하였다. 첫 번째는 ‘중심과 주변의 위계화’이다. 이는 지형적인 공간의 다양한 의미 가운데서 그 특징들을 토대

로 하여 중심과 주변의 입장에서 드러냈다. 중심과 주변의 관계를 정립하고 있는 ‘長興’이라는 공간에서 보이는 중심의식의 강화 의식과 더불어 소외된 주변부 의식에 대해 논하였다. 하나의 같은 공간임에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달라진 사회현상을 이해하고자 했던 것이다. 고려시대 화려한 공간의 모습을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추구하려는 모습을 찾아보았으며, 그와는 반대로 중심과 떨어진 공간에 대한 소외감을 드러낸 모습 역시 작품 속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두 번째로는 ‘慾望의 現實化’이다. 이 부분을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본다. 그 하나가 ‘現實과 幻想 사이의 괴리 현상’이었다. 시적 화자는 현실에서의 山水自然과 현실에서의 神仙世界와의 관계를 언급하였다. 같은 하나의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은 현실을 토대로 하였고, 어느 한쪽을 환상을 체험하는 공간으로 시적화자의 태도를 살펴보았던 것이다. 또한, ‘중속된 공간의 현실비판 의식’을 통한 저항과 반발의 양상들에 대한 것이었다. 하나의 나라 안에 있는 자그마한 사회를 논한 것이다. 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은 중속된 공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속된 공간에서 그 독립된 하나의 공간에 대한 비판의식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誇示의 空間化’이다. 작품에서 언급한 향촌사족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애향의 긍지와 자부심을 드러냈으며, 사회 기능을 강화하고 경험을 반영하여 가문 중심의 생활상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VI장에는 장흥지역의 가사문학의 주제적 특징과 문화지리학적 표상으로서의 의의를 나타냈다. 작품을 지은 주체인 작가는 향촌사족이었다. 그들은 그들이 사는 공간에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호남의 명산이라는 천관산을 통해서 스스로 그 신성성을 드러내고자 작품을 만들기도 하였다. 또한, 그들은 그들만의 공간을 만들어 즉, 동성마을을 형성하여 집단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다. 가문구성원들은 자급자족을 하는데 서로 힘을 합하였다. 화려한 때를 갈망하며 고장의 발전을 염원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하여 그들 스스로는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만의 세상을 만들고자 함을 가사작품을 통해서 잘 드러내고 있었다. 환경 즉, 공간이라는 것과 주제, 그리고 가사문학이라는 텍스트라는 것은 상관관계에 있는지를 논하며, 장흥지역 가사문학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문학에서도 다음과 같은 문화지리

를 바탕으로 한 문학연구가 필요하리라고 본다. 그러므로 필자는 이러한 문화지리적인 연구의 중요성을 밝히고 이에 대한 방안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장흥가사에 드러난 공간은 또한 시기별로 長興이라는 공간을 대신하고 있는 듯하다. 16~17세기는 장흥으로서의 아름다운 山水를 체험하는 경험의 공간을 그렸으며, 18세기는 향촌사족들의 의식 공간으로서 유교윤리의 강화와 현실비판의식의 공간으로 그렸다. 또한 19세기 초에는 향촌사족의 생활 공간으로서 이 모두를 포함하는 복합적인 공간을 드러냈다. 이를 토대로 하여 장흥의 공간을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더 많은 작품들이 지금까지 창작되고 있다. 물론 어떤 작품 하나만을 보고, 공간에 대해 단정 지어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장흥지역 가사문학에 드러난 장흥만의 공간은 향촌사족에게 있어서 山水를 체험하는 경험의 공간으로서의 기능과 유교윤리를 지향하는 교훈적 공간으로 실현되었던 것이고, 나아가 19세기에 이르러서는 이를 모두 포함하는 복합적인 공간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냈던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장흥지역 가사문학의 문화지리학적 연구는 단순히 문학작품을 현장이나 지역과 연관하여 평면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주제, 대상, 행위, 권력, 표상체계를 종합하여 지역문학의 총체적인 모습을 입체적, 역동적으로 드러냈다. 이러한 작업은 ‘長興’이라는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지역문학에도 적용이 가능하리라 본다.

□ 참고문헌

1. 자료

《高麗史》

《新增東國輿地勝覽》

《輿地圖書》 上下, 국사편찬위원회

《存齋集》 <戒辭>, <家中四時會飲規>

《存齋全書》 上下

《韓國地名總攬》 4 <忠南> 下, 한글학회, 1874, 170면.

《光山盧氏世譜》

《魏氏世譜》

《止止齋遺稿》

《支提誌》

《長興郡誌》

白光弘, 정민 역, 『岐峰集』, 역락, 2004.

2. 단행본

강인호, 한필원, 『居住의 文化的 의미』, 세진사, 1999.

김석중 외, 『長興의 歌辭文學』, 장흥군, 2004.

김수복, 『한국문학공간과 문화콘텐츠』, 청동거울, 2005.

김석중, 백수인, 『長興의 가사문학』, 장흥군, 2004.

김석희, 『조선후기 詩歌 연구』, 월인, 2003.

김석희, 『存齋 魏伯珪 문학연구』, 이회문화사, 1995.

김신중, 『전남문학변천사』, 전남문학백년사업추진위원회, 한림, 1997.

김종태, 『정지용 시의 공간과 죽음』, 월인, 2002.

김창원, 『江湖詩歌의 미학적 탐구』, 보고사, 2004.

- 김태준, 『문학지리 · 한국인의 심상공간』 상 · 중 · 하, 논형, 2005.
- 남기택 외, 『경계와 소통, 지역문학의 현장』, 국학자료원, 2007.
- 동아시아고대학회, 『동아시아의 공간관』, 경인문화사, 2007.
- 박명희, 『호남 한시의 공간과 형상』, 경인문화사, 2006.
- 박용숙, 『조선후기 향촌사회사 연구』, 혜안, 2006.
- 박준규, 『호남시단의 연구』, 전남대학교 출판부, 1998.
- 박태일, 『한국지역문학의 논리』, 청동거울, 2004.
- 박태일, 『한국근대시의 공간과 장소』, 소명, 1999.
- 소재영, 『조선조 문학의 탐구』, 아세아문화사, 1997.
- 손오규, 『산수미학탐구』,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6.
- 신영명 외, 『조선중기 시가와 자연』, 태학사, 2002.
- 심진경, 『한국문학과 환상성』, 예림기획, 2001.
- 양기수, 『文林 고을 長興』, 장흥문화원, 1999.
- 유정선, 『18, 19세기 기행가사 연구』, 역락, 2007.
- 이어령, 『공간의 기호학』, 민음사, 2000.
- 이기봉, 『지리학교실』, 논형, 2007.
- _____, 『조선의 도시, 권위와 상징의 공간』, 새문사, 2008.
- 이무용, 『공간의 문화정치학: 공간, 그곳에서 생각하고, 놓고, 싸우고 만들기= Cultural politics of space』, 논형, 2005.
- 이상보, 『18세기 가사전집』, 민속원, 1991.
- 이종묵, 『조선의 문화공간: 조선시대 문인의 땅과 삶에 대한 문화사』 1~4권, 휴머니스트, 2006.
- 이진경, 『문화정치학의 영토들』, 그린비, 2007.
- 이푸 투안, 구동회 역, 『공간과 장소』, 대운, 1999.
- 이해준, 『호남사회의 이해』, 풀빛, 1996.
- _____, 『역사속의 전라도』, 다지리, 1999.
- _____, 『조선후기 문중서원 연구』, 경인문화사, 2008.
- _____, 『조선시기 촌락사회사』, 민족문화사, 1996.
- _____, 『전통문화마을 장흥 방촌』, 장흥군 방촌마을지편찬위원회, 1994.

- 이현식, 『문화도시로 가는 길- 지역문학과 문화에 대한 성찰』, 다인아트, 2004.
- 이혜순, 『조선 중기 유산기문학』, 집문당, 1997.
- 임덕순, 『문화지리학』, 법문사, 2000.
- 장보운 외, 『월경하는 지식의 모험자들』, 한길사, 2006.
- 장석주, 『장소의 탄생』, 작가정신, 2006.
- 정진용, 『조선시대 향촌사회』, 한길사, 1998.
- 정만조, 『지방촌과 사족』, 국민대 출판부, 2004.
- 정홍모, 『조선후기 사대부 시조의 세계인식』, 월인, 2001.
- 조동일, 『지방문학사- 연구의 방향과 과제』,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 철학아카데미, 『공간과 도시의 의미들』, 소명출판, 2004.
- 최강현, 『한국기행가사연구』, 신성출판사, 2000.
- _____ 외, 『한국기행가사 작품연구』, 국학자료원, 1996.
- 최상은, 『조선 사대부가사의 미의식과 문학성』, 보고사, 2003.
- _____, 『가사문학의 이념과 정서』, 보고사, 2006.
- 최재남, 『사림의 향촌생활과 시가문학』, 국학자료원, 1997.
- 오영교, 『조선후기 사회사 연구』, 해안, 2005.
- 한국역사연구회, 『조선은 지방을 어떻게 지배했는가』, 아카넷, 2000.
- 최영준, 『한국의 짚가리- 사라지는 민속경관의 문화지리학적 해석』, 한길사, 2002.
- 이중환 지음, 이익성 옮김, 『택리지』, 을유문화사, 2008.
- 임기중, 『한국가사문학주해연구』, 아세아문화사, 2005.
- 후자오량 지음, 김태성 옮김, 『중국의 문화지리를 읽는다』, 휴머니스트, 2005.
-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우리 국토에 새겨준 문화와 역사』, 논형, 2003.
- 역사문화학회, 『지방사연구입문』, 민속원, 2008.
- Pamela Shurmer-Smith, 『Doing Cultural Geography』, 2002.
- Norton, William, 『Explorations on the Understanding of Landscape: A Cultural Geography』, New York, Greenwood Press, 1989.

Samuel R. Levin, 「Allegorical Language」, Morton W. Bloomfield, ed., 『Allegory, Myth, symbol』, Harvard University Press, 1983,
Thompson, J., Ideology and Modern Culture,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3. 학위논문

- 고순희, 「19세기 현실비평가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 권경록, 「조선후기 한강유역의 문학지리 연구- 양근, 여주,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 김명자, 「조선후기 안동 하회의 풍산류씨 문중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 김중서, 「16世紀 湖南詩壇과 唐風」,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 김영훈, 「〈關西別曲〉과 〈關東別曲〉의 비교연구」, 목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박덕구, 「〈關西別曲〉과 〈關東別曲〉의 비교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 박 미, 「〈關西別曲〉과 〈關東別曲〉의 비교연구」, 조선대 석사학위논문, 2003.
- 박연호, 「朝鮮後期 敎訓歌辭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 송은영, 「현대도시 서울의 형성과 1960-70년대 소설의 문화지리학」,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 송팔성, 「朝鮮時代 鄉村詩歌 談論의 구조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 엄은영, 「강원지역 歌辭의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 안혜진, 「강호가사의 변모 과정 연구- 누정계와 초당계 가사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98.
- _____, 「18世紀 鄉村士族 歌辭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이힐환, 「향촌사회의 문화공간과 가사향유」, 경남대학교 석사논문, 2001.

위홍한, 「위백규의 시문학연구」,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전일환, 「송강사가와 그 이전 가사의 비교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9.

최현재, 「박인로 시가의 현실적 기반과 문학적 지향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4. 논 문

강학순, 「지리학과 문학의 접점」, 『지리학논집』 10·11집, 한국지리학회, 1990.

고순희, 「민란과 실전 현실비판가사」, 『한국고전연구』 5집, 한국고전문학회, 1990.

고순희, 「〈合江亭歌〉의 작품세계와 역사적 성격」, 『비교한국학』 6집, 국제비교한국학회, 2000.

권내현, 「조선후기 지방사의 모색과 과제」, 『조선후기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창작과 비평사, 2000.

김남춘 외, 「외암리 민속마을의 취락경관과 외부공간구조에 관한 연구」, 『단국대 논문집』 30, 1996.

김대현, 「지역문학 연구에 대한 몇 가지 문제」, 『동방한문학』 21, 동방한문학회, 2001.

김동욱, 「〈關西別曲〉고이」, 『국어국문학』 30, 국어국문학회, 1965.

김석희, 「《魏門家帖》을 통해 본 조선후기 호남지방 향촌사족층 문학의 사회적 성격」, 『국어교육연구』 7집, 인하대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1995.

김성기, 「백광홍의 〈關西別曲〉과 紀行歌辭」, 『고시가연구』 14, 한국고시가학회, 2004.

김성우, 「조선시대 사족의 개념과 기원에 대한 검토」, 『조선후기사 연구

- 의 현황과 과제』, 창작과 비평사, 2000.
- 김성룡, 「고소설의 환상성」, 『고소설연구』 15집, 고소설학회, 2003.
- 김창원, 「18~19세기 향촌사족의 가문결속과 자아의 소통」, 『19세기 시가문학의 탐구』, 고려대학교 고전문학, 한문학연구회 편, 집문당, 1995.
- 김창원, 「지역문학 연구의 방법과 방향」, 『우리문학연구』 29집, 우리어문학회, 2007.
- 김창원, 「조선후기 近畿 지역 강호시가의 지역성」, 『시조학논총』 28집.
- 김현정, 「지역문학에 대한 소고- 소수자 문학과 관련하여」, 『경계와 소통, 지역문학의 현장』, 국학자료원, 2007.
- 민주식, 「풍경의 미학- 풍경미의 원리와 구조」, 『미학』 31집, 한국미학회, 2001.
- 박노준, 「시가연구 방법론 數題」, 『한국시가연구』 17집, 한국시가학회, 2005.
- 박수진, 「〈關西別曲〉에 나타난 공간인식」, 『동방학』 16, 한서대 동양고전연구소, 2009.
- _____, 「조선시대 天冠山의 공간인식 양상」, 『온지논총』 20, 온지학회, 2008.
- 박연호, 「원림문학의 공간의 위상과 문화교육적 의미」, 『한국시가연구』 17집, 한국시가학회, 2005.
- _____, 「중원의 누정문학- 괴산지역의 누정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33집, 고전문학회, 2007.
- 박일용, 「〈金塘別曲〉에 그려진 선유체험 양상과 그 의미」, 『한국기행문학 작품연구』, 국학자료원, 1996.
- 박종훈, 「白光弘의 시세계와 ‘仁’사상」, 『한국학논집』 38집, 한양대 한국학연구소, 2004.
- 박준규, 「한국의 누정고」, 『호남문화연구』 17호,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 1987.
- 박중렬, 「지방문학의 개념 범주와 연구방향」, 『고시가연구』 17집, 고시가학회, 2006.

- 박해영, 「문학과 공간: 이론적 접근1」, 『덕성여대 논문집』 25집, 1996.
- 손오규, 「山水文學에서 원림의 유형」, 『윤병로 교수 정년기념 국어국문학 논총』, 2001.
- 심혜자, 최기엽, 「전통촌락의 상징적 공간구조-충남 아산군 송악면 외암리를 사례로-」, 『응용지리』 16호, 1993.
- 안동준, 「지역문학의 뜻매김과 갈래체계」, 『배달말교육』 27호, 2006.
- 양영길, 「지역문학사 서술방법론」, 『영주어문』 3집, 영주어문학회, 2001.
- 여중철, 「취락구조와 신분구조」, 『한국의 사회와 문화』 2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 오영교, 「조선후기 동족마을의 구조와 운영: 강원 영서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담론 201』 6집, 한국사회역사학회, 2003.
- 윤덕진, 「歌辭 樣式의 다기화」, 『조선조 長歌 歌辭의 연원과 맥락』, 보고사, 2008.
- 윤석산, 「〈賞春曲〉 구조 연구」, 『고전문학연구』 13집, 고전문학회, 1998.
- 윤성근, 「〈合江亭歌〉 연구」, 『어문학』 18, 한국어문학회, 1968.
- 이도흙, 「서울의 사회문화적 공간과 그 재현양상 연구」, 『기호학연구』 25집, 한국기호학회, 2009.
- _____, 「마당: 열림과 닫힘의 세미오시스」, 『기호학연구』 27집, 한국기호학회, 2010.
- 이병기, 「〈關西別曲〉,〈關東別曲〉,〈關東續別曲〉의 형태적 고찰」, 『국어문학』 17, 전북대학교, 1975.
- 이상보, 「〈關西別曲〉 연구」, 『국어국문학』 26집, 국어국문학회, 1963.
- 이수건, 「양동의 역사적 고찰」, 『양좌동연구』, 영남대 인문과학연구소, 1990.
- 이연숙, 「양반마을의 문중의례와 종족의식-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예안이씨의 사례」, 『사회와 역사』 75권, 한국사회사학회, 2007.
- 이은숙, 「지리학과 문학의 만남」, 『문화역사지리』 4집,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1992.
- 이종출, 「〈合江亭船遊歌〉고」, 『어문학논집』 7, 조선대국어국문학회, 1966.

- _____, 「魏世寶의 <金塘別曲>고」, 『국어국문학』 34, 35합병호, 국어국문학회, 1967.
- _____, 「魏伯珪의 가사 <自悔歌>에 대하여」, 『사대논문집』 4, 조선대학교, 1973.
- _____, 「<勸學歌>, <關里歌>, <耕讀歌>, <獨樂歌>, <深樂歌>」, 『어문학논총』 7, 조선대학교 국어국문학연구회, 1966.
- _____, 「止止齋 李商啓의 가사고」, 『국어국문학』 33, 국어국문학회, 1966.
- _____, 「<草堂曲>과 <人日歌>」, 『맥』 8, 조선대 이부대학 학생회, 1968.
- 이주홍, 「<關西別曲>- 실전을 전해 오는 고전가사의 내용여하」, 『국어국문학』 13집, 국어국문학회, 1955.
- 이지영, 「기행가사 <金塘別曲>과 <天風歌>의 대비적 연구」, 『한국언어문학』 39집, 한국언어문학회, 1997.
- 이태문, 「조선조 紀行歌辭의 갈래론적 접근」, 『동양고전연구』 3집, 동양고전문학회, 1994.
- 이형대, 「18세기 전반의 농민현실과 壬癸嘆」, 『민족문학사연구』, 민족문학사학회, 2003.
- 이해준, 「조선후기 長興 傍村의 촌락문서」, 『변태섭 박사 화갑기념사학논총』, 1985.
- _____, 「조선중기의 호남사림과 임억령」, 『석천 임억령의 문학과 사상』, 광주광역시편, 1995.
- _____, 「조선후기 촌락구조변화의 배경」, 『한국문화』 14,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1993.
- 전일환, 「湖南詩壇의 詩歌文學」, 『고시가연구』 5집, 한국고시가문학회, 1998.
- 전정구, 「湖南지역 문학작품에 나타난 글쓰기의 특징」, 『현대문학이론연구』 26호, 현대문학이론학회, 2005.
- 정만조, 「朝鮮中後期 京畿北部地域의 士族變遷과 集姓村의 發達」, 『북악사론』 8, 북악사학회, 2001.
- 정 민, 「湖南의 학문전통과 한문학: 한문학 遊山 속에 기려진 無等山の

- 표상- 山水遊記를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21집, 한국한문학회, 1998.
- _____, 「기봉 백광홍의 人間과 文學世界」, 『한국학논집』 38집, 한양대 한국학연구소, 2004.
- 정익섭, 「16세기 湖南歌壇연구」, 『시조학논총』 제 3·4집, 1987.
- 정익섭, 「愚谷의 <長恨歌>고」, 『한국언어문학』 26집, 한국언어문학회, 1998.
- 조규익, 「교훈의 장르론적 의미와 교훈가사」, 『고시가연구』 23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9.
- 조동일, 「文學地理學을 위한 출발선상의 토론」, 『한국문학연구』 27권,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2004.
- 최상은, 「18세기 시가의 정서와 현실인식 지향」, 『반교어문연구』 24집, 반교어문학회, 2008.
- 최영희, 「전기 風流歌辭의 유형연구」, 『한국언어문학』 37집, 한국언어문학회, 1996.
- 최재남, 「16~17세기 향촌사림의 시가문학- 문화생활공간의 미학을 중심으로」, 『한국시가연구』 9집, 한국시가학회, 2001.

□ ABSTRACT

A study on the cultural geography about gasa(歌辭)
of Janghung(長興) region

Park, sujin

Dep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Hanyang University

Directed by Prof. Lee, Doheum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recognized the themes about gasa(歌辭) of Janghung(長興) region. Through out this themes, I knew the image and conversation by cultural geographic method. I considered that it wasn't geographical position, extensity about gasa is Janghung region. So I divided into three types which the subject, Gasa text, Space. This was expressed that 'Literature' was able to construe as 'Culture'.

Geographically, 'Janghung(長興)' was a long way off Seoul. And this is existed due the south. There was got put together the land and the sea. Because there was full resources. A beautiful resources of this sorts were made progress gasa that had nature, elegance at 16th century. And there were composed the same blood group. It is called 'Bangchon(傍村)'. For the reason, this village came from social transition. That's this space had geographical trait which distant between 'Seoul' and 'Janghung'. Because, this people felt that they was left out of the group neglected by the central influence. The literature of Janghung is a regional literature. Contrary to a general idea that previous area

literature, it was appeared to grow that be the same as a centralized literature. The area literature keep at a distance. The area literature argued a centralized literature together and it still more.

I divided the theme about gasa of Janghung region into four types. At the first, This space expressed beautiful nature though scenic beauty about landscape and sightseeing. The second, this space expressed the country yangban group consciousness though presentation about confucian morals. Besides a government official employee through the country yangban's eye considered critical consciousness about irrational government official employee. For the last time, this work emphasized that be content amid poverty and take delight in the Taoist Way which the country yangban's peculiarity.

It became known the space about gasa of Janghung region, it classified into a period. In the 16~17th century, this space was appeared experience which a beautiful landscape at Janghung. In the 18th century, the space was appeared critical consciousness and which be conscious sensible of space the country yangban. In addition, the early part in the 19th century, this space was a complex concept which living space of the country yangban. It is made of works through diverse the subject at Janghung. Of course, I read at some work, I can't concluded to speak about space. But there is space of experience at Janghung that looked landscape for the country yangban and there was space of instruction that looked out Confucian morals. Moreover, there was space of composition that included everything at 19century.

Also, though the subjects, I symbolized cultural geographical symbol at Janghung gasa. I considered a statement of Janghung connected with the subjects. The frist is 'a grade of the center and the circumference'. The second is 'A actuality of the ambition'. The third is 'A space of ostentation'.

The thematic peculiarity and cultural geographical image didn't interpret literary works. On the basis of the subject, the purpose, the act, I discussed that proved some image. With text, I narrated that spring up cultural appearance at Janghung. This work is necessary at area studies. Janghung as well as various area, this way is in need to show the subject, the object, the act.

According to a function, I divided into the subject, the power, the act, the purpose, the image system and the time at Janghung gasa. These are inseparably related to each other that the subject, the power, the act, the purpose, the image system and the time. So, the subject changed the act according to the power, the subject is made the power according the act. These are made the purpose and the image system unlike each other.

'Literature' is one and the same kind which displayed 'Culture'. We must study literature to know 'Culture'. So, I choose gasa(歌辭) which a kind of literature in the Choson dynasty. because I was discovered cultural geography in the works. This is the one of the way appeared culture. So, I was found though cultural geography. Jangung, There is a small space with culture, there is many works beginning with gasa of a traveler's journal. After that time, This gasa make felt influence in the gasa of instruction by the same blood, the gasa of comment from reality, Janghung is small village. but, there was made connection by the subject, the power, the space.

Key word: Janghung gasa, Area literature, Cultural geography, Space, The country yangban, A system of image.